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MAY 1991

“스치로폴은
단열재의 생명
내수성이 가장 뛰어



임 규 *김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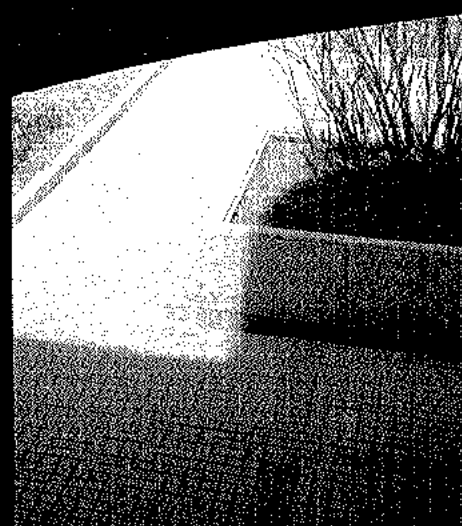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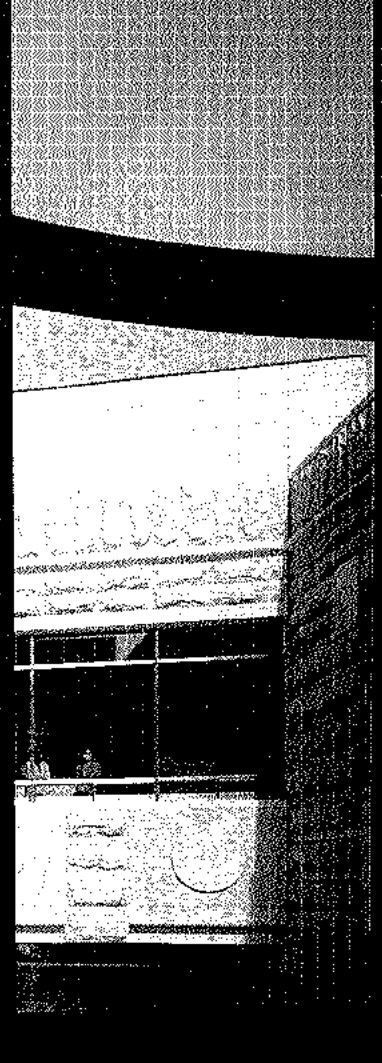
지만
결재로만 쓰입니다
발포성 폴리스티렌
단열효과가 오랫동안
있습니다.
꼭 청색을 확인
시원한 쾌적환경에서

강합니다/
되면 단열효과가 떨어
야 합니다. (물 1%
청색스치로폴은 물을
투투로 하는 반영구적 단

은 압축강도가 뛰어
압축강도 또한 설계적
가 높은 한남화학 청색스
이 요구되는 단열사용

이 스스로 꺼집니다
시험에 합격한 한남화학
붙었다가도 화원만 제
자기소화성 단열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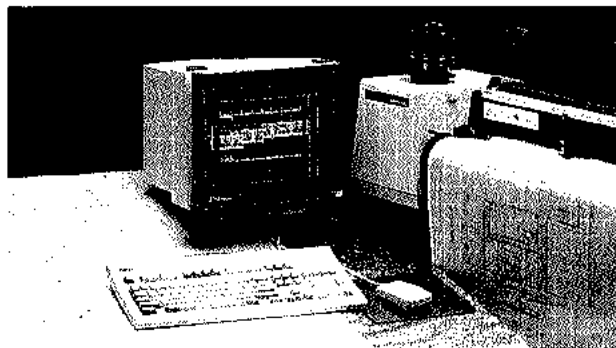
89
품질관리대상 수상



5
MAY

건축과 컴퓨터의 이상적인 만남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건축의 전문지식과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축 CAD 전문회사로 출발한 건캐드시스템은 건축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경제적인 CAD 시스템과 효율적인 활용기술을 제공하여 실질적 이익과 만족을 드립니다.



◉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건축 CAD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에 적합한 기종에서 활용까지 제반사항을 자세하고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도입비용이 걱정인데...

저가격, 고성능의 신뢰성이 있는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여 귀사의 실정에 맞는 CAD 장비를 경제적,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합니다.

◉ 애프터서비스가 중요하다는데...

만약 시스템이 이상이 있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며 신속하고 완벽하게 A/S해 드립니다.

◉ CAD 교육은 제대로 해주는지...

건축 CAD 실무자 출신으로 구성된 CAD 교육팀이 기초부터 고급활용까지 실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실히 가르쳐 드립니다.

◉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최신 CAD 활용기술과 CAD 데이터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시로 활용사항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건축 CAD 활용을 추구합니다.

◉ 운영요원이 필요한데...

건축 CAD 활용을 위한 우수한 운영요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 설계업무를 부탁하고 싶은데...

귀사의 설계업무를 건캐드시스템의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신속 정확히 처리해 드립니다.

할인판매

건축 CAD 지원용 소프트웨어인 CAD POWER Ver 4.0 개발에 따른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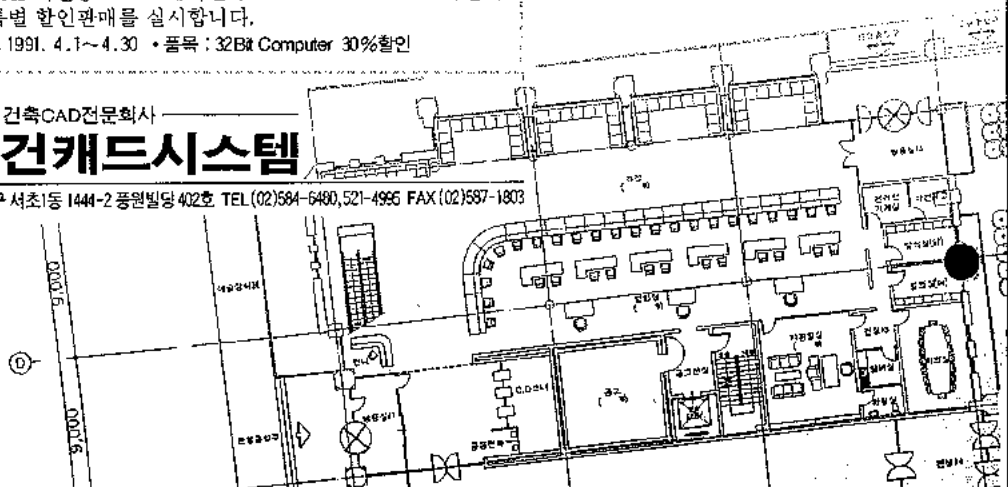
• 기간 : 1991. 4.1 ~ 4.30 • 품목 : 32Bit Computer 30% 할인



건축CAD전문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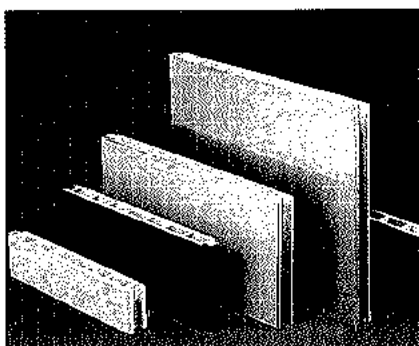
건캐드시스템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44-2 동원빌딩 402호 TEL (02)584-6480, 521-4996 FAX (02)587-1803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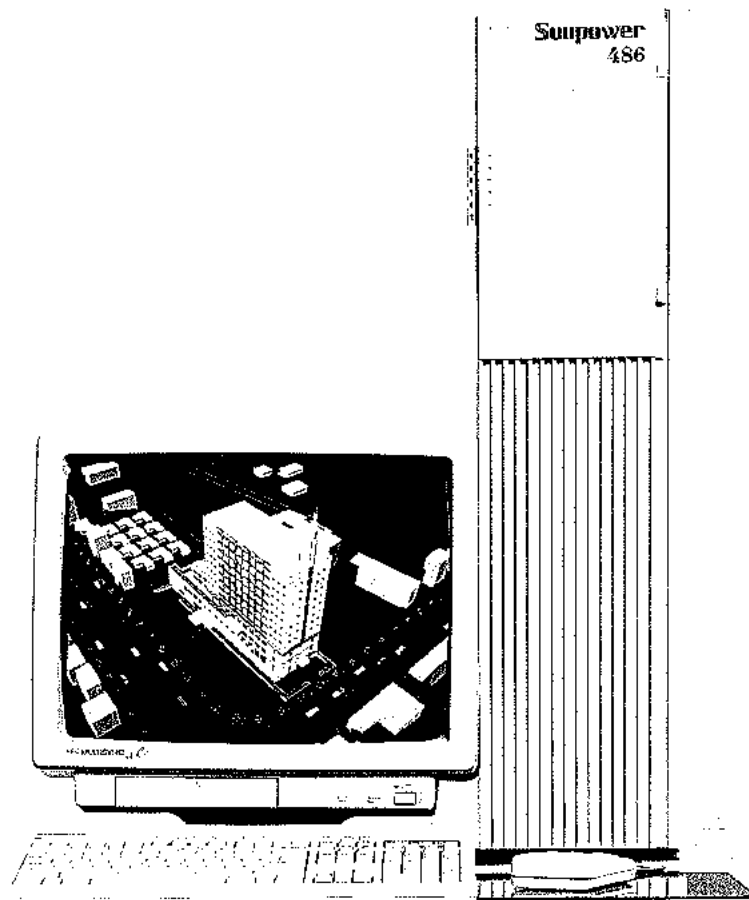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웅도/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치운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가·격·혁·명 품·질·혁·명 A/S·혁·명

AutoCAD TURN-KEY

미국 AutoDesk社에서 1982년에 발표하여 전세계적으로 각분야에 걸쳐
가장 많이 보급되어진 AutoCAD는 3-D, 드로잉, 편집기능을 강화시킨

Rel 11.을 90년 1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서통AI사업부에서는 CAD의 사용에 적합하게 설계된 썬파워
컴퓨터에 연필 사용이 가능한 MUTOH 플로터, 칼라모니터의 대명사

NEC Multisync 등을 통합한 Turn Key System을 보급합니다.

H/W와 S/W를 기술력있는 업체에서 일괄구매하는 방식은 비용절감은 물론
교육 A/S 등의 모든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수 있는 시스템 구매방식입니다.

■ 대한건축사협회부설 CAD 교육연구소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운영 : 서통 AI사업부 교육팀
문의 : 521-7296, 581-5711

■ 교육과정 및 일정

- 실무과정, 연구과정, 경영자 과정의
3단계로 각과정 1주일 완성입니다.



Page 교육안내 참조

Software의 구매시에는 License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불법 copy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물론 법적 보호를 받을
없습니다.

* 건축사협회 부설 CAD 교육 연구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는
시스템구매시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AutoCAD TURN-KEY SYSTEM

1. 286 Turn-key System

제품구분	소비자가
컴퓨터 286-PC	2,600,000원
CPU 20MHz	
처리속도 27MHz	
HDD 40MB	
MEM 1MB (80ns)	
5.25" FDD×1	
MS-DOS Ver.4.0	
MOUSE	
80287 12MHz	300,000원
AutoCAD Rel.10	2,800,000원
MONITOR-NEC 2A	680,000원
Polarizer 보안기	
Plotter iP-210	1,180,000원
Graphic card AutoPACK	880,000원
Apogee 2048×2048 Resolution	
합계 금액	8,440,000원

20% OFF

●구제시 선택사항

교체품목	추가부담액
HDD 100MB로	500,000원
중심	
MEM 1MB당	50,000원
Monitor 3D (14")	100,000원
4D (16")	650,000원
XL (20")	1,750,000원
5D (20")	1,400,000원
Plotter iP-530E	2,775,000원
iP-530EL	4,055,000원
F-920E	6,216,000원
Digitizer KUTRA	464,000원

2명 AutoCAD 교육지원
6,752,000원

2. 386 Turn-key System

제품구분	소비자가
컴퓨터 386-Super	6,750,000원
CPU 33MHz	
처리속도 59MHz	
HDD 100MB	
MEM 4MB (80ns)	
5.25" FDD×1	
3.5" FDD×1	
MS-DOS Ver.4.0	
MOUSE	
80387-33MHz	800,000원
AutoCAD Rel.11	3,200,000원
MONITOR-NEC 4D	1,000,000원
Polarizer 보안기	
Plotter iP-530E	4,650,000원
Graphic card AutoPACK	880,000원
Apogee 2048×2048 Resolution	
Suppower UPS	400,000원
합계 금액	18,280,000원

20% OFF

●구제시 선택사항

교체품목	추가부담액
HDD 200MB로	750,000원
중심	
MEM 1MB당	50,000원
Monitor XL (20")	450,000원
5D (20")	800,000원
Plotter iP-530EL	1,280,000원
F-920E	3,340,000원
VMI Graphic Board	
COBRA Plus	1,800,000원
3BI-HS	
X-Series	1,800,000원
16Color	
X-Series	2,450,000원
256Color	
(한글카드 포함)	2,450,000원
Digitizer KUTRA	464,000원

2명 AutoCAD 교육지원
14,624,000원

3. 486 Turn-key System

제품구분	소비자가
컴퓨터 486	9,400,000원
CPU 25MHz	
처리속도 117MHz	
HDD 200MB	
MEM 4MB (80ns)	
5.25" FDD×1	
3.5" FDD×1	
Co-Processor	
MS-DOS Ver.4.0	
MOUSE	
Word Processor (Sunword)	
AutoCAD Rel.11	3,200,000원
MONITOR-NEC XL	2,300,000원
Polarizer 보안기	
Plotter iP-530E	4,650,000원
Graphic card COBRA Plus	2,500,000원
3BI-HS	
1024×768	
256Color	
Suppower UPS	400,000원
합계 금액	22,450,000원

20% OFF

●구제시 선택사항

제품구분	추가부담액
HDD 400MB로	1,350,000원
중심	
MEM 1MB당	60,000원
Monitor 5D (20")	400,000원
Plotter iP-530EL	1,280,000원
F-920E	3,440,000원
VMI Graphic Board	
X-Series	무상
16Color	
X-Series	650,000원
256Color	
Digitizer KUTRA	464,000원

2명 AutoCAD 교육지원
17,964,000원

무상 A/S 15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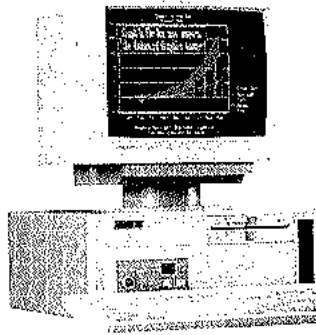
●Option 사양

제품명	소비자가	Specification
SUN-Laser	3,500,000원	AL 8400 300DPI 11PPM
SUNSPOT-300	1,280,000원	320CPS 136Column 24Pin 한글-한글/조합형
5.25" FDD	85,000원	1.2Mbyte PANASONIC
3.5" FDD	90,000원	1.44Mbyte TEAC
SUNWORD	75,000원	한글, 영문, 일어 Word-Processor
SUNSHEET	180,000원	3자원 도형판서 가능한 한글형
SUNSALE	950,000원	배경은 색환수용 판라용 S/W
SUNCOMM	200,000원	VAX와 PC간의 Emulator S/W

* [Turn-key System과 동시 구매시는 소비자가의 20% OFF]

●Specification

제품구분	MODEL-NO	SPEC.	MAKER
Monitor	2 A Multisync 3 D Multisync 4 D Multisync XL Multisync 5 D Multisync	800×600 Resolution 1024×768 Resolution 1024×768 Resolution 1024×768 Resolution 1280×1024 Resolution	NEC
Graphic Board	COBRA-Plus 3BI-HS X-Series 16 Color X-Series 256 Color	1024×768 256 Color 1280×1024 16 Color 1280×1024 256 Color VGA mode	Vermont Microsystem Inc.
	AutoPACK Apogee	2048×2048 256 Color VGA mode	Grabert
Plotter (PEN+PENCIL)	iP-210 iP-530E iP-530EL F-920 F-920ER	A3-A4 70mm/sec A1-A4 70mm/sec A0-A4 70mm/sec A0-A4 113mm/sec A0-A4 Roll 113mm/sec	MUTOH
U.P.S	Suppower-UPS	500WATT 7평전 전원차단	SUNPOWER
Digitizer	IS/ONE	12"×12"	KURTA



* 상기단가는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임.



서통 이사업부 5140-386

■교육장/전시장/A/S Center

서울·강남구 논현동 6-21 TEL : 514-0386

• 교육장 : 대한건축사협회 1층 TEL : 521-7296

부산·중구 대창동 32-4 태창캐드팩스 TEL : 464-6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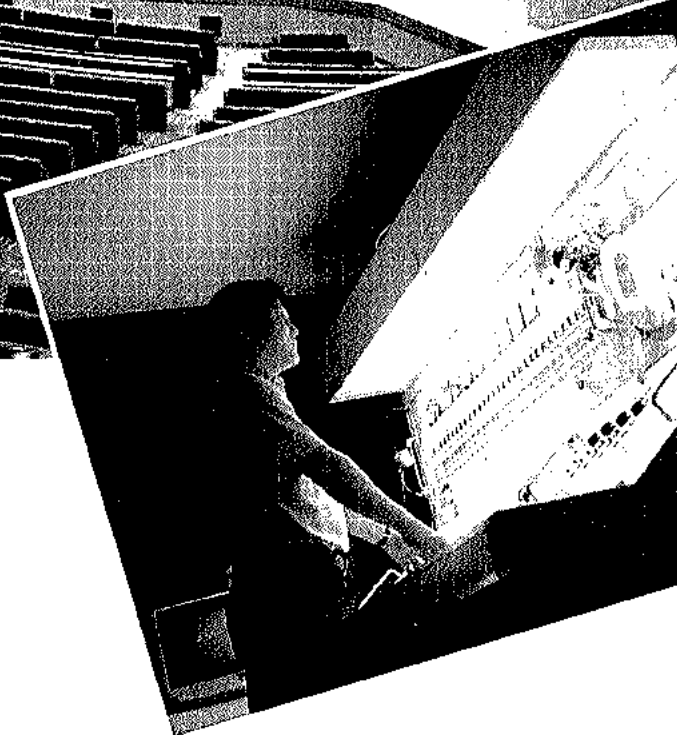
대구·중구 동인동 3가 271-17 TEL : 421-2856

저가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세종문화회관
- ◉ 국립극장
- ◉ 웨라톤위커킬
- ◉ 롯데호텔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이화여대강당
- ◉ 유원순기념관
- ◉ 종현교회 본당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 서울·제주 신라호텔
-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재동센타 예술극장
- ◉ 육군박물관
- ◉ 대전시민회관
- ◉ 부곡하와이 등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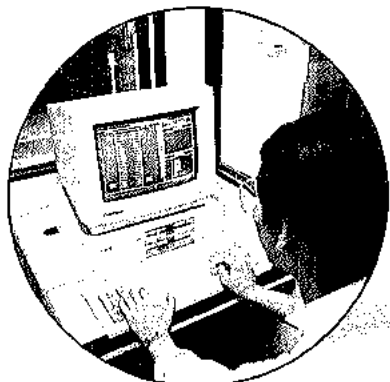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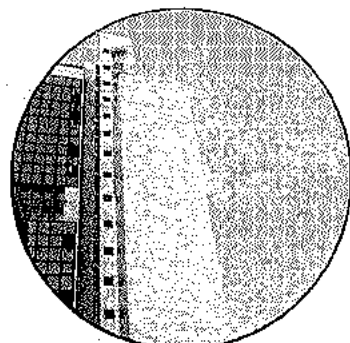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車面 山 209-1 松蔭里 山 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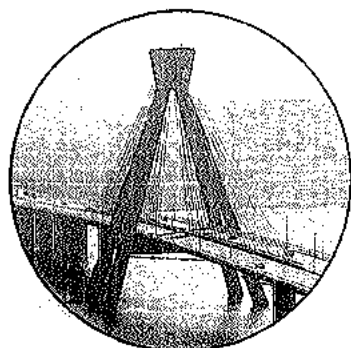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 한국일보사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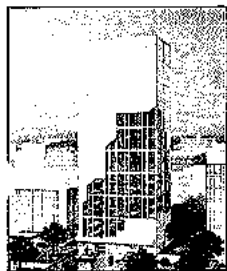


• 서울·올림픽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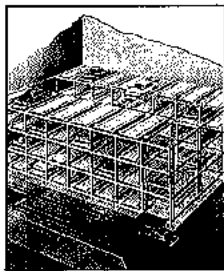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관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OP-A연립형



YOP-M형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핑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유원건설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가장 비싼 창문



가격만으로 비교해 보신다면 이진창호는 비싼 창문입니다.

그러나 이진창호는 차음, 단열, 환기, 방범 등의
완벽한 기능들과 최고의 품격을 갖춘 놀라운 창문이기에
써보신 분들은 모두가 오히려
가장 경제적인 창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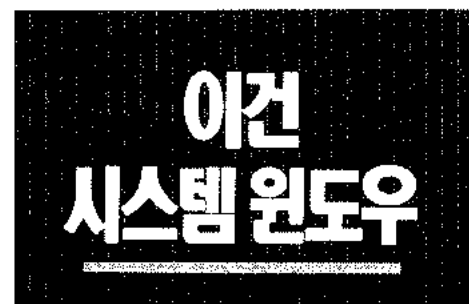
독일식 명품창문 이진창호,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아파트/빌라 시공사례 (356 건)

-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UN빌라지/임구정동 현대 아파트 RENOVATION 공사
- 대림산업 부산 신라이프빌라/화인이트빌라 • 한국건설 미포 벽산빌라
- 풀림산업 구기동 풀림빌라 • 대림산업 고덕동 고덕빌라
- E 대학교 관사 • D 학원재단 관사 • 포항제철 영빈관 • 기타 주택

■ 오피스/빌딩/휴양시설 시공사례 (37 건)

- 구기동 경영빌딩 • 명동 청정빌딩 • 삼성동 신도빌딩 • 도곡동 그룹조형사옥
- 연성동 인텍스 사옥 • 삼성동 디자인 포커스 사옥 • 국제콘텐트웍스 사옥
- 당산동 천주교 성체대회기념관 • 구기동 인왕빌딩 • 안양 (주)농심 공장 • 영국대사관
- 제주도 신라호텔 • 속초 삼성콘도미니엄



- 서울사무소/전시장 전화 : (02)563-2071 FAX : (02)563-5528
- 논현동 전시장 전화 : (02)540-2071 FAX : (02)540-2080
- 부산전시장 전화 : (051)557-2071 FAX : (051)557-2077
- 제주전시장 전화 : (064)41-4100 FAX : (064)42-3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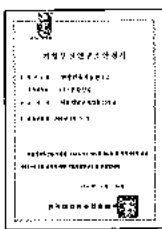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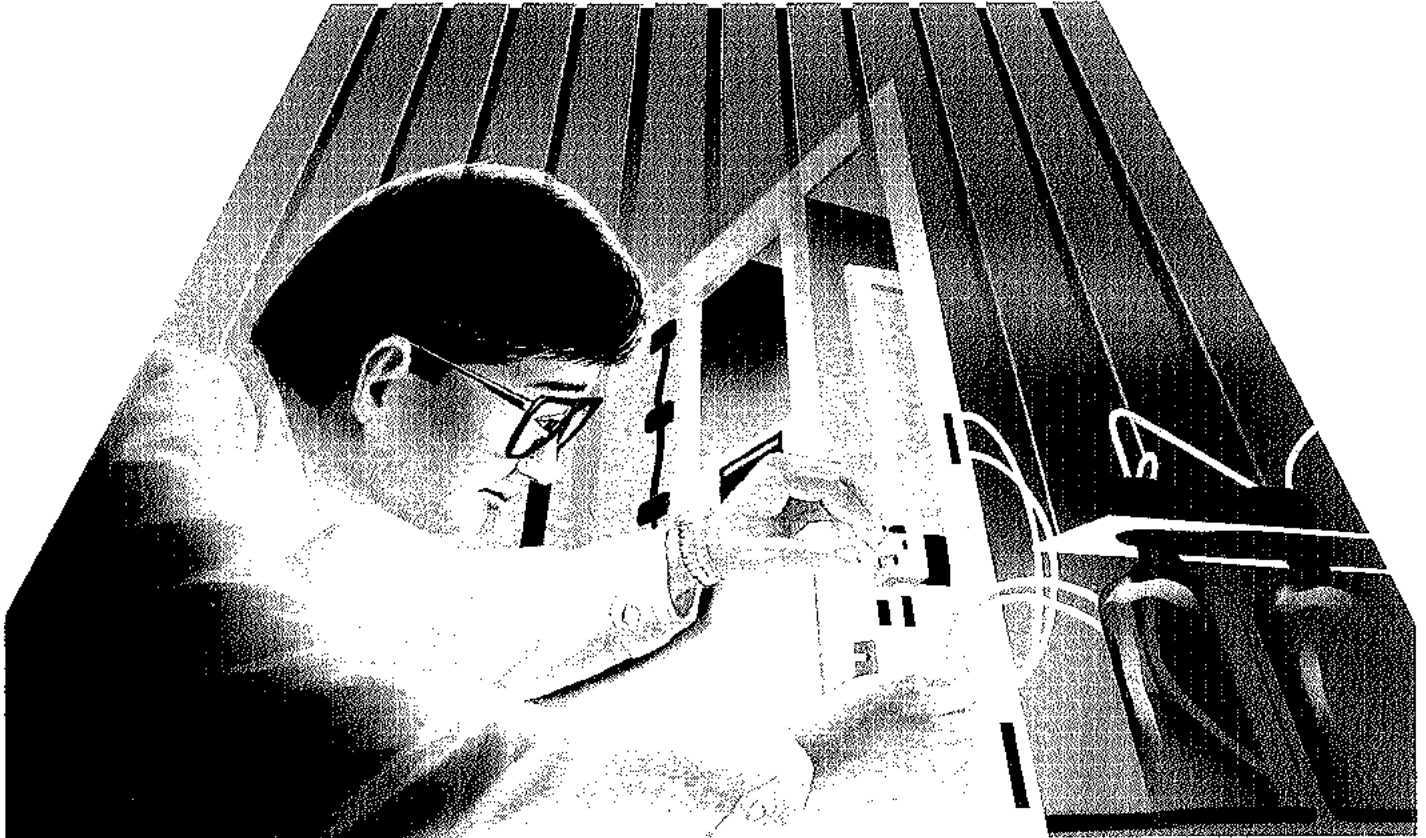
이진창호



이진산업주식회사 . 이진자원 개발주식회사 . EAGON FOREST PRODUCT INC.

첨단 건축자재의 개발을 위해
파넬업계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연합인슈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911001호

**보다 효율적인 건축을 위해, 보다 완벽한 공간
창조를 위해, 연합인슈는 늘 앞서갑니다.**

다양한 제품군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1983년 설립 이래, 줄곧
파넬업계를 선도해온 연합인슈 —

연합인슈는 업계 최초의 KS마크 획득과 기업공개에 이어
또다시 파넬업계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소재의 개발과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미래 첨단건축문화를
열어가는 연합인슈 기술연구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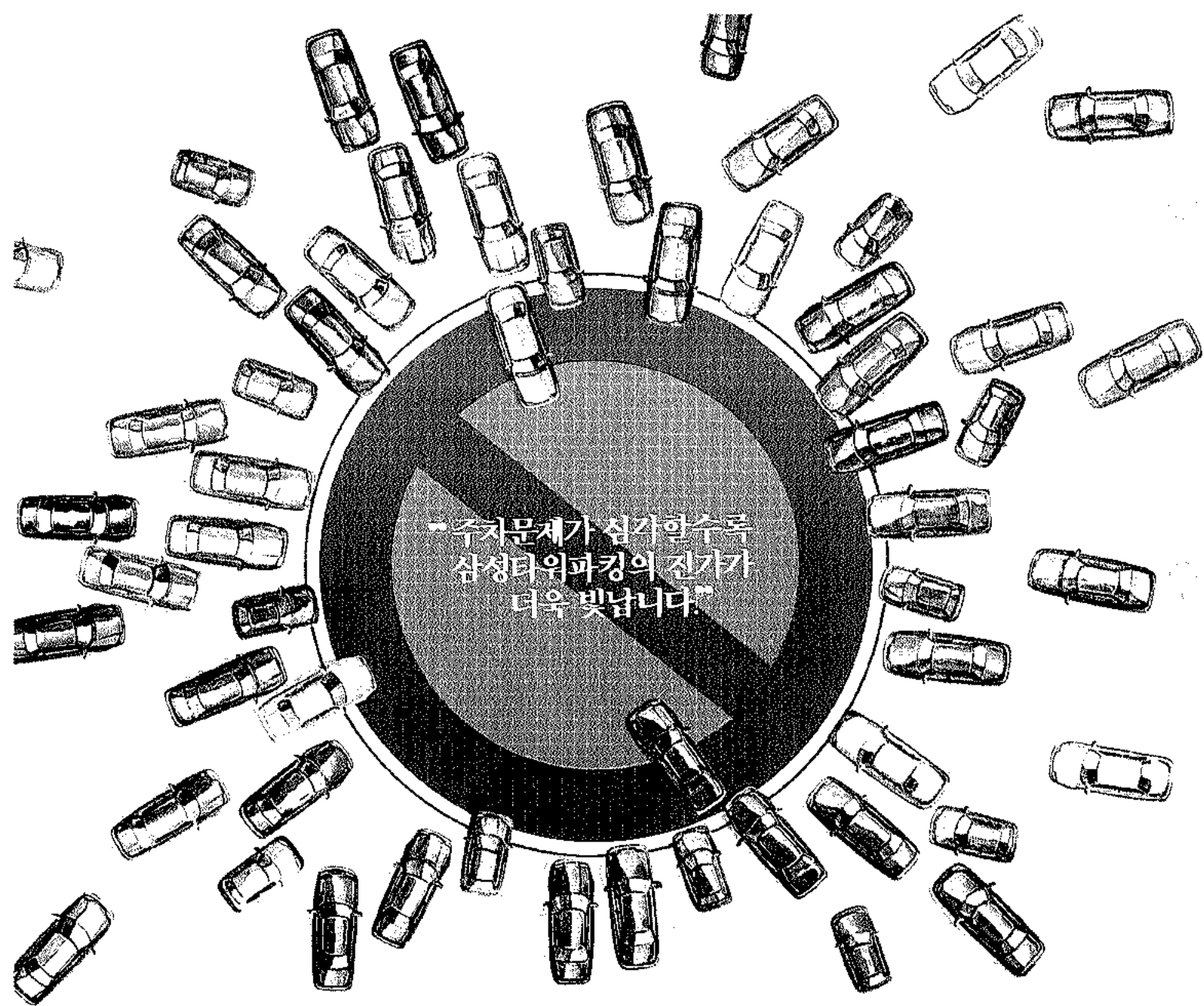
보다 효율적인 건축을 위해, 보다 완벽한 공간창조를 위해,
연합인슈는 늘 앞서갑니다.



주식회사 **연합인슈**



본사및공장 :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립리 39-2
TEL : (02) 745-0687, (0336) 32-4635-6 FAX : (0336) 32-4243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02) 555-6891, FAX : (02) 553-1651
부산사무소 : TEL : (051) 462-9554, 465-7038
대구사무소 : TEL : (053) 53-4543, 556-9860
광주사무소 : TEL : (062) 524-9779, 527-7144



삼성타워파킹

국내 처음으로 초고속형, 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타워파킹 개발!

일찌기 15년전, 국내에 입체주차장을 처음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도시 주차난 해결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급기종

- 수직순환방식 : 초고속형, 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 엘리베이터방식
- 다층순환방식 ● 2,3단 주차설비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본 사 : (02)728-6431 ~ 3 FAX: (02)728-6214, 756-9358
 창원공장 : (055)160-6382 ~ 3 FAX: (055)160-6767
 부산지점 : (051)807-6814 FAX: (051)862-5375
 대구지점 : (053)254-3004 ~ 5 FAX: (053)23-9244
 광주지점 : (062)224-2174 FAX: (062)224-2173
 대전지점 : (042)253-2252 ~ 3 FAX: (042)253-3968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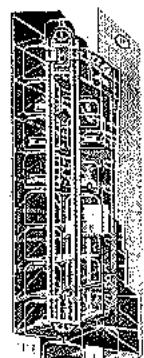
수직순환방식 :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상자 (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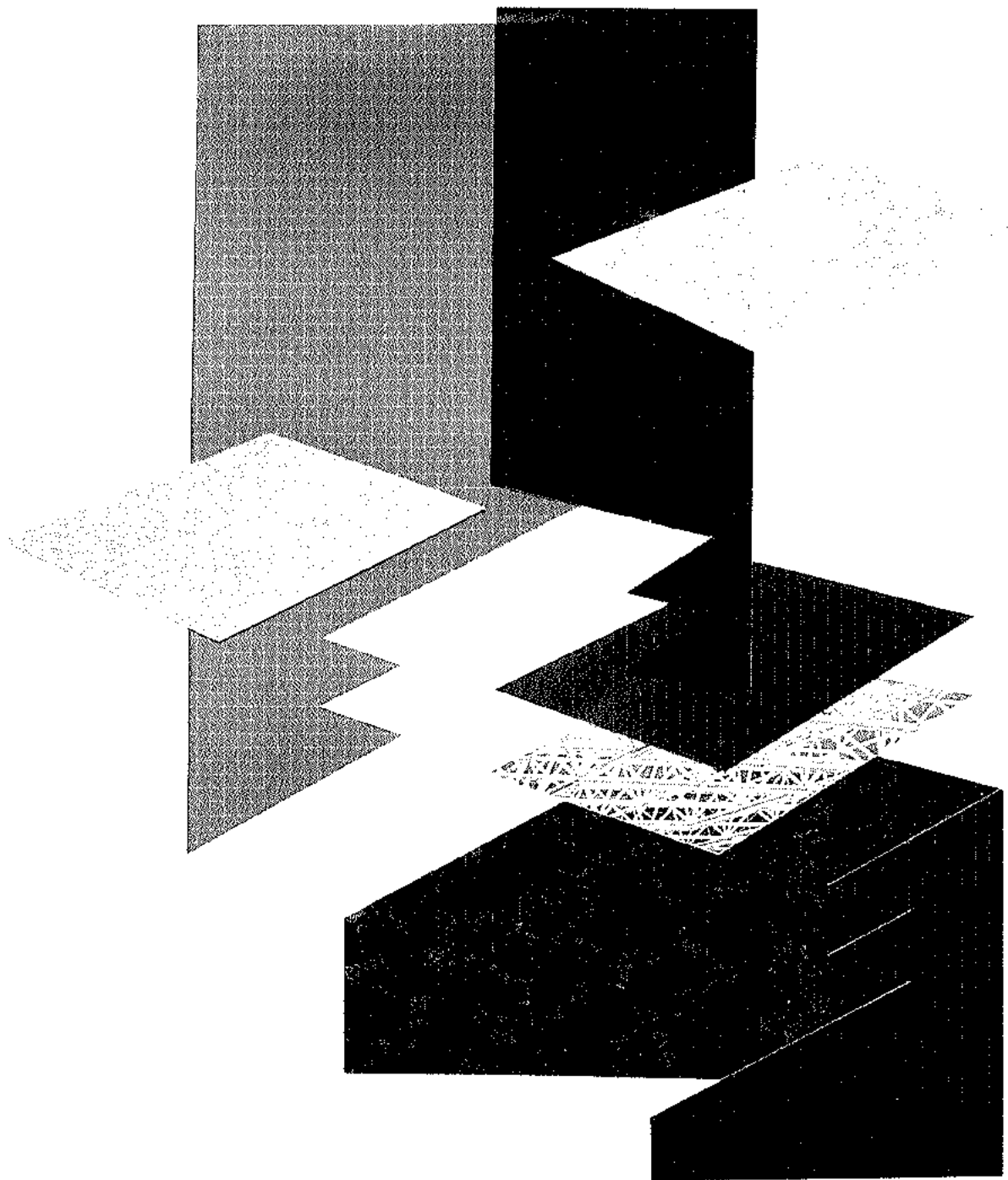
엘리베이터방식 :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1. 초고속형 : 입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2. 턴테이블내장형 : Cage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3. 이중탑재형 : 파레트 하나에 2대를 주차





1991.5.8.~1991.5.12.

'91 全國建築士大會

주제 : 21세기를 위한 건축

장소 : 을지로문화관 대 학도당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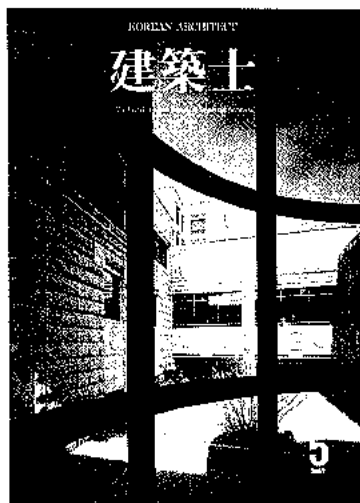
기간 : 1991년 5월 7일(수) ~ 4일(목)

●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 후원 : 건설부



차례/1991년 5월호 통권 제265호

會員作品	단국대(천안) 율곡기념도서관 / 金正湜+崔泰容	14
	한밭도서관 / 張錫雄	18
	돌로 지은 자연 속의 집 / 姜聲益	22
	성북동 K씨댁 / 吳基守	25
	경신빌딩 / 金洛中	28
나의 스케치	水産科學館 계획안 / 林長烈	30
建築 스케치	故 如泉 김중업선생 3주기를 맞이하여 / 郭在煥	32
論壇	21세기를 위한 도약 / 李義求	35
일하며 생각하며	상식 속의 몰상식 / 金自浩	39
建築批評	'91한국건축전 수상작에 대하여 / 李範宰	38
研究	日本史 속의 건물과 도시 / 趙仁淑	46
	한국의 전통건축(33) 朝鮮時代의 建築 / 張慶浩	50
	建築構造物 스파의 長大化 / 金鍾洛+李鶴洙	60
	오사카 근작 프로젝트 / 金文德	64
	인텔리전트빌딩 設計에 관한 一般事項 / 設備分科委員會	76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8) / 裴元泰	84
隨 想	의·식·주와 民度 / 朱命錄	88
資料	1991년 3월분 도서신고현황	92
新入會員		94
協會消息		96



표지: 金正湜+崔泰容作
「단국대(천안) 율곡기념도서관」

發行人: 吳雲東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義求

委員: 徐千植, 姜哲求, 金煥起, 崔英集,
吳元根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1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Eun-Koo

Member: Suh Chun-Ski/Kang, Chul-Koo/
Kim, Hwan-Kee/Choi, Young-Jeep/Oh Won-Keun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FAX: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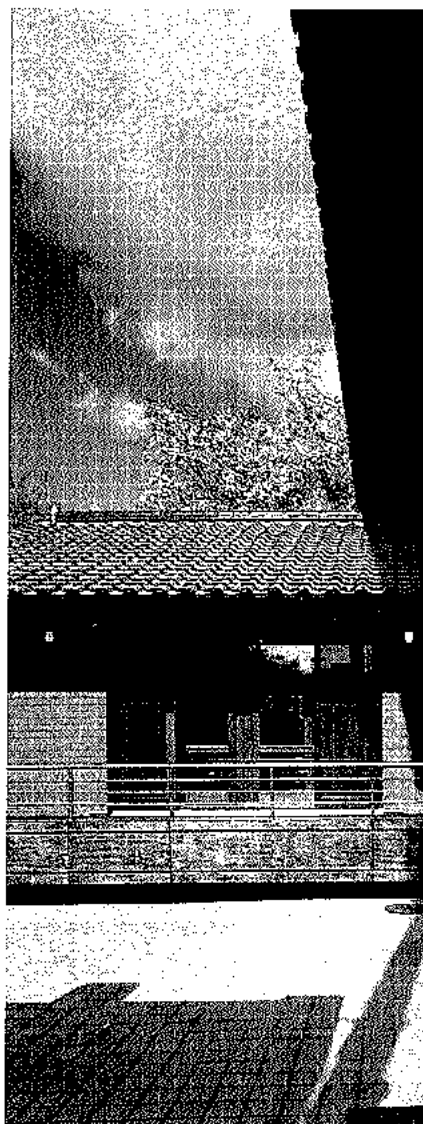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 (Cheong Moon Printing Co.)

WORKS	YoolKok Memorial Library in Dankook University Cheonan Campus / Kim, Jung-Sik & Choi, Tae-Yong	14
	Hanbat Library, Taejeon / Jang, Suk-Woong	18
	Stony Housing / Kang, Sung-Ik	22
	Songbuk-dong Residence / Oh, Ki-Soo	25
	Kyungsin Building / Kim, Nak-Joong	28
SKETCH	Fisheries Experiment Station Planning / Lim, Jang-Lyul	30
	Cherishing the Memory of the Late Kim, Choong-Up Beloved Teacher / Kwak, Jae-Hwan	32
FOCUS	A Spring Carriage for the 21st Century Architecture / Lee, Eui-Koo	35
ESSAY	Lack of Sense in the Common Sense / Kim, Ja-Ho	36
CRITICISM	The Winners' of the Exhibition of Korean Contemporary Architecture / Lee, Bum-Jae	38
REPORT	Building and Cities in Japanese History / Cho, In-Souk	46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 Chang, Kyung-Ho	50
	Look Forward to the Long-span Beam on Bulding Structures / Kim, Jong-Rak & Lee, Har-Soo	60
	New Project in Osaka / Kim, Moon-Duck	64
	A Basic Study for Intelligent Building	76
	Tour of Mesopotamia Architecture / Bae, Won-Tae	84
FEATURE	Garments, Meals, Residing and the Standard of People / Joo, Myung-Nok	88
MATERIALS		92
NEWLY ADMITTED MEMBER		94
KIRA NEWS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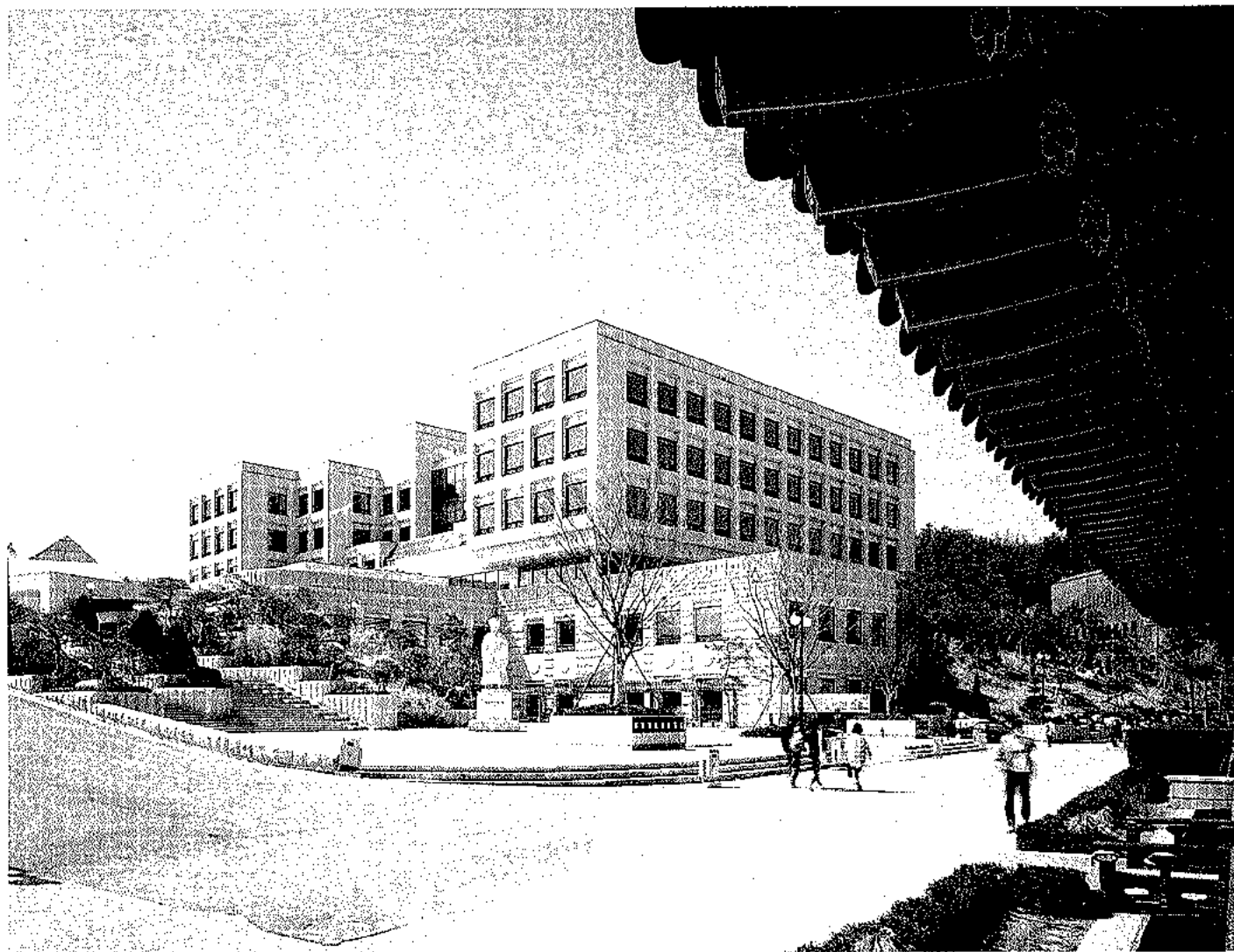


전국시도지부 및 건축상답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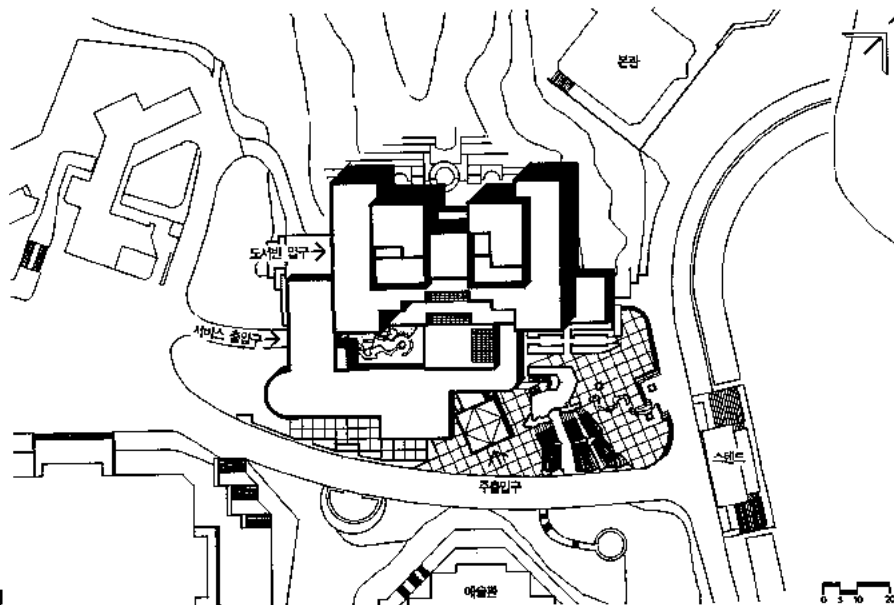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지부/서울특별시건축가협회 1603-55, 581-5715-8. 서대문분소/서대문구문화회동 169-25, 333-6411. 관악분소/관악구신림동 1422-17, 882-6744. 도봉분소/도봉구수유동 191-13, 903-3425. 영등포분소/영등포구당산3가181, 634-2143.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 317-4, 484-6840.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 1105-05, 604-7168. 성동분소/성동구구로동 252-15, 446-5244.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설동 101-7, 923-6313. 종로분소/종로구청전동 201-1, 738-5416. 마포분소/마포구성산동 275-1, 333-5251. 송파분소/송파구송파50-12, 423-9158. 중구분소/중구로2가49-11, 279-1415. 용산분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서초분소/서초구서초1동1623-1, 587-9760. 은평분소/은평구녹번동 79-32, 352-6720. 동작분소/동작구사당동 206-6, 815-3026. 강남분소/강남구논현동 241-6, 511-8515. 노원분소/노원구상계1동 1049-79, 902-8076. 양천분소/양천구신정동 1027-9, 646-7172. 중랑분소/중랑구년동 166-46, 436-0687. 성북분소/성북구삼선5가410, 923-4401. 구로분소/구로구구로동 86-4, 853-4084.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동명동 1711(부산대파트네)(051)246-6284-7.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 3711-8, (053)753-8980-5.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간곡동 56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중합빌딩204호).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 694-10, (062)521-0025-6(FAX)528-0026. 대전직할시지부/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 437-1, (042)254-2441.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 371124-5, (031)47-6129-31. 직할분소/경기도수원시매산로 3711-8, (031)42-6490, 7072. 안양분소/안양시안양6동 523-5, (0343)49-2698. 부천분소/부천시중구원미동 88-1, (032)664-1554. 성남분소/성남시수정구태평동 3107, (0342)755-5445. 의정부분소/의정부시외경부동 182, (031)12-1082. 송탄분소/송탄시서정동 343-22, (0333)14-6153. 고양분소/고양시원당읍주교리38블럭16호, (0344)63-8902. 구리분소/구리시수택동 409-2, (0346)63-2337. 이천분소/이천군이천읍동리192-1, (0336)633-6545. 광명분소/광명시철산동 464-7, 682-2575. 안산분소/안산시고잔동 536-1, (0345)80-9130.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목련동 39-5, (0361)54-2442. 원주분소/원주시일산동 206, (0371)42-3257. 강릉분소/강릉시상대동 6-14(0391)2-2262. 속초분소/속초시명동 466-33, (0392)33-5081. 삼척분소/삼척시남양동 55-43, (0397)12-3106. 영월분소/영월군영월읍영동리1960-12, (0372)43-2895.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37187-3, (0431)56-2752, 53-7342. 충주분소/충주시역전동 673-1, (0441)847-3082. 제천분소/제천시외동 8-8, (0443)43-6253. 옥천분소/옥천군옥천읍삼양동 222-206, (0475)133-3502.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 487-1, (042)256-4088. 천안분소/천안시문화동 160-1, (0417)551-4551.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오련리239-1, (0451)32-2853. 부여분소/부여군부여읍동리208-1, (0463)12-2271. 대전분소/대전시대전동 197-10, (0452)34-3367.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 568-116(전원빌딩6층), (0562)87-6007. 이라분소/이리시남동 1가77-21, (0553)52-3796. 군산분소/군산시신창동 35-4, (0554)445-4059. 남원분소/남원시하정동 106-2, (0671)31-1000.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구화정동 783-23(후선화면)(062)364-7567, 33-9944. 목포분소/목포시대안1동1, (0631)43-3348. 순천분소/순천시장천동 51-11(0661)3-2457. 여수분소/여수시관문동 441번지, (0652)64-7023.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가265번지, (053)425-4904. 포항분소/포항시죽도동 43-22, (0562)44-9029. 경주분소/경주시노동동 42-21(0561)3-3638. 구미분소/구미시원평동 964-264, (0546)52-6351. 안동분소/안동시서부동 157-4, (0571)54-5703. 김천분소/김천시명화동 280-1, (0547)12-2541. 영주분소/영주시류현2동 642-52, (0572)33-7504. 김천분소/김천시중앙동 280-3, (0581)12-2706. 상주분소/상주시남성동 96-23, (0582)12-4306.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73-47, (0551)46-4530-1. 울산분소/울산시남구신정동 585-6, (0552)74-8836. 진주분소/진주시본성동 7-20, (0591)41-6403. 충무분소/충무시시호동 163-18, (0557)43-3577. 김해분소/김해시부원동 24B-10L, (0525)2-6114. 밀양분소/밀양시삼문동 184-108, (0527)53-2110.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중앙리 274-3, (0598)12-7080. 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 522-4, (0523)84-9250. 거제분소/거제군신현읍고현리 139-2, (0558)635-3432. 삼천포분소/삼천포시동문동 91-6(0593)33-9779.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도1동 1289-6, (064)22-3248, 52-3248.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동 209-6, (064)32-7777.

단국대(천안) 율곡기념도서관

YoolKok Memorial Library in Dankook University Cheonan Cam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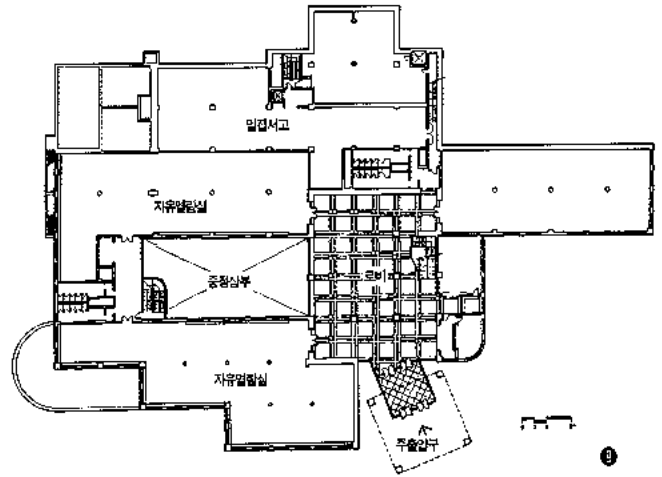
대지위치/충남 천안시 안서동 단국대 캠퍼스내
건축면적/16,402㎡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 마감/외강석(포천석)
목표년도 장서수/80만권
계획열람석/약 3,000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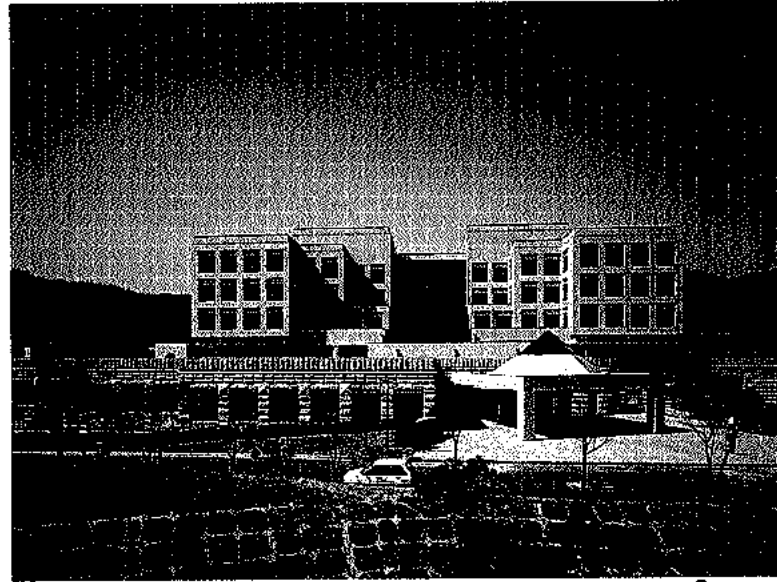
金正湜+崔泰容
(주)정림종합건축사사
Designed by Kim, Jung-Sik & Choi, Tae-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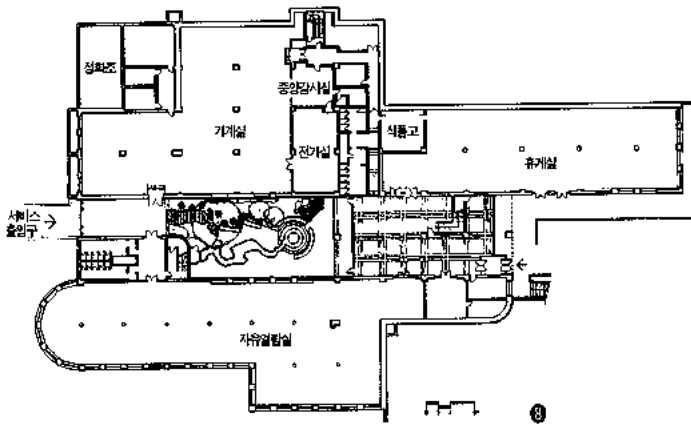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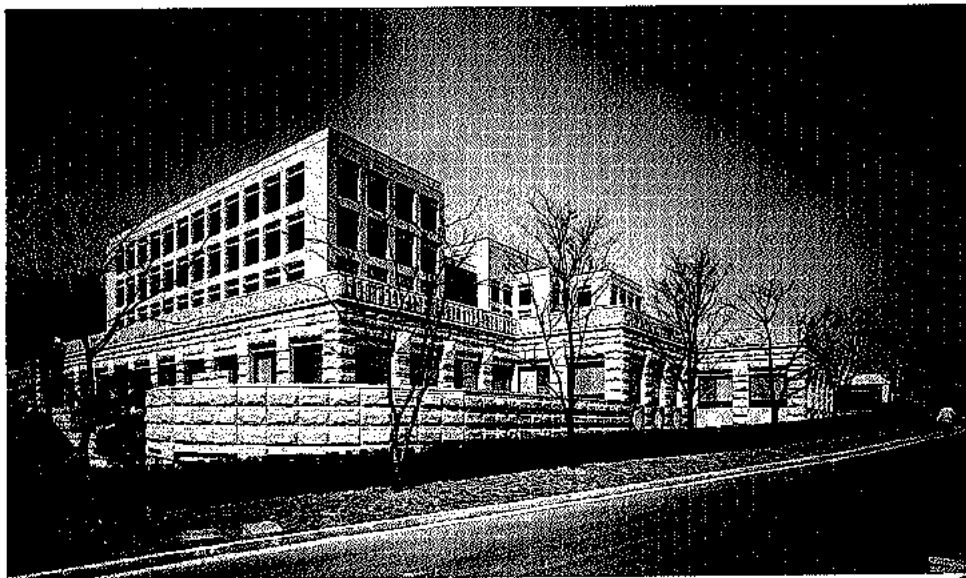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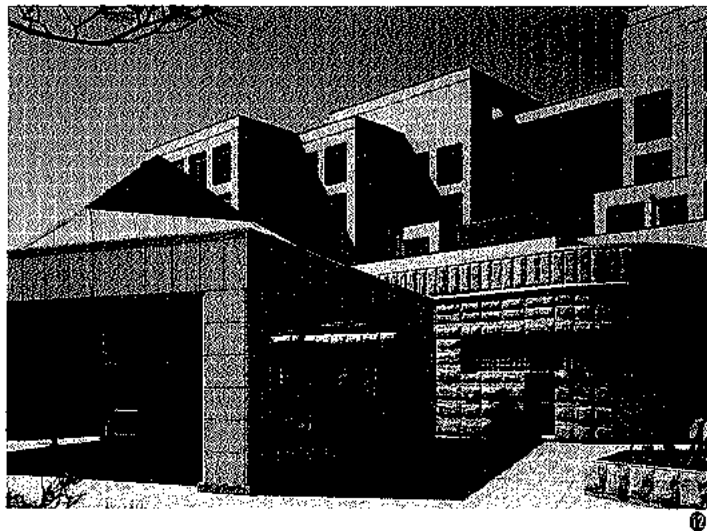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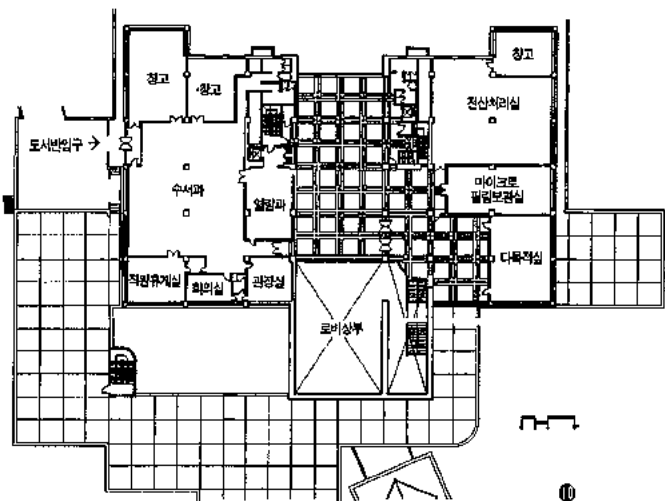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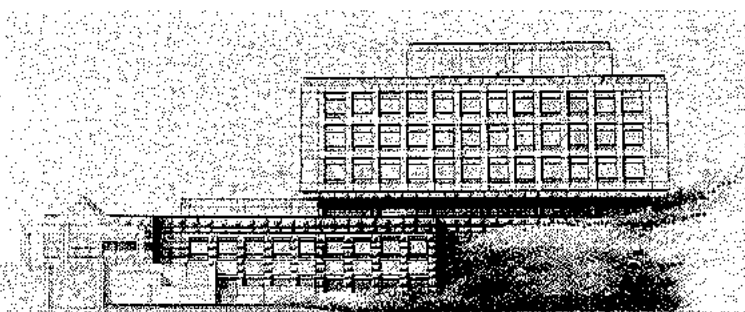
층별면적 및 주요내부시설

층별	면적(M ²)	내 부 시 설
지하	3,221. ⁰²	자유열람실, 휴게실, 기계, 전기실
1	3,717. ⁰⁷	올림픽기념홀, 자유열람실, 말집서고, 물품보관실
2	2,358. ⁵²	수서, 열람과 사무실, 관장실, 목록실
3	2,320. ⁵⁶	정기간행물실, 참고열람실, 연구실
4	2,261. ¹²	인문과학, 사회과학열람실, 문고실
5	2,261. ¹²	예, 체육, 자연과학열람실, 음영자료실, 교사자료실, 학위논문실
옥탑	342. ⁹⁹	공조기계실, 물탱크실, ELEV기계실, 창고
계	16,482. 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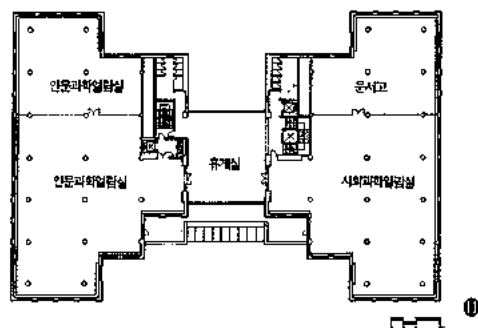


①

⑫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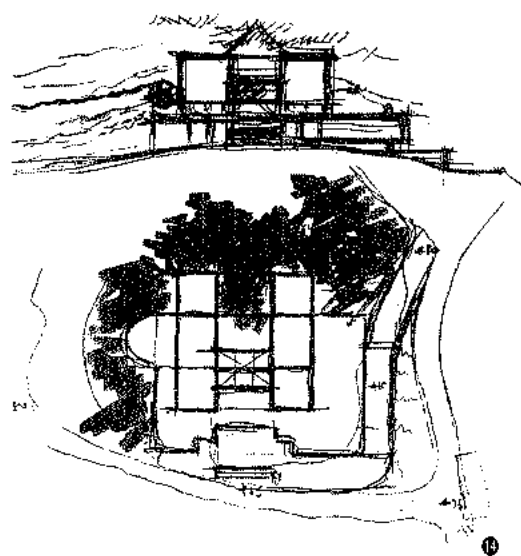


③

- ④ 중경
- ⑤ 정면전경
- ⑥ 남측입면
- ⑦ 지하층평면도
- ⑧ 1층평면도
- ⑨ 2층평면도
- ⑩ 4층평면도
- ⑪ 주출입구측 입면상세
- ⑫ 입면스케치
- ⑬ 개념스케치
- ⑭ 1층로비



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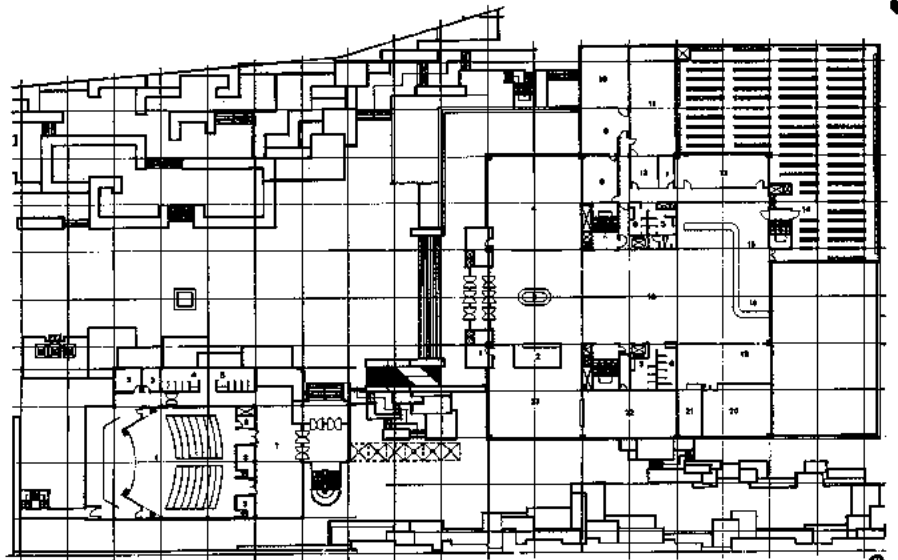
⑬

한밭도서관

Hanbat Library, Taejeon



대지위치/충남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지면적/17,160㎡
연면적/19,105㎡
규모/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철근콘크리트+포스트 텐션 Waffle 구조
(15m×15m)
모듈/7.5m
외부 마감/화강석+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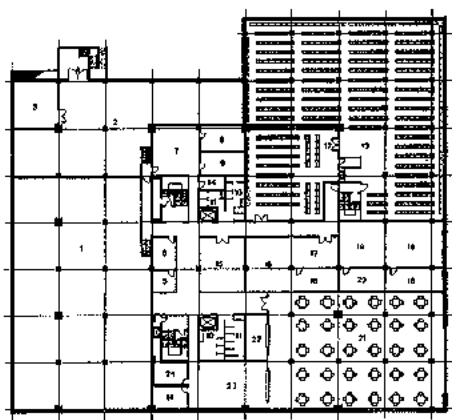


張錫雄/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ang, Suk-Woong

- | | | | | |
|-----------|---------------|-----------------|---------------|----------|
| 1. 기계실 | 6. 예비군실 | 11. 여자 화장실 | 16. 제작실 | 21. 식당 |
| 2. 전기실 | 7. 영선 및 중앙감사실 | 12. 귀중본 서고 | 17. Computer실 | 22. 매점 |
| 3. 발전기실 | 8. 하문실 | 13. 서고 | 18. 보관실 | 23. 주방 |
| 4. 기계 반입구 | 9. 영선창고 | 14. 창고 | 19. 마이크로 필름실 | 24. 내동창고 |
| 5. 무기고 | 10. 남자 화장실 | 15. 복사, 인쇄, 제본실 | 20. 입실 | 25. 열람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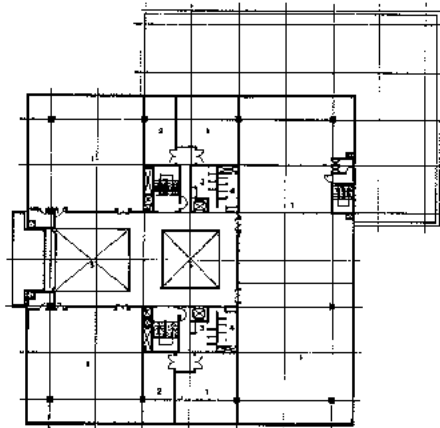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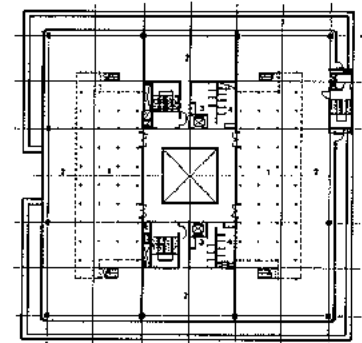
1. 매표소
2. 물품보관소
3. 카운터
4. 신문잡지 열람실
5. 남자 화장실
6. 여자 화장실
7. 창고
8. 회의실
9. 비서실
10. 관장실
11. 총무 관제실
12. 서무 관제실
13. 열람과 사무실
14. 서고
15. 대출실
16. 레퍼런스
17. 장애인 화장실
18. 로비
19. 목록실
20. 전적실
21. 복사실
22. 향토자료 열람실
23. 향토자료 전시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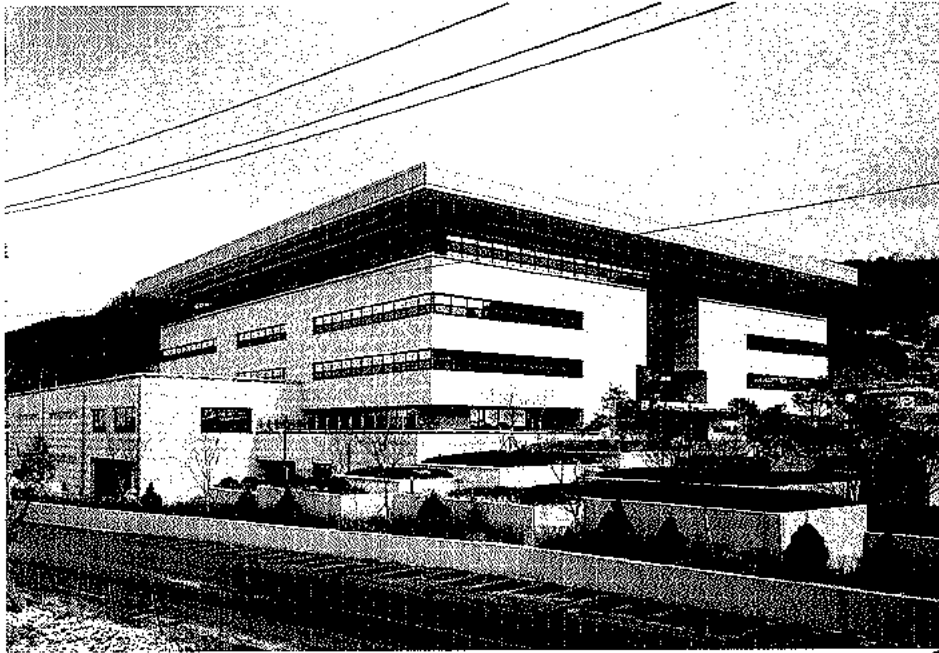
1. 자유열람실
2. 공기계실
3. 남자화장실
4. 여자화장실
5. Open

5



1. 자유열람실
2. 자유열람실
3. 남자화장실
4. 여자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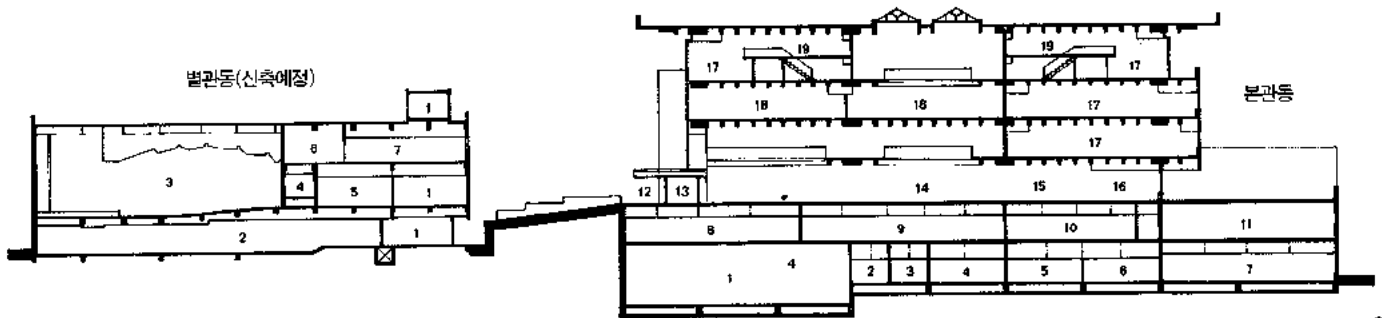
6



■설계소요/계획의 전제 및 방향

- 향토적 분위기와 역사적 기념물
 - 기능적인 도서관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 장래확장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조형물
 -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대지의 높고 낮음을 효율적으로 이용
 -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어프로치
 - 관리, 운영상 효율성, 경제성, 안전성 추구
- 85년 이른봄 충청남도 도청의 지명현상설계를 위촉받게 된다. 도립공원 보문산 기슭에 서북쪽으로 대전시를 조망하며 주변 목장의 초지와 교육시설 등으로 보아 도서관 부지로서 적지임이 직감된다.

현장설계 조건이 지역성을 강조하고 반개가식 도서관으로 부지의 높고 낮음을 잘 활용하면, 서고, 열람공간, 옥외 전시공간 등 부속건물이 잘 어우러질 것이 머리에 스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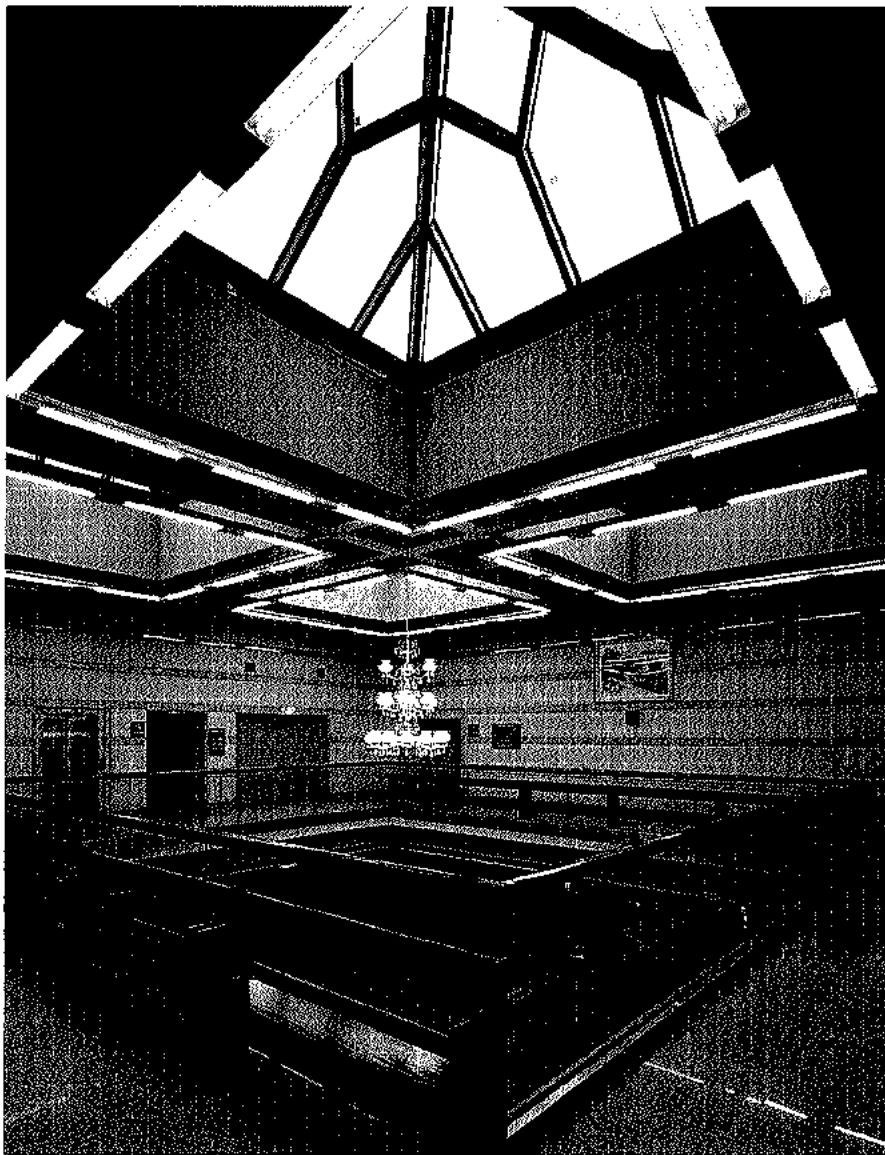
별관(신축예정)	본관	
1. 홀	1. 기계실	11. 서고
2. 전시실	2. 창고	12. 주출입구
3. 강당	3. 복도	13. 방통실
4. 영사실	4. 인쇄제본실	14. 로비
5. 로비	5. 제작실	15. 목록실
6. A.H.U.실	6. 보관실	16. 대출실
7. 복도	7. 식당	17. 자유열람실
	8. 음향 및 어학열람실	18. 휴게실
	9. 홀	19. 복층열람실
	10. 귀중본 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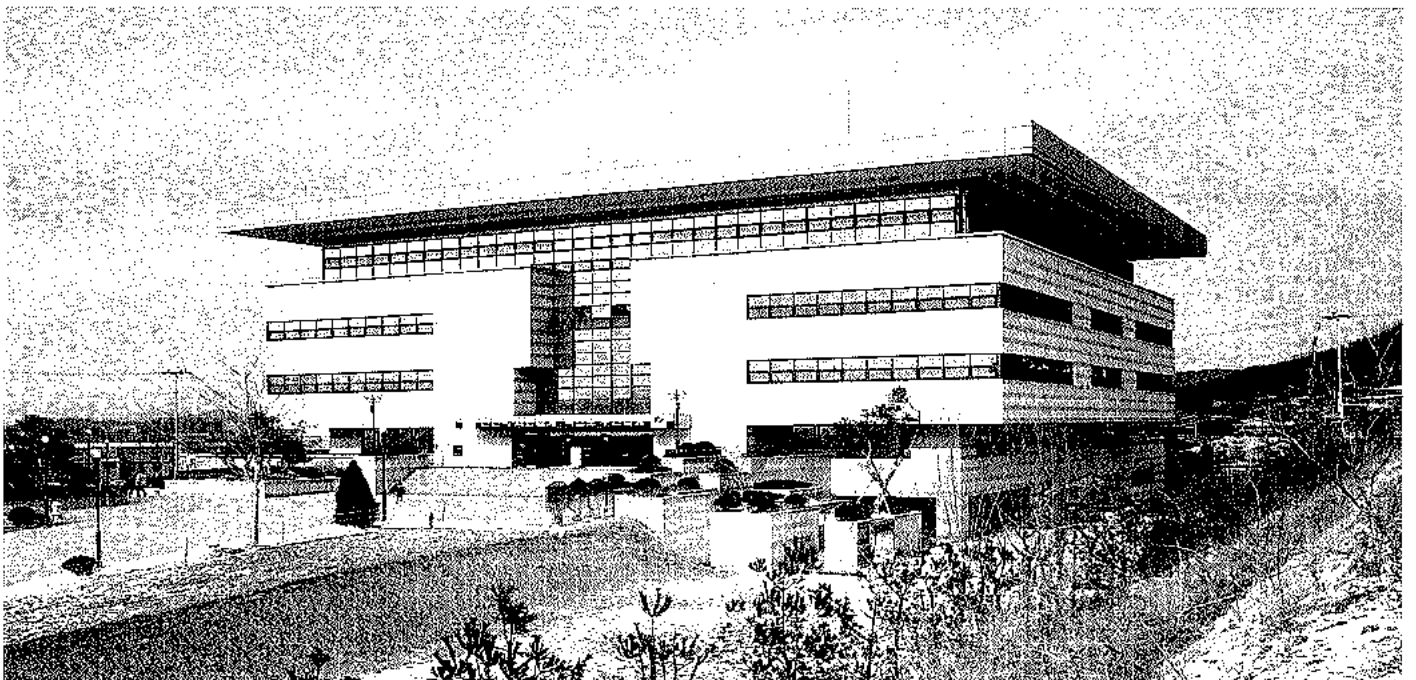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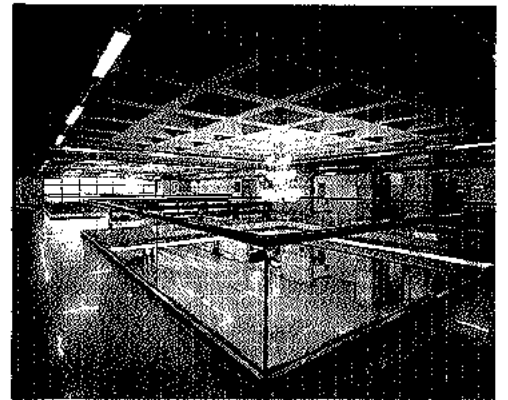
현장조사시 얻은 인스피레이션을 정리하고 다듬은 안이 당선되었고 6개월간의 노력으로 설계가 완성되었다.

3년여에 걸친 어려운 여건에서 정성을 들인 공사로 생각되나 건축주(관)의 보다 깊은 건축설계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아쉬웠다.

또한 금년에 착공될 별관이 완성되면 대전시의 유일하고 알뜰한 시립 도서관으로 손색이 없으리라 자부한다.



- | | |
|----------------|----------|
| ① 정면전경 | ⑦ 북서측전경 |
| ② 1층로비전경 | ⑧ 주단면도 |
| ③ 1층평면도 (별관포함) | ⑨ 열람실내부 |
| ④ 지하2층평면도 | ⑩ 4층로비천장 |
| ⑤ 2층평면도 | ⑪ 2층로비 |
| ⑥ 4층평면도 | ⑫ 남서측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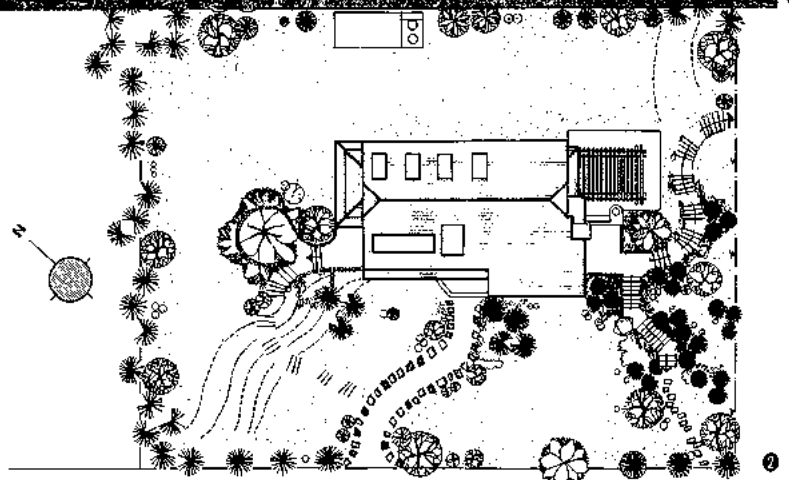
돌로 지은 자연속의 집

Stony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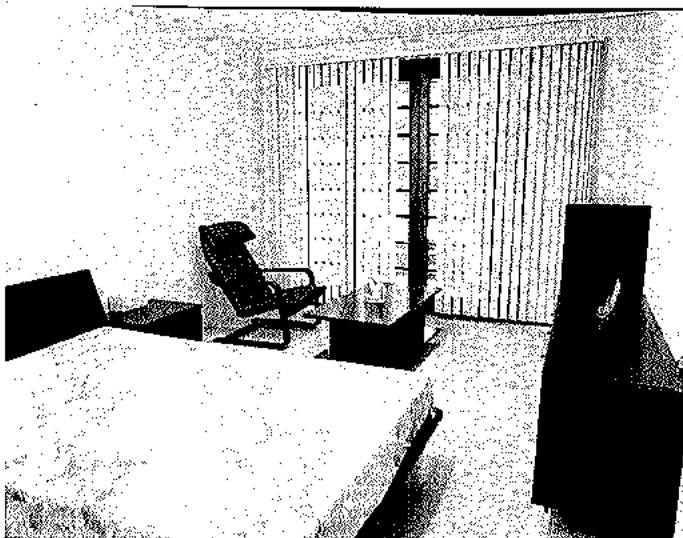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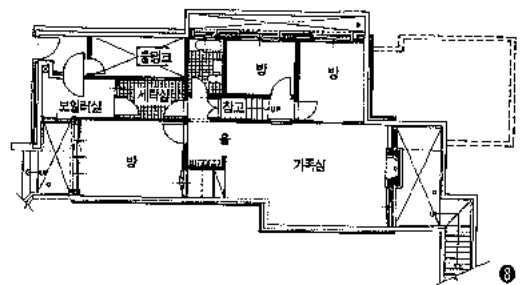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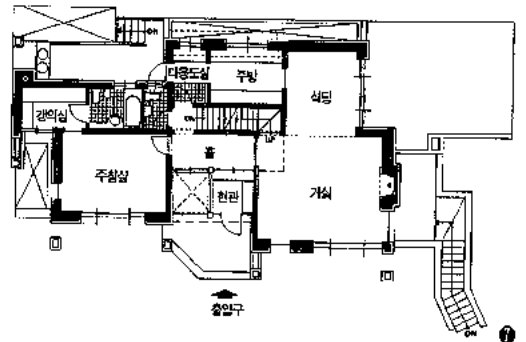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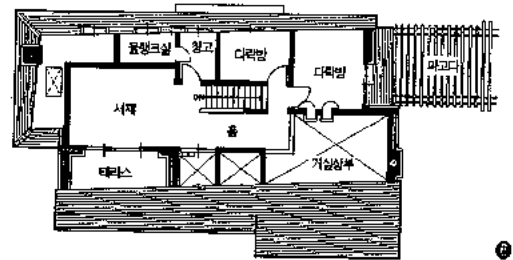
대지위치/경기도 시흥시
대지면적/1,265.36㎡
건축면적/99.93㎡
연면적/207.66㎡
지하층/103.73㎡
1층/99.93㎡
다락/56.88㎡
외부미감/피산석 깎돌 붙이기
지붕재료/칼라아스팔트 싱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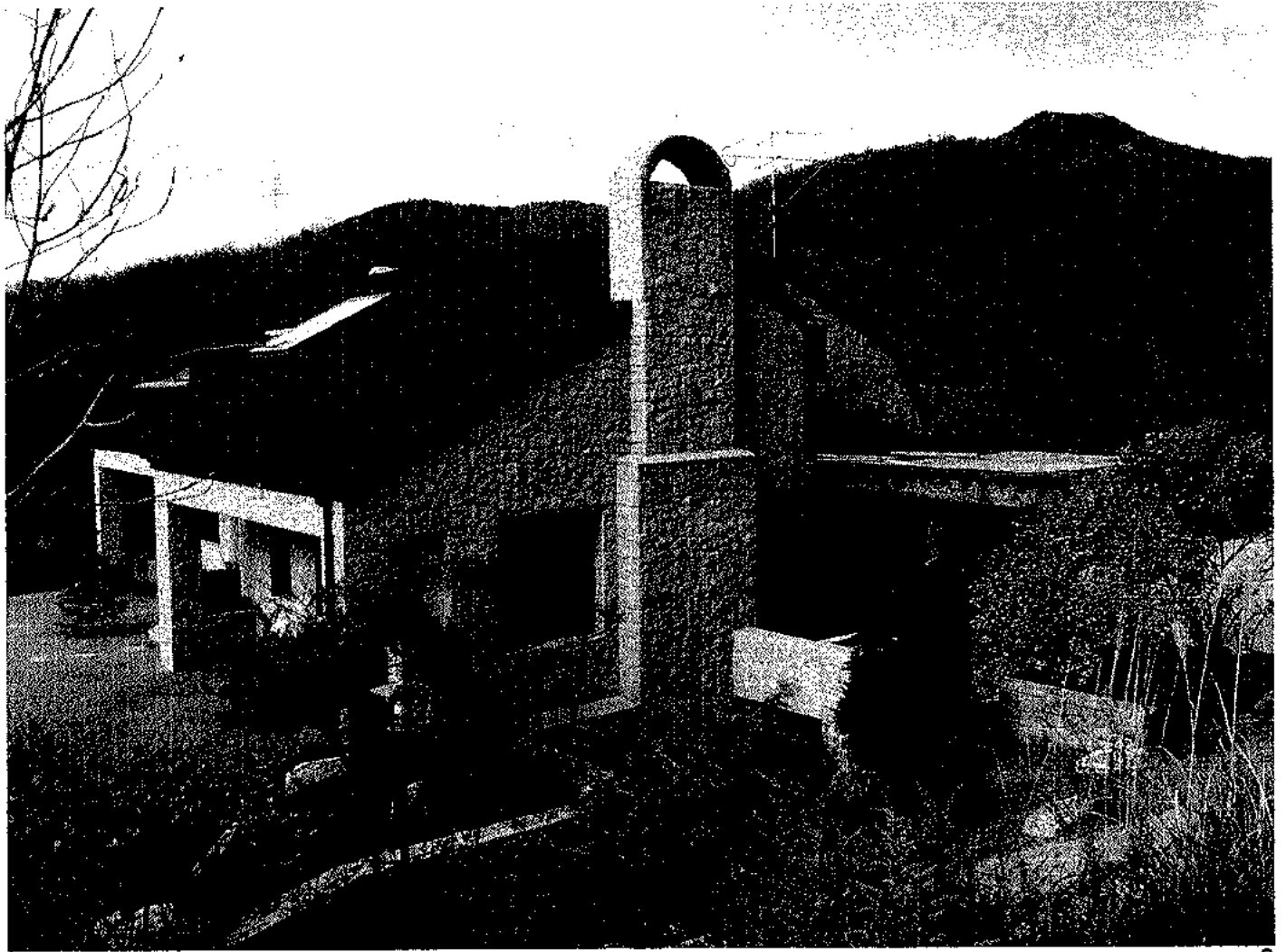
姜聲益/종합건축사사무소 한라건축
Designed by Kang, Sung-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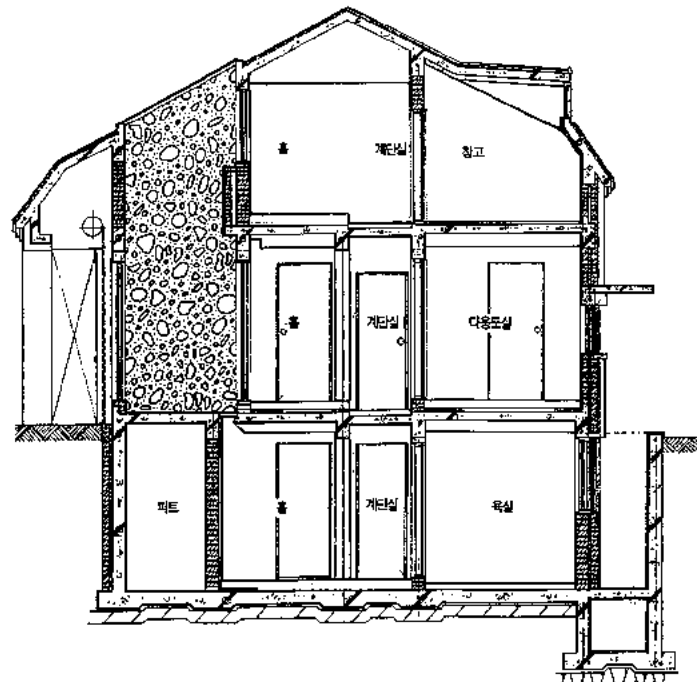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거실전경
- ④ 침실
- ⑤ 2층서재
- ⑥ 다락층평면도
- ⑦ 1층평면도
- ⑧ 지하층평면도
- ⑨ 남측전경
- ⑩ 단면도





9



10

■설계소요

도시를 벗어 나고자 하는 모든 이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공업사회에서 도시의 정비가 미쳐 이를 따르지 못해 마침내는 인간을 소외시키고 다만 서로의 만남을 편하게 그리고 단지 속도감을 더하게 할 뿐 더욱 비인간적인 공간을 창출해 나갈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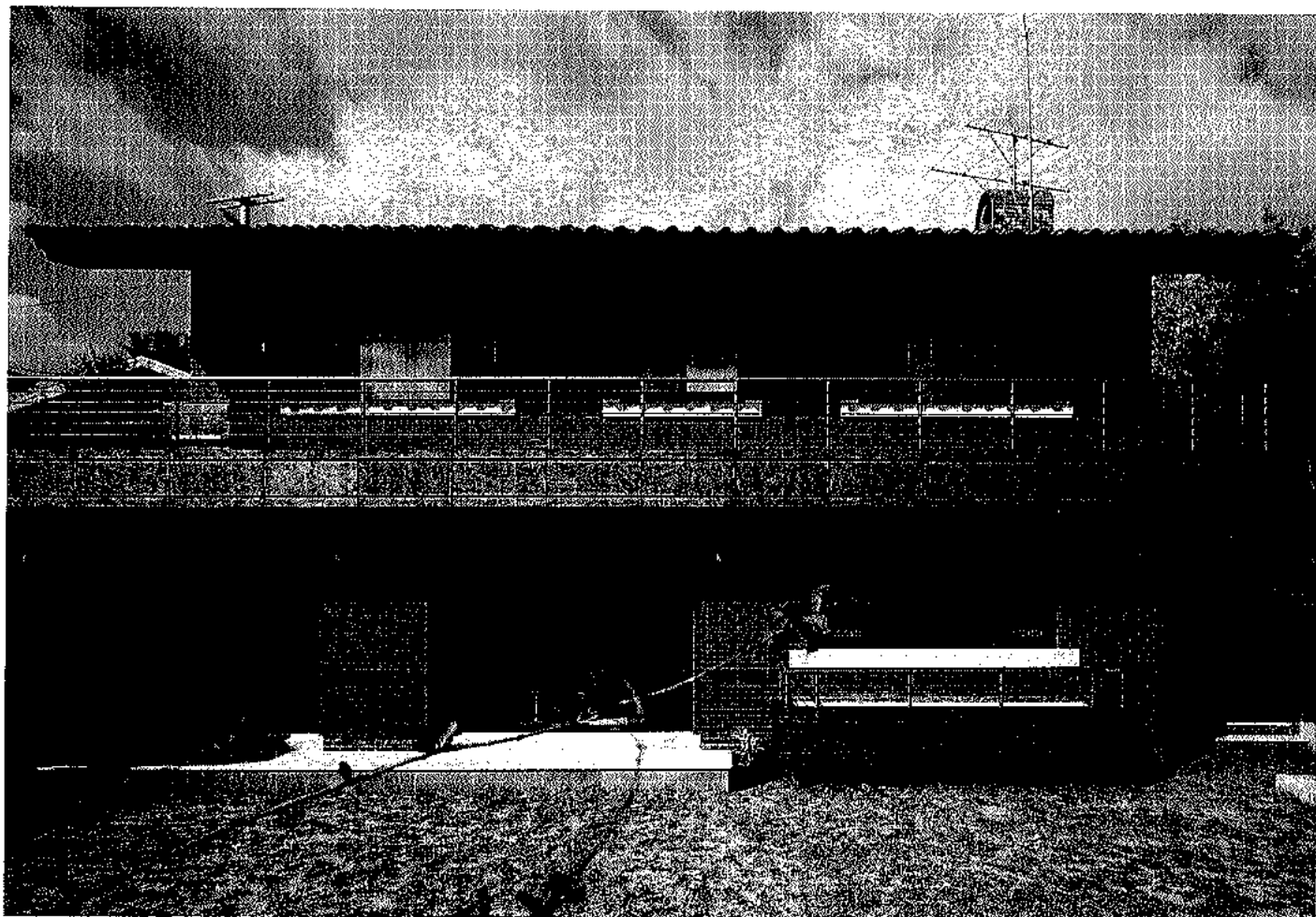
본 계획에서는 1층의 어프로치 부분에서 주인 부부의 주공간과 지하실의 가족실, 방(자녀들과 손자 소녀들이 놀러와서 쉴 수 있는 곳)을 홀을 시점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계단으로 명확한 동선처리를 했으며 거실과 식당 그리고 테라스의 자연스러운 유도가 한껏 가족 및 손님들과의 만남의 장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락 부분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위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맨사드형의 지붕을 택했고 현판 좌측 부위의 천장을 이용한 중정처리는 자연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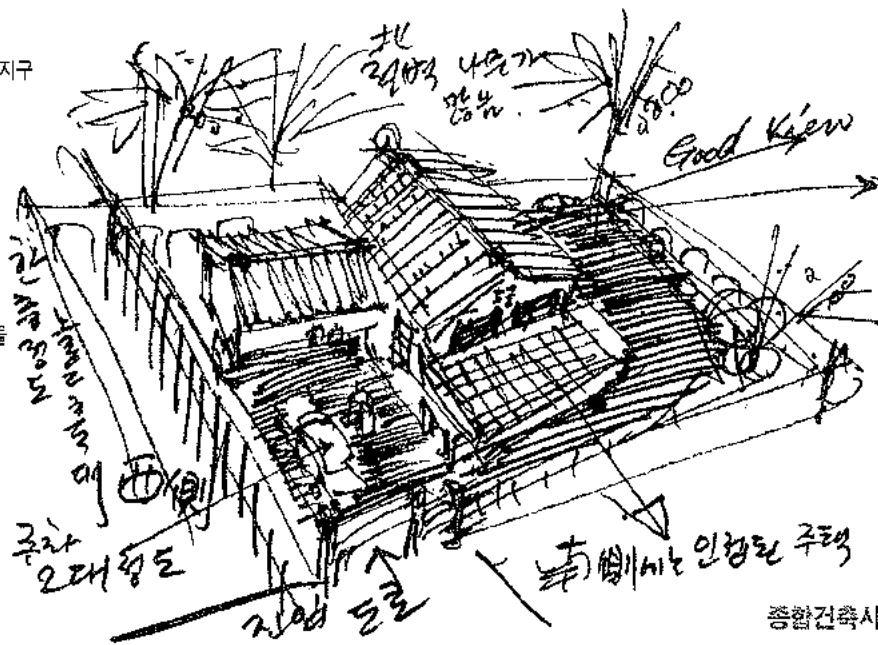
외벽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화강석을 불규칙하게 다듬어 쌓았으며 외부로 연결된 계단과 정원석 또한 같은 돌을 사용하였으며 목재 파고라와 정원의 잔디가 모두 뒷산까지 연결되어 자연과 함께 하는 주택으로 보여진다.

성북동 K씨댁

Sŏngbuk-dong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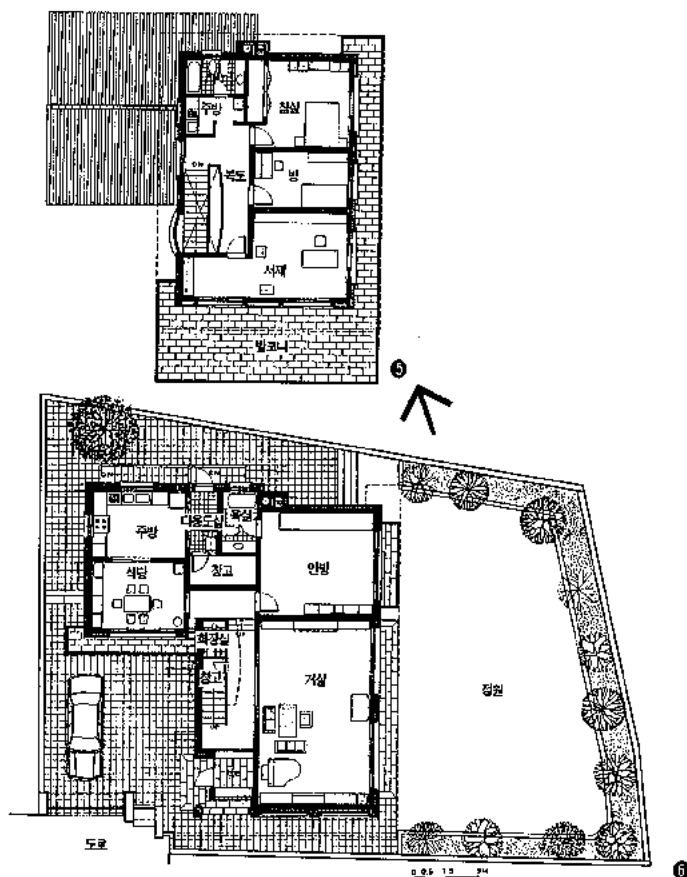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지역·지구/주거전용지역, 풍치지구
대지면적/495㎡
건축면적/147.87㎡
연면적/258.99㎡
건폐율/29.87%
용적률/44.83%
규모/지하층, 지상2층
구조/조적조
외부마감/알루미늄 캐스팅+적벽돌



吳基守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 스페이스 5

Designed by Oh, Ki-Soo



■설계소묘

건축주는 건축가의 역할이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었으며, 또한 건축에 대한 조예도 대단히 깊은 사람이어서 설계에 관한 요구사항 크기나 분위기 등을 매우 자상하게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의견교환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그는 여행가, 음악가이며 여행기념품이나 우표 등 다양한 것들을 수집하고 있어 그 수집품의 수도 아주 많은 편이며, 이들 수집품, 장서와 그랜드피아노 등을 거실에 진열·배치코자 하였다. 따라서 넓은 거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본인내외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동거할 수 있도록 1층에는 본인(부모)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2층은 자녀부부의 생활공간으로 구분하였다.

대지는 4.5, 5.5m폭의 진입도로가 'L'자 형으로 꺾이는 구석부분에 위치하며 도로에 접한 부분은 약6m에 지나지 않는다.

동쪽으로 향한 경치는 매우 좋은 편이며 동쪽으로 약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남쪽에는 진입도로와 2층 높이의 주택이 인접하고 있어 본 대지에 항상 그늘을 주고 있다. 북쪽은 높은 수목이 있는 내리막을 이루는 공지이며, 서측은 한층 높이의 축대가 대지경계를 이룬다.

주택에 대한 나의 생각은,

1. 그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밝고 명랑한 분위기
2. 가족이 자력으로 거느릴 수 있는 크기와 장치
3. 외부에서 느끼는 소박함, 겸손함이 있는, 즉 과장된 장식의 지양
4. 사계절 경치를 만끽하고 통풍이 잘 되는 창
5. 가족의 움직임(생활)이 상호간에 쉽게 교환되는 분위기 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였다.

진입도로에서 느껴지는 시각적인 개방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마주하는 곳에는 낮은 한 층 높이의 식당을 배치하여 기존의 수목이 느껴지도록 하였으며, 거실은 동측정원을 접하고 2층 홀에서는 남측 광선을 받을 수 있는 넓은 테라스를 두었고, 실내분위기는 대부분 목재와 벽지를 사용하여 친금감있고 소박한 맛을 주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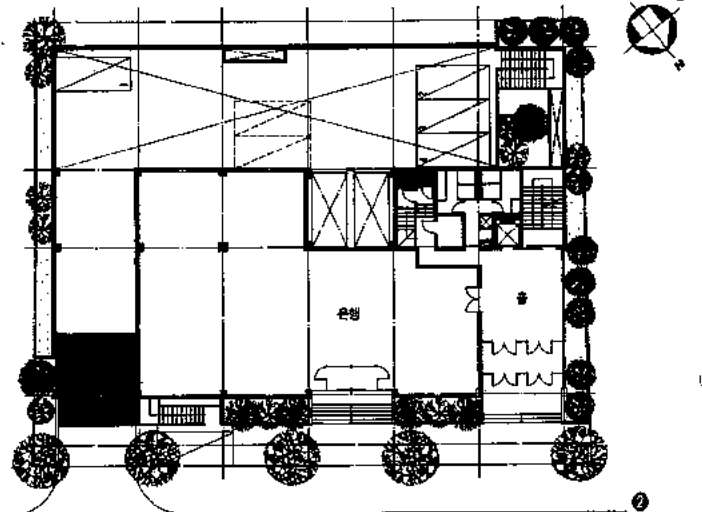
경신빌딩

Kyungsin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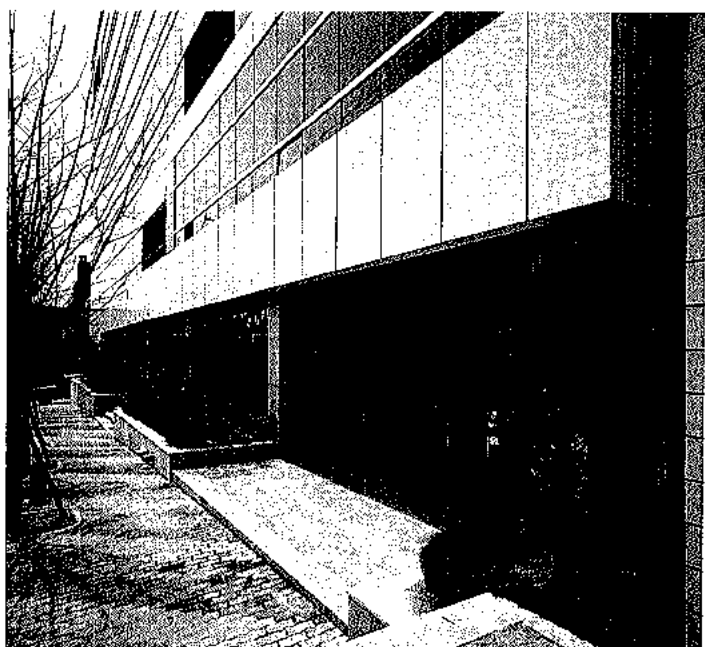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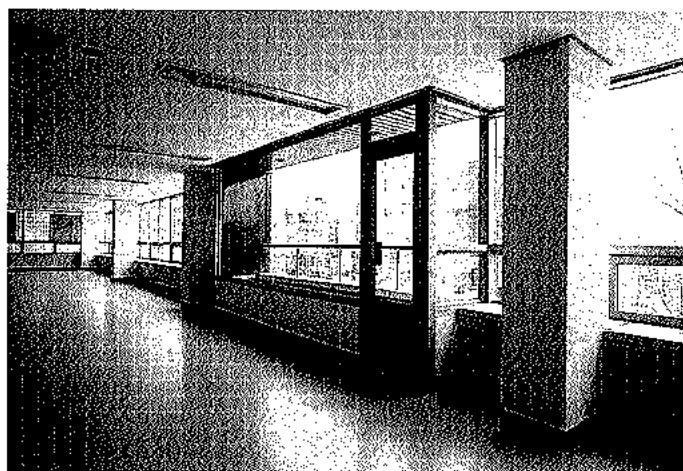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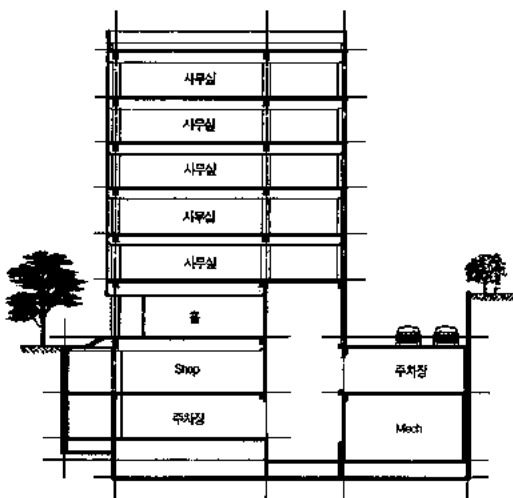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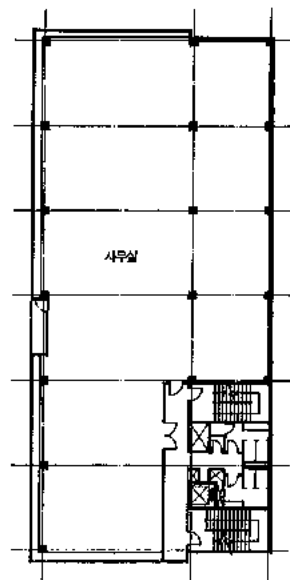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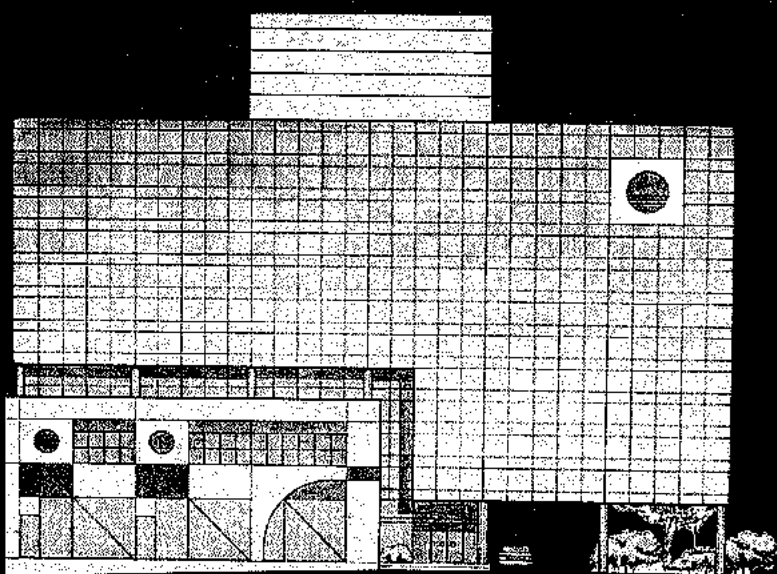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대지면적/1,321㎡
건축면적/656㎡
연면적/1,780㎡
건폐율/49.7%
용적률/289%
규모/지하2층, 지상6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미감/투명복층유리 및 알루미늄패널

- ① 전경
- ② 배치 및 1층평면도
- ③ 초기안스케치
- ④ 단면도
- ⑤ 주출입구상세
- ⑥ 기준 및 평면도
- ⑦ 사무실 내부전경



金洛中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중원건축
Designed by Kim Nak-Joong



■설계소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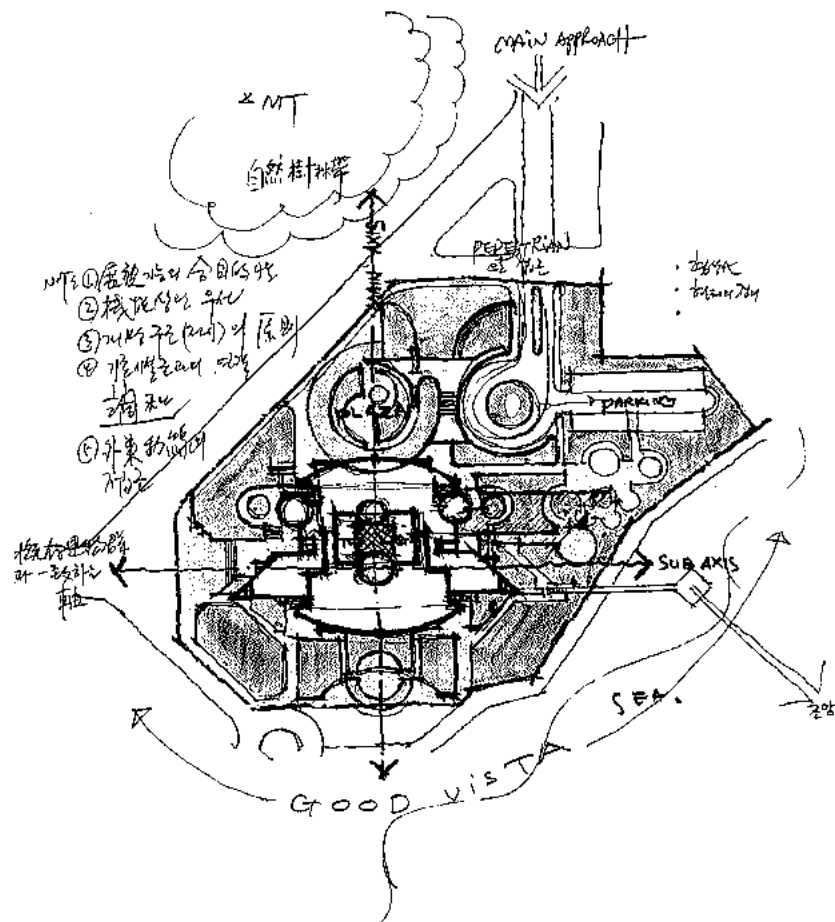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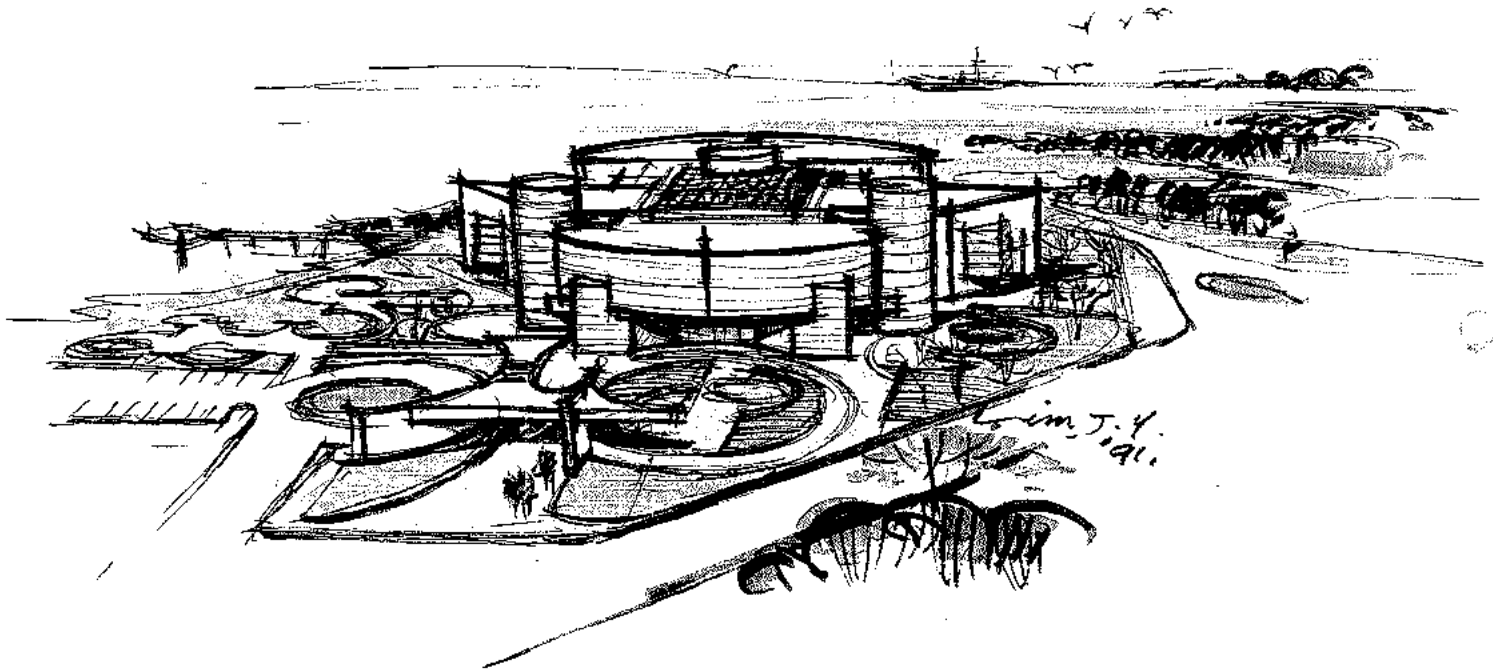
본 건물이 자리한 강남구청 앞길은 강남지역 개발초기에 지어진 4~5층 규모의 건물들이 표정없이 들어서있고, 건물의 Facade에는 간판들의 밀집되어 있어 다소 혼란스런 분위기의 가로경관이 되어있는 곳이다.

당초 이 건물은 보행자가 접하는 저층부에 흥미를 주기 위하여 인간스케일의 그래픽과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시공 중에 사업주인 천지산업의 사업방향의 변경-전용사무실에서 사업용 분양사무실로-으로 용적률을 제고시키는 과정에서 BOX형의 mass로 되어 당초 의도보다는 다소 경직된 표정의 건물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안 저층부 변화에 대한 미련을 전면 Facade에 빨간 액센트 칼라를 부여함으로써 달랬고, 나머지부분은 힘 안들이고 깨끗하게 Courtain Wall로 처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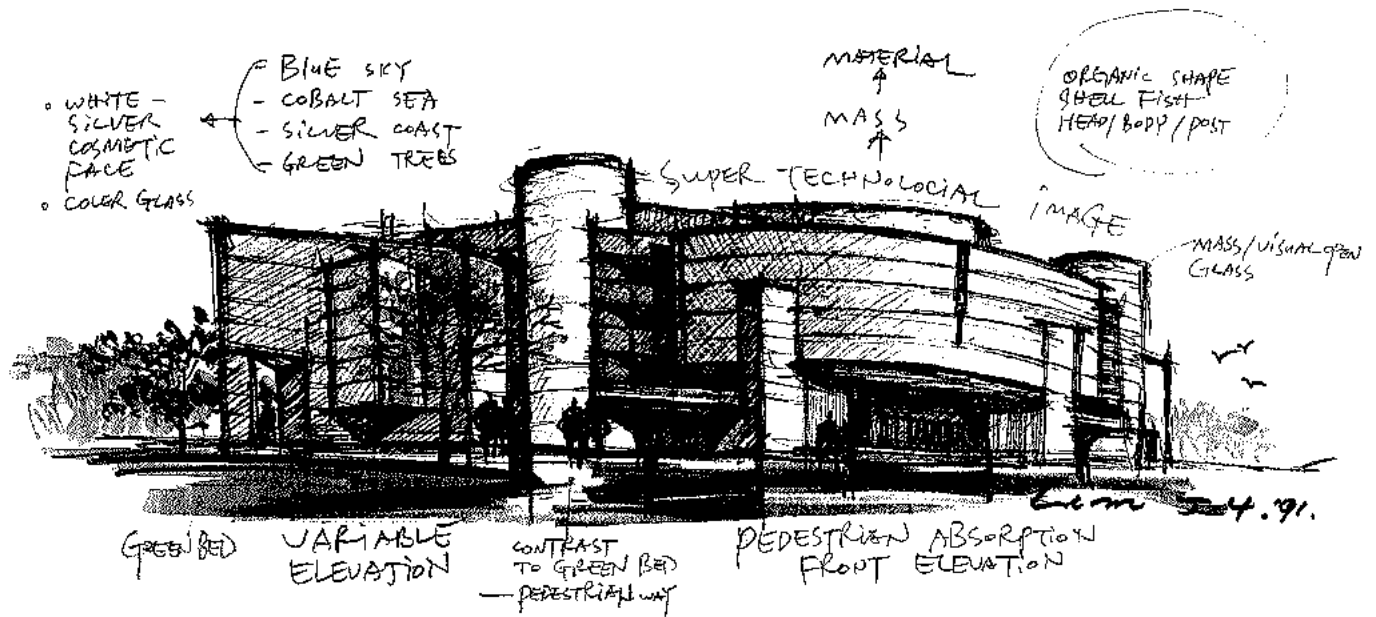
Sunken Area의 적극적인 활용, 보행자를 위한 건물의 저층부 및 접지면의 인간적인 접근.....등에 대한 배려를 하지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건축설계란 항상 주어지는 많은 제약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타협해 나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 프로젝트였다.

4의 스케치

水産科學館 계획안



4월 스케치



산

내음, 물내음, 바닷내음-

게글게글 게딱지, 은빛모래랑 조개껍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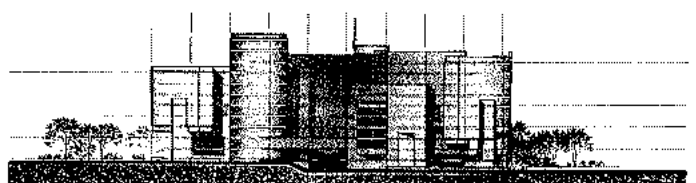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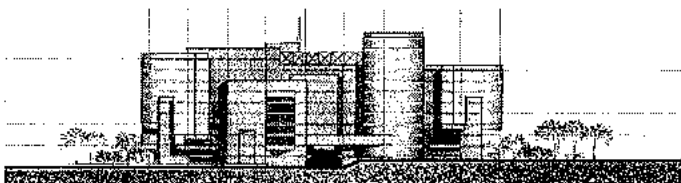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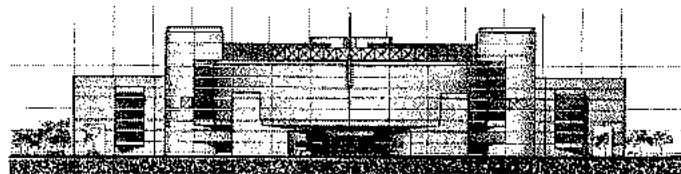
모두 우리의 삶의 原初가 아니던가.

현상에 참여했던 過客의 아쉬움은 死産의 若痛을 치르는

産母보다 더한 아픔임에라!

획이 획이 화장시킨 내 새끼를 梁山앞바다에 눈물로 뿌린다.

林長烈 / 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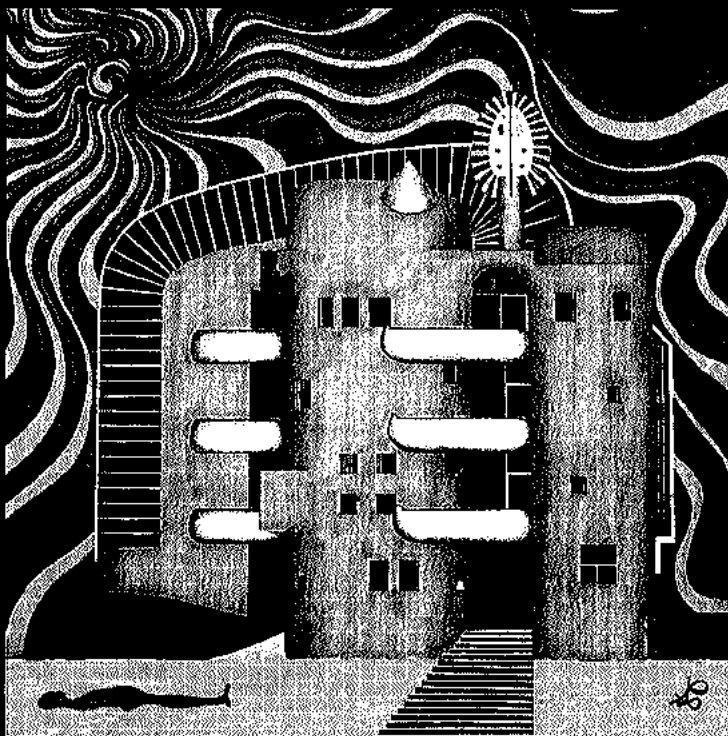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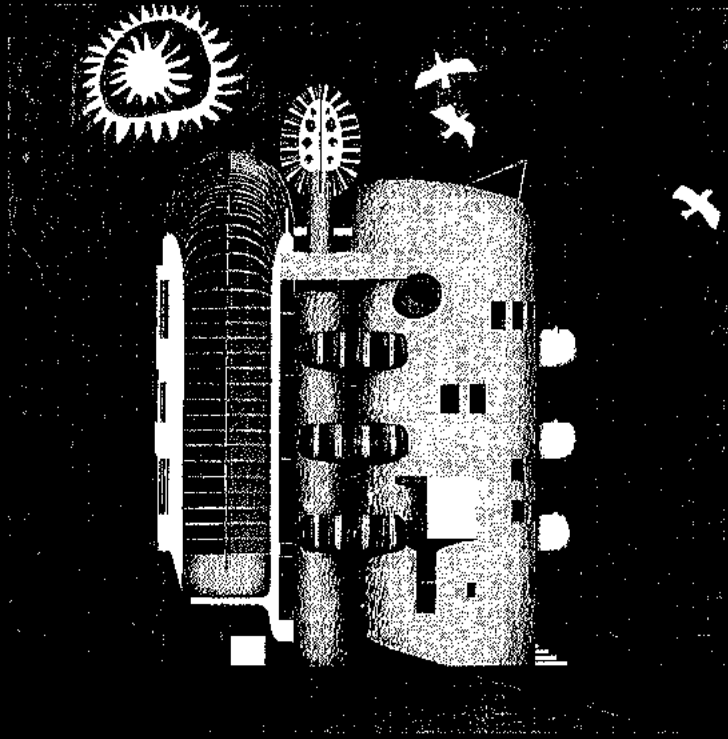
追慕／故 如泉 김중업선생 3주기를 맞이하여

郭在煥／종합건축사사무소 맥

선들이 춤을 춘
평면엔
삼신할미의
엄원이 담긴
생명이 넘쳐나
부드럽게 둥근
예쁜 방바다
신비를 잉태한
태반으로 피었습니다.

푸른빛
가득히 담은
경사로는
침상으로 이어져
선녀가 타고 내려온
무지개 다리
그 곁에
양중스레 서있는
자그마한 발코니에서
선생님!
아름다운 장식이
달려있는
굴뚝을 바라보노라니
시선이 멈춘 그 끝에서
정열에 넘치시던
당신의 모습을 뵈었습니다.

김중업 선생님을 추모하며 서산부인과 의원 설계안에 부치는 글과 그림



'91 全國建築士大會開催案内

본협회에서는 건설부의 후원으로 오는 6.3~4일 양일간 올림픽 공원내 역도경기장에서 전국 3,600여 회원 및 건축관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91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본행사를 위한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 간

1991. 6. 3(월)~4(화)[2일간]

장 소

올림픽 역도경기장(올림픽공원내)

목 적

- 大會主題를 中心으로 時代的 要求事項에 對한 自己省察 및 建築士의 役割에 對한 社會的 認識 提高
- 協會를 中心으로 한 全國 建築士의 一體感 形成과 化合을 通한 協會發展 圖謀
- 建築關聯 各種 制度의 改善 問題에 對한 共感帶 形成으로 關係法令 改正의 合理的・效率的 推進
- 建築文化의 地域的 均衡發展 圖謀
- 建築士 相互間의 親睦 圖謀와 紐帶強化
- 建築士紀綱確立 決意大會를 通한 新秩序・新生活 擴散 誘導

행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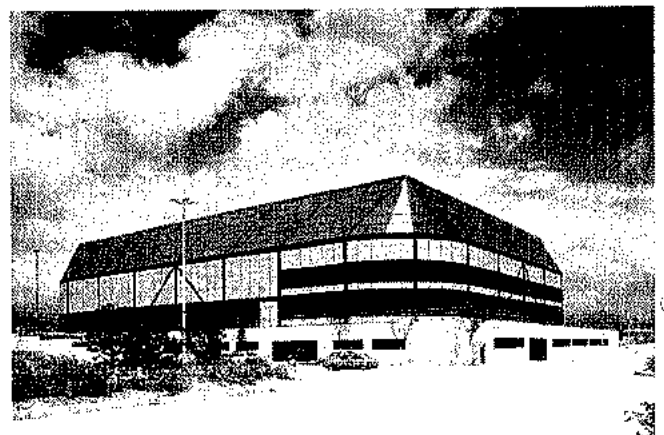
- 1) 建築士紀綱確立 決意大會
— 建築士紀綱確立 決意文 採擇
- 2) 特別講演會
— 大會主題를 中心으로
- 3) 建築士의 밤(祝賀公演, 長技자랑, 幸運券 추첨 等)
- 4) 特別 講座
- 5) 討論會
— 建築關係法令改正建議案에 대하여—
- 6) '91優秀 建築機・資材 및 CAD展示會

주 제

'21世紀를 向한 建築'

행사일정

日 字	時 間	行 事 內 容	場 所	備 考
第1日 6.3 (月)	15:00	全國 建築士 大會	力道 競技場	
	16:20	開 會 式		
	16:20	建築士紀綱確立		
	16:30	決意文 採擇		
	16:30	特別 講演會		
	17:30	建築士의 밤		
第2日 6.4 (火)	17:30	建築士의 밤	力道 競技場	
	21:00	建築士의 밤		
	10:00	特別講座 I		
	11:00	特別講座 II		
	12:00	中 食		
	13:00	中 食		
	13:00	特別講座 III		
	14:00	討論會		
	14:10	討論會		
	17:00	開 會		



21世紀를 向한 跳躍

李義求 / 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사

요즈음의 우리사회를 일컬어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고 있으며 문화면에서도 이러한 변화추세가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의 진단은 위기의식이 팽배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무언가 개혁적 조치가 취하여져 더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국민적 자제와 합의의 도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건축계에서는 이러한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듯 싶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건축적 상황이 자만하고 자족할 수 있단 말인가?

위기가라는 것이 어떤 상태의 융성한 시기에 그 상태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쓰는 말이라고 본다면, 현재 우리의 건축적 상황은 질적 측면에서 수준급이라하기는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위기라기 보다는 제도악을 論할 시기인듯 싶다. 물론 그러한 장래가 없이 현재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위기가 할 수 있겠다.

앞으로 몇년 후면 21세기가 시작된다. 과연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런 변화없이도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의 건축은 어떻게 도약을 해야 하는가. 시장개방과 지방자치에 따른 다양한 변화욕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건축계에서 활발한 논의와 대응책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스럽다.

과거 우리는 이같은 논의가 있을 때마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채 등한시하고 당국의 보호책이나 무조건적인 저지에만 목소리를 높여왔을 뿐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비책 마련에는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自問하고 싶다.

최근의 세계는 과거의 이념과 체제의 대립에서 탈피하여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영향을 주는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어가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도 국지적인 다양성만 존재할 뿐 전체적으로는 국제화·통일화 되어가는 추세라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자본주의는 국제적 경제질서에 의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업주의

그리고 첨단과학시대의 기술·장비의 발달과 이를 수용한 건축의 하이테크화, 생활방식의 공급화와 급속한 변화, 이러한 물결들은 건축의 立地와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에 따라 우리의 건축도 이제는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질적향상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거 우리는 공업화와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외형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 무분별한 정책과 도시계획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 전신표효과만 노린 졸속시공, 타락한 기업윤리로 인하여 죽어만가는 강물 등은 우리의 도시를 공포의 환경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지탄과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인가. 현시대를 이끌어 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상기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나 건축관계인 모두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냉정히 반성하며 파악된 문제해결에 동승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다수학을 걱정하기 보다는 토지를 정리하고 발이랑을 깊이 갈아 좋은 종자를 심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현 시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성과 위기감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발전을 위한 기본적 여건이 조성된 기틀위에서의 불안정성이라는 점에서 건축문화 발전에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전환기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 대처하여 21세기를 위한 제도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관심사의 핵심이며, 역사적 요청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는 의식의 자유를 철저히 추구하고 우리의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재정립하여 우리의 한국성이 투영된 우리의 건축을 이룩해야 한다.

얼마후면 올림픽공원에서 전국의 건축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건축의 장래를 모색하는 모임이 있다. 이 시대의 건축을 짚어준 관계인 모두 공동체적 연대의식 속에서 시대적 책임을 깊이 인식한 자발적인 참여로 진정한 이나라의 건축을 걱정하며 21세기를 향한 제도악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

常識속의 沒常識

金自浩

(주)김삼 종합건축사사무소

바쁜 時間을 지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즐거운 일보다는 기분 나쁜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곤 한다. 이러한 때마다 머릿속에 간직하고 싶지는 않지만 누구엔가는 한마디 호소하고싶은 심정이 일어나곤 한다. 그런데 이런 호소 내지는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우리 주위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사회의 질서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고는 자신에게 의문해 보게 된다.

오늘은 상식이란 낱말을 가지고 몇마디 생각나는대로 적어볼까 한다.

법이 상식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법규나 행정관행이 상식에 어긋난다면 그 법규나 관행은 잘못된 것이다.

상식이란 부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을 말한다.

그 느낌이란 事理와 物理에 부합하며 순응하는 느낌이며 윤리나 법규의 바람이다.

가령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윤리나 법규 이전의 상식이듯 그 아버지를 때리는 자식이 있다면 그는 패륜아나 범법자이기 이전에 상식을 거스른 자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선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범규적용이나 행정 관행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버젓이 행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회를 지키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키는 헌법이 있으며 헌법 위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으므로 인해 모든 사회의 질서가 지켜지는 관행을 상식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 이제는 몰상식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다.

얼마전의 일이다. 친구들과 어울려 대포를 한잔하다 화제가 바뀌어 이런 질문을 받았다.

A 자네 회사에서는 큰일들을 많이 하더군

B 그런데

A 얼마전에 역삼역 부근을 지나다 보니 XX회사 전산센터도 자네네 회사에서 설계를 하였더군

B 아하 그것은 우리회사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H라는 회사네.

A 어-그래. 그런데 자네네 회사에서 설계한 강북의 XX건물하고 겉모양이 똑같은 것을 느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였지.

B 자네 이제 됐어. 그만하게. 그정도 알고 있으면 훌륭하네 하고는 말끝을 흐려버렸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 얼마후 나는 또 다른 좌석에서 똑같은 질문을 수차례 받고 나니 한번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났다.

그 얼마후 우연한 기회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 관심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말로만 전해 들던 내용이 설마하였지만 이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실로 충격이었다.

이럴수가 있는가. 그것은 모양 찻수 하나 틀리지 않는 모방도 표절도 안된 우리회사에서 설계나 XX건물의 입면모양을 그대로 베껴버렸던 것이다.

아마도 전체입면의 절반 이상이 똑같은 상세입면을 베껴었다는 것은 문제가 커져 버렸다.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몰상식인 것이다.

우선 건축주는 지적소유권에 대한 저작권의 도용이 되는 것이며 설계자는 창작활동을 하는 건축계에서는 통용안되는 양심을 팔아버린 몰상식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갑자기 우리 사무실에서는 속된 말로 팔비틀려 강간당한 기분이었다.

물론 우리는 서론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몇가지 상식적인 사항이 무시되었다. 우선 첫째는 건축주의 몰상식한 태도이며 두번째는 우둔하게 설계비가 아쉬웠는지 양심을 팔아버린 작가라고 할 수 있겠다. 아니 아마도 본인은 사업가?를 작가로 착각하였는지도 모르겠다.



국토(地) 이용(用) 계획(計) 지역(地) 개발(發) 정책(策) 관련(關)
 조(組) 관(官)청(淸) 또는 조(組) 관(官)청(淸) 내(內)관(官)청(淸) 관(官)청(淸)
 관(官)청(淸) ? 국토(地) 이용(用) 계획(計) 지역(地) 개발(發) 정책(策) 관련(關)
 조(組) 관(官)청(淸) 또는 조(組) 관(官)청(淸) 내(內)관(官)청(淸) 관(官)청(淸)
 관(官)청(淸) ? 국토(地) 이용(用) 계획(計) 지역(地) 개발(發) 정책(策) 관련(關)
 조(組) 관(官)청(淸) 또는 조(組) 관(官)청(淸) 내(內)관(官)청(淸) 관(官)청(淸)
 관(官)청(淸) ? 국토(地) 이용(用) 계획(計) 지역(地) 개발(發) 정책(策) 관련(關)
 조(組) 관(官)청(淸) 또는 조(組) 관(官)청(淸) 내(內)관(官)청(淸) 관(官)청(淸)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 서로가 지킬 수 있는 상식적인 관행이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어기고 본인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그 기본적인 자세가 없어지고 몰상식한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자신이 슬퍼지는 것이다.

이러한 범례가 어디 한 두가지이겠는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디어진 감각으로 몰상식한 행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몰상식한 건축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작가?는 건축주를 설득하여 또다른 대안을 열마든지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하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가 계속 있을 시에는 前설계자에게 정당한 이유와 사정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댓가도 지불되어야만 마땅할 것이며 이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보다 좀더 발전된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다라도 건축계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윤리적인 문제에서 우선 사회적으로 책임지우게 하며 심지어는 그 작가의 건축적인 생명마저도 제명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처리됨으로 인해서 상식적인 사회와 질서를 유지한다고 한다.

우리들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회가 현실화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을 기대한다.

이와 아울러 또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까 한다. 요즈음 폭주하는 건축경기는 자연적 발생보다는 빈대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지르는 격으로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물가억제 및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건축경기 붐으로 인건비 및 건축 자재비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러한 경기의 부산물로 비상식적인 건축설계가 등장하고 이에 당당히 대관청 행정에도 수많은 몰상식적인 행위가 메마른 사회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다. 상대방의

불리한 점을 최대한 악용하여 사회의 부조리를 조장하는 것을 느낄 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한 부조리를 척결하고 몰상식이 없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는 것을 다같이 노력하여야만 될것이다.

작금에 이르러 유능한 설계사무소나 좋은 건축창작활동을 하는 사무소보다는 대관청 업무를 신속하게? 독하고 법규에도 부적합한 사항을 합법화? 하여 처리하여주는 설계사무소가 유능하다고 몰상식한 건축주들은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 우습기도 하고 바보스럽기도 하다.

건축설계를 완료하면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고 이러한 건축허가 행위는 몰상식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모 신문에서 북한산 주변에 산허리와 바위를 마구 깎아내고 고급빌라를 짓는 공사현장을 보았을 때 그 지역은 분명히 법으로 건축허가가 규제된 지역인데도 건축허가를 득하고 버젓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상식을 버리고 시행하는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는 비록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법행부와 시공과정에서의 위법을 가리는데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상식을 어긴 죄를 다스리는 법규는 없기 때문이다.

상식이 윤리와 법규와 행정의 바탕이라면 상식을 거스르는 행위가 반복되도록 법과 관행은 그대로 둘수는 없는 일이라 여겨진다.

상식이 통하고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법과 행정관행이 상식에 맞지 않으면 그 법과 관행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상식을 세우고 법과 관행을 상식에 맞게 보완하고 운용하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91한국건축전 수상작들에 대하여

—건축사부문 수상작품에 덧붙여—



李範宰 /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대한건축사협회가 새로운 건축품토와 후진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최한 '91년도 한국건축전 각부문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이중 건축사부문은 57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중 우수상 5작품, 준우수상 4작품이 선정되었다. 우수상은 성지원(강석원), 제주파라다이스호텔(김호), 봉명동성당(조구현), 윤봉길의사기념관(김기웅), 신암성당(김두권)이, 준 우수상에는 홍은동 H씨주택(최승원), 강릉 김씨주택(안문효), 북농종합운동장(김우성), 한전전남지사(이각표) 등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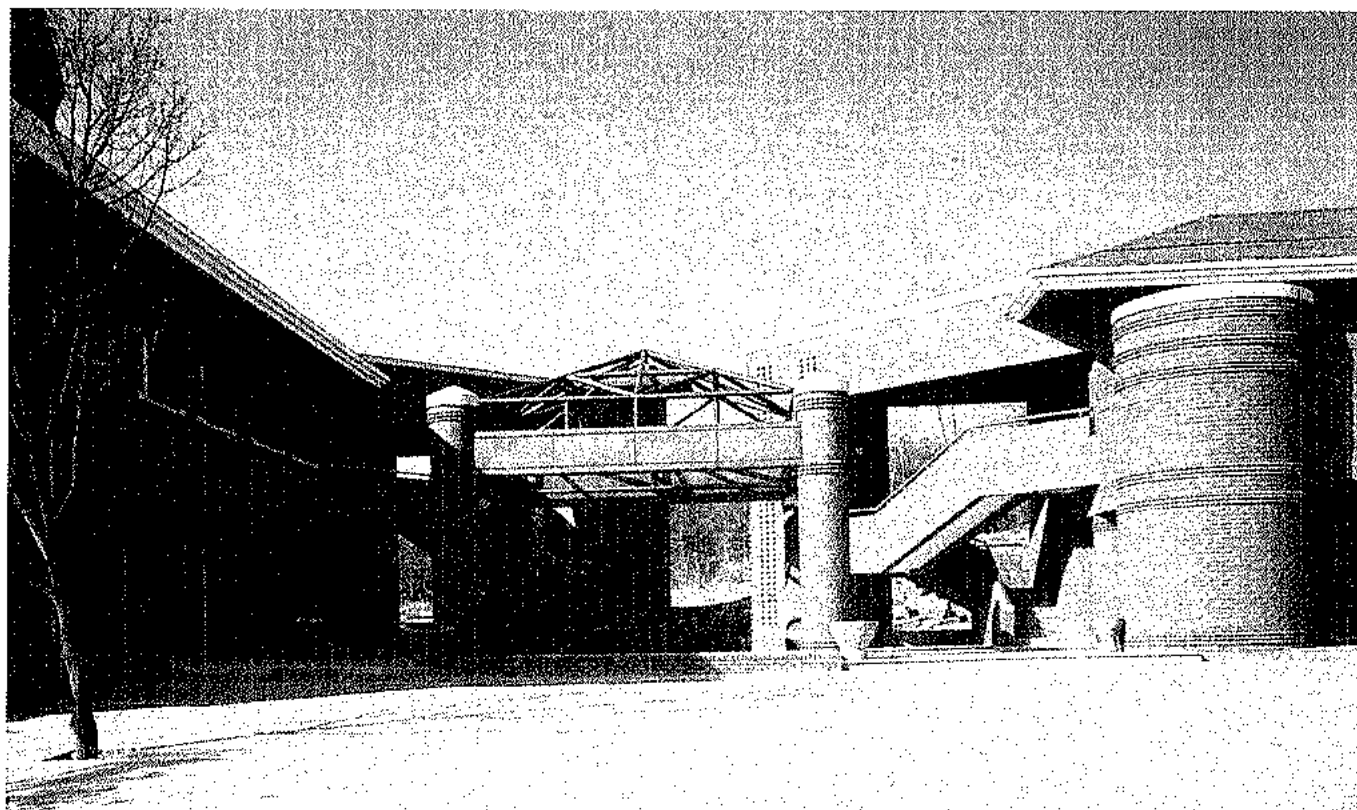
이를 보면, 주거관계설계가 2점, 스포츠시설 1점, 호텔 1점, 성당 2점, 기념관 1점, 오피스 1점 그리고 복지시설 1점 등으로 분포되어 있고, 우리에게 가장 큰 건축계에 비중이 있는 대단위 주거계획에 관한 것은 수상이 되지 않고 있다. 성당건축이 2점이 우수상을 받은 것은 역시 기념적인 상징성을 가진, 소위 작품성이 있음직한 대상물이라는 보통의 개념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대부분은 그 규모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작지 않았다는 것도 수상작의 공통적인 특성이라 하겠다.

우선 각 작품에 대하여 우수상을 기준으로 하여 몇가지 정리를 하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성지원

이 건축은 유료양노원이다. 작가는 기존의 양노원과는 달리 노인의 환경욕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아마도 노인의 특성상 생활규모와 활동범위의 축소에 의한, 시설에의 쉬운 접근성에 두지 않았나 싶다. 전체적으로는 붉은 벽돌로 마감을 하여 노인들에게 아늑한 감을 주는 재질을 선택하려했던 것이며, 과장되지 않은 지붕의 처리가 돋보인다고 하겠다. 중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여 내부에서 충분한 외부공간감을 맞보면서도 보호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싶은 작가의 의지가 확연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깨끗하고 조용하여, 활기찬 공간이라기 보다는 작품의 성격상 정갈한 느낌의 공간 연출을 의도했다.

그러나 외부 자연의 조용한 아름다움이 천장을 통한 실내광선의 유입 이외에는 극적인 연결성이 없는 것 같아서, 결국 외부환경과 건축물과는 단절시키고, 내부중정공간을 하나의 중요한 초점으로 하고 말았다는 예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너무 정갈하다거나 할까? 깨끗한 서양의 노인네들이 앉아서 토스트를 먹는 분위기보다는 담담한 동치미 국물을 먹을 수 있는 듯한 공간의 연출이 되었었으면 한다. 두개의 정사각형 매스를 연결하고 군더더기 없이 처리한 센스는 두드러지게 안정된 느낌을 주고



▲성지원

군데 군데 날카로운 삼각형의 예각을 계단의 용도와 연계시켜서 깨끗이 처리하였다.

2. 신암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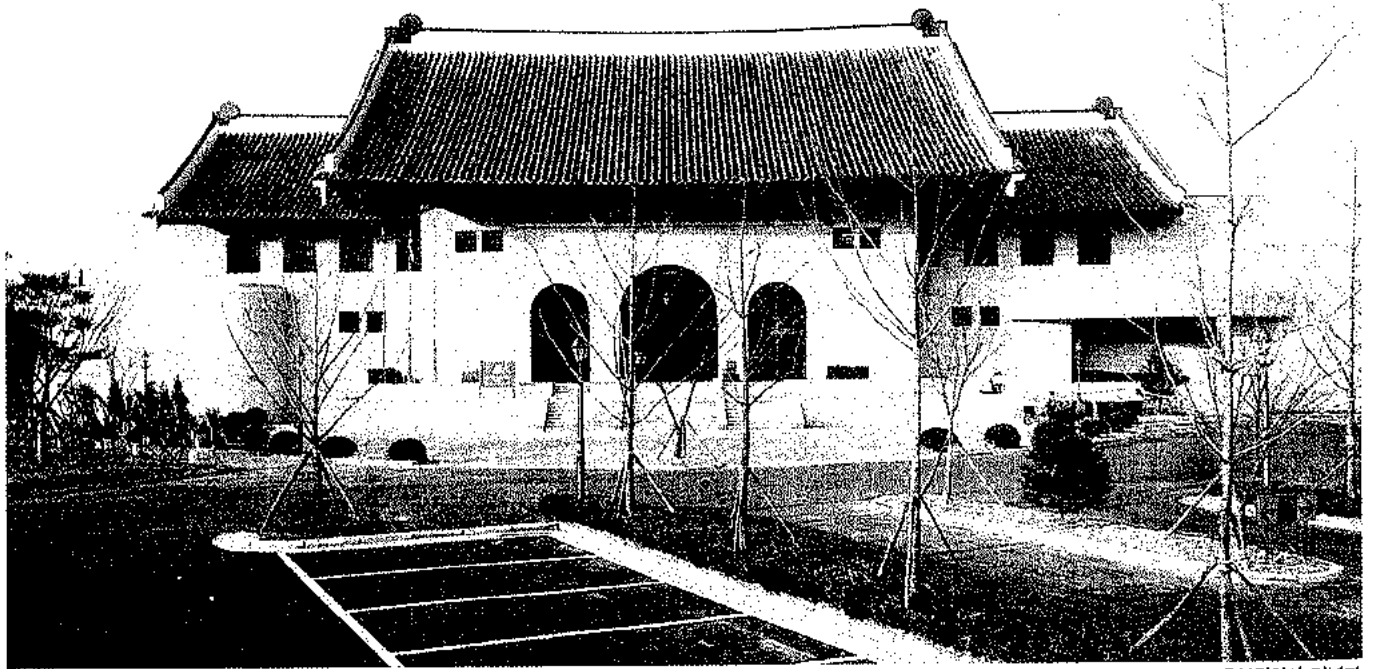
작가는 이 설계의 설명에서 '아름답고 무언가 평화가 깃들고 안식처의 푸근함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본인의 설명과 같이 이 성당에서 느끼는 느낌은 정제된 원칙에 의한 충실한 표현인 것 같다. 성당내부는 측면에서 유입되는 측광의 질서정연한 연출이며, 성당자체의 조형은 고즈넉한 옛날 집과 같은 안일한 느낌을 주고 있다. 아마 작가는 이 전체 대지를 생각함에 있어서 장래 증축예정인 수녀원을 고려하여 주 진입로 앞부분에 사제관과 수녀원을 배치하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주진입로의 입구측에 사제관과 수녀원을 배치한 것은 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회중석이 있는 본당의 앞쪽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증축분을 위한 대지를 남겨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앞쪽에 이른바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들을 놓게 되지 않았나 싶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 진입로앞에 사제관과 수녀원을 배치해 놓고 정적인 공간, 또는 프라이버시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싶다.

공간간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하고 입구로 향하는 동선을 정신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사제관을

점진적으로 돌출시켰다고 하지만, 그러한 점진적 돌출의 수법이 과연 본당입구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간적으로 정신적인 상승감을 주는 것인지는 좀 의아할 수 있고, 그러기에는 공간적인 긴장감이 느껴져 입구를 향하는 공간적 효과(즉 집중감이랄까 또는 대칭건물에서 느끼는 주출입구의 상징성이랄까 하는)가 제대로 형성되지는 못한 감이 있다. 종탑은 사실상 본건물군에서 물러나 있어서 그다지 효과적인 상징성을 갖지는 못한 것 같다.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작가가 의도한 바인지도 모르지만 역시 사제관이나 수녀원이 이 건축작품의 주테마는 아니지 않은가 싶다.

3. 윤봉길의사 기념관

이 작품은 우리에게 주는 바가 여러 면에서 많은 것이라 생각되는 건축물이라고 하겠다. 우선, 크게는 이 작품이 독립기념관을 설계한 동일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는 점과도 떼어낼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전통과 건축이라는 해 묵었으나 버릴 수 없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주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작가는 이 건물에서 주요한 '표현요소'는 벽이다'라고 했지만, 역시 가장 주요한 표현요소의 하나는 지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현대화된(?) 공포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상 느끼기로는 벽보다는 지붕에, 그리고



▲윤봉길의사 기념관

정면에 지붕 밑에 감추어져 있는 공포에 우선 더 압도적인 느낌과 건축적인 어휘를 인식하게 하고 있고, 벽은 그것에 비하면 덜 '표현'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작가는 '벽'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건축작품의 어느 부분을 작가의 개념을 표현한 어휘로서 받아 들여야 할는지 혼돈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을 우리의 전통과 꼭 연결시켜서, 또는 연상시켜서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자유로워, 어쩌면 이 건축을 보고 옛날의 우리 건축물에 대한 연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다(더구나 건축전공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는). 따라서, 과연 이러한 외형적, 표현주의적인 어휘가 적합한 것인지를 파악, 인식, 이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되는 바가 큰 것이다.

또 하나 작은 차원으로 본다면, 과연 여기 쓰인 여러 부분의 어휘—일부는 그대로 쓰여진 것들도 있고, 재디자인 한 것도 있고—가 과연 적합한 것이며 이른바 쓰기로 하였으면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를 정확히 구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내부 전시장의 구성과 홀의 연결은 보통의 평면배치형식을 택하였고 주 출입구는 두개의 기단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있다. 이것은 우리건축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단과 본 건물과의 관계와를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 있으나, 계단의 단수등을 너무 세세히 검토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될는지? 주요하게 생각된 벽—즉

경부고속도로를 상행하는 차량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 건물을 느끼게 하려는 배려로서의—의 단부가 그냥 얇게 모서리를 보여주는 처리는 마치 무대의 장치로서의 가벽같은 감을 주는 것같아서 원래의 본체부분의 알몸을 나타내 주는 것이 작가의 어떠한 의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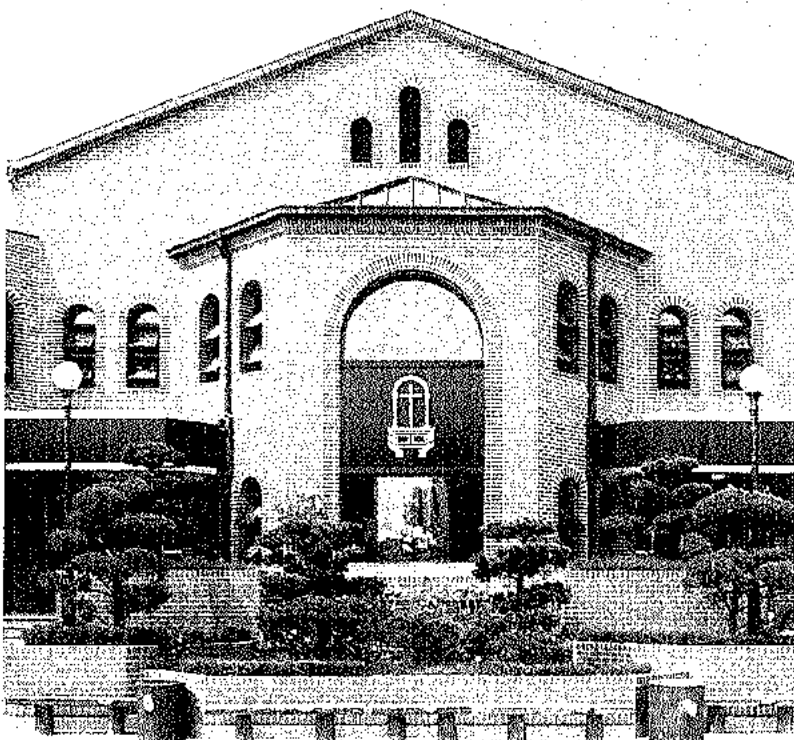
4. 제주피라다이스 서귀포 호텔

이 건물은 작가가 말했듯이(건축사지 9007호 P. 25), 마치 낡은 듯한 고가를 연상시키면서도 새로움과 친근감이 공존토록 배려되었다. 더욱이 지역상으로 우리나라의 남단에 위치하면서도, 동물이 육지와는 다른 서귀포에 건립되었다는 점에서도 독특한 공간구성과 분위기를 나타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할 것이다. 전체 배치에서 마치 계가 양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에서, 중앙의 피블릭 공간과 여기에 옥외 레스토랑과 옥내 레스토랑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건물 높이와 적절히 조화된 인간적인 스케일감은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객실들이 서로 꺾인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적합하게 개구부가 위치하여 프라이버시의 존중을 중하게 여긴 것은 당연한 배려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지붕을 이태리언기와로 이었기 때문인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 있고 지붕에 떨어지는 태양빛으로 생기는



▲제주파라다이스 서귀포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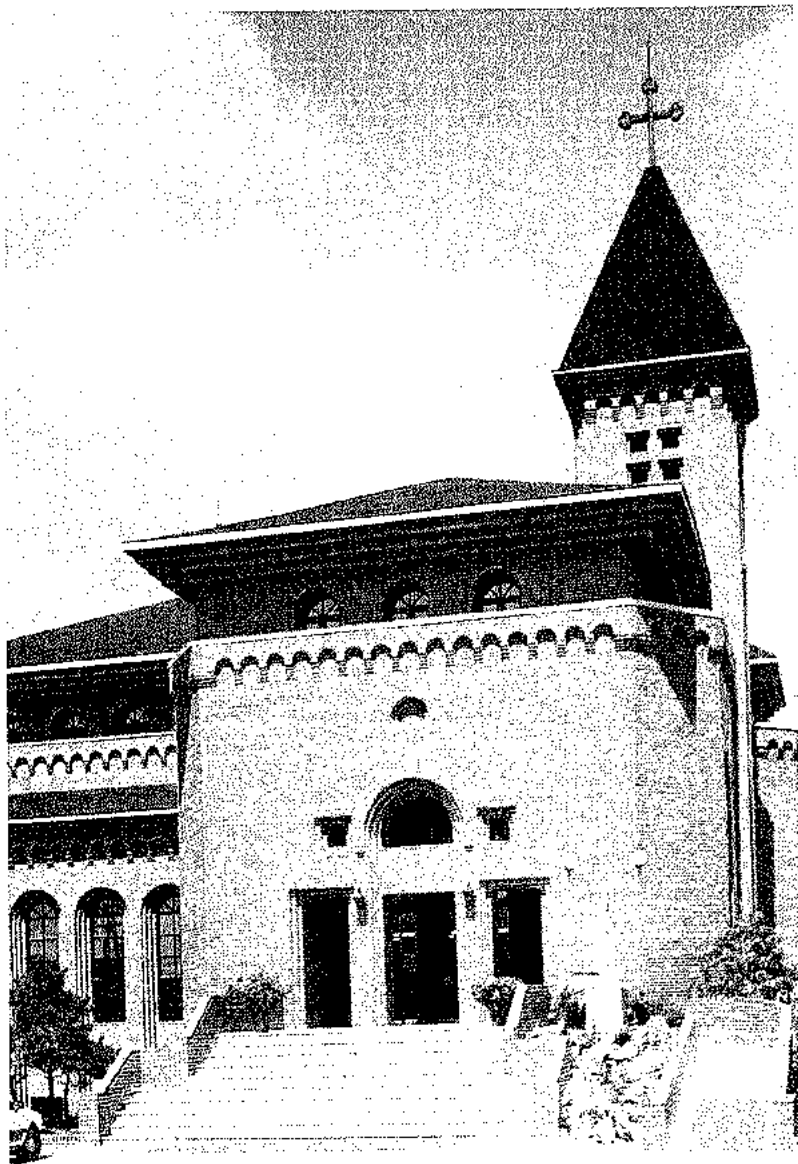
신암성당 ▼



작고도 세밀한 음영들은 지붕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있다. 반면에, 그 이외의 부분은 거친 마감을 사용하여, 거친 회벽, 목재를 노출 하거나 하여, 작가 말대로 '강렬한 태양과 기와끝이 연출하는 음영까지도 조화될 수 있도록...'한 작품이다. 한가지, 이러한 작품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한 풍토성이 물씬한 지역성이, 보다 더 우리 고유의 자재, 또는 기법으로 표현되었거나, 더 욕심을 낸다면, 이태리나 지중해지방이 아닌 우리 바닷가의 이미지를 물씬 풍겨줄 수 있는 작품의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가 있다.

5. 봉명동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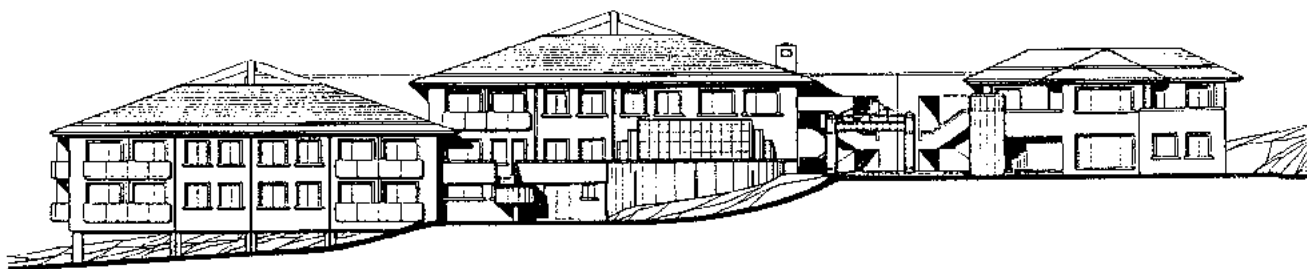
이 작품은 작가도 이야기했듯이(건축사지 9010호 P. 16) '신로마네스크양식'을 취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여기서 작가 자신은 '스케일과 매스에 위계성'을 주고 '종교적 상승감'을 주고, '포용과 조화'라는 개념으로 이 건축물에 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대지의 형상이 T자형이기 때문에 본당의 위치는 자연히 정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대지의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근래 많이 이용되는(대지가 좁고 기능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다층식의 단면을 갖게 되어 있다. 즉 1층과 2층은 사제관 등을 비롯한 부속공간이 차지하고 3층은 본당으로 되어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봉명동성당

건물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진 관계로 작가는 지붕과 처마사이에 약간의 음영층을 둔 것으로서 조형자체가 너무 수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려 한 것 같다. 작가자신은 '신의 스케일로 수직성 강조를, 서비스공간은 인간 스케일로 수평성을 강조'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수평성이 수직성과 같은 배려로 강조되었다고 느끼기는 좀 어려운 감이 든다. 이 건축이 갖는 이미지는 아주 고전적인 개념을 포함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벽돌이라는 오랜 역사의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라이트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처마의 수평적인 처리에서도 보이고, 더욱이, 신자석의 배치와 제대의 위치를 비롯한 실내 분위기에서도 이것을 느낄 수 있다.

절제된 빛과 제단을 향한 시각의 경쾌함은 결국 현대 한국에 세워지고 있을 여느 교회건축에서도 즐겨 애용되는 어휘라고도 할 수 있다. 제대를 향하는 벽면(양벽면)이 120°정도의 각도로 모아지는 병행성을 갖고 있으나, 이는 경우에 따라 애매한 사선의 모듬이 될 수도 있으므로 생각한 만큼의 집중력을 가지고 제대를 형상화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것이 결국 인간적인 척도를 배려한 '성(聖)과 속(俗)의 이원론적 공존'이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단 부분의 극적 공간형성은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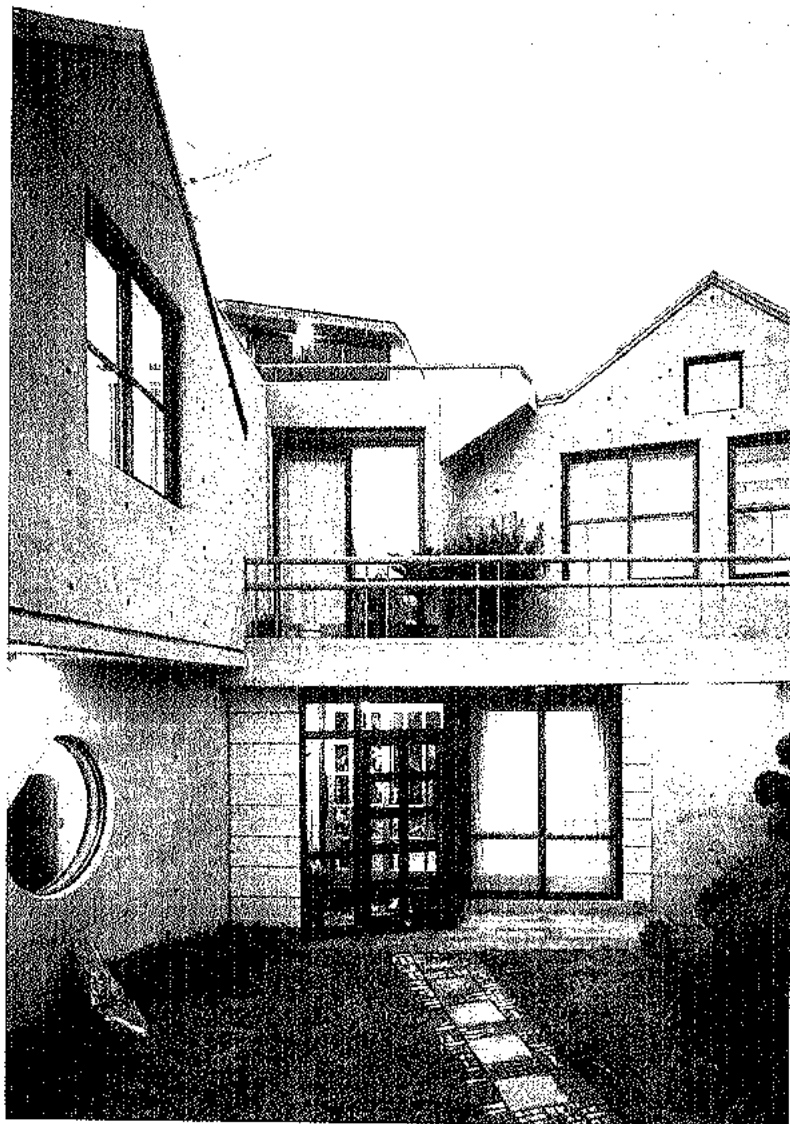
▲성지원

6. 준우수상들

준 우수상에는 복동수경기장 및 야구장,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 홍은동 H씨택, 강릉K씨주택 등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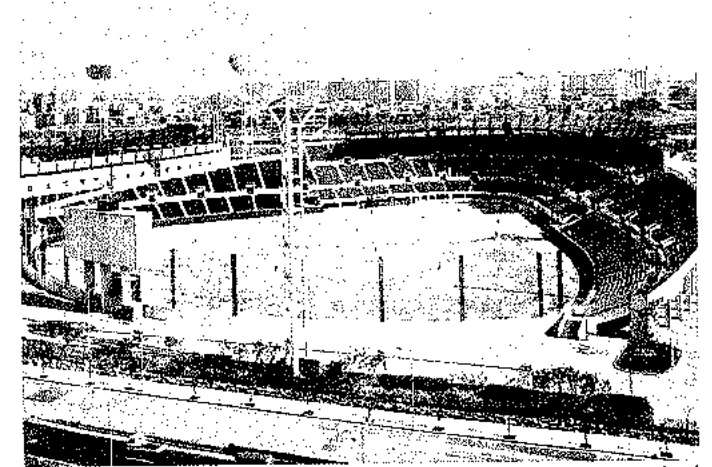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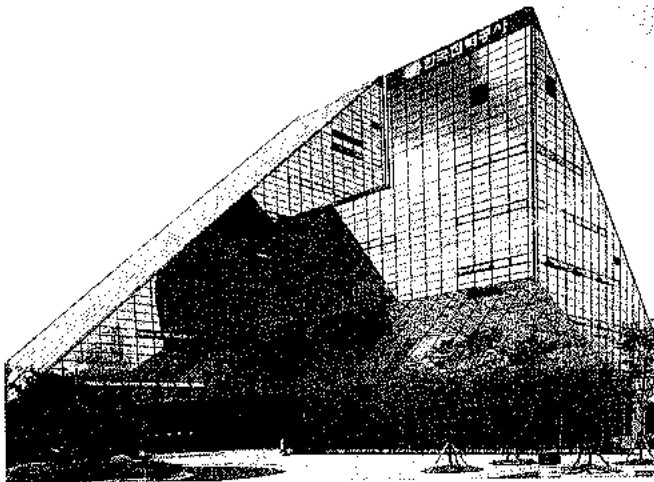
홍은동 H씨택은 건축면적 30여평의 주택으로서 작은 대지에 세운 도시형 주택이라고 하겠는 바, 작가의 뛰어난 센스는 대지의 형상에 따른 것이든 아니든간에, 아주 상쾌한 건물의 배치와 C자형의 배치로 생긴 뜰의 구성에 있는 것 같다. 약간의 각도들로 이루어진 모한 연결은, 어느 것하나 반듯한 것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간결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 소박한 재질로 소박한 마음을 하였기에 다른 주택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과다자인(Over Design)한 곳이 전혀 없이 느껴지는 간결한 바느질이 호감을 갖게 하는 작품이다. 침실에서 마당쪽으로의 원형창문의 처리는 간결하면서도 액센트를 주는 기법으로 이해된다. 다만 그다시 필요치 않은 빛의 유입은 실내공간의 아늑함보다는 산만함을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 바도 없지 않다. 여기에 비해서 강릉 K씨주택은, 비교적 주위의 환경이 전원적이고(비록 강릉이라는 도시에 있다 해도...), 전통가옥이 이미 세워져 있던 곳에 새로운 현대식 주택을 설계한 것으로서, 여러가지로 대응되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작가는 '단순한 외형적인 접근보다는 보다 공간적인 접근이 전통적인 것에 가까이 가는 시도'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본인의 설명). 물론 이것은 작가 자신이 전통에의 접근을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겠고,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태도에서 나온 여러가지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작품인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작품에서 가장 호감을 주는 요소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옛 전통을 간직한 듯한 느낌이 되살아난다는 점이다.

이 주택은 전체적으로 보면 초가집같기도 하고 기와집의 변형같기도 한 모한 느낌을 주면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오히려, 부분적인 요소들을 세심히 살펴보면-예를 들면,



▲홍은동H씨택

난간의 디자인, 거실내부의 노출목재 천장브레싱, 지붕의 이음새 등-전혀 현대적인 세련미나, 옛 전통의 전통미와는 기리가 있는 것 같은 점이 더 많이 눈에 띈다. 즉 작가 자신은 내부에서의 '점점의 구획지며 형성되는 공간들...', 암시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성의 계단들..., 이러한 반복의 총체...' 등을 말하고 있으나, 평면의 구성이나, 거실의 구성, 그리고 건축물 자체가 갖는 내부공간의 느낌과 그 구성기법은 극히 근대적 개념의 보편적이라 하겠다. 거실이 대체적으로 8각형인 것은 미루어 생각컨대 팔각정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드는 바, 앞서의 홍은동 H씨택과는 여러가지 의미로 비교가 되는 바 많다. 홍은동 H씨택의 평면 구성은 그 각각의 모한 각도와 연결방식으로 인하여 외형은 아주 현대적으로 보이면서도 전통공간의 특성을



▲ 북동 야구장

◀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

보인다면, 이 강릉 K씨주택은 외형은 오히려 전통요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내부 공간구성은 현대적인(아니면 근대적인) 한국인의 보편적인 취향과 법칙을 따르고 있다. (작가 자신은 반대로 이야기하지만...)

북동 주경기장 및 야구장은 그 공간과 기능의 문제보다는 우선 질 높은 디자인 센스가 돋보이는 작품으로서, 군더더기없는 경쾌한 어휘가 훌륭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외주부의 열주공간이 사람들에게 중간적 공간으로서 의미를 준다면다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저, 간결하고도 차가운 느낌을 주지만은 않고 가만히 보면 어떤 구석에선가는 우리 현대생활의 단편적인 면인 냉철하고도 친근한—이율배반적인 삶의 한 단면—것을 주는 것같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인 경우도 같다 하겠다. 역시 반사유리가 주는 차가움과 대담한 사면에서 주는 경외로움 속에서 생겨나는 간결함이, 또한 현대인에게 시니컬한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마치 도시사람이 공기가 오염되고 시끄러운 도시를 결국 떠나지 못하고 그 복잡함과 어지러움을 자신도 모르게 좋아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군더더기없는 아름다움이란 면에서 두 작품이 갖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7. 종합평가

수상작에 대하여 각기 건축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대체적으로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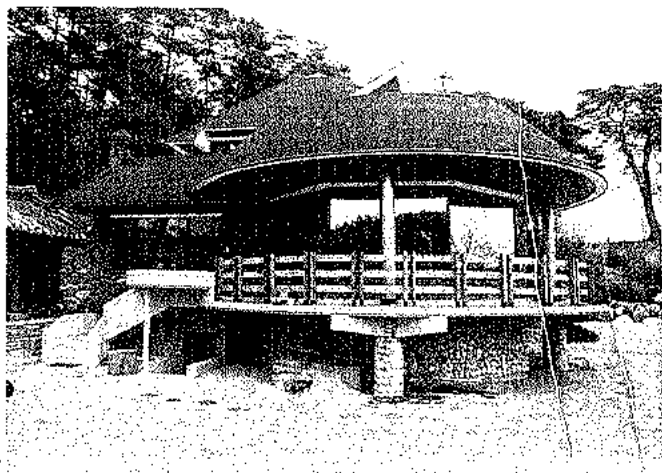
① 각 수상작품들의 하나하나를 보면 현대 우리 생활과 건축과의 연관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의 초기 개념설정과정에 보다 더 건축적인 건축가 자신의 의지가 있었으면 한다. 즉 공용장소를 많이 만들어 주고 싶다는가, 자연스런 채광 및 실내정원을 조성해 주고 싶었다든가, 온은한 빛의 효과를 성당에 주고 싶었다든가하는 것은 건축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법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원초적이고도, 근본적인 작가의 건축개념보다 이러한 해법(解法)위주의 과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작가 자신의 오랜 경험과 개인적 수련에 의한 감각적인 처리와, 이것이 주는 작품으로서의 감동도 대단한 것이지만, 자칫하면 시각적인 처리와 조형적인 센스와 조그만 부분들의 감각적인 처리에 집착될 수도 있는 것이다.

② 실제로 우리가 수상작들에게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것'이라는 일종의 감흥이 가슴 속에 와 닿지를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붕의 선이나, 재료를 비슷하게 사용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건축의 원본(Originality)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③ 수상작들에게 대부분 공통되는 것은 대개가 신고전주의랄까, 신근대주의(?)랄까 하는 고전적 디자인 개념이다. 자재사용에서부터 계획하는 과정과 결과자체가 근대건축의 개념에서 거의 탈피하지



▲목동주경기장



강남 K씨주택▶

못하고 있다. 이것은 비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수상작들의 우열을 가리기가 극히 힘든 이유중에 이러한 경향이 공통적으로 각 작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수상작들에 대한 판단은 건물의 매스와, 외부공간과 건축의 입면과 색조 등, 시각적이고도 단순한 판단기준밖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건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남겨주게 된다.

④ 홍은동 H씨택이 우리에게 인상깊게 남는 이유는 단순한 재질의 건축이면서도 이제까지의 주택(보통은 붉은 벽돌에, 박공지붕, 스케일이 과장된 벽면, 지붕높이 등의 인식이 있다)과는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소박하면서도 안온한 공간의 연출이 가능하게 느껴지게 된다. 다만 내부의 공간이 외부의 이미지를 잘 소화해 내고 있는가, 연속성이 있는가는 논외로 치기로 한다면, 사실, 붉은 벽돌의 교회, 커튼월의 오피스빌딩, 콘크리트구조의 구조물 등등은 보통 우리가 인식하는 샌스와 보편성을 뛰어 넘는 것이 아니며, 홍은동 H씨주택의 호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상하이뱅크, 중국은행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멀리는 풍피두센타와 같은, 사고(思考)의 대변화에 의한 작품이 하나 둘 정도는 포함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소위 HIGH-TECH 또는 HIGH-SENSE의 건축작품이 기대되는 바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방법론에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⑤ 우수상과 준 우수상의 구별기준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바가 있다. 과연 우수상은 준 우수상보다 어떠한 점이 '우수'한 것일까?, 규모?, 조형성?, 공간의 문제?, 기능적인 처리?, 환경과의 조화? ...등, 어떠한 점이 있을까가 무척 궁금하다.

작품의 '서정성'이라는 것에 혹시 높은 평가기준을 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다. 실제로 선정된 작품들을 보면, 상당히 서정적이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시끄럽고, 혼돈된 가운데서 인간의 생활을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건축이 너무 낭만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닐지?

도시적 맥락과 연계되는 건축, 일정한 계층이 아닌 여러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 담겨진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자(尺)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겠거나 했겠지만, 성당, 기념관, 제주도의 호텔, 경기장, 시골의 주택, 등등이 우리건축의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의미는 좀 색다른 느낌도 든다. 사족이지만, 건축사협회가 '건축문화의 발전과 새로운 건축풍토조성 및 후진양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최'한 한국 건축전이라면, 그 뜻에 알맞는, 심사의 기준(물론 있었겠지만), 주관점, 건축에의 심사개념 등등이 보다 포괄적으로 밝혀주었으면 어떨까 하며, 개성 건축사 작품은 출품작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좋은 작품을 찾아내고 이를 포상하는 열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日本史 속의 건물과 도시(2)

Buildings and Cities in Japanese History

趙仁淑 / 다리건축
by Cho, In-Suk

목 차

1. 개관—원시시대
2. 제례의식, 불교건축
3. 都邑
4. 住居와 조경
5. 사무라이 文化와
쇼인(書院) 茶室과
스키야(數奇屋)
6. 城의 時代
7. 에도(江戸)—‘空間’과
‘場’으로서의 江戸시대
8. 民家
9. 근대건축의 태두
10. ‘전통’의 재고,
현대건축의 과거

초기일본문화(계속)

야요이(彌生)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을 좀 더 부연하자면 이러하다. 농업이 사회의 지배적인 생산형태가 되면서 토지는 본래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는 ‘재산’이 되었다. 처음에는 씨족공동체의 소유였으나 생산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생산물을 관리·분배하는 등의 공공의 사무가 많아지고 복잡하게 되었고 한편 여러 씨족들이 농업에 알맞는 토지를 찾아 끊임없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것은 부족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전쟁의 지도자들은 점점 권위가 높아졌다. 또한 항상 신(神)에게 제사를 올리고 신의 가호를 기원하는 것은 씨족·부족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일이었기 때문에 司祭者의 권위도 높아졌다. 사제자는 씨족의 중심인 어머니나 그의 직계딸이 되는 것이 통례였다고 생각되지만, 생산과 분배의 관리자와 군사지도자는 대체로 남자가 맡았던 것 같다. 이러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야요이(彌生)문화 중기에 생겼다. 족장의 氏人에 대한 권력과 권위의 증대와 여러 씨족·부족적 집단 사이의 지배·종속 관계의 발전은 상호작용하여 계급분화와 대립이 점점 커지게 되자 국가가 정립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러 국왕들의 지배영역을 확대하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서로 전쟁을 거듭하게 되고 2세기경에는 중국의 史書에 ‘倭國이 크게 어지럽다’고 쓰일 정도로 사태가 발전하고 3세기경에 야마타이(邪馬臺)라는 나라가 발전한다. 이 나라는 大國으로 정치적인 합병과 영토권을 수렴하는데 있어 일종의 혼란이 생겨

원래는 남성이 지배하였었지만 히미코(卑彌乎)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게 된다.
“히미코(卑彌乎)는 마술적인 힘이 있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늙도록 결혼을 안하고 있었으며 남동생이 통치를 도와 주었다. 그녀가 통치를 맡고난 후 그녀를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고 1,000명의 여시종과 단 한 명의 남자시종이 있었는데 남자 시종이 음식이나 마시는 것들을 시종들고 대화의 창구역할을 해 주었다. 그는 탐과 말쑥을타리로 둘러싸인 성(城)속에 살면서 무장된 군인들을 두어 조금도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¹⁾
히미코(卑彌乎)의 권한은 분명히 종교적이고 마술적인 힘에 근거하지만 아마도 동북아시아의 샤머니즘(shamanism)으로부터 유래된 듯 하며 이는 초기 일본사회에 널리 전파되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神話에 의하면 日本에서의 지배왕조는 태양신 아마테라스(天照らす)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최고의 神이요, 신도의 萬神殿의 神이요 정당하게 선발된 神이다. 히미코가 통치했던 야마타이(邪馬臺)라고 하는 곳은 사실상 어디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1. 도리이(鳥居)의 기원과 신도(神道)

신도(神道)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신(神)들의 길’이라는 의미가 있다. 신도(神道)에서 中心이 되는 것은 가미(神)인데 가미라는 말 자체는 단순히 ‘위’(upper나 above)라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지 어떤 초월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도라는 것이 世上에 존재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지 종말론이나 死後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가미(神)또한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 어떤 힘에 관련된다.

신도(神道)에서는 청정식(淸淨式 purification)이나 제제식(齋戒式, lustration)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사로 예배자나 사제간에 행해지는 주된 행위이다. 신도에서의 청정의식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것이다.

갯사이(潔齋)라고 하는 외적(外的)이며 물리적인 청정은 대개 예배자들이 하는 것으로 신사(神社)를 방문하면 입과 손을 물로 씻음으로써 청정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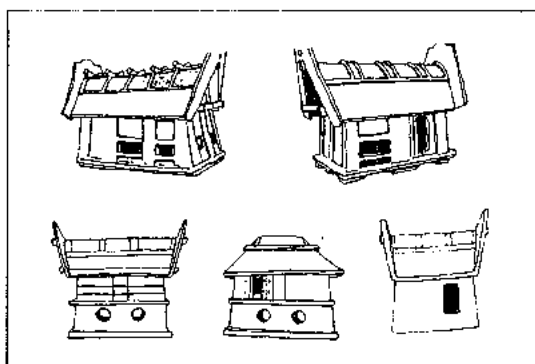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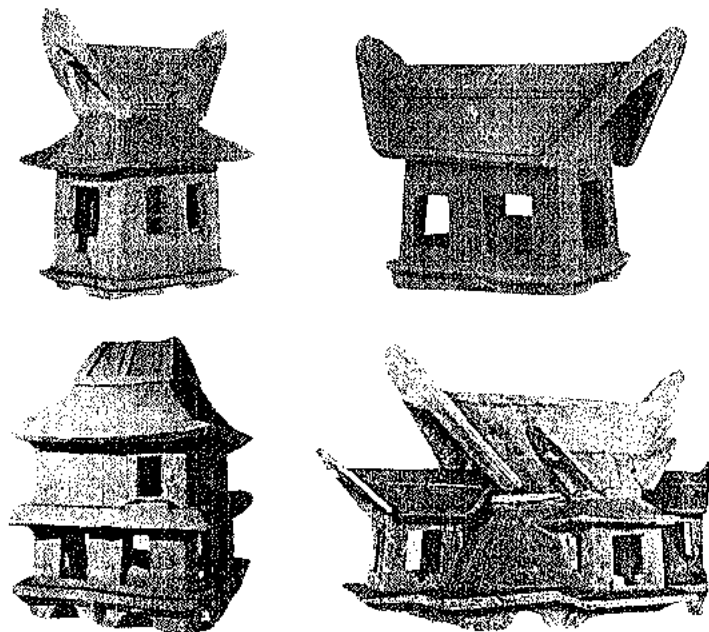
하라이(禊)라고 하는 내면적인 청정은 오로지 사제를 보호하는 것으로 사제가 지팡이를 흔들며 표시한다. 그가 신자를 청정하게 해주면 그의 영혼은 원래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도(神道)전통에 무수한 신화가 있지만 특히 고지끼(古事記)와 니혼쇼키(日本書紀)에 기록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보자.

이자나기노미고토(伊弉諾尊)와
 이자나미노미고토(伊弉由尊)라고 하는 자매신이
 부류하는 땅을 만드는 것을 배우자 조그만 섬을
 만들게 된다. 그들은 하늘다리를 통해 그들이 만든
 섬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많은 신(神)들을 자식으로
 두게 된다. 불의 신(火)을 만들다가 이자나미가 크게
 화상을 입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오르페우스와
 유리디체의 전설처럼 이자나기가 이자나미를 데리러
 가는데 갑자기 그의 몸에 구더기가 돌끓어 물가로
 가서 그의 몸을 씻는다. 그때 그는 한 무리의 새로운
 신(神)을 만들게 되는데 이중에 왼쪽눈을 씻을 때
 태양신이 나오고 코를 씻을 때 폭풍의 신(神)이
 만들어진다. 태양신은 높은 하늘을 지배하기로
 약속받고 신도(神道) 萬神殿에서 최고의 신이 되며
 그의 오빠 수자누는 바다를 지배하게 된다. 수자누는
 여동생 태양신에게 안녕을 고하려고 하늘로 간다.
 수자누는 궁전을 부수는 등 온갖 못된 짓을 하자 화가
 난 태양신은 그녀의 몸을 동굴에 숨겨 온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자 그녀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다른 신(神)들이 떠들썩한 잔치를
 벌여 동굴앞에서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해 장대 끝에
 새를 얹었다. (도리이(鳥居い))태양신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고 세상은 빛을 회복하게
 된다. 소위 말하는 암굴("Rock cave")이야기 가운데
 도리이(鳥居い)는 역사 이래로 신사(神社)의 입구가
 되어 모든 신사 및 조그만 시골의 神社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태양신은 손자 니니기를 "풍요로운
 곡식의 땅(日本)에 보내면서 왕위의 상징인
 청동거울, 칼, 곡옥(曲玉)등 중국에서 건너온 희귀한
 보물을 준다. 이러한 보물들은 야요이 중기부터 무덤
 부장품으로 발견되는데 지배자 계급의 권위의
 상징으로 쓰였다. 특히 청동거울은 최소한 2차
 세계대전 말까지만 해도 태양신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라 믿어졌었다. 전설에 의하면 그것은
 이세(伊勢神宮)에 두었다고 하는데 이는 황제가
 그것을 궁전가까이 두자 뭔가 편하지 않은 일이 생겨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때 이래로 이세(伊勢神宮)의
 최대의 의무는 왕위의 상징인 거울을 그곳에 두는
 일이 되었다.

2. 이세(伊勢神宮)

300년경 고훈시대(古墳時代)라고 하는
 초기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미술품으로는 하니와(埴輪, 土俑)라고 하는
 테라코타로 만든 형상으로 사람, 동물, 집모양 그리고
 배모양의 것들이 있다. 초기의 하니와(埴輪)는
 단순히 원통형이었으나, 나중에는 死後의 세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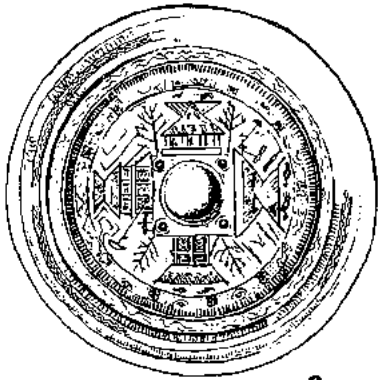


새로이 창조하는 이미지들을 통해 살아있는 것이나
 일반적인 물건들을 묘사한다. 무속적(巫俗的)인
 여자형태 말고는 대개의 하니와(埴輪)는 아주
 세속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혹자는 이 모습이 초기
 일본인들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하는데 어쨌거나
 이 하니와들은 미학적으로 볼 때
 야요이(彌生)토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日本을
 나타내는 훌륭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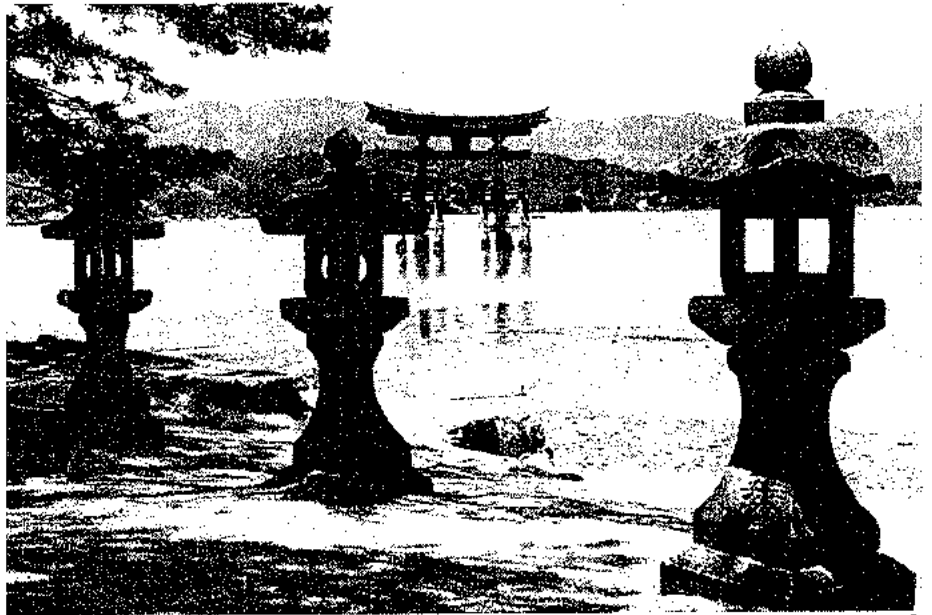
4백년경에는 장례부장품들이 바뀐다. 5세기경이
 되면 좀더 실용적인 도구나 철기등의 물건들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부사(武士)나 말의
 하니와(埴輪)이다. 5세기의 왕조는 6세기초를
 지배했던 왕조에 의해 밀려나게 되고 6세기 중엽에
 마지막으로 왕조의 변천이 일어나게 된다.
 태양신에게 있어 대표적인 기념물은
 이세(伊勢神宮)이다. 이 집은 왕위의 상징인
 동경(銅鏡)에 나타난 태양신의 이미지가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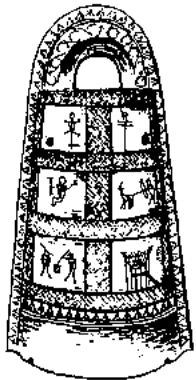
- ① 집모양 하니와(家形埴輪)
 (日本美術史 p. 28)
- ② 家形 埴輪(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p. 55)
- ③ 巫女 하니와(Japanese Culture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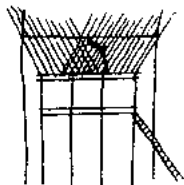
4



7



5



6

- ④ 청동거울 (銅鏡)
IC경 나라현 (奈良縣) 寶塚古墳出土,
'家屋文鏡'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p.55)
- ⑤ 銅鏡
단독주춧돌, 유일한 묘사자료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p.55)
- ⑥ 디테일
단독주춧돌, 유일한 묘사자료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p.55)
- ⑦ 도리이 (鳥居い)
(Japanese Culture p.11)

이세神宮은 삼(杉)나무를 그대로 사용해 만들었고 자연상태로 잘 보존된 아주 좋은 예이다. 이 神宮은 20년마다 옆 땅에다 새로 지어서 보전을 한다. (최근 새로 지은 것은 1973년이다.) 이 독특한 관습은 아무도 왜 그런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 아마도 나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다고 한다. 고상식(高床式)바닥과 박공지붕, 용마루의 치솟음 등은 신도(神道)건축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런 형태의 건축물은 도다꾸(銅鐸)라고 알려진 야요이(彌生)중기 청동종에 새겨진 線의 그림들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고훈(古墳)時代의 부장품인 집모양의 하나와(家型埴輪)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이 형태는 때로는 '창고식 건축물'(구라(藏))이라고도 불리운다.

이세(伊勢)건물에 보듯듯이 구조가 아마도 맨 처음에는 곡물창고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똑같은 구조의 건물이 궁전이나 신궁(神宮)에도 쓰여졌다고 믿어진다.

3. 기둥(柱, the Pillar)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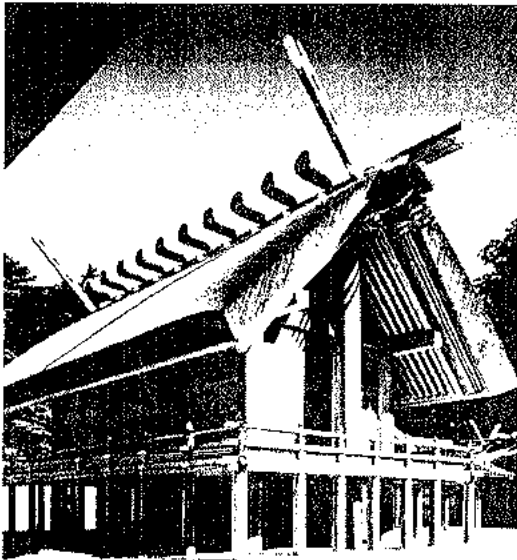
고지키(古事記)나 니혼쇼기(日本書記)에는 또한 이자나기(伊弉諾尊)와 이자나미(伊弉冉尊)가 어떻게 아메노미하시라(天之御柱)하늘기둥을 세웠는지에 대한 신화가 있다. 사실상 그 기둥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기록에는 두 신(神)이 오노고로 섬에 내려와 하늘기둥(天柱)을 세우고 야히로도노(八尋殿)를 만들었다고 한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 기둥은 두 신이 결혼식을 올린 八尋殿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서있는 기둥이었다. 니혼쇼기(日本書記)에는 또 이자나기(伊弉諾尊)가

팔 중의 하나인 태양신 아마테라주 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를 하늘로 보낸 얘기도 있다. "하늘과 땅이 미처 분리되기 이전에 이자나기는 하늘기둥(天柱)을 통해 땅을 내려보냈다."³⁾ 만일 그 기둥이 야히로도노(八尋殿)⁴⁾안에 있었다면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수평부재를 받치고 있었을 것이며 그 부재위로 연장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기둥하나만 세워놓는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그 중 나가노현(長野縣)의 수와(諏訪)神宮이 있다. 수와 神宮에는 네가지 구획이 있는데 가미수와(上諏訪)의 모도미야(本宮)와 마에미야(前宮), 심모수와(下諏訪)의 하루노미야(春宮)와 아끼노미야(秋宮)이다. 각각에 커다란 네 개의 둥근 기둥 혹은 옴바시라(御柱)가 있다. 이 기둥들은 각 구획의 네 귀퉁이에 세우는데 대개 12~17m 높이에 밑둥지름이 약 70cm되는 큰 기둥인데 7년마다 새 것으로 갈아 세우므로 수와(諏訪)의 기둥축제는 유명하다. 기둥을 세웠던 이유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기둥 그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독기둥 뿐 아니라 건물에 집어넣어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던 기둥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에현(三重縣) 이세(伊勢神宮)와 시마네현(島根縣)의 이즈모(出雲神宮)이다. 이 두 神宮에는 신노미하시라(神の御柱)라는 신성한 중심기둥(心柱)이 있다.

신도(神道)기록에 伊勢의 神宮중에 이 心柱에 대해 이렇게 써 있다. "心柱(神の御柱)는 모든 것의 기원이면서, 황제의 생명이며, 국가의 기원이며, 부(富)의 근원이며, 영원불멸의 것이다." 사실상



8

지금까지도 이 心柱는 숭배의 대상으로 神宮을 새로 지을때마다 특별축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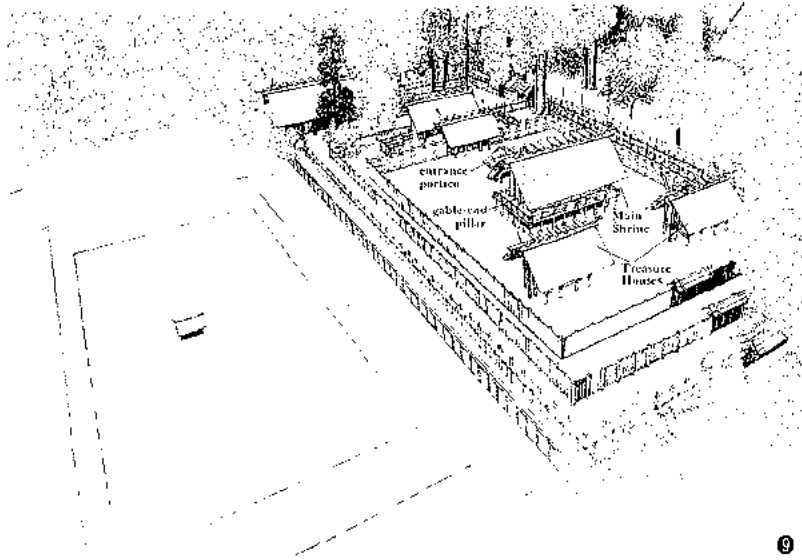
神聖화된 기둥이 神宮의 일부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임바시라(齋柱, Purified Pillar)’라고 하는 용어는 오토노호카이(大の祝い)라는 제례속에 새집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도들이 제공하는 데서 볼 수 있다.

기둥의 중요성이 神이나 人間을 세는데 ‘기둥’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확실해진다. 왜 수를 세는데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계적으로 볼 때 원시조각은 人間の 형태를 묘사하여 하니와(埴輪)나 고게시(등근목각인형)를 포함해 대체로 원통형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원시인들이 人間の 모습을 그려내는 혼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기둥’이란 용어로 사람을 세는 것이 이러한 지각작용의 자연스런 발로였다. 사실상 기둥은 처음에는 사람을 세는 말로 쓰이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神을 세는데 적용되었다. 특히 불교에서는 부처 그 자체 보다는 불상을 세는데 훨씬 자주 사용되었다. 기둥은 단지 일본에서 뿐 아니라 많은 古代人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원시종족에게까지 중요하다. 신석기 시대에는 멘히르(Menhir, 선돌),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인디아의 슈탐바(memorial Pillar), 중국의 후아빠오(華樑성이나 주백, 무덤의 문에 세우는 기둥), 그리고 북미인디안의 토템폴(the totem pole)등이다.

기둥으로 건물의 전수를 보는 것은 건물을 내부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꼭 찬 그 무엇(material object)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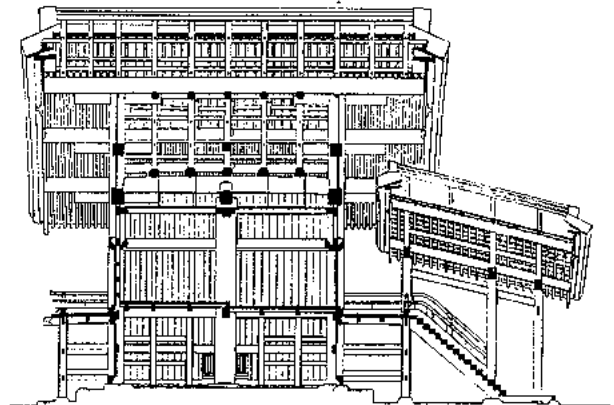
(제례의식과 불교전축은 다음호에 계속)



9



10



11

- ⑧ 伊勢神宮(Japanese Culture p.15)
- ⑨ 伊勢神宮(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p.41)
- ⑩ 심모수외(下源訪神宮), 하루노미야(春宮)의 제2임바시라(御柱)(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P.9)
- ⑪ 이즈모(出雲神宮)의 단면과 神의御柱(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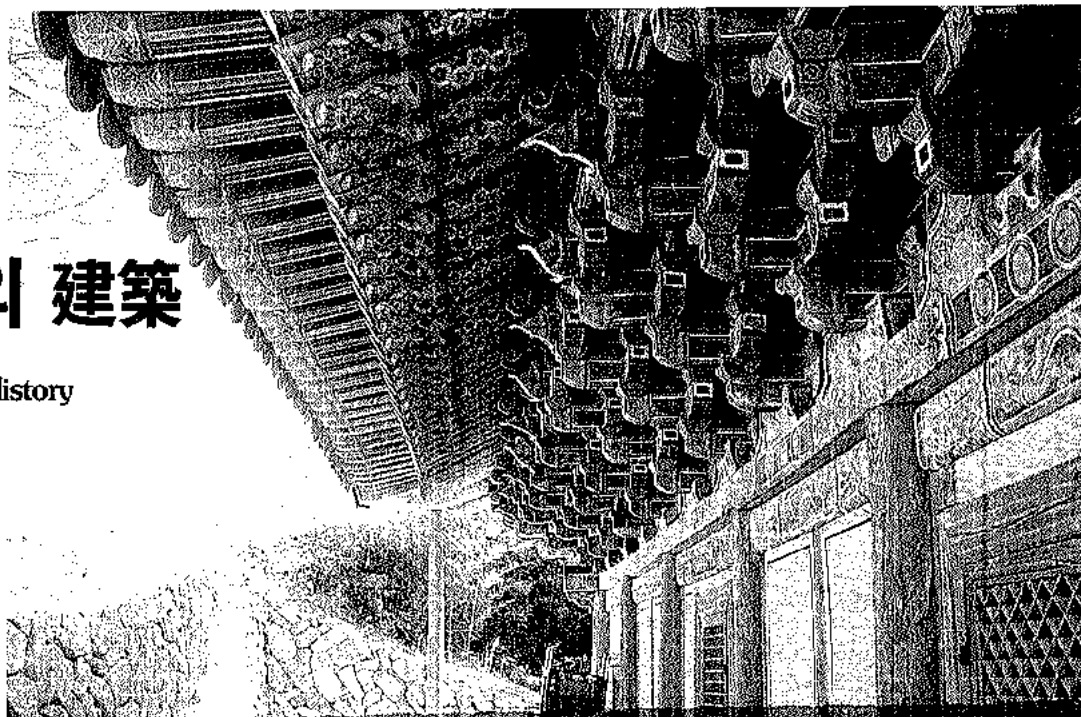
참고문헌

1. Japanese Culture by H. Paul Varley(Chap.1)
2.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by Mitsuo Inoue(Chap.1)
3.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by Kazuo Nishi and Kazuo Hozumi
4. 日本美術史 監修 山根有三
5. 日本の歴史 by 井上清 (서동탄 옮김)

- 1) Sources of Japanese Tradition P.8)
-류사키 츠노다, 할리암 드바리, 노날드 키이니
- 2) 이노우에는 기둥을 초기적인 공간의 인식이라고 본다.
- 3) 日本書記
- 4) 히로(尋)는 밭(약6척)으로 좌우로 벌린 양손 끝사이의 거리로부터 나온 길이다.

朝鮮시대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10. 조선시대 다포건축의 예

전호에서는 조선시대 다포집 건축 중에서도 그 기법과 장식이 특이하고 지역적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중기이후의 건축을 다루어 설명하였다. 이번에도 계속하여 다포계 건축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1. 鳳停寺大雄殿

봉정사는 경상북도 안동군 天燈山 남쪽 기슭에 있는 개북산성 아래에 위치한다. 이 절에서 동북쪽 능선을 한 고개 넘어서면 개목사가 있어 보통로 지정된 개목사 원통전을 볼 수 있다. 이 봉정사는 7세기말 의상과 그의 제자인 能仁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 입구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면 만세루가 있어 그 밑을 통과하게 되어있고 이를 지나면 바로 마루 보이는 것이 봉정사대웅전이다. 이 봉정사대웅전 서편에는 이미 기술한 우리나라의 현재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봉정사극락전이 놓이고 그 앞단에 화엄강당과 고금당이 있으며 동쪽으로 요사채가 놓여있다.

이곳 대웅전은 우리나라의 현재 남아있는 다포계 건축중 개심사대웅전과 같이 가장 오래된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세부적인 기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형식으로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믿어진다. 자연석 허튼층쌓기 기단 위에 정면3칸 측면3칸 다포계 팔작집을 세운 것이다. 평면으로 보아 정면과 측면의

비가 약 1.5:1이 되는 적당한 평면에 정면에는 세살 분합문을 모두 달고 측면 전·후협간에 정자살 2분합문을, 그리고 후면 3칸에도 편문과 끝판문을 달았다. 특히 정면에는 양협간 중앙에 문선대를 세워 그 양편으로 2분합을 각각 단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문틀 중간에 문설주를 세우는 방식은 부석사무량수전, 수덕사대웅전 등 오래된 건물형식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특히 수덕사대웅전이나 무위사극락전의 후면 2짝판문도 여기서와 같이 중앙에 문선을 두어 그 양편에 편문 한 짝씩을 달았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로는 보기 힘든 기법이다. 건물의 내부바닥과 천장은 우물마루와 우물반자를 짜았고 건물내에서 시선을 끌게 하는 것은 오래된 단청의 문양과 그 색이다. 기둥과 보의 제형에는 용을 화려하게 그리어 아직도金色이 잘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에는 찬란한 금은색을 발휘하였을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공포는 내·외 2출목을 꾸미었는데 두공과 첨차가 모두 교두형 즉 끝이 弧形을 이룬 형식인데 출목살미의 바깥 끝은 힘있게 밀로 치진 쇠서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쇠서가 힘있게 밀로 치진 것은 북한의 심원사보광전이나 석왕사호지문 등 고려말 조선초의 다포계에서 볼 수 있고 남한의 서울남대문·개심사대웅전 등에서 볼 수 있는 다포계의 초기적 특징을 보인다.

이 건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쇠서살미 위에 바로 한대를 놓았거나 짧은 보를 얹고 있어 그 모머리가 외부로 투박하면서도 둥글게 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대들보는 이 위에 얹혀져 있다. 또 귀공포의 짜임은 부석사무량수전의 귀공포의 소첨과 대첨의 짜임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이며 오래된 古式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건물 지붕 밑의 조사에서 주심도리를 받치는 부재가 부석사무량수전의 주두와 첨차 형식의 부재를 얹어서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대의 폭을 더 넓게 상상토록 해준다. 또 반자속에 있는 마루대공은 동자대공을 세웠는데 그 밑받침으로 '山'자형의 화반을 둔 것과 대공상부에서 솟을 대공과 함께 간결화된 포대공을 짜았다. 이 '山'형의 받침화반은 이곳 극락전의 駝峰形 화반에서 발전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여하간 이 건물은 다포계 중에서도 신라의 주심포 건축양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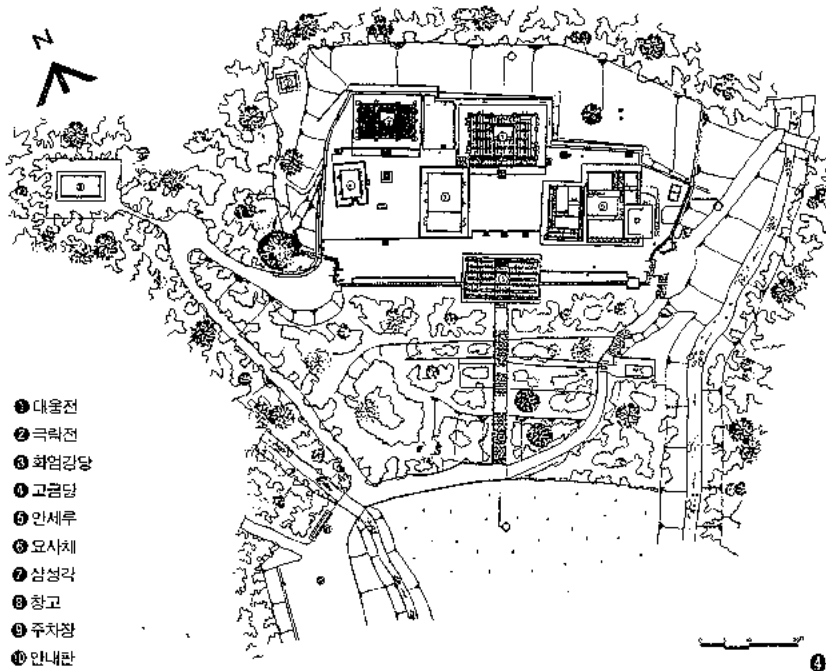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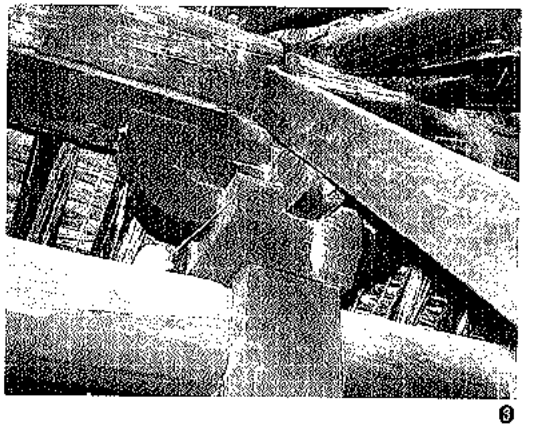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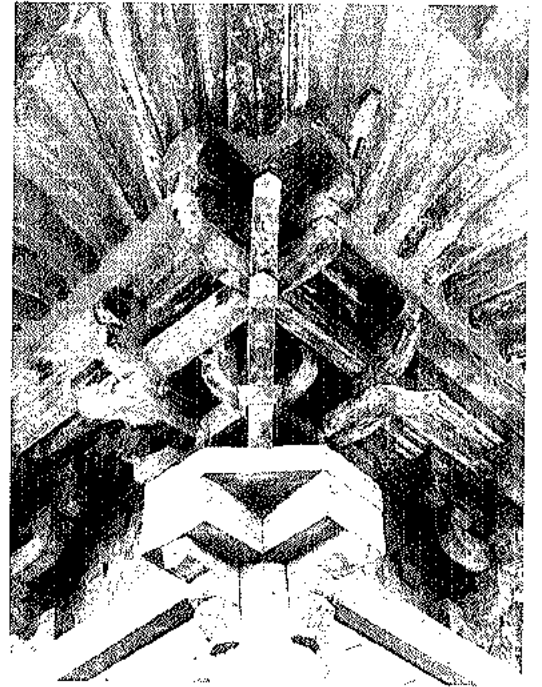
내부 천장에는 단집을 두지 않고 우물천장을 만들어 보개를 짜아 단집을 대신하였다.

2. 環城寺대웅전

이 절은 경상북도 경산군 하양읍에 있는데 팔공산의 한 봉우리인 無鷲山 계곡에 정남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신라말에 처음 창건하였다고 하고 고려시대에 화재를 당하였던 것을 1635년(조선 인조 13년)에 중창한 것이라 한다.²⁾ 절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일주문이 섰던 돌기둥 4개가 서있고 이 곳을 지나 올라가면 水月觀이란 누각 밑을 지나게 되는데 이 밑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아담하게 펼쳐진 中庭에 이르게 되고 그 가운데 변형된 석탑이 있고 맞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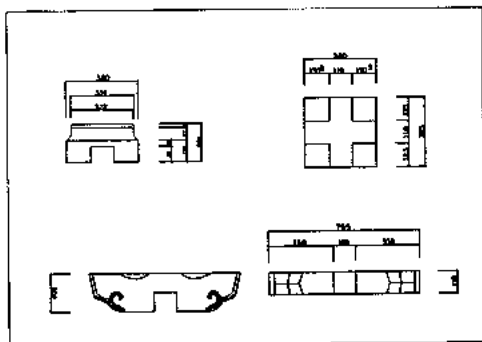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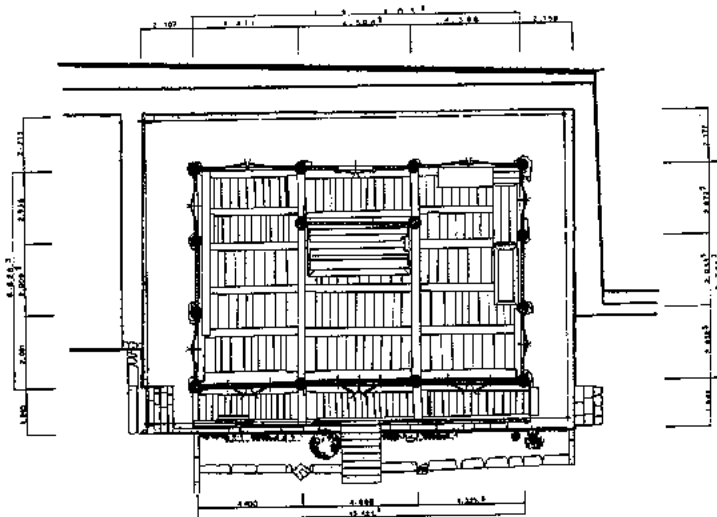
- ① 봉정사 대웅전 전경
- ② 대웅전 귀공포
- ③ 천장속 가구
- ④ 봉정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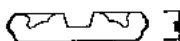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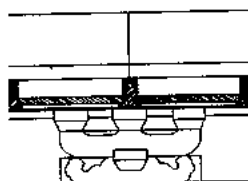
- ① 대웅전
- ② 극락전
- ③ 화엄강당
- ④ 고굴당
- ⑤ 인세루
- ⑥ 요사채
- ⑦ 삼성각
- ⑧ 창고
- ⑨ 주차장
- ⑩ 안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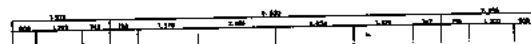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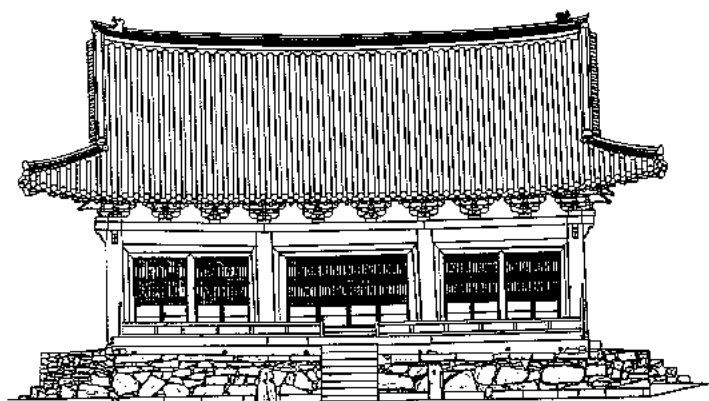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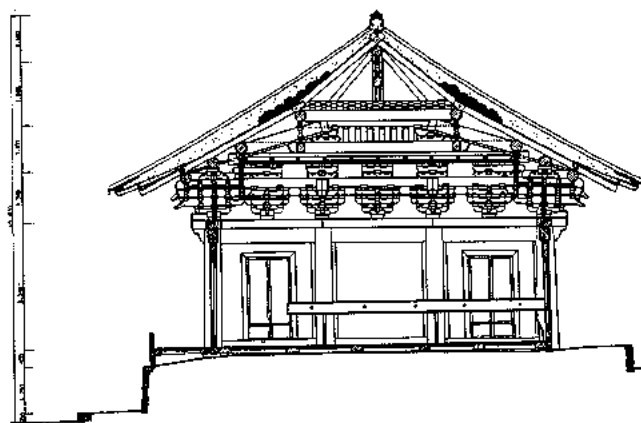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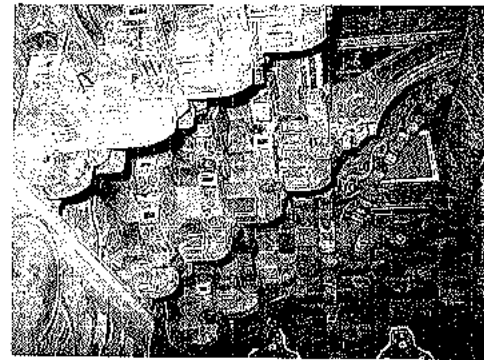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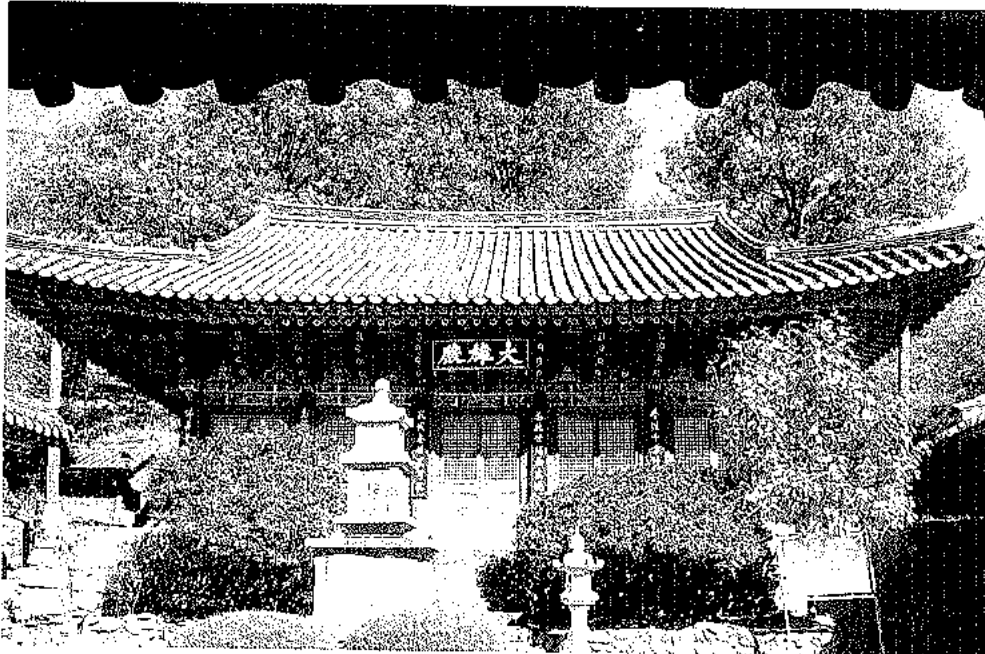
- ⑤ 대웅전 내부가구
- ⑥ 평면도
- ⑦ 정면도
- ⑧ 종단면도
- ⑨ 柱心道里 발침재 상세도
- ⑩ 駝峰花盤 상세도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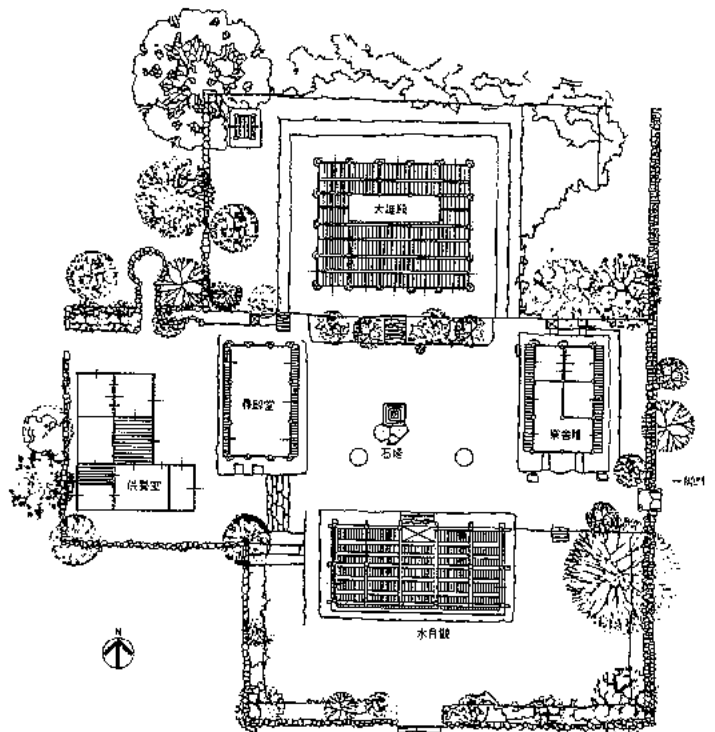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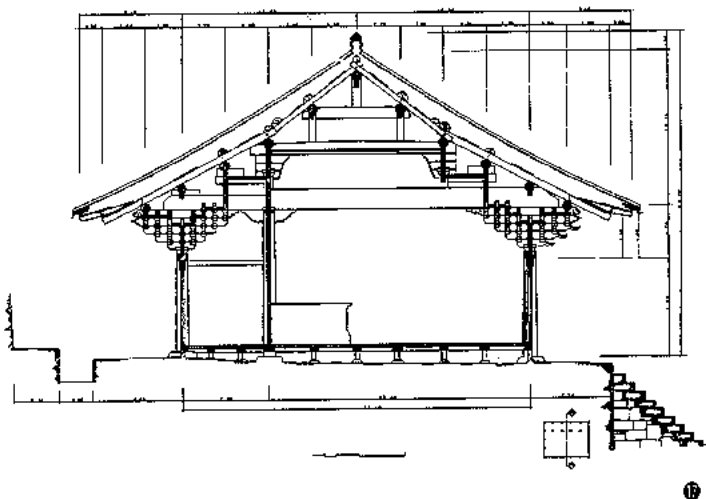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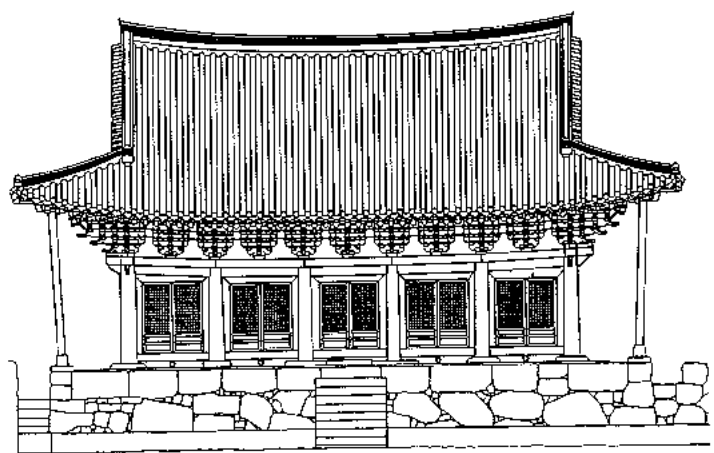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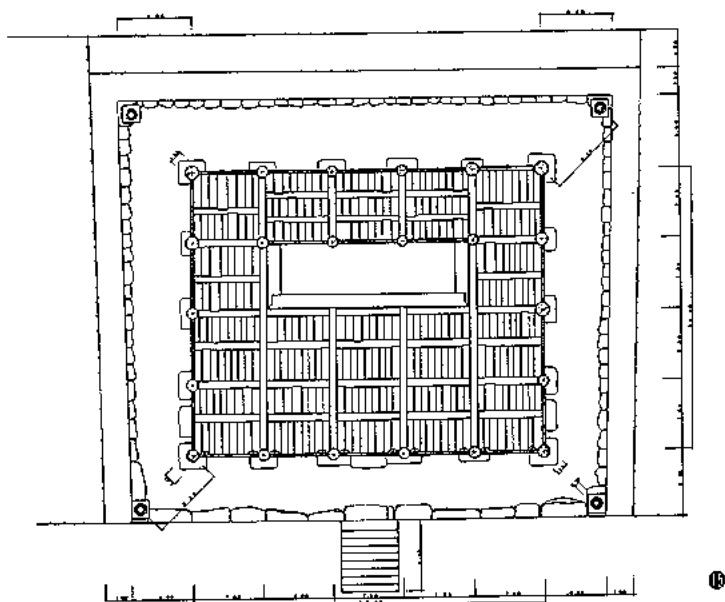
높은 단 위에 대웅전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동·서쪽에는 요사채와 심검당이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고 심검당 서쪽에 공양실이 있다.

대웅전은 큰 자연석을 면 바르게 잘 깎아 맞추어 높게 쌓은 기단 위의 정면5칸 측면4칸 다포계 팔작집이다. 특히 주칸이 정·측면 다같이 7,8尺을 잡았음은 다른 대웅전 건물에서 보기 힘든 계획이다. 건물의 정면에는 정자살 2분합문을 달았고 측면의 남쪽협칸에도 살문을 달고 후면의 중앙칸과 양끝 협칸에도 출입문을 달았다. 건물내부의 중앙후측에는 번주와 열을 맞추어 고주 3본을 올리고 여기에 후불벽을 치고 그 앞에는 장방형의 불단을 두어 불상을 봉안하였다. 불단 위의 우물반자에는 단집대신 훨씬 간소화된 寶蓋를 장식하였는데 앞쪽에 판계를 둘러막아 眠象과 寶柱를 내린 장식을 보인다.

평방 위에 배열된 공포는 內4출목, 外3출목의



- ① 누각에서 본 환성사 대웅전 전경
- ② 대량과 충량의 걸구
- ③ 환성사 배치도
- ④ 대웅전 내부 전경



포작을 짜았는데 건물의 전면과 귀공포 일부의
끝에만 살미끝에 쇠서를 조각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교두형 첨차와 같이 그 끝이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끓고 밑에서는 弧形으로 깎았다. 이렇게 살미끝을
교두형으로 깎은 것은 가공의 간소화를 꾀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어떤 형식적인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의 쇠서는 봉정사
대웅전에서와 같이 그 끝이 밑으로 처진 형식이
아니고 위로 약간 들린 형식으로 조선중기 이후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첨차 위에
공간을 판 것과 내부 보아지의 무늬장식 등은
봉정사대웅전의 것과 유사한 계통임을 보여준다.
한편 지붕밑의 마루대공이나 동자주 등의 결구에는
전자에 비하여 전혀 장식을 두지 않고 있어 시기가
떨어짐을 보인다. 또 대들보의 단면이 거의 원형에
가까운 것도 이 건물의 특징이다. 결국 전체적인
가구를 살펴보면 이 건물은 조선 중기 이후의
다포계형식의 건물로서 비교적 장식을 생략한 구법의
건물이다.

3. 雙磎寺大雄殿

이 절은 경상남도 하동군 지리산 줄기의 한
봉우리인 三神峰을 배경으로 서향을 한 가람을
보이는데 경내에는 일주문을 비롯하여 금강문과
천왕문, 팔영루, 대웅전, 명부전, 석탑과 부도 등
동서축을 따라 거대한 가람을 형성하고 그 북서쪽에
방장실과 팔상전, 금당, 선당 등 축을 달리하여
배치된 건축구역이 있다.

이 절의 처음 창건은 840년 玉泉寺라는 이름으로
慧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³⁾ 대웅전은 가람 동편
제일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서향을 하고 있다.
정면5칸, 측면3칸 다포계의 팔작집인데 내부 후측에
고주 3본을 정면 주열에 맞추어 세우고 여기에
후불벽을 치고 그 앞에 불단을 꾸미어 석가모니불을
비롯하여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불 등을 봉안하였다.
건물의 전면 중앙3칸은 양협칸에 비하여 주칸의
간살이 비교적 커서 4분합문을 달고 그 윗부분에
교살창을 달고있고 협칸에는 2분합 교살창을 달았다.
측면인 북면과 남면에도 창호를 한 짝씩 달았는데
북면에는 앞쪽칸에 남면에는 후측칸에 두었다.
후측면 중앙3칸에도 2분합문을 달았다. 건물내부의
바닥과 천장은 우물마루(현재는 일식 다다미로
깔았음)와 우물천장을 꾸미었는데 대량 중앙부에는
좀 규모가 작은 반자틀을, 그 양편에는 좀 큰 규모의
반자틀을 짜았고 또 중앙 불단 위에는 담집을 꾸미어
드리우고 기둥사이에는 화려한 낙양을 조각으로
만들어 붙이었다. 가구의 특징으로는 엔타시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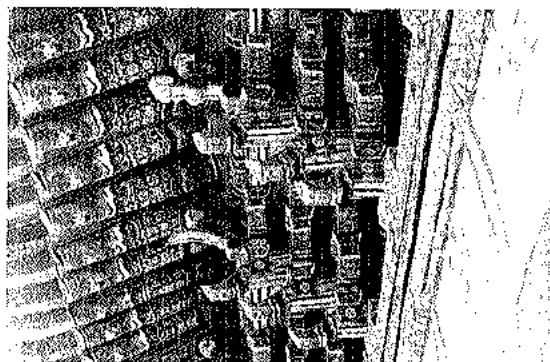
약간 있는 비교적 굽은 기둥에다 前記
 환성사대웅전에서 본 것과 같은 단면이 원형인
 대들보, 그리고 여기서는 측면에 층량이 간소화되어
 등이 굽은 우미랑형식이 아니고 변주 위에
 토막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수평으로 보를 걸어
 대량에 걸친 장식없는 층량이라는 것이 특이하다.
 그러나 건물은 웅대하여 9량의 가구를 짜았다.

공포는 內4출목, 外3출목의 다포작인데
 환성사대웅전 전면포에서의 같이 두공에서부터
 쇠서형으로 밖으로 돌출되었다. 그러나 쇠서의 끝은
 전자의 경우보다 좀 밑으로 쳐져있고 침차는 그 끝이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굽고 밑에서는 弧形이라기
 보다는 배 밑바닥과 같이 굽었고 공간이 없어 다포의
 후기적인 형식을 보이고 있다. 한대의 바깥 끝단에는
 연꽃봉의 장식을 하던가 익공식의 초가지를
 조각하였다. 창방 뒤편의 초가지 장식은 깊게 투각한
 연꽃의 조각이고 보아지 역시 꽃봉을 조각하고 또는
 당초무늬를 선각한 형식이다. 그러나 반자속의
 대공과 동자주 등은 장식없는 가구로 조립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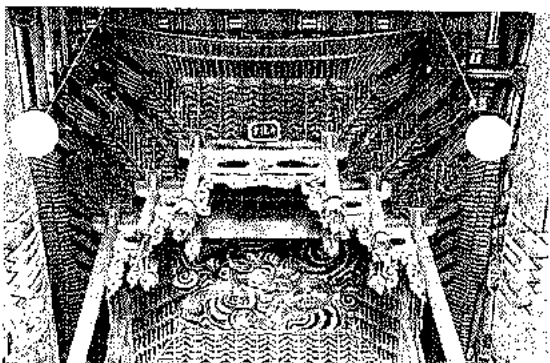
이 건물은 기록의 의하면 17세기 栢庵선사에 의하여
 중수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조선중기때의 것으로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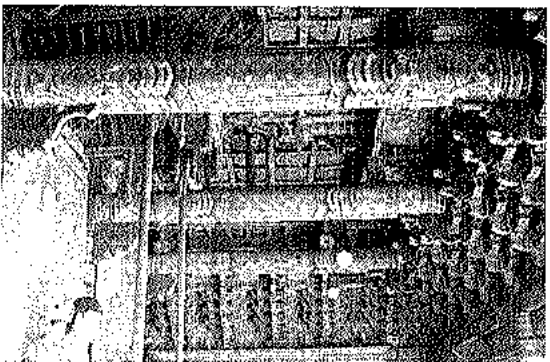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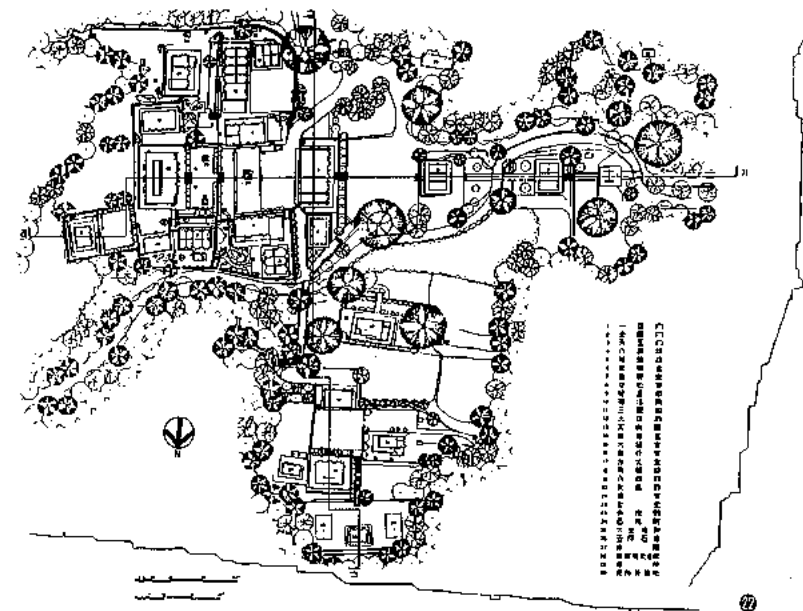
③



④

- ① 환성사 대웅전 평면도
- ② 정면도
- ③ 종단면도
- ④ 하동 생계사 대웅전 전경

- ① 전면공포
- ② 달집
- ③ 내부가구
- ④ 생계사 배치도



⑤



4. 觀龍寺大雄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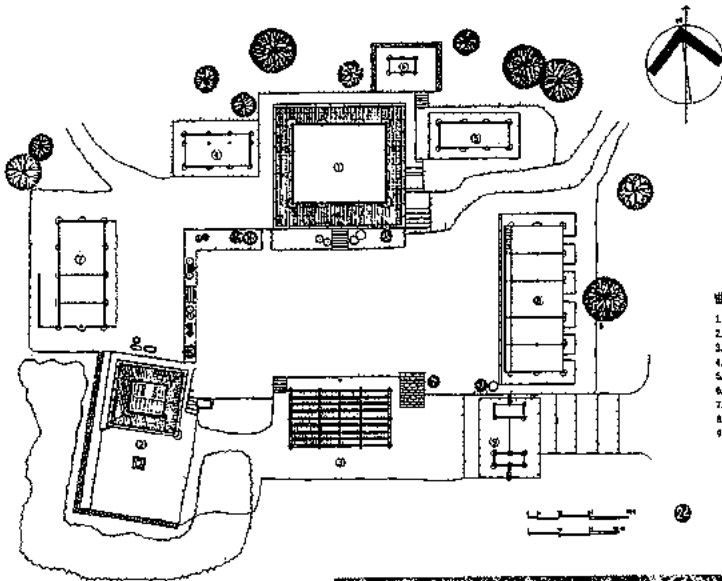
이 절은 경남 창원군 옥천리에 있는 절로서 火旺山기슭에 있다. 이 절의 사적기에 의하면 신라 진평왕5년(583)에 처음 세워졌다고 하는데 화왕산에 3개의 연못이 있어 용이 있었는데 절을 창건하여 구름 위로 용이 승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관룡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 한다. 대웅전은 萬歷丁巳(1617년으로 추정됨)에 세워졌고 1704년에 큰 비와 바람을 맞아 1712년에 개축을 하였다 한다. 과히 넓지 않은 대지에 대체로 남향하여 가람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형상 가람 동남쪽에 입구로 돌아 경내로 진입을 하도록 되어있다. 경내에는 남향한 대웅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칠성각, 삼신당 등이 높은 대지에 배치되어 있고 그 앞에 원음각이 대웅전과 마주보고 이 서쪽에는 약사전이 놓이고 가람 양편에는 요사채를 두었다.

대웅전은 정면3칸, 측면3칸으로 주칸 길이의 비가 약 1.2:1인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을 보여준다. 內外 2출목 다포계의 팔작지붕을 한 건물로 전면과 측면 앞쪽칸에 분합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기둥에는 약간의 배흘림을 두고 내부 후측에 높은 기둥 2분을 세워 후불벽을 이루고 그 앞에 불단을 꾸미어 삼존불을 모시었다. 불단 위에는 소박하고도 미려한 단집을 꾸미고 건물의 내부 바닥과 반자는 우리의 전통적인 우물마루와 우물반자를 짜았다. 가구는 대들보 밑에 높은 기둥을 받치어 이 양끝이 변주의 포작 위에 얹혀지게 하고 측면변주에서 대들보로 걸쳐지도록 충량을 좌우 각각 2개씩 걸쳐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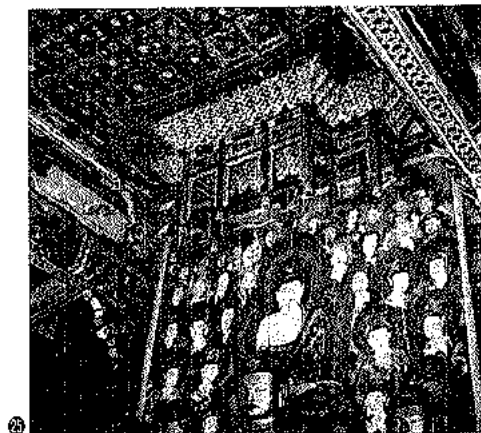
공포는 내외2출목인 古式의 구법을 택하였으면서도 쇄서의 들림과 침차의 공간을 두지 않고 한대 끝을 뾰족한 삼분두로 처리한 점, 그리고 쇄서의 分岐部에 물딩을 두어 곡선을 이룬 것 등 조선 중기시대의 다포형식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내부반자의 단차로 인하여 생긴 벽에는 화반을 장식하였지만 종보를 받는 동자주는 보아지와 같이 가공한 판대공을 사용하고 마루대공은 장식없이 판대공을 사용했다. 또 한대의 내부끝에서 위로 운공형식의 장식을 짜올려 내포벽을 장식한 것도 그 특징이다.

5. 栗谷寺대웅전

이 절은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에 위치하는데 전언에 의하면 신라 경순왕 4년(930)感岳祖師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연혁의 확실한 기록은 없고 다만 대웅전의 형식으로 보아 대웅전의 건립시대가 조선중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① 관룡사 대웅전 전경
② 배치도
③ 단집



것이다. 이 대웅전은 정면3칸 측면3칸 다포계 팔작집으로 전면에 살창의 분합문을 달았는데 어칸에는 꽃살4매로 하고 협칸에는 살창의 상·중·하의 구역을 틀로 구분하여 교살과 팔각 그리고 세살을 조립한 특이한 형태의 3짝문을 달았다. 공포는 内外 3출목의 포작을 짜았는데 상부의 한대를 제외하고 살미끝이 쇠서가 아니고 교두형으로만 된 특수형이고 내부 대들보와 종보사이 동자주 위치에 포대공을 짜아 여기에서도 중도리를 중심으로 좌우 2출목의 포작을 짜았는데 이 포대공 밑에는 넓게 가로 걸친 평방이 놓여 이것이 대들보 위를 통하여 반자밑에 들려져 이 위에 다포형식의 포작이 배열되었다. 이것은 다른 다포계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그러나 살미 안쪽 끝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당골벽을 초새김 장식으로 하여 위에서 하엽을 가로놓은 것은 조선중기의 기법과 형식으로 보인다. 또 첨차는 공간이 없이 바구리와 그 밑이 배모양을 한 증기적 기법이다. 한편 내부 중앙후축에는 2본의 고주를 세워 후불벽을 이루고 이 기둥은 대들보를 받쳐었다. 그리고 불단 위에는 丁字形 지붕을 한 단집을 만들었다.

이상의 다포계건축 예에서 몇 가지의 공통적인 것을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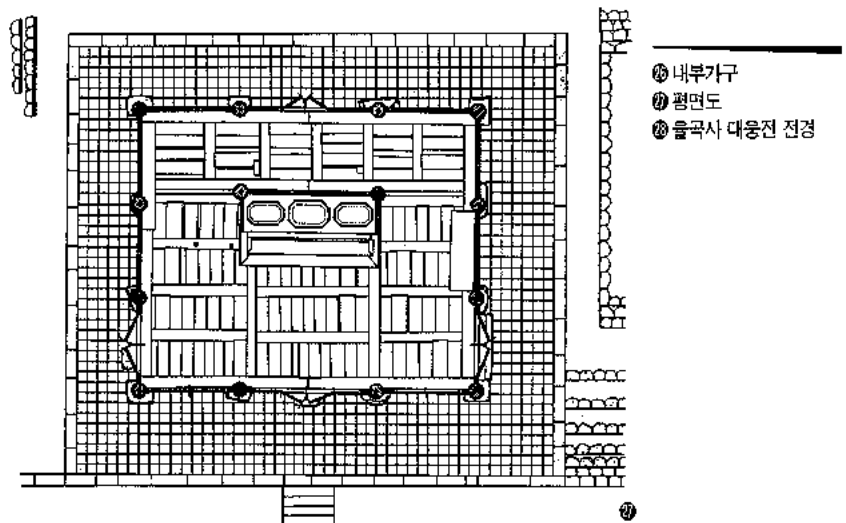
- 1) 봉정사대웅전을 제외하고는 시기적으로 조선중기 전후에 이어지는 건물들이다.
- 2) 모두가 대웅전이라서 그 절의 주된 건물이며 건물이 다포 팔작지붕을 한 웅장한 건물이면서도 견고하고 투박한 감을 준다.
- 3) 공포에 있어 첨차는 물론 살미도 경우에 따라 쇠서를 조각하지 않고 교두형으로 조립하여 견고성을 보이고 쇠서를 두더라도 그 끝이 짧고 투박하게 조각하였다.
- 4) 건물내부 장식은 화려하면서도 지나치지 않은 소박함을 나타내고 조화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즉 종량머리의 용두조각 등도 대부분 생략하고 있고 마루 대공 등에 장식이 없거나 간소화되었다. 반자를 짜임이 내외단차를 두어 당골벽에 화반 등의 장식을 두었다.
- 5) 지역적으로 보아 경상남·북도에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이 지방의 지역적인 특징이거나 계통적인 특징이지 시대에 따른 특징으로 보기는 전후에 기술한 건물들과 비교할 때 어려울 것 같다.

이상 전호와 이번호에 예시한 다포계 건물들은 어떤 특징적 유형을 구분하여 보인 것이지만 우리나라 다포계 건물에는 이들 유형에서 좀 다른 많은 유형이 형식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그



76



77



78

구분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포계 건축형식은 고려중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이 시기에 중국 遼·金에서 다포계 형식의 건물을 많이 발전시켜 사용하였다는 점과 둘째, 우리나라의 실물로서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말의 유구이지만 여기에 나타난 다포형식은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형식인 것 같다. 셋째, 이미 기술했던 바와 같이 신라시대말 주심포에서 공간포를 짜아올린 구조가 발전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알 수 있다는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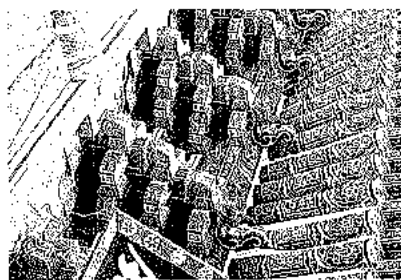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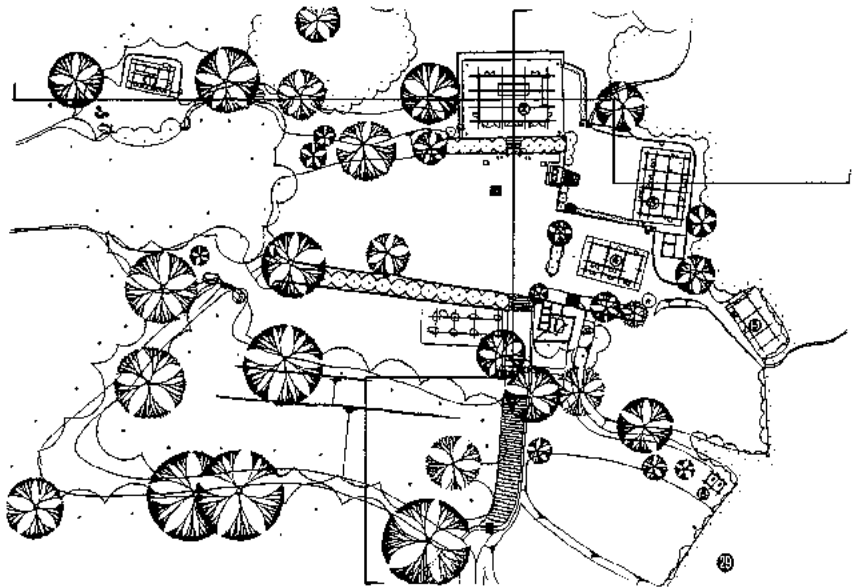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실존해있는 다포형식의 건축 예중 가장 오래된 형식을 나타내는 건물로는 북한의 成佛寺應眞殿, 開城南大門, 平壤普通間 등이 있어 이들은 内外1출목의 공포를 두어 아주 초기적인 간단한 구조를 보인다. 그 다음의 것으로 남한의 개심사대웅전이나 서울 남대문, 봉정사대웅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개심사대웅전과 봉정사대웅전은 전자의 맞배다포집인 특징과 내부 파련대공과 파련동자기둥 등 계통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또 다포계 건물중에는 화엄사각황전을 비롯하여 금산사미륵전, 마곡사대웅보전, 경복궁근정전 등 중층의 건물들이 있고 한편 쌍봉사대웅전이나 법주사팔상전 등의 목조 탑과형식의 건물들이 있는데 이들의 건축특징은 內高柱 이용법과 주간의 체감법 등을 들 수 있겠고 또 내부장식의 꾸밈에도 특징이 있겠지만 이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끝으로 조선시대 하양구조의 예에 대하여 약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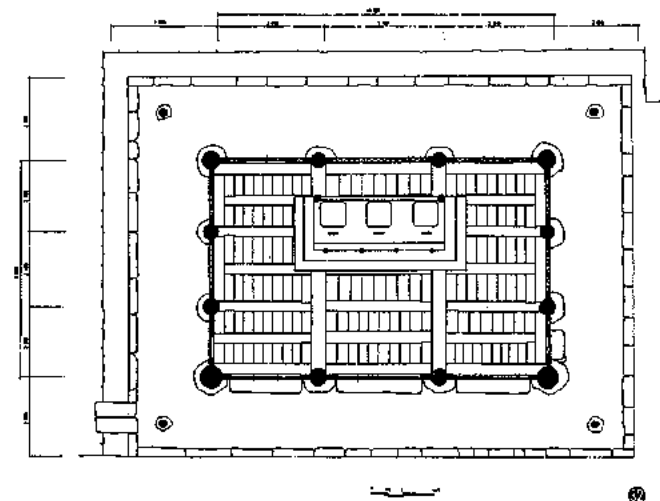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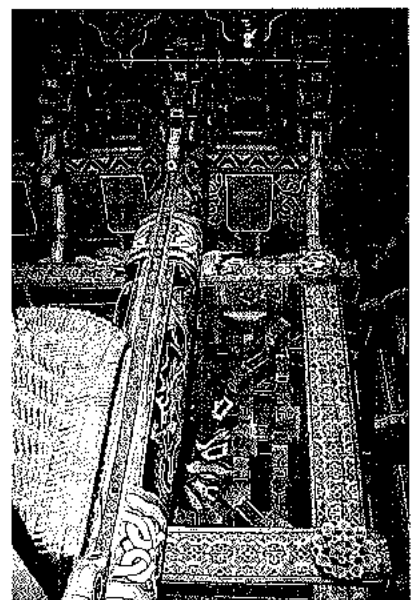
6. 花嚴寺極樂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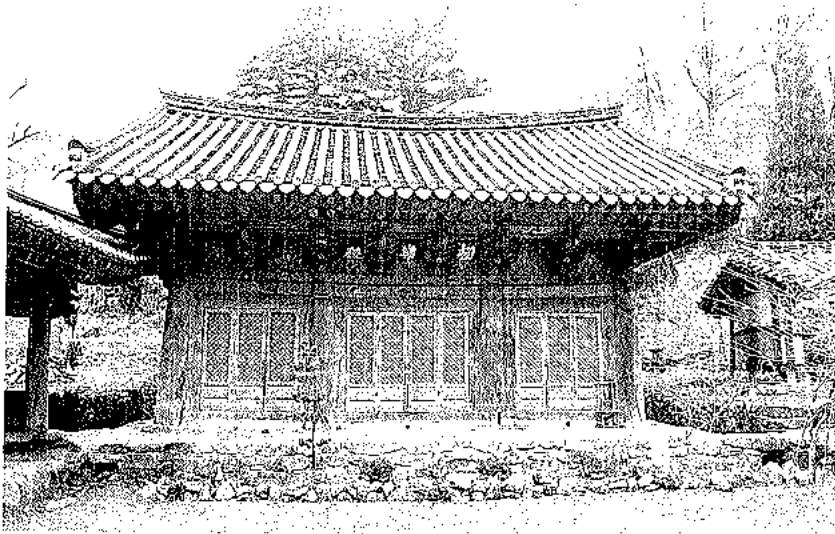
목조건축의 공포구성 발달과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원시건축에서 처마를 들어올리고 처마를 깊게 돌출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삼각 받침구조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된 공포이고(법흥사금당동의 예임), 다른 하나는 기둥머리를 장식하여 주두를 놓고 그위의 장식적으로 꾸미면서 전술한 처마내림 목적도 달성시킨 방법(고구려·漢·唐의 예등)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전자의 발전과정에서 발달된 것이 下昂(일본에서는 尾垂)이다. 그러므로 이 하양은 지붕의 서까래와 도리 밑에서, 건물 안으로부터 밖으로 길게 뻗어 나와 처마를 받쳐주고 있는 것인데 보통 서까래와 같이 경사져 있다. 이것은 하나의 지렛대의 원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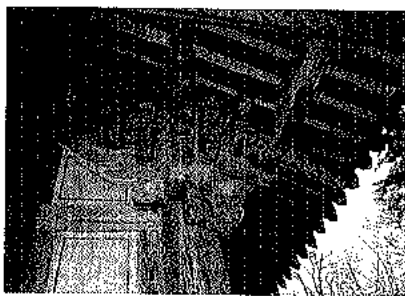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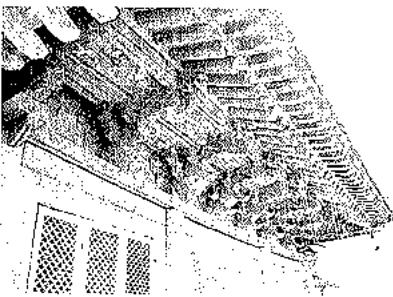


㉔ 돌곡서 배치도
㉕ 대웅전 전면공포 상세
㉖ 내부기둥
㉗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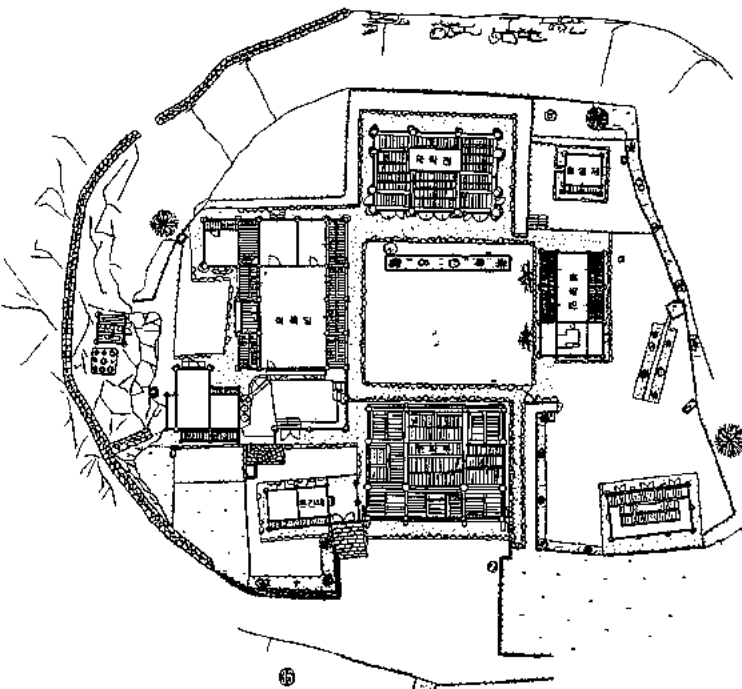




㉑ 화암사 극락전 전경
㉒ 극락전 전면 공포



㉓ 극락전 東北隅柱上
㉔ 화암사 배치도



구사하여 건물 벽선에서 밖으로 길게 뻗어 처마밑을 받치는 구조 이므로 처마를 상당히 깊게 내어밀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였음을 건축자료들로 보아 알 수 있었는데 그 실존예가 1978년 필자에 의하여 처음 조사되어 지정이 됨으로써 그 동안의 숙제를 풀 셈이 되었다. 이 절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가천리에 시부봉을 향한 산 중턱에 놓여있다. 절앞에 다다르면 남향한 가람의 앞에는 雨花樓가 있고 이 루를 지나면 떨어 되고 맞은 편에 극락전이 남향해 있다. 그 앞 동·서에 佛明庵 寂墨堂 등이 있고 우회루 양옆에는 명부전과 요사채가 있고 적북당 옆에 산신각, 또 극락전 동쪽에는 절영재가 있는 조그마한 절간이다. 이 절은 절앞에 세워진 화암사중창기문에 의하면 신라시대 처음 창건하였다고 전하는데 동쪽고개에는 元曉臺가 있고 남쪽 고개에는 義相庵이 있다고 하였고 조선 세종때 이 절을 중창하여 마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1981년 해체수리시 마루도리에서 발견된 默書에 의하면 1605년에 중창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우회루 상량문에는 1597년 정유년에 절이 불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극락전은 정면3칸 측면3칸 다포계 하양 맞배집이다. 다포인데 맞배로 처리한 점은 개심사대웅전과 비유된다. 정면과 측면의 비례는 1.6:1로 황금비에 가깝다. 건물의 전면과 측면 전협간에는 출입문을 달고 기타는 벽을 쳤다. 내부는 바닥과 천장에 우물마루와 우물반자를 처리하였다.

공포는 내3출목 외2출목 다포작 위에 하양재를 걸쳐놓아 이것이 중도리 밑에서부터 경사지게 내리뻗어 밖에서 처마도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외단은 전면에서는 용머리를 조각하고 후면에서는 뾰족한 부리식으로 깎았다. 이러한 하양의 구조로 전면의 처마내밀 깊이는 약 3m가 넘었다. 외부로 뻗은 쇄서의 끝은 밑으로 처지면서도 세련미가 나게 그 끝을 뾰족하게 들어 올렸다. 내부의 살마끝은 교두형이 아닌 당초와 연봉 그리고 용의 꼬리 등을 조각하여 화려하게 조각하고 내불단 위에는 단집을 화려하게 꾸미어 龍과 鳳 그리고 연봉을 달아냈다. 이 건물의 화려함은 건물내부에 서문한 금단창을 보아 능히 짐작이 간다. 이 건물은 백제적인 요소가 계승되다가 고려때에 다포양식이 도입된 건물이라고 평하는 학자도 있다.⁴⁾

註)

1) 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古建築 제11호, 1982.

2) 前掲書 제10호, 1988.

3) 前掲書.

4) 申榮勳 編著, 國寶 寺院建築, 1983, p.38

建築構造物 스팬의 長大化

Look Forward to the LongSpan Beam
on Building Structures

-Preflex Beam의 스팬장대화 가능성-

金鍾洛/충청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工博
李鶴洙/Han 건축·구조연구소 工博
by Kim, Jong-Rakl & Lee, Hark-Soo

1. 混合構造의 역할

최근 건축구조 분야에서도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구조의 개발과 함께 기존의 재료를 조합하여 종래에 기대할 수 없었던 성능을 건축구조에 채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가장 개발이 활발하고 실제 적용에 많은 것은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부재를 조합한 것이다.

콘크리트와 철의 조합으로 보면 철근 콘크리트구조의 발명은 오래된 발상이며 철근콘크리트와 철골을 조합한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도 기존의 구조체종별 분류에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는 부재 1개에서 부재와 부재의 접합 또는 構面과 構面의 조합이라는 구조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 형태를 混合構造라 칭한다.

〈그림1~4〉는 부재와 부재의 複合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 동지에서 사용되는 상세도 포함되어 설명한다.

〈그림1〉은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철골보의 조합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기본적인 생각은 현장에서의 인력의 감소와 현장 부품의 최소화로 건설비 경감이 목적일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새로운 混合構造는 반드시 확인실험이 선행되고 공인된 구조방식으로서의 인정이 필요하다.

〈그림2〉는 〈그림1〉과 같은 철근콘크리트기둥과 철골보의 조합이다. 이 부분은 현재의 우리나라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상세에 관한 문제와

관계되는 부분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둥·보 접합부에 콘크리트를 채워넣어야 한다. 채워넣지 못하는 상세를 설계하거나 시공되면 골조의 내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염려된다. 이 그림으로 보아 알수 있듯이 기둥·보 접합부 속에 콘크리트가 채워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철근콘크리트 기둥부재의 철근 배근도 용이하다고 생각되며 기둥보 접합부에서의 힘의 흐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림3〉도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철골보의 조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보 접합부에 콘크리트를 채우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는 일본에서 개발된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과 철근콘크리트 보의 복합구조이다.

〈그림5〉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과 철골보로 접합된 구조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같은 混合構造를 추구하는 것은 기존의 구조방식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구조기능 생산 시공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완성되는 구조체가長大스팬이 되며 층고를 저감시키는 것과 구조적 剛性を 높여 처짐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다.

〈그림6〉은 기둥보 접합부의 수평력 저항 능력을 실험한 결과이다. 즉 접합부 전체가 충분한 내력을 발휘하고 수평력에 큰 흡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2. 混合構造의 종류

〈그림7〉은 일반적인 철골구조의 골조와 슬라브공사에 대한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근년의 고층건물의 슬라브는 거푸집 대용텍스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슬라브콘크리트를 타설하므로 슬라브용 거푸집이 거의 없어졌다. 이에 混合構造를 적절하게 도입하면 보의 거푸집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수평 요소 부재의 거푸집이 불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점으로 複合構造의 채택이 더욱 다양해 질 수 있다.

이에 混合構造의 종류를 살펴본다.

〈표1〉은 混合構造의 形態的 分類를 나타낸 것이다.

다양하게 분류가 되지만 여기서는 흔히 채용되어지는 것을 정리한다. 우선 재래식의 구조부재와 새로운 力學的인 利點을 살린 보와의 조합이 많이 채용되어질 것으로 본다.

철골철근콘크리트기둥에 철골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년에는 철골보의 스팬을 크게 하기 위하여

Preflex보를 조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러한 混合構造는 스팬의 장대화의 목적으로만 채용되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지하주차장 계획과 더불어 보 스팬의 장대화를 해결하면서 보춤을 줄이려는 노력이 대단하다.

다른 구조 시스템의 조합은 현재 많이 사용은 되고 있지만 존재능력의 확인뿐만이 아니라 급격한 剛性變化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와같은 복합, 혼합구조의 경우 이질재, 이질부재 다른 구조 시스템이 합해지는 부위에서는 剛性的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3. 省力化 構造로써의 Preflex Beam

앞에서 설명한 混合構造도 現場에서의 省力化와도 관계가 깊다. 前號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Preflex Beam은 제작 공정중에 설계된 보의 構造的 안전성을 검토하게 되고, 공장가공된 보를 현장에서 설치하게 되므로 현장에서의 省力化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텍크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슬라브일 경우 수평요소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및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철골보의 剛性이 부족하여도 철골보 하부 플랜지의 보강이 거의 실행되지 않았으나 Preflex Beam의 경우 공장에서 미리 철골보 하단 플랜지에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제작하므로 보 자체의 剛度가 크게 상승한다. 또한 처짐량을 가능한 적게 제어할 수 있으므로 보의 높이, 층고가 결정되어 있을 경우 설계 및 구조설계에 있어서 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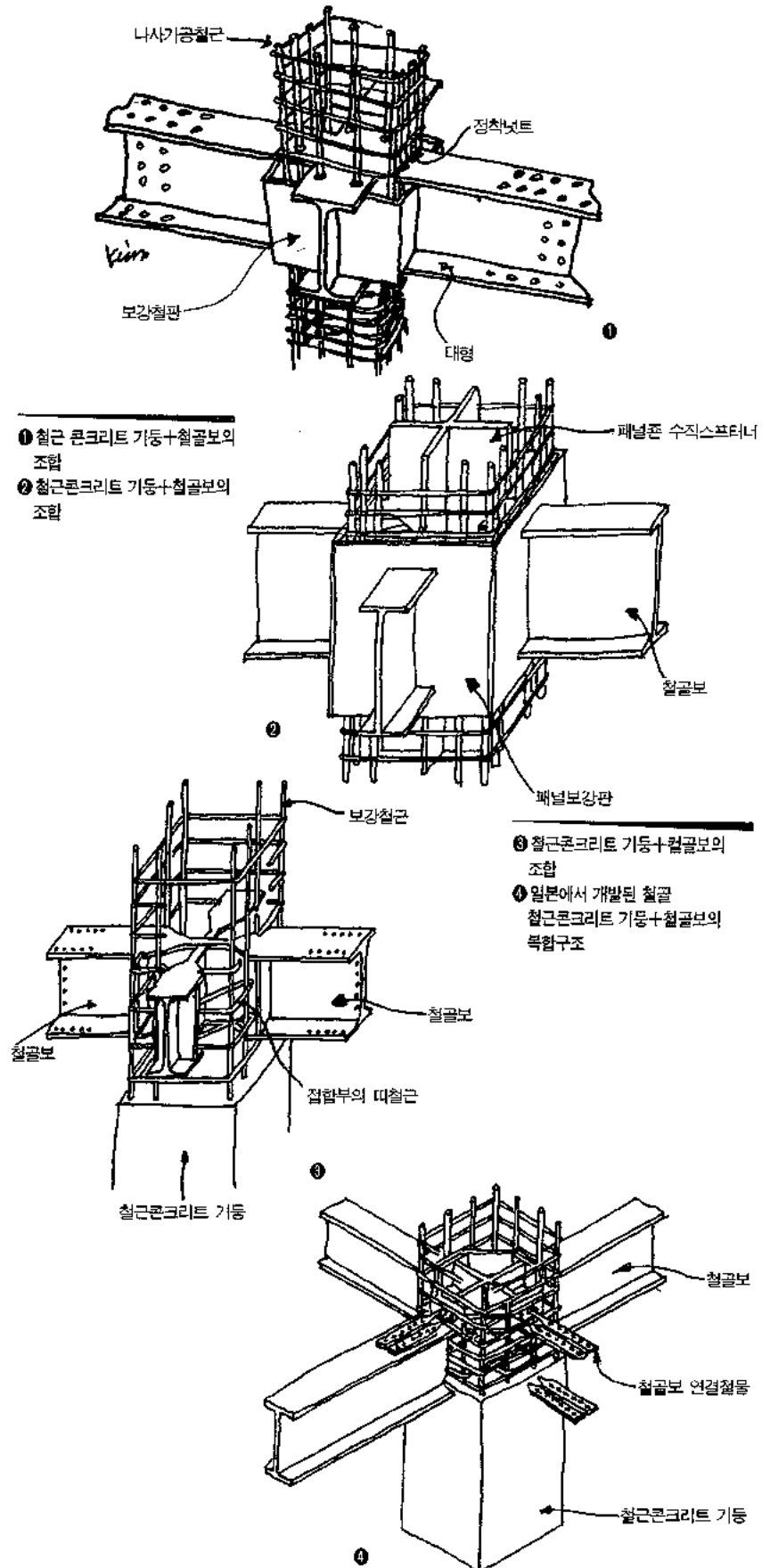
또한 경제성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만 중첩구조인 건축구조에서 사무소 건축의 경우 8~9층에서 1개층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기둥의 수를 줄이고 내부공간에서 無柱공간을 확보해야할 경우 대개는 보의 처짐에서 설계시 많은 고심을 하게 된다. 이와같은 처짐의 제한이 문제가 될 경우 Preflex Beam이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트레스의 도입은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하부 플랜지에 폭이 넓은 콘크리트가 타설되어지므로 현장에서 기능공의 이동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4. Preflex Beam의 발달

이 Preflex Beam은 보스판의 약 1/4되는 2개소에 집중하중을 작용시켜 설계하중에 대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적절하게 부합되는 휨하중을 가력하여



재래구조 부재와 複合構造의 組合	SRC기둥+S보 SRC기둥+(단부SRC, 중앙SRC)보 SPC기둥+(SRC+S)보
다른 종류의 부재 조합	S기둥+Preflex Beam SRC기둥+Preflex Beam SRC기둥+S RC기둥+단부RC, 중앙부S SPC기둥+SQ보, RC보, SRC보
다른구조 시스템 조합	하부구조RC+상부구조S 외부S+내부, 코아SRC, RC 외부RC+내부S 外柱SRC튜브+내부S S골조+RC내진벽 S골조+브레이스

(표 1) 混合構造의 分類

형성한다. 이때 하부 플랜지에 고강도의 콘크리트로 둘러싸고 양생이 되면 하중을 제거하여 현장으로 운송되는 구조 방법으로 기존의 기둥구조에 보만을 역학적으로 개선되는 混合構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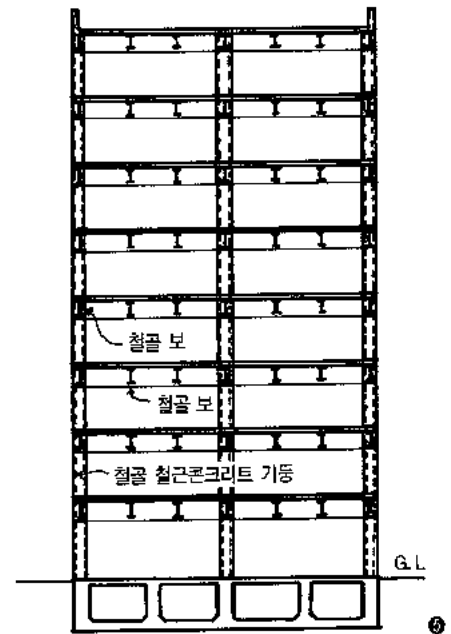
이 구조방식은 벨지움의 설계기사 Lipski에 의해 1949년 고안되어졌고 그후 Brussel대학의 Baes 교수의 협력을 얻어 두 사람의 힘으로 1951~1954년에 설계법이 확립되었다.

그후 일본에서도 1966년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구조이다. 특히 이 구조는 교량구조에서는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어온 구조 방식이다. 특히 교량에서는 하부플랜지의 방청구조 피로진폭의 저감, 진동주기의 저감 등의 이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대한토목학회에서는 1986년에 프리플렉스 합성형 표준시방서 및 동해설(안)을 발간하였고 1987년에는 프리플렉스합성형 철도교 표준시방서(안)와 프리플렉스합성철도교설계·제작·시공기술을 발간 하였다.

5. Preflex Beam의 경제성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장대 스팬화의 요구는 특히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소 빌딩, 주차빌딩, 스포츠센터 등에 대해 자유로운 공간의 연출과 평면 및 건물 전체 계획상 유연적으로 요구된다. 이와같은 건축계획상의 장대스판의 요구는 구조적으로 비경제적이며, 높은 보층의 요구 등에 대한 층고문제 등 모순점과 문제점을 갖게 된다. 결국 설계자는 철골보의 경우 비연달보인 경우 작은 세부재를 연결하여 구성하는 관계로 용접부가 많아져

실질적으로 제작상의 어려움을 갖게 되고 설비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공간을 웹에서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경우가 많아 적당치 않다. 하니컴 웹보인 경우 웹오프닝의 한계의 문제점은 있으나 비교적 타당성이 있는 보부재로 생각되어 많은 구조설계자가 선택하고 있으나, 이 보의 형태 역시 스팬의 한계가 있고 장대스판의 경우 보의 처짐과 특히 웹 오프닝에 따른 변형의 증가가 일반 H형강보와 변형 증가에 비해 1백50% 이상이 되어 장대스판의 경우 설비와 구조의 동시 해결에는 역시 역부족이 된다. 일반적인 H형강보인 경우 장대스판의 보의 층이 $l/15$ 내외가 되어 설비와 동시 만족하는 경우 층고의 증가가 예상되어 사전제한 등에 따른 건물높이 제한에 의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층수만큼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근년에 들어서 인테리전트 빌딩 등의 건립으로 층고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구조는 보의 층이 낮고 처짐 및 진동과 진폭에 유리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보의 구조 형태를 요구하게 된다.

근년들어서 설계되어지는 사무소 건축물 등의 경우 평면의 자유로움과 공간의 자유로운 연출과 변화 거주에 대한 문화공간의 제공 등과 1층의 은행 등 특수 장대스판 공간의 필요성, 지하상가 아케이드 및 문화시설, 스포츠시설의 제공을 위한 장대스판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해지고 있다.

이상에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선택하여 비교해 보면 비교조건에서 용도를 사무소 건축으로 보고, 스팬을 20m로 하고 지상층수를 30층,

건축물의 장대 스팬화의 요구는 특히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소 빌딩, 주차빌딩, 스포츠센터 등에 대해 자유로운 공간의 연출과 평면 및 건물 전체 계획상 유연적으로 요구된다. 이와같은 건축계획상의 장대스판의 요구는 구조적으로 비경제적이며, 높은 보층의 요구 등에 대한 층고문제 등 모순점과 문제점을 갖게 된다.

지하층수를 8개층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Preflex Beam과 철골보의 경우를 비교한다. 보층의 경우 순철골보인 경우 보의 층이 100cm 정도로 산정되고 Preflex Beam인 경우 보의 층이 70cm정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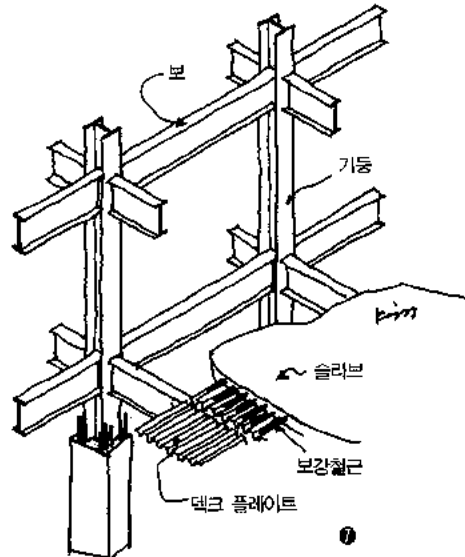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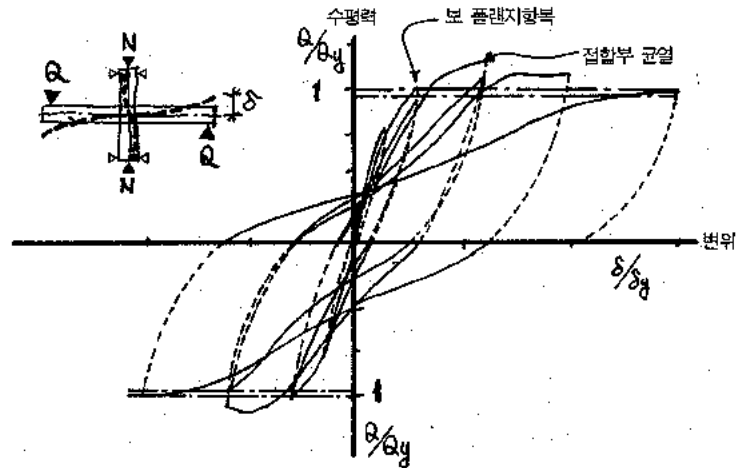
이 경우 순수한 골조의 공사비만을 비교하여 보면 철골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Preflex Beam이 25% 내외의 증가 요인을 갖게 된다. 여기에는 층고감소 효과에 대한 경제성, 골조비, 마감 내외부, 형틀, 내화피복 등의 절감효과는 고려치 않고 있다.

이상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10% 내외의 경제성을 갖게 된다. 즉 철골보를 기준으로 하여 Preflex Beam을 순수 골조 및 전체공사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10% 내외의 증가 요인을 갖게 되어 경쟁력을 갖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의 대부분 전적이 입체가 아닌 평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Data 분석은 상당히 힘든 실정이다. 또한 지상층에서 각 층당 30cm의 층고 절감효과는 건물 전체를 약 9cm 가량 낮게 하는 경우가 되어 사전제한 등에 따른 건물높이 제한에 유리한 구조형태로서의 합리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보의 처짐에 대해서는 철골보인 경우 약 $\ell/300$ 이하이나 Preflex Beam의 설계인 경우 약 $1/500$ 에 해당하여 처짐에 대해 안전하며, 특히 처짐은 진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어 진동에도 소진폭으로 안정된 구조물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거주자는 1초당 10사이클 이하의 진동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를 정확히 설계하기란 어렵지만, 대략 15m 스팬을 초과하는 경우 $1/300$ 에 거의 가까이 갈수록 거주자에게 미세한 진동을 느끼게 되어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보의 내구성 및 내구성을 위한 시공에 대해서도 일반 철골보인 경우 내화 및 내구성을 위한 피복을 하여야 하나 Preflex보인 경우 이미 50%이상이 콘크리트 피복이 되어 있어 내구성, 내화성과 시공성에 유리하게 된다.

공사기간에 대하여 비교해 보면 철골보나 Preflex Beam의 제작, 설치기간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경우 Preflex Beam 부분과 철골보 및 철골기둥 등의 일반 철골구조물의 비가 거의 같아서 Preflex Beam 제작과 일반 철골 구조물의 제작이 분리되어 발주되는 경우 오히려 공기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특히 품질관리면에서도 공장에서 엄격한 규준에 의하여 제작되어지는 Preflex Beam이 일반 철골 구조물의 제작상의 엄청난 기술차이에 의한 품질보장의 어려움에 비하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처짐 및 진동에 특별한 제약을 받는 크레인보, I.C LAB



- ⑥ 철골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철골보로 구성된 골조
- ⑦ 기둥보 접합부의 수평력 저항
- ⑧ 철골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철골보로 구성되는 골조

등의 지지보인 경우 응력보다는 처짐량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 것이 대부분임으로 이 경우 Preflex Beam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지하 구조물에 대한 철골보와 Preflex Beam 사용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면 지하 8층을 예로 하는 경우 각층당 30cm를 낮추는 경우 전체적으로 2.4m를 줄이게 된다. 이는 지하층 깊이의 절감에 따른 골작공사비, 흙막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 그리고 수압이 있는 경우 약 $2.4t/m^2$ 의 부력을 줄이게 되어 최저층 바닥 구조물에 경제성을 부여하게 된다.

Preflex Beam을 사용하여 증가하는 골조 순수공사비보다도 지하층 깊이를 낮춤으로써 오는 경제성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검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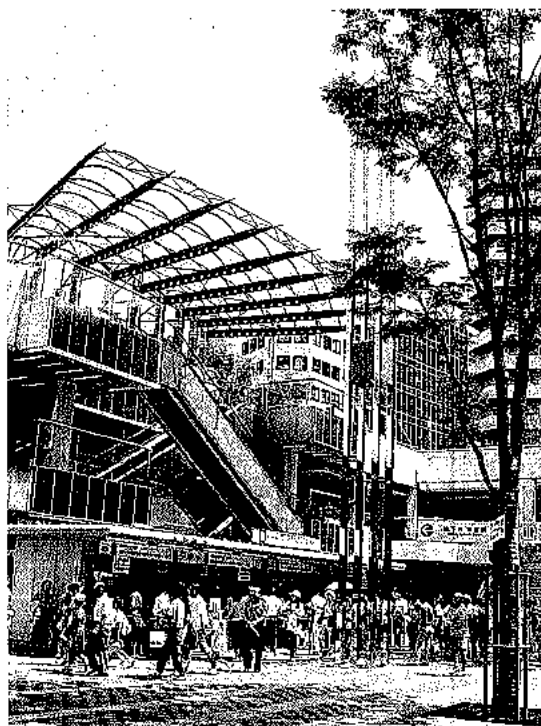
이상으로 보아 Preflex Beam은 건축구조물에 장대 스팬을 해결하는 데는 합리적이고 유효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조설계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장대 스팬의 건축물의 보다 합리성과 경제성을 부여하리라 사료된다.

오사카 근작 프로젝트

New Project in Osaka

金文德 /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교수

by Kim, Moon-Duck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
오사카 하면 우선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은 실제 거리의 분위기를 느꼈던 신사이바시(心齋橋)나 도톤보리(道頓堀)보다는 리들리 스코트감독이 표현했던 블랙 레인(Black rain)에서의 거리 이미지가 더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뉴욕 하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Taxi Driver)가 떠오르듯이 실제의 거리보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분위기의 영화속의 거리가 더 현실적인 것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긴 모든 사람에게 있어 어떤 장소나 거리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는 실제적 도시와 각 개인의 그 장소에 대한 추억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산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사카 현의 현청(県廳) 소재지이며 일본의 두번째 대도시인 오사카를 작년 여름에 다시 방문했던 것은 오사카 꽃박람회와 근작 프로젝트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제작년에는 신사이바시나 도톤보리의 소규모 상업건축물들을 둘러 보았지만, 한정된 시간안에 방문한다는 것은 역시 아쉬움을 남기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작년에도 오사카를 떠나면서 캠브릿지 세븐 어소시에이츠(Cambridge 7 Associates)설계의 오사카 수족관(1990)이나 안도 다다오(安藤 忠雄)의 라이카 본사 빌딩(1989)을 방문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시노하라 가즈오(篠原 一男)의 K₂

빌딩(1990)이나 오사카 꽃박람회의 국제진열관(이소자키 아라타 아트리에), 영화의 정원(안도 다다오), 정부관(건설성 긴키지방건설국 영선부+도하마 건축사무소)등이 흥미있는 프로젝트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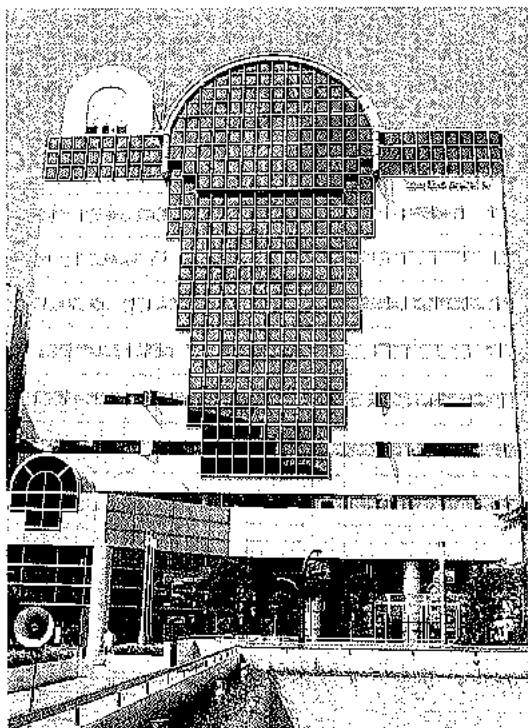
1. K₂ 빌딩

시노하라 가즈오에 대해서는 그의 역작인 도쿄공업대학 백주년기념관(1987)을 거론하면서 그의 작품경향이나 경력을 상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오사카 꽃박람회를 가기 위해 오사카환상선과 게이한(京阪)전철이 교차하는 교바시(京橋)역에 내리면, 이 역 북측의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사무소·점포·전시홀 등이 복합된 기능의 곡선형 커넨월로 정면이 구성된 이 K₂ 빌딩과 만나게 된다.

박람회단지로 가는 환승지하철역인 교바시역은 90년 4월에 꽃박람회를 위해서 개통하였기 때문에, 환승하기 위한 코모스 가든이라는 선관가든의 통로나 역 시설들이 이 박람회의 분위기에 걸맞게 하이테크한 구성을 취하고 있었고 이 역 부근 광장에는 그 당시 건축잡지에서 익히 보았던 건축물도 보이고 있었다.

K₂ 빌딩주변은 중소규모의 건물들이 난립한



지역으로 이 곡선형 커텐월로 날렵한 형을 취하고 있는 이 건축물이 이 불협화음적 도시상황을 조율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동시에 그 상황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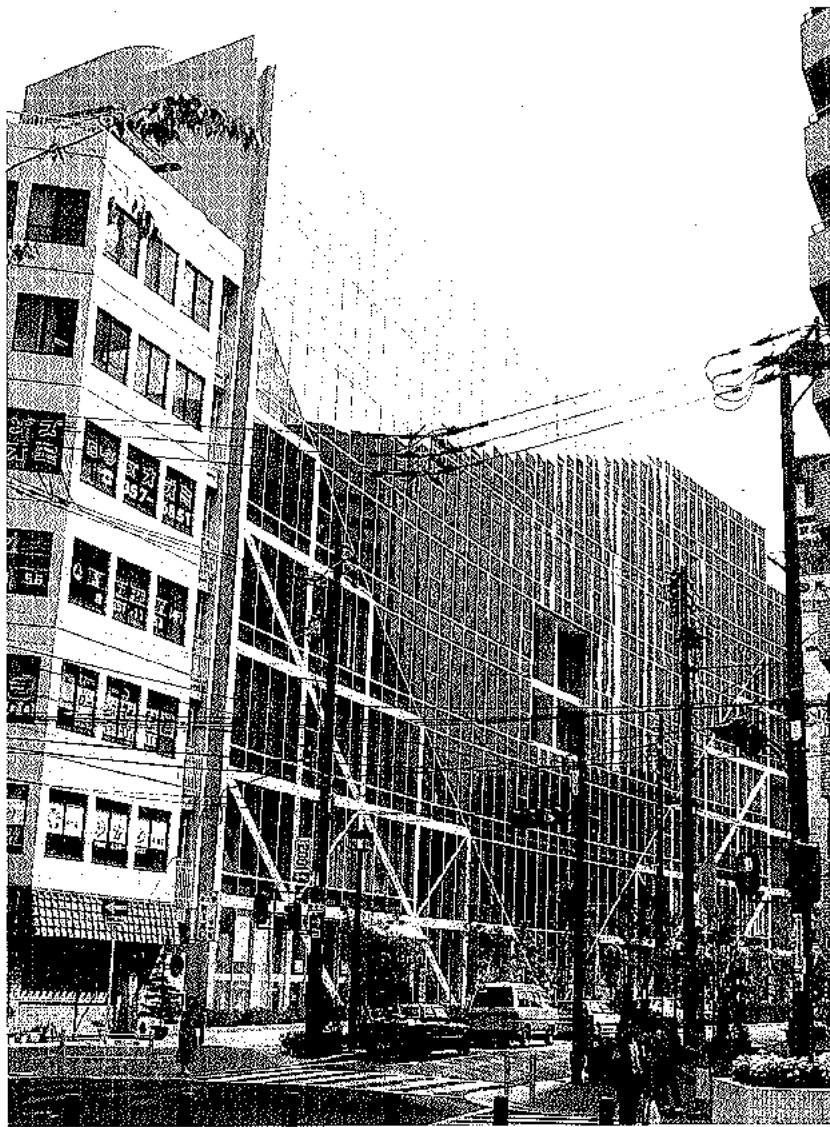
전면의 곡선형 처리는 전면도로의 곡선적인 도시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철골가새구조의 커텐월에서의 표현과 중앙의 십자형 구조가 노출된 보이드 부분에 의해 명확한 대칭적 구조를 취함으로써 난립된 도시공간에 질서화된 형태를 삽입하고 있었다.

건축물의 표피적 구성은 수평 프레임이 강조된 커텐월에 가는 수직적 프레임의 변화가 도로에서의 보행자와 차량의 흐름을 리듬감있게 표현하는 영상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이 입면의 날렵한 구성이 경쾌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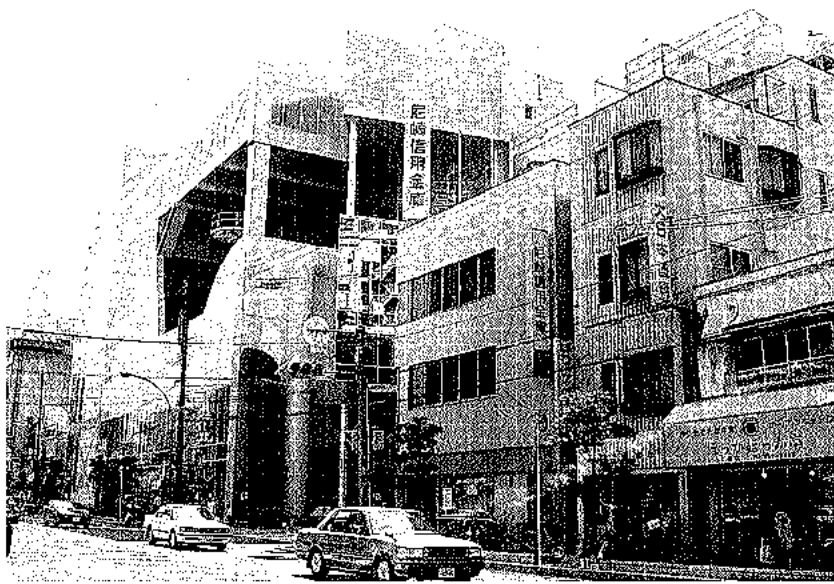
정면에서의 느낌은 오히려 슬릭테크한 느낌이 강하다고 할 수 있었으며 우측면의 주출입구에 서있는 황색이나 흑색으로 도색된, 조형적으로 처리된 설비샤프트가 하이테크한 느낌을 가미하고 있었다.

후면에서 바라보면, 후면 우측의 5~6층에 걸친 외부 오픈 부분에 매달려 있는 전망대가 인상적이었지만 실제 기능적 측면에서 설치된 것이라기 보다는 형태적 장치라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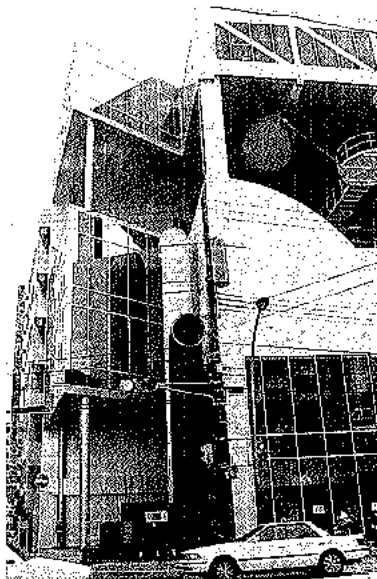
비록 K₂ 빌딩의 형태적 구성은 질서화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 이미지는 이 난립된 불협화음을 증폭시키는 증폭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 ① 교바시역의 코스모스 가든 전경
- ② 교바시역 주변의 건물
- ③ K₂빌딩 전경
- ④ 정면 출입구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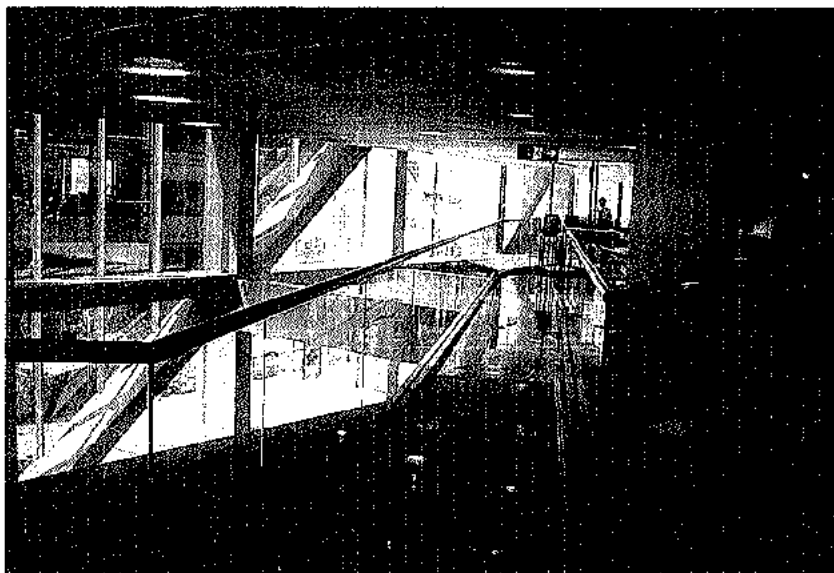


6



6

- ⑤ K₂빌딩 주변의 난립된 도시적 상황
- ⑥ 우측면의 주출입구 부분 하이테크한 구성으로 처리 되어 있다.
- ⑦ 2층의 사선으로 배치된 브릿지 각 체제의 구조에 운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7

있었다.

커튼월에 비친 건물들의 간판이나 전봇대와 전선들이 세로로 잘게 분할된 입면의 영상적 장치에 투영되어 오사카라는 도시의 난립된 거리풍경을 증폭시킴으로써 마치 이 건축물 자체가 지옥의 북시록의 배경음악의 하나였던 도어스의 음악을 연주하는 일렉트릭 기타처럼 느껴졌다.

현대 자체는 미끈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기능은 불협화음을 증폭시키며 고조시키는 일렉트릭 기타 바로 그 자체라고 생각되었다.

입면의 유리면과 세로로 분할된 프레임에 도시의 불협화음적 상황이 반영될 때마다 기타줄에 손가락이 스쳐서 소리를 올리는 것처럼 이 도시의 공간적 음률을 연주하는 것이다.

오사카의 도시적 상황은 신사이바시에 서있는 안도 다다오의 소규모 상업건축물들이 왜 폐쇄적인 표정을 하고서 자리잡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차가 한 두대 정도 다닐만한, 보차분리가 명확히 되지 않은 거리에 면한 노출 콘크리트의 벽... 그리고 몇 개의 개구부. 이런 난립된 도시상황과 대적하기 보다는 벽으로 경계를 삼고 폐쇄된 내부화된 외부(상부는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로 침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도출된 건축유형이라고 이해하는데서부터 오사카의 상황이 이해가능한 것이다.

이 1.2층이 점포와 전시장, 3층이 이벤트홀과 전시장, 4~8층이 사무실로 구성된 K₂ 빌딩은 시노하라의 건축물답게 1층 중앙홀에 들어서면 2층 부분에 직교화된 구조체계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고,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나선계단 등이 기능적인 오브제로서 자리잡고 있었다.

2층의 사선으로 배치된 브릿지는 1층은 중앙홀 공간을 변화있게 바라보면서 건너는 시각적 기능적 장치인 동시에 미니멀하게 처리된 실내공간에 가벼운 울림을 만들어 내는 공간적 장치이기도 하였다.

또한 나선계단이나 곡선계단이 역시 이 공간의 동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사선으로 설치된 철골가새구조 사이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다.

1층 중앙홀에서 바라 보면, 기둥·벽·보·나선계단·브릿지 등의 건축적 장치들이 잔잔한 공간에 공간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외관보다는 조용하게 그 울림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최근 시노하라의 K₂ 빌딩 뿐만 아니라 최근작 구마모토(熊本)의 기타(北)경찰서(1990)에서도 철골구조에 사선의 가새구조가 강조된 건축물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 구조 시스템은 그가 도쿄공업대학 백주년기념관에서 시도했던 부유(浮遊)하는 공중도시계획안의 이미지를 현실화하기에 적합한 구조체계라고 생각되었다. 실제 K₂ 빌딩에서 부유하는 이미지가 실제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구성주의에 영향받은 건축가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중력에서 탈피한 무중력적인 느낌의 건축물, 날개처럼 가볍고 날렵한 건축물이 그들의 기본목표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해체적 성격이 농후한 빈의 건축그룹 코프 힘멜블라우(Coop Himmelblau)는 푸른 하늘회사라는 그룹명처럼 건축물에 비상하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시노하라의 매달려 있는 전망대라는 건축적 장치도 그의 이런 의지의 표현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K₂ 빌딩의 3층 전시공간은 방문했을 당시 건축전시를 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시노하라의 또 하나의 비상하라는 의지를 K₂ 빌딩에서 느끼면서 교바시역으로 돌아와, 꽃박람회 화장으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2. 오사카 꽃박람회

일본의 박람회에 대해서는 이미 거론한 바 있기 때문에, 박람회나 박람회건축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단순히 이 꽃박람회라는 차원에서만 거론하려고 하며 이 꽃박람회의 상황도 개요적인 내용과 일부 인상적이었던 전시관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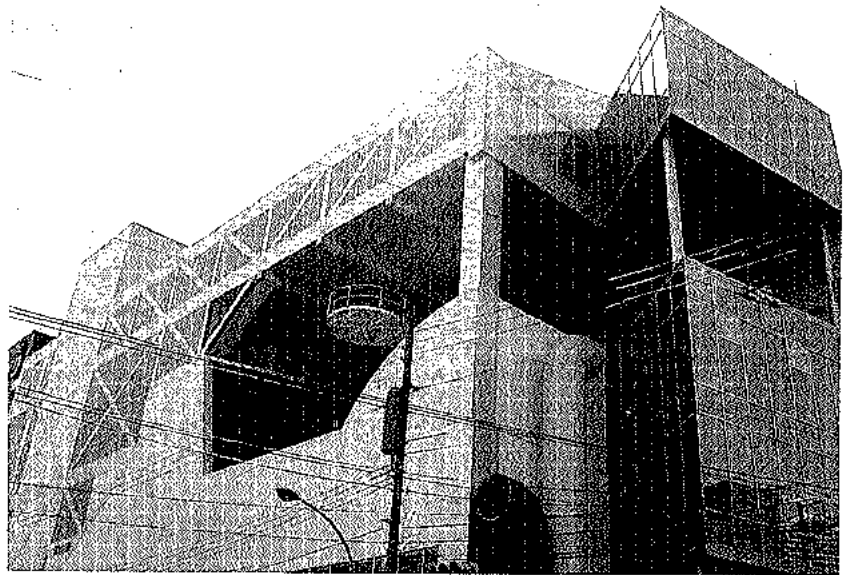
세세하게 설명할 경우 그 내용이 너무 장황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國際化)와 녹(綠)의 박람회」란 정식명칭의 이 박람회는 “꽃과 녹지와 인간생활의 관계를 포착하여 21세기를 향해 운택하고 풍부한 사회의 창조를 목표로 한다”는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동양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원에박람회인 동시에 일본내에서 개최되는 4번째의 국제박람회이기도 하다.

즉 일본에서는 70년의 오사카 만국박, 75년의 오키나와 해양박, 85년의 쓰쿠바 과학기술박람회에 이은, 5년만의 국제적인 박람회인 것이다.

이 박람회의 기본방침은

- 1) 꽃과 녹지에 관한 기술 및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키는 기술의 성과와 가능성을 전시,
- 2) 박람회장을 꽃과 녹지를 이용, 매력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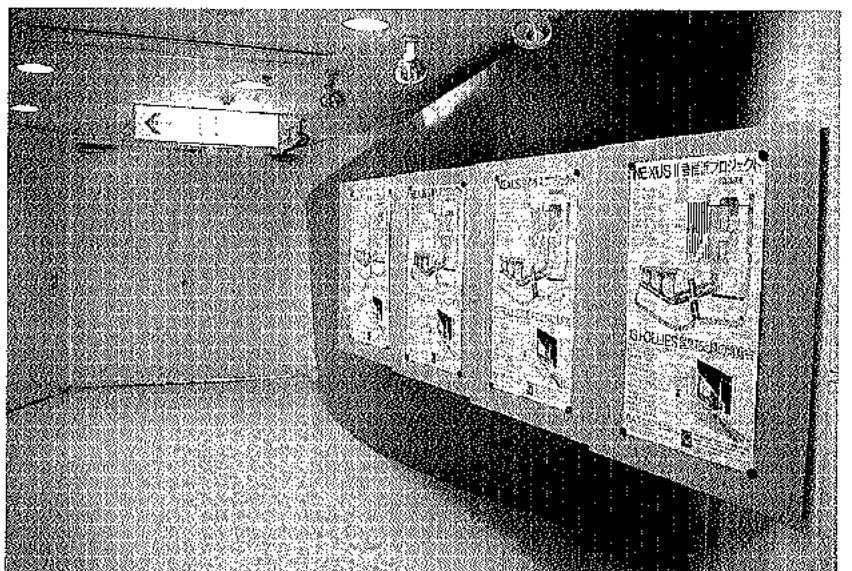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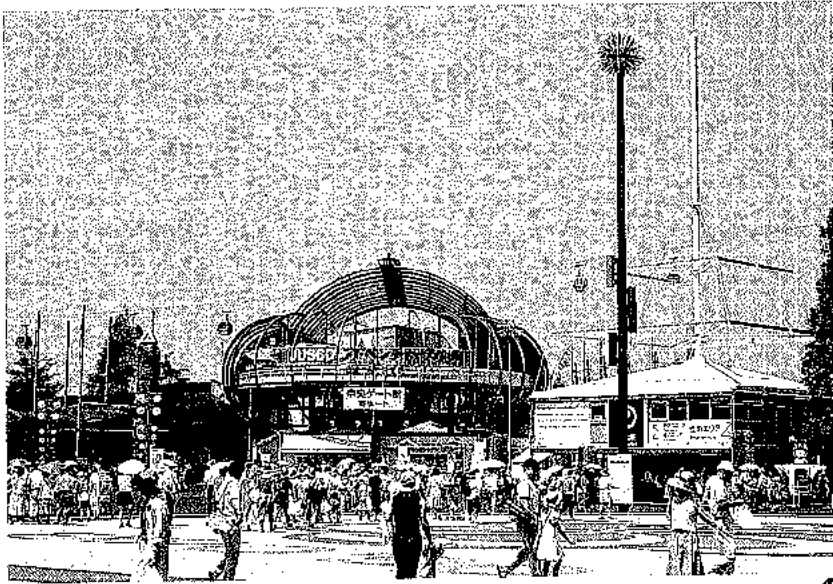
- ⑧ 5~6층의 외부 보이드부에 매달린 전망대
기능적이기보다는 형태적 장치이다.
- ⑨ 1층 중앙홀 전경
- ⑩ 3층의 건축전시를 위한 전시장의 입구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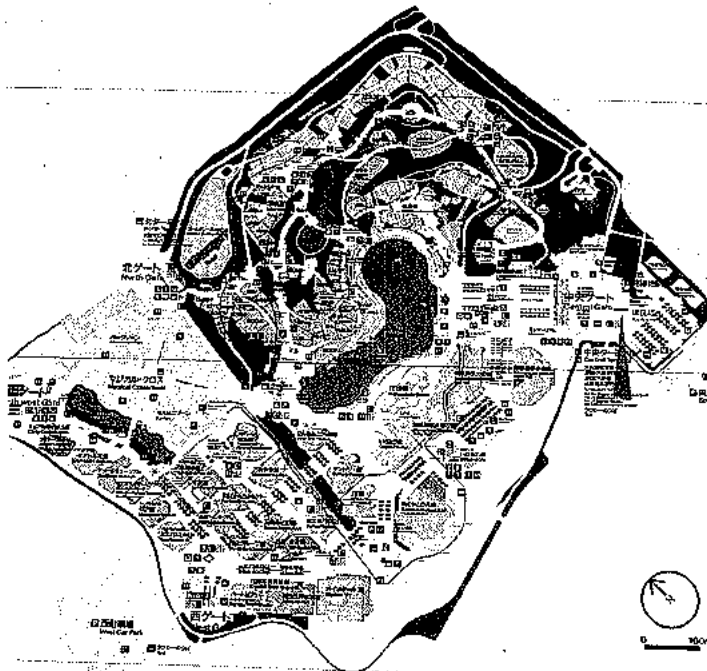
9



10



会場全体案内図 Information Map



- 도시환경장조를 위한 실험의 장과 함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광장과 공원상의 모색,
- 3) 세계의 다종다양한 꽃과 녹지에 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회장,
- 4) 꽃과 녹지에 관련된 과학지식과 문화활동을 소개하는 장,
- 5)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을 축하하며 생명의 찬가와 연결된 다채로운 행사의 전개 및 회장전체에 활기있는 즐거움의 부여,
- 6) 갖가지 원유(園遊)의 장소와 기회제공 및 세계의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문화의 체험의 장,
- 7) 꽃과 녹지에 관한 애정을 환기하고 생물사회에 있어서 식물의 중요성을 제고,
- 8) 박람회의 취지를 회기를 전후로 하여 파급시키려는 노력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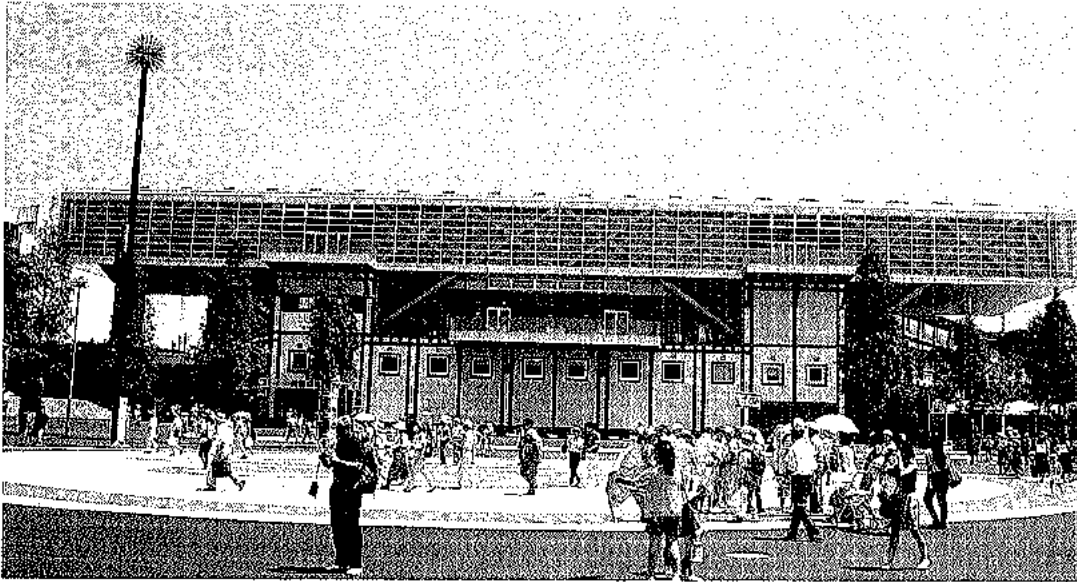
회장면적 약 140ha에 펼쳐지는 이 박람회는 그 공간구성을 「산」과 「거리」, 그리고 이들을 결합한 「야원(野原)」이라는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산」의 영역은 회장 동북부의 구릉일대의 각국 정원전시와 정부관을 중심으로 한 영역, 「야원」의 영역은 회장 중앙에 위치한 「생명의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주변의 일대로 자연과 인공의 융합을 나타내는 테라스나 화단 등이 있는 광장과 만남의 장, 「거리」의 영역은 회장 남서부의 평지일대로 전시시설 및 행사시설이 있는 전시관지구와 놀이공간지구로 구성하여 회장내를 하나의 도시공간으로 형성하고 있었다.

일본 국내에서 250개의 단체, 34관이 출전하며 해외에서 78개국, 53개 국제기관이 참가하는 이 박람회는 요즘 국내에서도 공해문제가 대두되는 것처럼, 자연환경보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수 있다고 하겠다.

3. 국제진열관

지하철에서 내려 선크로 처리된 지하철역 광장으로 나오면 벽천과 조경이 잘 성리된 광장이 나타나고, 이 광장을 계단으로 오르면 사카꾸라(坂倉)건축연구소 오사카연구소에서 설계한 중앙정문이 나타났다. 이 중앙정문은 수목의 형태를 목구조로 형상화한 몇개의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시설은 개찰구와 노인센터·대출센터·수송사무소·진료소 등의 지원시설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이 목구조 사이에 매달린 텐트구조로 이루어진 자동개찰장을 통과하면, 저 멀리 90m의 「생명의 탑」이라는 상징탑이 보이고 박람회장 전경이 시야에



- ① 국제우호 광장에서 바라본 오사카 꽃 박람회장 전경
- ② 오사카 꽃 박람회장 배치도
- ③ 국제 진열관 전경
공중도시 계획안에서의 영향이 보인다.
- ④ 파도를 연상시키는 지붕구조
- ⑤ 실내 대기홀

들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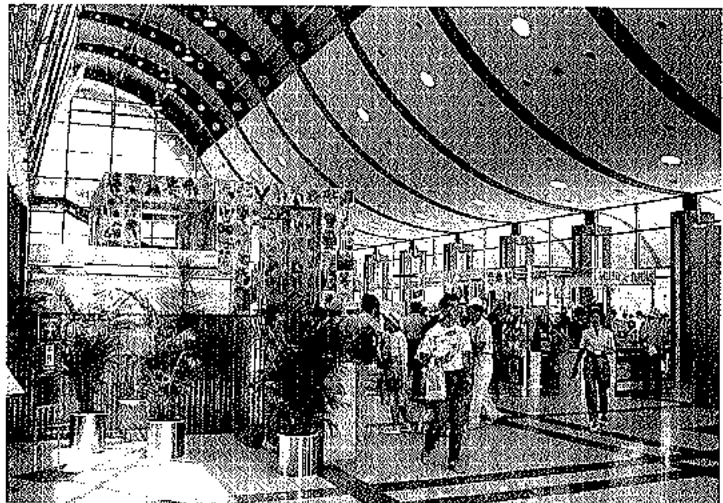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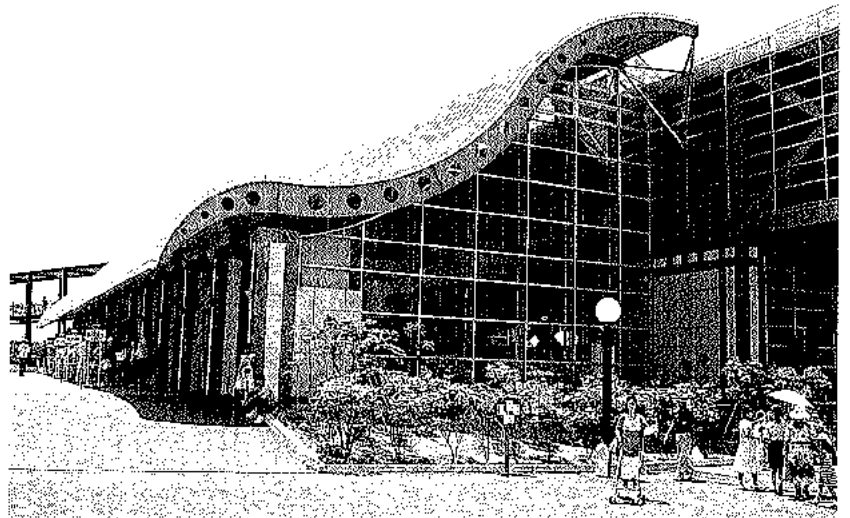
이 상징탑은 박람회 종료후에도 영구보존 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그 형상 역시 나무줄기 위에 꽃봉오리가 피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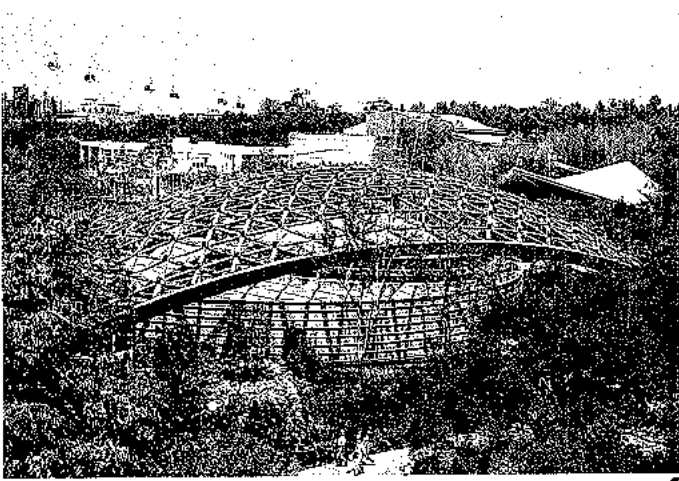
중앙정문을 지나면, 국제우호광장 우측에 국제진열관이 서있었고 이 건축물 역시 보존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소자끼 아라카(磯崎新)아트리에서 설계한 이 국제진열관은 레벨차가 있는 구릉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형태가 상기한 시노하라가 요즈음 시도하고 있는 공중도시계획안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상부의 진열관이 사선방향으로 노출된 파이프구조에 의해 캔티레버형식으로 돌출, 지지된 이 전시관은 이소자끼의 러시아 구성주의에 대한 기호(嗜好)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것은 그의 건축적 인용구 가운데 리쉴츠키와 스타의 공중도시계획안이 하나의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하부의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화강석으로 처리된 마감과 상부의 돌출된 진열관의 키텐윌치리는 이 건축물을 비상하려는 개념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이 사선화된 구조체와 함께 명확히 하고 있었다. 광장에서 7.5m 레벨차가 있는 진열관 정문으로 캔티레버구조 밑을 통과해서 계단으로 오르면, 진열관 대기홀의 지붕구조가 파도형의 곡선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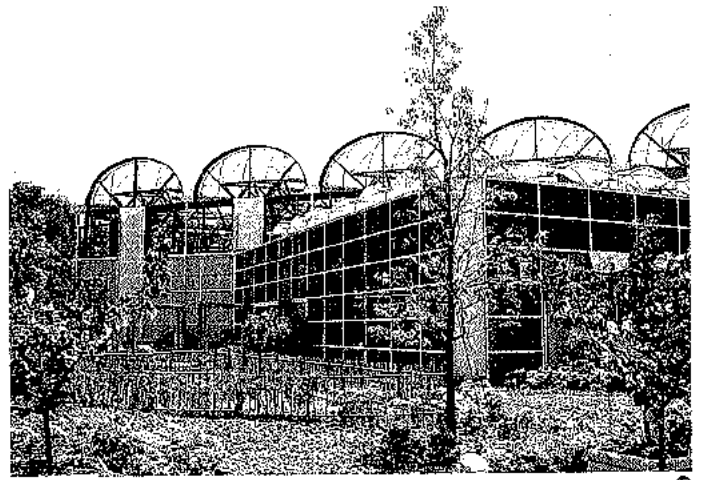
광장측 레벨을 1층으로 산정할 때, 3층에 해당하는 대기홀 공간은 실내공간에서 이 파도형 지붕구조와 진열관사이에 파이프구조로 고정되어 있었고, 상부에는 천장이 설치되어 실내로 부드러운 자연광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각층의 기능은 1층은 이벤트홀과 준비실, 2층





16



17

귀빈실, 3층 대기홀 및 휴게공간, 4층 진열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3층 대기홀에서 계단을 통해 4층 진열관을 구경한 관람자들은 진열관 평면구조와 사선방향으로 설치된 긴 경사로를 통해 박람회 전경을 변화있게 바라보면서 출구로 나오도록 연출되어 있었다.

이 파도형 지붕구조는 이소자끼가 바르셀로나 실내체육관의 설계이후, 요즈음 현상설계안등에서 자주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르셀로나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성 가족교회당)부속국민학교의 지붕구조에서 영향받은 것이다. 바르셀로나와 오사카는 대기속에 바다의 소금냄새와 함께 파도의 공간적 운율이 넘실거리는 항구도시임을 암시하듯이, 대기홀 실내에서 보면 비행기날개의 하부면이 연상되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구성된 천장은 이 지붕구조에 의해 가벼운 파도같은 운동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내외부에 있어 이 진열관의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사선의 파이프트러스구조가 강한 형태적 공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일본건축가이기 보다는 세계인으로 자처하는 이소자끼의 역량이 이 전시관건축물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는 전시공간에서의 전시품만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전시적 요소를 지닌 공간장치로 연출하고 있었고 7.5m라는 레벨차를 1층부분에 충고 7.5m의 이벤트를 설치해 지형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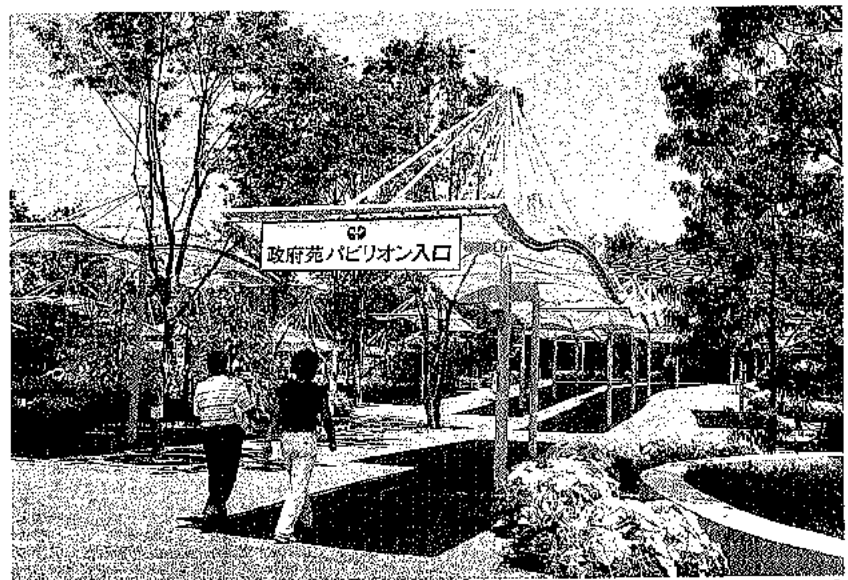
4. 정부관

국제진열관에서 멀지 않은, 북측에 위치한 정부관은 건설성 긴끼(近畿)지방건설국 영선부와 도하파(東畑)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전시관으로 자연과학동·문화전통동·산업기술동·도시환경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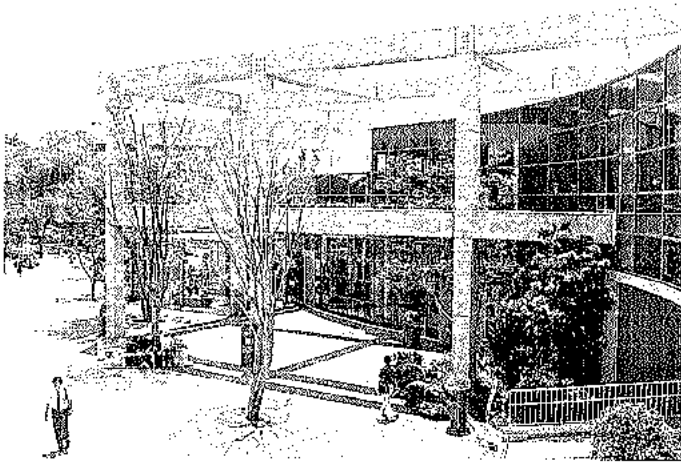
- ⑬ 자연과학동 전경
목제 엘로자붕이 구성되어 있다.
- ⑭ 산업기술동 전경
- ⑮ 산업기술동 실내 천장이
목조트러스로 구성되어 있다.
- ⑯ 정부관 전경
현수형 캔티레버구조가 입구통선을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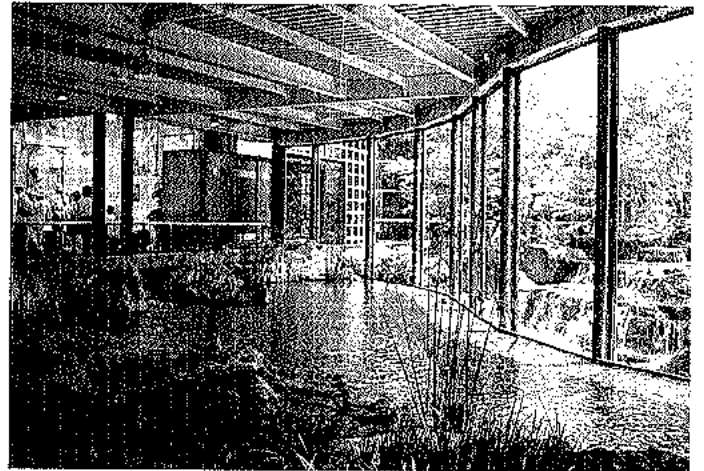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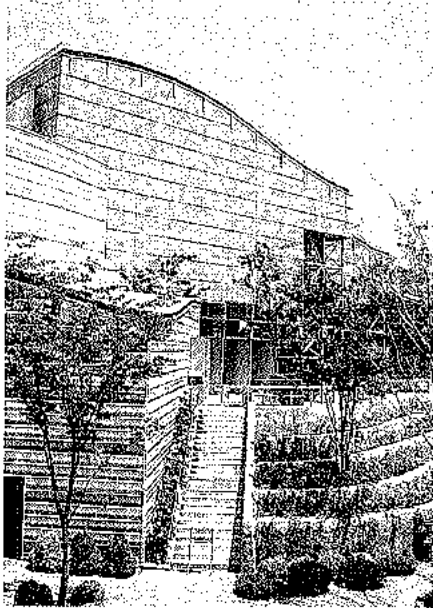
19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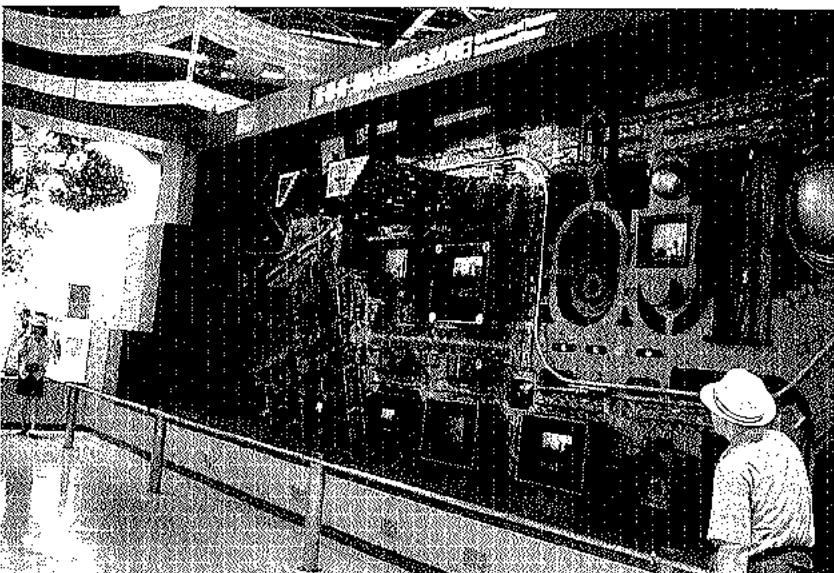


㉕



㉖

- ㉔ 생활 미래동 전경
격자구조로 이루어진 프레임이
매개공간적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 ㉕ 문화 전통동의 실내외부와 내부의
자연경관이 훌륭하게 교호하고
있다.
- ㉖ 도시환경동 전경
커튼월과 목재트러스의 접합이
재미있다.
- ㉗ 도시환경동의 실내 전시를
비즈니스파크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㉘

생활미래동이라는 5개의 전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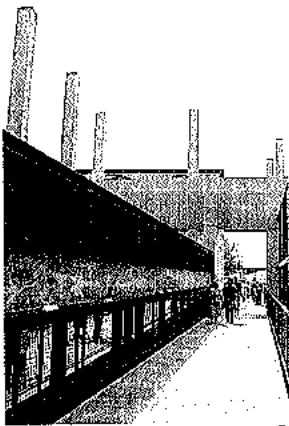
현수식 구조로 이루어진 캐노피를 따라 가다 보면, 원형의 자연과학동이나 타나고, 또 회랑을 지나면 문화전통동, 그리고 산업기술동의 순서로 각 동들이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정부관은 그 건축의 기본개념의 「소프트 아키텍처(Soft Architecture)」 이었다.

소프트 아키텍처란 개념은 일본인들의 과거부터의 생활양식중에서 이루어 졌던 내외공간의 융합이나 상호관입이라는 공간구성을 취하면서 도시공간에서 교차하는 다양한 요소를 상호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개하는 새로운 환경구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정부관 역시 지형적 고저차를 이용해 관람객들이 입체적으로 회유(回遊)할 수 있는 구성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전시관 전체의 디자인모티브로서 빛·바람·흙·물·꽃·녹지라는 자연의 갖가지 요소를 이용해, 각 전시동의 실내전시공간을 각동마다 의식적으로 모든 형상이나 색채를 다르게 변화시켜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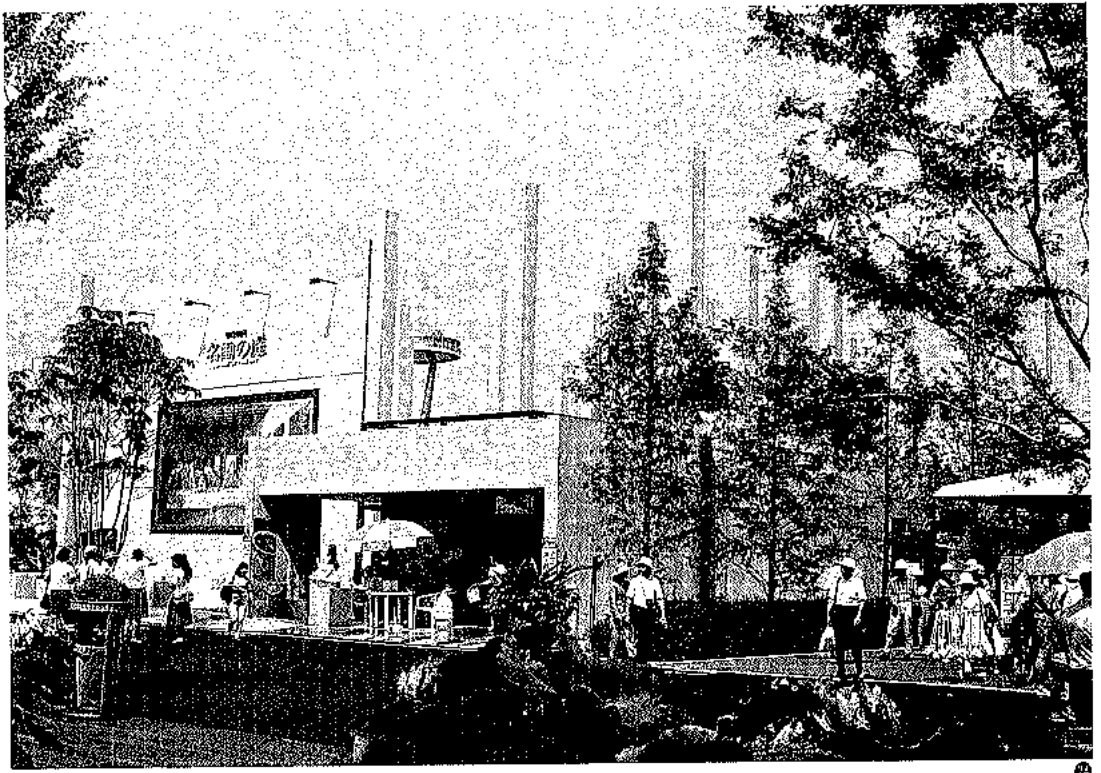
박람회건축의 특징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특히 구조기술의 전위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꽃박람회에서는 혁신적 구조기술을 선보이기 보다는 자연과 인공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현재 개발된 기술을 약간 발전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이 정부관에서도 구조재료의 사용에 있어 일본인들이 일반적인 건축재료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자연과학동의 목재월구조, 산업기술관의 50m 트러스, 도시환경동의 입체트러스등의 구조가 자연재와 공업제품을 결합시킨 목재트러스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실내공간에서 노출된 목재트러스를 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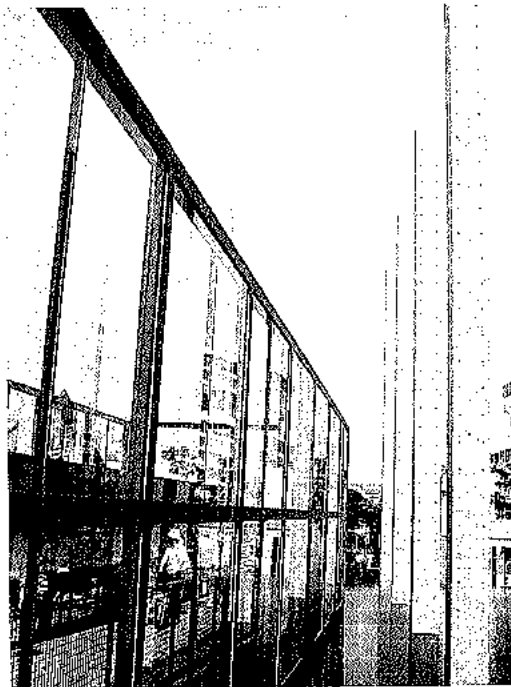


20

- ④ 명화의 정원 전경
- ⑤ 입구부분의 산보로
- ⑥ 자연적 요소인 물과 건축적 요소가 결합된 전시관



21



22

일본의 경우는 전통적인 목구조를 발전시켜 현재에도 건축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는 목구조의 전통이 소멸된 것이 아쉽게 느껴졌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건축인들이 일본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노출콘크리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처럼, 새롭게 연구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정부관을 돌아 보면서, 특히 문화전통동 실내에서 물에 의한 연출과 이 연출이 자연스럽게 전면유리를 통해 보이는 외부공간의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관과 연결되도록 한 수법은 이 정부관의 건축적 개념인 소프트 아키텍처를 잘 표현하는 동시에 절묘한 연출이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생활미래동의 구조를 격자화된 콘크리트 프레임울 내외부로 연결시키면서 건축물과 외부공간 사이에 매개공간을 형성하는 수법은 국내에서도 시도하기도 하지만, 흥미있는 처리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5. 명화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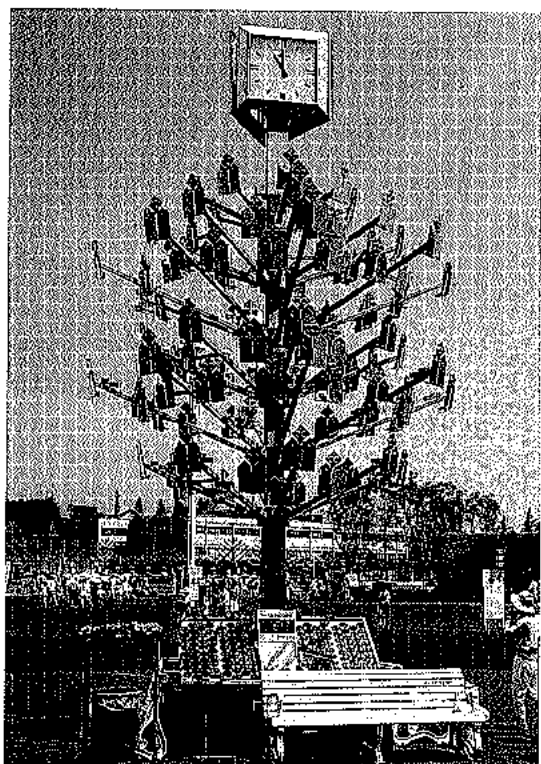
안도 다다오(安藤 忠雄)! 최근 일본건축계의 대표적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건축가. 독학으로 건축을 수학하였다는 전설적 인물로 그의 건축은 국내외에서도 평판이 나있는 건축가로 그의 영향은 일본뿐만 아니라 구미 내지는 국내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가 일본건축계의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되고 있는 것은 1992년 세밀리아박람회에서 일본관을 설계하는 것으로도 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일본현대건축을 연재하면서 그의 건축에 대해 거론하지 않은 것은 필자가 그의 건축을 경시한다기 보다는 도쿄, 오사카, 코베, 교토에서 방문한 그의 초기작에서 최근작에 이르는 건축물을 한회에 집중적으로 조명할 목적때문이었다.

따라서 그의 건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소개하고 이번에는 단순히 하나의 전시관이라는 차원에서만 거론하고자 한다.

외부에서 바라보면, 순수한 건축적 요소와 자연적



27

요소만으로 구성된 이 전시를 위한 산보로형식의 전시관은 다른 영상등의 첨단적 매체를 이용한 전시관들과는 다른 안도다운 일면을 느끼게 하는 건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었다.

물질적 형식으로서 구성된 기둥·벽체·바닥·보라는 건축요소와 빛·물·바람 등의 자연적 요소를 결합시켜 연출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전시관의 주제인 동시에 안도 다다오 건축의 주제이기도 하며 모든 건축가들이 탐구해야 할 항구적인 주제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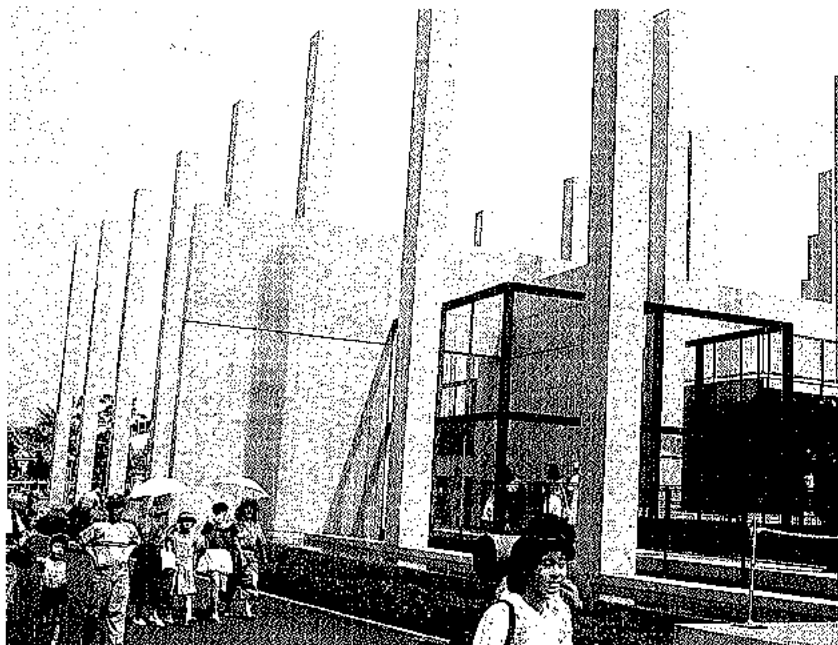
이 전시관의 옥외로 노출된 벽면에 첨단기술인 세라믹스로 재현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이 전시관의 궁극적인 전시품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부가적 성격이 강하며 궁극적 전시품은 벽화가 아닌 건축적 공간과 자연적 요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명화의 정원은 정원의 원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안도 다다오식의 질문과 해답인 것이다.

즉, 높이 12.6m의 기둥 45개가 등간격으로 배치된 연못을 산보로형식으로 순회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건축적 요소들이 연출에 의해 어떻게 인지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인 것이며 이 공간을 흥미롭게 하기 위한 부가적 요소가 벽면에 재현된 상기한 벽화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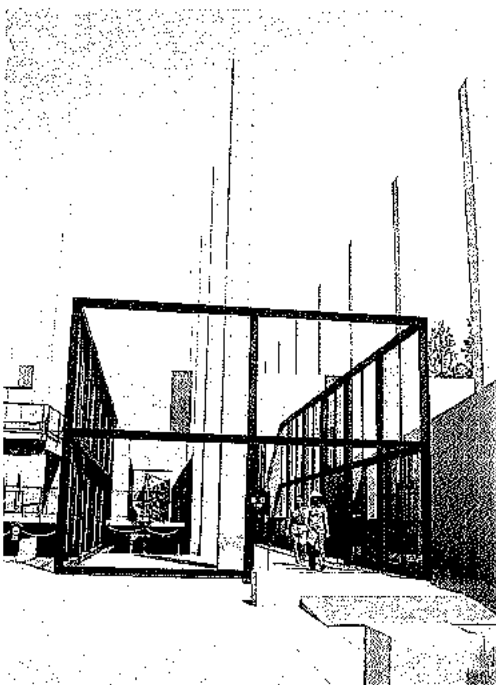
물론 이 전시관에는 기둥만이 아닌 벽체·보·계단같은 건축적 장치들도 연출장치로 사용되고 있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성원에 대하여」라는 그의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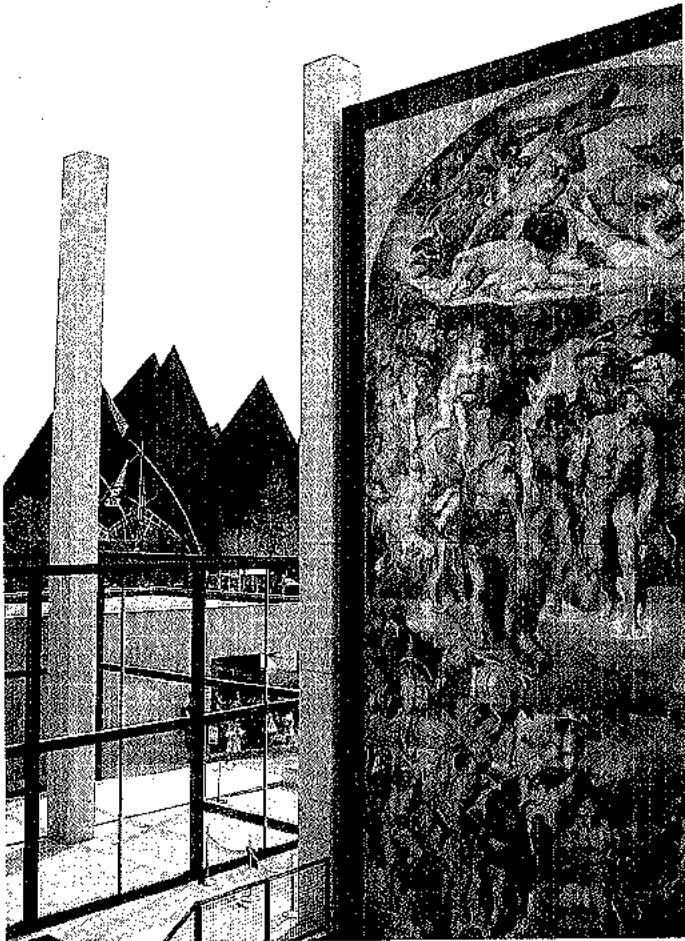
- ㉑ 나무를 주제로 한 스트리트 파니쉬
- ㉒ 측면에서 바라본 명화의 정원 전경
- ㉓ 출구 부분



29

에세이에서 “정원이란 소위 인간적 쾌락중에서 가장 순수한 것이다”라고 술회했지만, 일반적인 정원의 선입관 즉, 수목과 꽃이 있는 공간이 아닌 정원은 어떤 것인가가 흥미저리인 것이다.

입구부분에 벽화가 재현된 콘크리트 벽면이 서있는 공간을 지나서 연못에 설치된, 12.6m의 노출콘크리트 기둥이 준비하게 서 있는 산보로를 따라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벽면에 재현된 벽화들을 보면서 산보하다 보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은



30

입구부분에 서있던 대벽면의 후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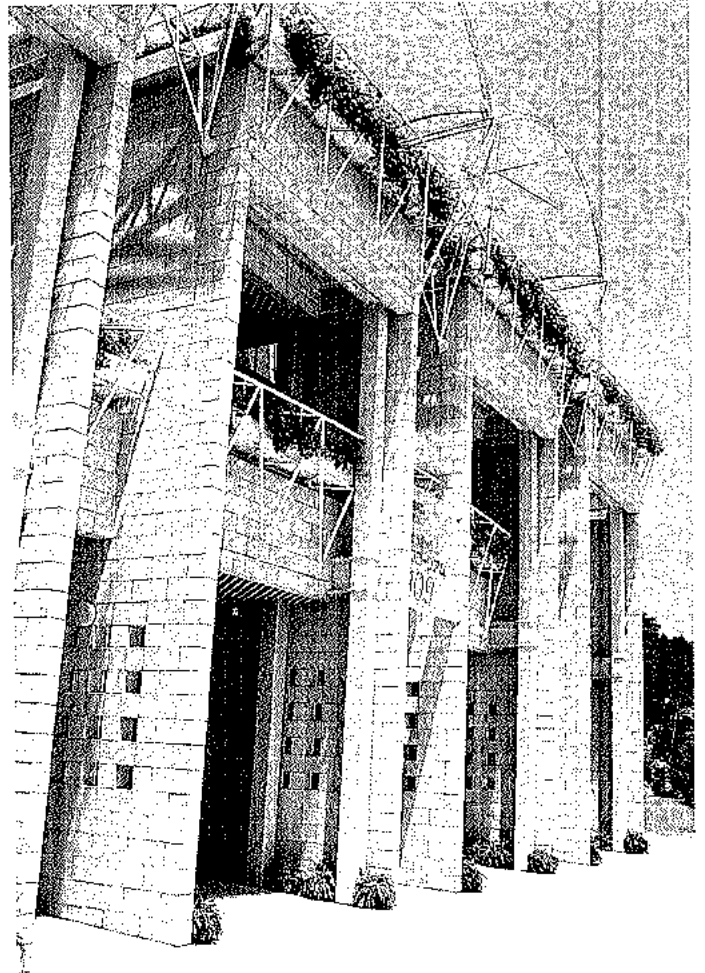
물론, 벽면의 전면과는 달리 후면에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선관가든이 면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지만 결국 관람자가 도착한 곳은 입구에 설치된 벽면의 바로 뒷면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같은 단순한 미로적 장치가 필자에게는 상당히 의미있는 건축적 장치로 느껴졌다.

물론 산보로를 따라 걸을 때 시야에 전개되는 변화있는 건축적 장치들의 연출의 절묘함도 절묘함이지만, 결국 인간들이 아무리 이리저리 돌아 다닌다 해도 결국 도달하는 것은 바로 원점이라는 설정이 상당히 철학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물론 하나의 사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안도 다다오의 이 건축적 장치는 동양적 윤회사상을 함축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손오공이 아무리 날라 다닌다고 해도 결국은 부처의 손바닥이라는 동양적 우화를 생각나게도 하는 이 건축적 장치의 장점은 시각적 체험의 장인 동시에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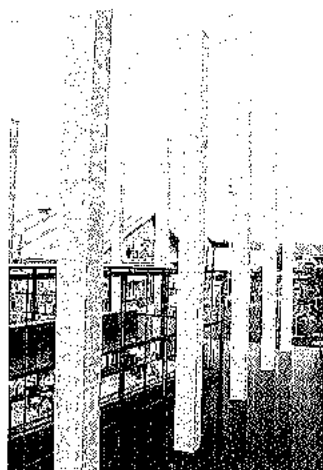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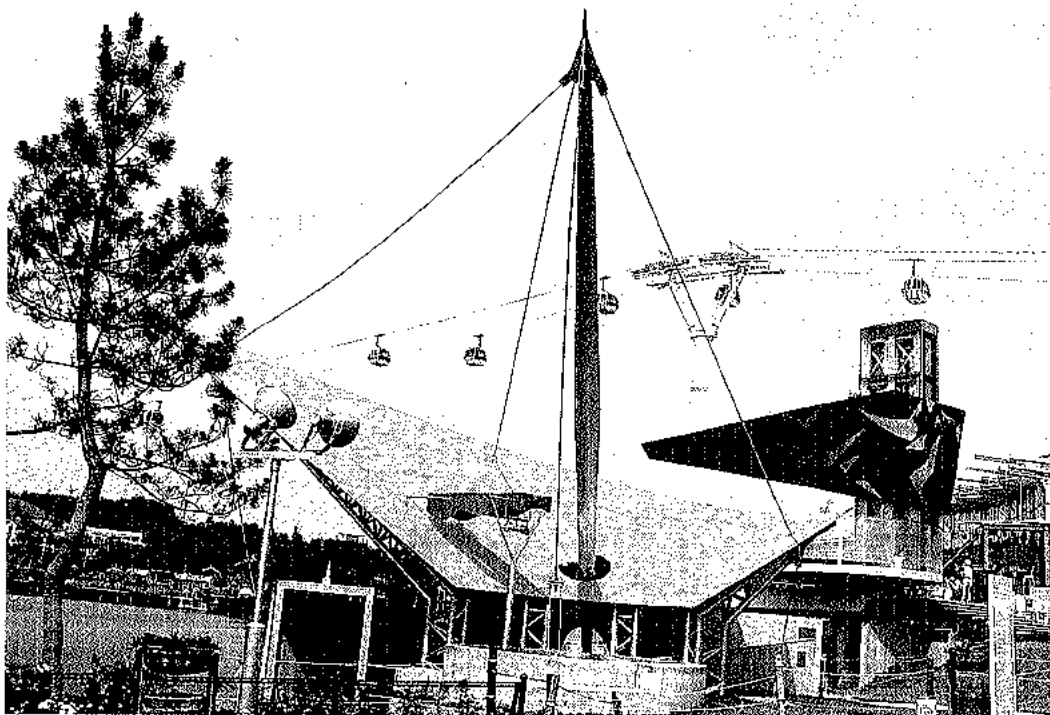
- ㉔ 최후의 심판이 있는 선관 공간으로 이루어진 대벽면
- ㉕ 프로리알 109전경

인간의 움직임을 통한 오감적인 체험의 장이라는 것이다.

다른 첨단적 영상매체를 갖춘 전시관들이 영상기술에 의해 간접체험을 시키는 것같은 건축물인데 비해 이 전시관은 직접 관람자들이 산보하면서 체험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흥미가 있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교감하기 보다는 건축을 통하여 자연의 의미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한다. 그것은 건축이 자연을 추상화하려는 작업이다”라고 말하는 안도의 자세에서 그의 추상화된 건축적 단편들로 이루어진 건축물 역시 자연의 추상화작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이것은 신지학자의 자연관 내지 우주관에 따라 자연의 요소를 수직 수평의 요소로 분해했던 네덜란드의 데 스틸운동울 연상시키고 있다.

필자가 안도의 건축을 일본의 전통과 르 꼬르뷔지에, 그리고 네덜란드의 구조주의 건축가 알도 반 아이크의 건축적 영향의 복합적 산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데 스틸의 3원색의 채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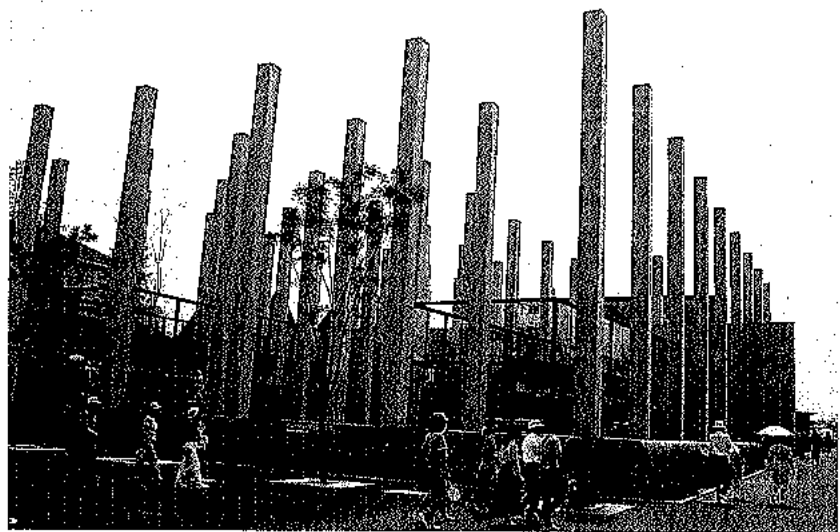


탈색해 버리면 안도의 건축과 같은 순수한 건축적 공조가 드러나는가 하는 문제는 언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면서 이 영화의 정원을 나왔다.

6. 결

오사카 꽃박람회는 전술한 전시관 외에도 라 빌레르 공원에 베르나르 추머가 설계했던 폴리적인 장치들을 피터 쿡·자하 하디드·코프 힌켈블라우·몰포시스·다니엘 리베스킨드 등의 외국건축가들과 스즈키 료지(鈴木 了二) 등의 일본 건축가들에 의뢰하여 박람회의 곳곳에 설치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이소자끼 아트리에의 국제전시 물의 관, 다끼 미쯔오(瀧 光夫)설계의 국제전시 빛의 관, 가와사키 기요시(川崎 清)의 메인 홀, 오사카 도시정비국 설계의 식물원 겸 꽃의 휴게소, 이시야마 오사무(石山 修武)설계의 꽃박람회 사진미술관, 구뢰 아까리(栗生)종합계획사무소의 프로리암 109등 흥미있는 전시관들이 많이 있었다.

이 꽃 박람회를 관람하기전에 과연 꽃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박람회로 소화할까 하는 의구심도 가졌지만, 꽃과 식물을 이용한 스트리트 파니취등의 소품에서 대형 전시관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연출이 이루어 졌으며 꽃이라는 주제에 한성하지 않고



자연이라는 주제로까지 확대하여 전시한 발상은 흥미있었다.

국내에서도 대전엑스포 등의 박람회 붐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 꽃박람회의 방문은 단순히 박람회가 전시관들의 나열이 아닌 총체적 연출의 결실이라는 것을 실감케 해주었다.

하나의 소형건축물도 섬세한 시각에서 보면 손잡이에서 건축물의 전체 형태와 공간 그리고 조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연출의 산물이라는 점은 결국 이 박람회와 같은 맥락선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박람회장을 떠났다.

- ㉞ 아사카 하지에 설계의 플리
- ㉟ 물에 서있는 기둥들
- ㊱ 후면에서 바라본 영화의 정원 전경

인텔리전트 빌딩 設計에 관한 一般事項

A Basic Study for Intelligent Building

本協會 設備分科委員會
(연구진행: 孫章烈)

5. 美國, 日本의 例

가. 美國의 例

미국의 인텔리전트빌딩은 UTBS사에 의해 제창된 이래 IBM, 하니웰, 링컨프로퍼티등 컴퓨터 메이커와 부동산회사등이 빌딩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인텔리전트빌딩의 기능, 설치방법은 각社마다 특징이 있다. 미국에서의 인텔리전트 빌딩은 임대용 오피스 빌딩의 개념으로서 빌딩의 소유자가 입주자에게 공통의 전자교환기, 컴퓨터, 기기 등을 설치하고 임대서비스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다. <표 3>은 주요 임대서비스 회사의 인텔리전트 빌딩 실적을, <표 4>는 미국의 주요 인텔리전트빌딩을 나타낸다.

표에 소개한 미국에서의 주요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하여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링컨프라자

링컨프라자는 미국에서 2번째 규모인 디벨로프 링컨프로퍼티회사가 주체가 되어 달라스의 도심북부에 건설된 45층 인텔리전트빌딩이다. 외관은 적갈색 화강암과 브론즈 반사유리로 구성되어 산뜻한 감각을 준다. 또한 주위의 페어먼트 호텔, 아루코타워까지 연결되어 있는 약 800m의 지하도는 주단 동 섬유류를 마감재로 사용하고 있어 매우 고급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달라스에서 이러한 지하도는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공동임대서비스는 링컨프로퍼티의 자회사인 링콰사가 일괄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이 건물의 2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링컨프라자의 PBX(구내교환기)는 Intecom Inc. 제의 Digital PBX「IBX-S/40」을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자의 대부분이 Digital PBX에 의한 전화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igital PBX는 국선과 내선을 합하여 5천~6천의 회선수를 가지고 있으며, 건물 임대자간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다수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엘리베이터는 오티스사제이며 LTV센터와 마찬가지로 음성으로 정지층수, 진행방향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서는 기상예보, 시각, 뉴스 등을 보여준다. 한편 로비에 제어반이 있으며 건물내 37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항상 감시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링컨프라자의 공동 임대서비스로는 전화에 의한 서비스, 범용 컴퓨터의 이용, 소프트웨어 제공, 사용시스템의 사용자교육,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의 리스를 들 수 있다.

빌딩오토메이션의 컴퓨터는 AMF사의 「ALPHA/NET-4000」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조설비의 감시와 제어 예를 들면, 최대부하, 부하변동의 기록, 엘리베이터 관리, 로비와 외부의 조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 건물의 임대료는 LTV센터에 비하여 25%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설치된 시스템에서도 LTV센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LTV 센터

눈부시게 발전하는 달라스의 중심가에 우뚝 솟은 LTV센터는 다방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최신 건물중의 하나이다. 이 건물은 전 미국 창고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TRAMELL CROW사가 건설한 임대빌딩이다. 주임대회사가 LTV이므로 LTV센터라 명명되었으며, TRAMELL CROW사도 이 건물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외관은 적갈색의 화강암과 브론즈 유리로 되어 있으며, 원형과 사각형의 조합으로 설계된 스카이라운지의 실루엣이 유명하다. 또한 별관형식의 소전시홀이 있어 각종 전시나 모임에 이용할 수 있고 건물주위에 조각이 산재해 있어 세련된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 31층에 빌딩관리 Control Center가 있으며 주위 12개의 임대빌딩의 정보를 일괄 통제하고 있다.

PBX는 AT & T사의 Dimension System '85, 스위치 시스템은 렉사사, 엘리베이터는 오티스사,

임대서비스 회사	주요 인텔리전트 빌딩	준공 년월
쉐어 테크 (현재 쉐어 테그놀로지)	시티플레이스(코네티컷주 하트포드)	1983년 11월
	티버 센타(코로라도주 덴버)	1984년 5월
	LTV센타(텍사스주 달라스)	1984년 11월
	시티코프센타(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1984년 11월
	크리스탈 파크 I (워싱턴 DC)	1985년 4월
링콤	링컨프라자(텍사스주 달라스)	1984년 7월
존슨컨트롤	원파이낸셜 플레이스(일리노이주 시카고)	1984년 12월
하나웰	홀마크오피스 콤플렉스(워싱턴 DC)	1985년 7월
SBS 리어클	나쇼날 플레이스(워싱턴 DC)	1985년 4월
올림피아 네트	월드파이낸셜센타(뉴욕주 뉴욕)	1988년

〈표 3〉 美國의 주요 임대서비스 회사의 인텔리전트 빌딩 實績

건물명 회사	소재지	준공 년월	건물 개요	인텔리전트화의 내용
링컨프라자 (LINCOLN PLAZA)	텍사스주 달라스	1984년 7월	임대 지상 45층, 지하 1층 연면적 110,000㎡	• AMF ALPHA/NET 4000 (공조, 조명, 엘리베이터) • PBX : 인콤 TBX-S/40 • 전자전송, 음성전송 • 비디오텍스에 의한 입주자 안내 • TV 회의 • 장거리전화의 초단루트 자동선택 • 각종 기기 리스
LTV센타 (LTV CENTER)	텍사스주 달라스	1984년 11월	임대 지상 50층 연면적 125,000㎡	• UTC빌딩 관리 시스템 (공조, 조명, 방재, 엘리베이터,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 • PBX : AT&T 시스템 '85 • LAN : PBX를 중심으로 하는 스타형 • 전자전송 • 장거리전화의 최단루트 자동선택 • 고속팩시밀리 • 각종 기기 리스
시티코프센타 (CITICORP CENTER)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1984년 11월	임대 지상 43층 연면적 72,000㎡	• UTC빌딩 관리 시스템 (공조, 조명, 방재, 엘리베이터,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 • PBX : AT&T 시스템 '85 • LAN ; PBX를 중심으로 하는 스타형 • 전화서비스 • 장거리 전화의 최단루트 자동선택 • 범용컴퓨터 공동이용 • 각종 OA기기 이용 • 각종 기기 리스
원 파이낸셜 플레이스 (ONE FINANCIAL PLACE)	일리노이주 시카고	1984년 12월	임대 지상 40층 연면적 93,000㎡	• 존슨컨트롤 JC85 (공조, 조명, 방재, 보안) • 자사공간만의 공조도 기능 • PBX : 인콤 IBX-S/80 • LAN ; PBX를 중심으로 하는 스타형 • 주컴퓨터 : VAX11-785 • 전화서비스 • 장거리통신서비스 • 전자전송 · 통계해석 • 외부데이터 베이스 검색 • 각종 기기 리스
홀마크 오피스 콤플렉스 (HALLMARX OFFICE COMPLEX)	워싱턴 DC	1985년 7월	임대, 호텔 콘벤션 센타 연면적 90,000㎡	• Delta 5000 (공조, 조명, 방재, 에너지의 감사와 제어) • PBX : Deltaplex 2000 • 전화서비스 • TV 회의 • 전자 전송 • 고속 팩시밀리 • 통계 해석 • 외부데이터 베이스 검색 • 각종 기기 리스

〈표 4〉 美國의 주요 인텔리전트 빌딩의 概要

오피스서포트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Database 검색서비스이며, 로이타에서 일괄 구입계약을 하여 이것을 각 임대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복사 서비스, 비서, Operator의 파견까지를 임대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오피스 오토메이션 서비스로는 각종 OA기기 이용의 자문 및 컴퓨터, 단말기기의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임대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건축설비는 UT사의 자회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는 「Calling Up」, 「Calling Down」, 「Second Floor」라고 음성으로 정지층수를 알려주므로 매우 편리하다. 엘리베이터내에서는 기상예보, 시각, 뉴스 등을 전광으로 보여주고 있다.

관내배선은 ① 트위스트케이블, ② 동축케이블, ③ 광파이버의 3종류가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또한 Security 센터와 1층로비에 있는 Security 카운터가 항상 연결되어 ITV, EV, 방재 등을 감시하고 있다.

공동임대서비스는 United Technology의 자회사인 Building System사와 AT & T의 정보기기부문·AT & T Information사와 합작인 Share Tech사(현재는 Shared Technology-Inc.)가 일괄 제공하고 있다. 소유주측은 설비부자를 하지않고 Share Tech사로 부터 이익을 일부를 환원 받고 있다.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Digital PBX를 중심으로 한 전화서비스가 주된 것이다. 임대자는 이것을 이용하여 가장 저렴한 장거리 전화의 최단루트를 자동선택하고, 고속 팩시밀리, 전자전송등의 이용으로 빌딩내외로 자유롭게 송수신을 할 수 있다.

범용컴퓨터의 공동이용에 있어서는 임대자로부터 요구가 적고, 임대자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임대자는 전자전송, 음성전송에 관심이 많다.

이 빌딩은 종합적인 평가에서 등급이 상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빌딩의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는 달라스에서 100%에 가까운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3) 시티코프 센터

샌프란시스코의 금융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티코프센터는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인텔리전트빌딩이다. 이 건물의 입구는 시장국의 요청에 의하여 The London Paris Hall이 복원되어 있으며, 분수, 조각 등이 설치되어 있고 시민의 휴식장소로 개방되어 있다.

공동임대서비스는 LTV센터와 같이 Share Tech(현재 Shared Technology Inc.)가 맡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Digital PBX를 중심으로 한 전화서비스,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오피스 서포트 서비스 오피스 오토메이션으로 크게 분류된다. PBX는 AT & T사의 Dimension System '85를 사용하고 기본기능에 3단계의 추가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것에 따라 요금도 변화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전화기는 2년, 3년, 5년 형태로 서비스회사로부터 리스하게 되어 있다. PHX의 이용으로 가장 저렴한

장거리 전화의 최단루트 자동선택이 가능하며 약 20%의 요금절감을 표방하고 있다.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에서도 서비스회사측에서 범용컴퓨터를 설치하여 임대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대신 사용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컴퓨터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각 임대자는 서비스회사로부터 Password를 받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오피스서포트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Database 검색 서비스이며, 로이타에서 일괄 구입계약을 하여 이것을 각 임대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복사 서비스, 비서, Operator의 파견까지를 임대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오피스 오토메이션 서비스로는 각종 OA기기 이용의 자문 및 컴퓨터, 단말기기의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임대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빌딩오토메이션은 오토사제를 사용하고 Security 센터는 1층에 있으며, Security 카운터를 겸하고 있는 1층 메인로비의 접수부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 긴급사태 발생시는 즉시 통보되도록 되어 있다. 화재시에 대비해서는 화재검출, 방화문, 댐퍼, 소방에 통보되어 있고, 동시에 상하층 마다의 가압하도록 Life Safety System으로 제어되고 있다. 이처럼 공동이용서비스, 빌딩오토메이션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티코프의 문제는 입주율이 30%로 낮고 공동이용서비스의 이용율이 극히 낮은 것이다. 더우기 건물의 공동소유자이며 최대의 임대자인 시티코프가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자사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4) 원 파이넨셜 플레이스

시카고의 중심라자루가에 우뚝 솟아 있는 원 파이넨셜 플레이스는 40층으로 된 임대 오피스타워와, MWSE(중서부증권 거래소)동으로 되어 있으며 벽돌색의 화강석과 유리를 조합시킨 안정된 외관을 가지고 있다. 타워의 북측에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금융가가 연이어 있다.

이 건물이 다른 인텔리전트빌딩과 다른 것은 주임대자인 MWSE와 소유주가 공동으로 빌딩건설을 기획, 즉 MWSE의 뉴스를 겸한 통신, 데이터 처리기능을 처음부터 고려하여 존슨컨트롤스에 시스템설계를 의뢰한 것이다. 공동임대서비스도 소유주, MWSE, 존슨컨트롤의 3사의 합병회사인 파이넨셜 플레이스 커뮤니케이션 Company가 담당하고 실제로 존슨컨트롤이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료 수입도 3사가 삼등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초부터 주임대자가 결정된 것, 공동임대서비스를 소유주, 임대자, 서비스회사가 같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원파이넨셜 플레이스의

특징이다.

엘리베이터의 내부는 대리석을 이용하여 호화롭게 되어 있어 소비전력은 매우 많으며 LTV센터나 시티코프센터와 같이 음성에 의한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다.

빌딩오도메이션에는 존스 컨트롤 JC85를 사용하고 DEC(Digital Equipment Company)의 VAX II -785를 이용하여 공조, 조명, 방재, 보안 등 일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VAX II -785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시스템도 관리하고 있다. PBX는 Intecom. Inc. 製の 디지털 PBX 「IBX-S/80」이며 링컨프라자의 것보다 한 등급 위의 것이다. 이 PBX와 VAX II -785가 연결되어 있어 임대자는 자유로이 음성과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다.

공동 임대서비스로는 디지털 PBX를 이용한 예약전화, Answering, 장거리전화의 최단루트 자동선택, VAX II -785를 이용한 통계해석, 각종 데이터베이스 검색, 전자 전송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임대자는 독자적인 ID Name, Password를 보유하고 있어 안전면에서의 배려를 하고 있다. 서비스회사의 요원이 빌딩내에 상주하며 시스템의 유지, 관리, 자문과 임대사의 상담에 응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5) 홀막 오피스 콤플렉스

워싱턴 교외의 달라스 국제공항 부근에 건설된 홀막 오피스 콤플렉스는 오피스 빌딩,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컨벤션 센터의 5동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빌딩 콤플렉스이다. 이 콤플렉스에는 호텔,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은행, 헬스클럽 등이 갖추어져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물군의 소유주는 G. T. Reality사이며 하니웰사의 상업임대용 빌딩시스템을 도입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하니웰사는 각사의 냉난방환기설비, 엘리베이터 등 모든 빌딩시스템과 연결된 마이크로 컴퓨터 베이스에서 설비를 제어하고 있다.

홀막 오피스 콤플렉스는 빌딩컨트롤센터에서 공조, 방재, 보안, 에너지 절약 등의 감시와 실시하고 있으며, 38대의 TV카메라가 설치되어 상시 감시체제로 운용되고 4대의 소형모니터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PBX는 Deltaplex Series 2,000을 설치하였다.

공동임대서비스는 전화서비스가 주이며, 그 내용으로는 장거리 전화의 최단루트 자동선택, 전자전송, 고속 팩시밀리 등이 이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빌딩 내외로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처리로는 DPS 6/75를 이용하여 통계해석, 데이터 베이스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PBX, OA기기, 전화기 등의 리스도 이루어지고 있다.

호텔은 이 오피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British Aerospace사 등의 하이테크 기업이 모여 있으며 입주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나. 日本의 예

일본에서의 인텔리전트빌딩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으며 1984년 OA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東芝빌딩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인텔리전트빌딩은 오피스의 임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통신부문이 발달된 「임대용 오피스 빌딩」을 의미하지만 일본에서는 자사빌딩의 OA화를 중심으로 발달되고 있다. <표 5>는 일본의 주요 인텔리전트빌딩의 개요를 나타내며 이들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川鐵本社

이 건물은 日比谷國際빌딩이라고도 불리며 지상 30층의 건물이다. 건물내에는 데이터 전송로로서 「광데이터 하이웨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각층에 설치된 단말기가 건물내를 루프상으로 둘러 쌓은 광파이버 케이블에 연결된 LAN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다.

바닥배선은 단말기용의 신호선과 전원선 및 구내 전화선을 각각 별개로 배선하기 위하여 3-Way Floor 덕트 방식이 채용되고 있으며 오피스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를 하였다.

이 건물은 일본에 인텔리전트빌딩이란 용어가 도입되기 2년전부터 건설된 것으로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건물로서 광통신건물의 계속적인 탄생을 예상하게 하는 건물이다.

(2) 日立本社 빌딩

이 건물은 자사전용의 오피스 빌딩으로 광파이버 케이블에 의한 LAN이 부설되어 있으며 OA시스템외에 ID카드에 의한 식당 전산관리 시스템, 적외선 공간전반 시스템, 원문전송, 그래픽화면서비스 등이 이용되고 있다.

BA면에서는 중앙감시제어시스템에 의한 공조 및 엘리베이터의 관리, 야간전력이용 축열조의 설치 및 중수도시스템의 채용 등 자원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 있다.

일본에서의 인텔리전트빌딩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으며 1984년 OA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東芝빌딩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인텔리전트빌딩은 오피스의 임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통신부문이 발달된 「임대용 오피스 빌딩」을 의미하지만 일본에서는 자사빌딩의 OA화를 중심으로 발달되고 있다.

(3) 大手센타 빌딩

東京의 상업중심지인 大手町에 건립된 24층의 오피스 빌딩으로 입지와 내외장, 설비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 건물의 특색은 이 건물의 임대회사가 국내외의 타업소와 정보의 송수신을 생명으로 하는 기업(예 증권회사, 투자회사, 컴퓨터회사 등)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계획 초기부터 예측되어 여기에 대응하였다.

OA & C의 대응으로 정보전용 Shaft, 3-Way Floor 덕트, 플랫 케이블 등을 설치하고, OA 존을 설정하여 OA기기로부터의 소음, 발열방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장래의 확장에 대비하여 기존 용량의 2배 이상의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BA면에서는 24시간 대응하는 전자동 공조기-로보트 에어컨에 신형 댐퍼를 설치하여 외기 도입량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시스템에 비하여 30%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東芝빌딩

自社の OA화를 지향한 OA빌딩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사빌딩으로서 오피스 기능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분산처리 컴퓨터 등 약 1천대의 OA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직으로 광파이버, 수평으로 동축케이블에 의한 「TOTAL-LAN」을 구성하여 「TOTAL OA시스템」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정보통신에 있어서는 국내 전사업장의 전화를 내선화 한 통합전용 네트워크, 국내의 공장, 지점과의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종합통신 네트워크, 전국주요지점을 연결한 팩시밀리 네트워크 등이 있고,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와도 전용회선으로 통신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BA면에서는 종합감시반으로써 공조, 엘리베이터, 조명, 전력 등의 상태를 그래픽으로 표시하여 집중관리하는 빌딩설비전산기제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5) 三井 2호관 빌딩

東京 日本 橋室町에 건설된 이 건물은 일본의 임대용 오피스 빌딩으로는 인텔전트빌딩 제1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건물에는 「신형 빌딩 전화교환기」가 도입되어 있으며, 상업용 임대통신서비스를 일본에서 최초로 도입하고 있다. 「신형 빌딩 전화교환기」를 공용화함으로써 임대자는 초기투자비의 경감, 설치장소의 절약 및 임대자간의 통신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형 빌딩 전화교환기」의 이용은 앞으로 음성 및 문서등의

물의 순환이용, 자연 에너지의 유효이용, 폐열의 회수 등 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분산형 컴퓨터에 의하여 공조기의 최적운전을 도모하고 인간의 존중과 관리의 효율화 추구하고 용도에 따른 자유스런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송 서비스 및 각종 OA기기를 디지털 회선으로 한 LAN의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6) IBM 大和研究所

컴퓨터 기업의 연구시설에 상응하는 최첨단의 하이테크성, 인텔리전트성의 개념을 살린 지상 6층, 지하 1층의 건물이다.

이 건물의 특징은 「IBM 배선시스템」과 「IBM 오피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LAN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선의 총길이는 광파이버 케이블을 포함하여 30만m에 이르며, 장래의 확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단말기는 사원 1인당 1대가 설치되어 있다.

BA면에서는 IBM 빌딩의 집중관리시스템 「COBCS」에 의해 에너지 및 동력의 절약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건물에는 「IBM의 건물은 외관, 경제성, 기능성, 품질, 안전성이라고 하는 모든 점을 중시한다」고 하는 IBM의 건축에 대한 정책이 집약되어 있다.

(7) 아식스本社 빌딩

이 건물은 8층의 서관, 5층의 남·북관의 3동의 건물과 이들에 의해 ㄷ자형으로 둘러싸인 아트리움으로 되어 있으며 최첨단의 OA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NTT의 고속 디지털 서비스 회선을 神戶本社와 東京本社간에 도입하여 컴퓨터 정보처리 및 팩시밀리 정보의 루트가 일원화 되도록 하였고 전화의 내선화가 이루어져 있다.

배선시스템은 전관 타일 카페트와 플랫 케이블을 채용하여 플렉시빌리티를 높이고 있다.

(8) 혼다 青山 빌딩

이 건물에는 혼다통합OA시스템 「HARMONY」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 이시스템은 혼다가 전개하여 온 사무효율화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배선은 1층~16층에 수직으로 대용량 광케이블을 부설하고, 각층에는 플랫 케이블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타일 카페트를 까는 방식으로 하여 오피스레이아웃에 플렉시빌리티를 높이고 있다.

각층에는 다기능 Work Station이 설치되어 개인업무의 효율화가 가능하고 또한 ID 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 관리, 식당정산, 연락처 입력 및 출입문의 안전관리 등 일상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안전·방재의 면에서는 어떠한 재해에 대해서도 건물내의 인간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재해의 근원이 되는 요소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

물의 순환이용, 자연 에너지의 유효이용, 폐열의 회수 등 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분산형 컴퓨터에 의하여 공조기의 최적운전을 도모하고 인간의 존중과 관리의 효율화 추구하고 용도에 따른 자유스런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9) 트윈 21

大阪城 북측「OBP(Osaka Business Park)」에 건설된 트윈 21은 2동의 초고층 타워형 빌딩과 갤러리, MID극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大阪의 새로운 상징물이다. 2동의 타워형 빌딩은 내셔널 타워와 MID타워로 불리우며 지상38층, 높이

150m로서 트윈타워로서는 일본 제1의 규모이다.

이 건물에는 기존의 松下(마쓰시다)전기그룹 각사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선진기업이 입주하여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전세계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2동의 타워를 연결한 4층 높이의 공간은 갤러리로 되어 있으며 20m 높이의 탑라이트로부터 태양빛이 내리찍여 호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갤러리는 타워동의 저층부와 일체로 되어 있고, 은행, 전시실, 판매점, 음식점 등이 위치하고 있어 타워내의 계단과 더불어 많은 방문객으로 붐빈다.

빌딩의 MID극장은 최대정원이 약 6백명이며 43개단으로 이루어진 플렉시블한 다목적 홀로서 패션쇼나 강연회 등이 개최되며, 문화,

〈표 4〉 일본의 주요 인텔리전트 빌딩의 概要

건물명 회사	소재지	준공 연월	건물 개요	인텔리전트화의 내용
川鐵本社 (日比谷國際 빌딩)	東京・日比谷	1981년 11월	지상 30층 (17층~18층 사용)	• 光데이터하이웨이시스템 루프형 LAN • 神戸본사와 NTT전화회로로 접속 • 국내 중요영업소, 공장과 온라인화 • 3way floor 덕트 • 광통신 빌딩
日立本社 빌딩	東京・御茶の水	1983년 5월	자사전용 오피스 지상 18층, 지하 3층 연면적 57,500㎡	• 광케이블이용 LAN • 디지털 PBX, 텍스트(원문)전송 • ID카드시스템, 적외선 공간 • 전방 통신 시스템 •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엘리베이터群 관리시스템
大手센타빌딩	東京・大手町	1983년 9월	임대 지상 24층, 지하 4층 연면적 67,615㎡	• 정보전용 Shaft(일부 光파이버) • 전자동 공조기—로보트, 에어컨 • 엘리베이터 임대 출입구 자동 관리시스템 • 에너지절약 시스템
東芝빌딩	東京・芝浦	1984년 4월	자사 지상 40층, 지하 3층 연면적 165,675㎡	• 東芝「TOTAL」OA시스템, 고속정보전송용 광LAN • 계산정보온라인, 경영데이터 뱅크, 전자전송, 전자전화 • 번호부 역원 OA시스템
三井 2號館 빌딩	東京・日本橋室町	1985년 2월	자사, 임대 지상 11층, 지하 3층 연면적 28,513㎡	• 신형빌딩 전화교환기, LAN • 다기능전화, 음성전송, 텍스트전송 • Private 비디오텍스
IBM 大和研究所	神奈川縣大和市	1985년 6월	자사연구소 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46,187㎡	• LAN 지향 IBM 배선시스템 IBM 오피스시스템 (光케이블을 포함한 통신선연장 30만m) • 사원 1인 1단말(2,000단말) • 포물선형 루버 부착 천정등+Task and Ambient 병용 • 다기능전화기, VAV+Inventor 부하공조기 • 빌딩 설비관리시스템, 보수관리시스템
아식스 본사	神戸 포트아일랜드	1985년 7월	자사 지상 8층, 지하 1층 연면적 18,892㎡	• 光케이블LAN, 기업INS를 지향 • 디지털서버회선—데이터통신, FAX, 전화의 일원처리화 • TV 회의, 사내정보용 CCTV • 아트리움(다목적홀) • 장래위성통신용 포물선안테나 계획
혼다 青山 빌딩	東京・青山	1985년 8월	자사 지상 17층, 지하 3층 연면적 40,224㎡	• 혼다 통합 오피스시스템「HARMONY」 • 중축: 광파이버, 횡축: 플랫폼 케이블 • 장래LAN 지향, ID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식당정산시스템, 연결선명시시스템, 비디오텍스, CATV 음성응답시스템 • 분산형 컴퓨터 공조시스템

건물명 회사	소재지	준공년월	건물개요	인텔리전트화의 내용
트윈 21	大阪・東區 OBP	1986년 3월	자사, 임대 지상 38층, 지하 1층 연면적 152,746㎡	• 종축 : 광파이버, 횡축 : 동축케이블 LAN(광전송시스템) • 관내 CATV : 장래 OBP빌딩群을 연결 계획 • 다기능형 디지털 구내교환기, TV회의 시스템 • 공조 : 멀티유닛 전공기방식, VAV방식 • 빌딩 관리시스템, 엘리베이터 감시 시스템
NTT 品川 빌딩	東京・品川	1986년 9월	자사(오피스, 컴퓨터) 지상 14층,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127,896㎡	• TelCom, OA 통합시스템 • 복합 CES, 다기능 전화기, CCTV, TV회의 시스템, LAN, 데이터통신용단말 • 공조 : VAV방식, 최적열반송방식, 엘리베이터 전자동群 관리방식 • INS 모델 오피스의 실현
梅田센타 빌딩	大阪・梅田	1987년 3월	임대 지상 32층, 지하 2층 연면적 80,088㎡	• 디지털 전화교환기 공용LAN • 다기능전화기, TV전화, 조명제어시스템 • 개별분산형공조시스템 군관리 엘리베이터시스템 • 광파이버이용 컴퓨터빌딩 콘트롤시스템 • 공동임대서비스 : TV회의실, 음성전송 외부 데이터 베이스
KI빌딩 (鹿島 인텔리전트 빌딩)	東京・港區	1989년 3월	자사전용오피스 지상 : A棟5층, B棟9층 C棟2층 지하 : 각棟1층 연면적 29,553.26㎡	• 인텔리전트빌딩 종합관리용 소프트웨어 (IBOS; Intelligent Building Operation System) • 이사네트LAN Net/One(케이블길이 12km) • 빌딩群관리 소프트웨어(KEBEC) • 빌딩내 정보서비스 • 공동업무 지원소프트 : 전자전송, 전자전화번호부, 스케줄관리 • 조명 : 원격제어, 주광이용제어, 군동조도제어 • 디지털 PBX, 공통선신호방식, 음성전송 • 3way floor 덕트+플래트와이어 • 아트리움, 루프가든

정보도시로서의 OBP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부지에는 약 5백그루의 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大阪城을 향하여 전개된 프라자는 시민의 휴식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정보시스템으로는 21세기의 오피스공간에 어울리는 고밀도·고품질정보전달 네트워크「광LAN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타워중앙을 가로질러 광파이버로 연결되어 있으며 영업정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CATV, 비디오텍스, 방법·방재의 감시 등 쾌적한 오피스 공간을 위한 정보치이른 별계동의 파이버·동축케이블로 내용하고 있다.

공기조화에서는 종래의 층별공기조화보다 1~2단계 앞서가는 방식으로 1개층을 4개의 존으로 분할하여 각 존마다 정도높은 제어가 가능한 층별공기조화 시스템과 창전면취출의 전공기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플로어덕트로는 단면적인 일반적인 플로어덕트의 약 5배나 되며 각 층에 전화회선으로 환산하여 약 400회선을 수용하는 헬렉덕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량이 아주 많을 뿐만아니라 어디에서나 회선의 연결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공기조화에서는 종래의 층별공기조화보다 1~2단계 앞서가는 방식으로 1개층을 4개의 존으로 분할하여 각 존마다 정도높은 제어가 가능한 층별공기조화 시스템과 창전면취출의 전공기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컴퓨터의 단말기 접속, 사무소간의 데이터 교환 등의 LAN 구축이 가능하다.

150m가 넘는 옥상에는 TV국 3국이 설치한 TV카메라, 각종 수신용 안테나, 내쇼탈타워 2층의 파라스닉스퀘어와 광파이버로 연결한 TV잠망경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주통신시대에 대비하여 포물선안테나 설치공간도 확보하고 있다.

(10) NTT 品川 빌딩

오피스 빌딩과 컴퓨터 전용빌딩의 2동으로 된 첨단인 OA빌딩이다.

정보·통신시스템에서는 Telecom계와 OA계를 통합한「텔리콤 OA통합시스템」에 의한 기업의 INS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텔리콤계에는 신형 빌딩 전화교환기, 데이터 통신용 단말기, TV 회의 시스템, 다기능 전화기 등에 의한 INS 서비스, OA계에는 광파이버 케이블에 의한 LAN의 구축, 업무추진관리, 정보검색 등이 도입되어 있다.

BA면에서는 제어분산형 중앙관리방식에 의한 빌딩관리시스템, 전자동 군관리방식에 의한 엘리베이터 시스템, 최적열반송방식에 의한 사무실 공조의 조절 등이 도입되어 있다.

(11) 梅田(Umeda)센타 빌딩

이 빌딩은 최신의 디지털전자교환기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네트워크」, 「광 LAN에 의한 빌딩설비의 컴퓨터 제어」와 「주컴퓨터」를 연결하여 “종합네트워크”를 구성한 일본 최초의 건물로써 전정보의 일원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일본 최초의 인텔리전트 빌딩 임대서비스를 위한 전문회사 「인텔리전트·서비스·梅田」을 설립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각종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간계획의 면에서는 오피스에서의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고 심리적으로도 쾌적한 오피스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부지면적의 약68%를 개방된 공간으로 하여 도심빌딩에서는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든오피스를 탄생시켰다. 또한 포트갤러리 「포트하우스 梅田」과 1천명 수용의 다목적홀 「梅田크리스탈홀」 및 「아트리움」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건물은 기준층의 유효율이 84%를 넘고 초고층건물로서는 일본 최초로 전면유리의 커튼월 외장을 하는 등 임대빌딩으로는 높은 수준의 건물이 되어 있다.

오피스공간은 3.2×3.2×높이 2.6m의 모듈을 집무를 위한 최소생활공간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보, 공기조화, 조명, 방재 등이 집약되어 있어 업무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오피스공간의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건물의 모든 설비는 임대자의 다양한 요구에 플렉시블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임대자는 종합네트워크를 통하여 전화로서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얻을 수가 있다. 설비의 각 시스템은 바닥면적의 1/4을 최소기본단위로 하고 있다.

난방열원으로는 히트펌프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으며 바닥면적의 1/4기본단위마다 히트펌프의 실외유니트를 발코니에 설치하고 실내유니트는 천장내에 설치하고 있다. 외기량은 실내 CO₂ 농도로 조절하고 동시에 전열교환기로서 열회수를 하고 있다. 또한 운송도는 컴퓨터에 의하여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다.

중축과 동선을 담당하는 엘리베이터는 대기시간제어방식인 새로운 「군관리엘리베이터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1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대기하는 인원수와 엘리베이터 내의 인원수를 계속 감지하여 대기시간이 짧도록 하는(평균 약 15초) 운전운을 한다. 또한 안전에 대하여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앙감시설비는 각 기능에 맞도록 컴퓨터를 분산배치하고 광케이블로서 루프형태로 연결하여

신뢰성이 높은 컴퓨터제어를 실현하고 있다.

임대자는 종합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로서 「Display 부착 다기능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전화기는 콤팩트하게 되어 있으며, 전화기능, 터미널기능, 워드프로세서기능, 퍼스컴 기능을 하나로 묶은 복합퍼스널 OA 기기이다. 거주자는 전화나 퍼스컴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공기조화의 온도조절, 조명의 점멸, 임대 회의실의 조화나 예약, 휴일출근이나 잔업의 보고 또는 빌딩관리회사로부터의 정보나 건물내외의 각종 안내정보를 이 1대의 전화기로서 받아볼 수가 있다. 또한 이 건물은 동경의 「대수센터빌딩」과의 “TV회의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12) KI(鹿島인텔리전트) 빌딩

東京 港區에 건설된 이 건물은 자사건물을 대상으로 한 인텔리전트 빌딩의 기본방향과 그것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물은 일본 오피스빌딩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업무환경을 인텔리전트 빌딩에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설계엔지니어링업무의 핵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활동의 공간은 이 빌딩의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하여야 하므로 이것을 위하여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회의실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브라우진존을 포함시켜 넓은 공간을 확보하였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정보통신시스템으로써 1인 1대의 내선을 할당하는 다기능전화기를 중심으로 한 전화회의, 음성전송시스템 등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

문서정보의 합리화로 문서나 자료는 워크존의 시스템가구, 자료코너, 자료센터의 3단계로 설계된 수납스페이스에 정리되어 있으며, 오피스 근무자의 노력으로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설계업무나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도 충분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임대서비스도 「사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장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나 조직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실용도), 가구, 건축설비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컴퓨터소프트, 임대서비스 등에 대하여 그 종류, 형식의 호환성, 다양성, 설치변경에 대한 이주·이동법, 부랑변경에의 대응성을 높이려고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였다.

장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나 조직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실용도), 가구, 건축설비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컴퓨터소프트, 임대서비스 등에 대하여 그 종류, 형식의 호환성, 다양성, 설치변경에 대한 이주·이동법, 부랑변경에의 대응성을 높이려고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였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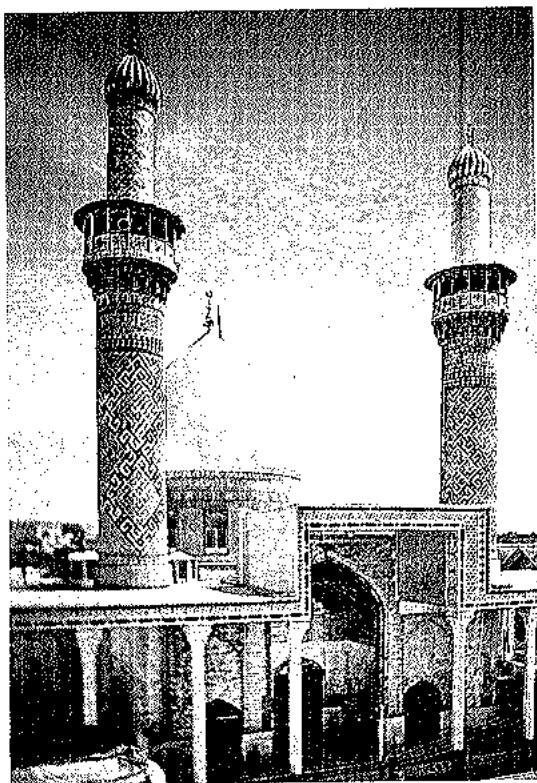
1. 鹿島出版會：インテリジェントベベルの計画, 1988年
2. 對馬義幸：インテリジェントベベル, 日本經濟新聞社, 1986年
3. 殿垣内泰平：インテリジェントベベルとは, 建築設備, 第419號, 1986年 2月
4. 笹沼勇男, 柳喜湖：インテリジェントベベル建築設備計劃上の留意點, 建築設備, 第419號, 1986年 2月
5. 島貫 崇：インテリジェントベベルの設備システム, 建築設備, 第419號, 1986年 2月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8)

Tour of Mesopotamia Architecture

裴元泰 / 建築건축구조연구소

by Bae Won-tae



1. 황금으로 만든 지붕 Golden Mosque

1. Golden Mosque

바그다드(Baghdad)와 그 주변지역에는 옛날의 모스크(Mosque)가 많이 남아 있다. 바그다드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지방의 어느 도시나 마을마다 모스크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마을이나 도시의 필수적인 건물로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서기 634년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군이 이라크를 지배한 이래 이슬람교는 이라크에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마호메드가 죽은 후의 후계자 싸움은 많은 순례자들을 낳았다. 순교자들의 무덤에는 모스크가 서고 오늘날에도 많은 신남선녀들의 순례가 그치지 않는다.

어느 곳을 가나 마을마다 산재해 있는 이슬람 문화의 심벌인 장려한 모스크들은 채색타일이나 흙벽돌 혹은 금박을 입힌 모스크의 돔과 미나렛(Minarets)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고 들은 것으로서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며,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모스크의 지붕을 금으로 씌워 만들었다는 것이다.

거짓말로 '우리집에 금송아지 있다'라는 말은 들은 적 있어도 거대한 건물의 지붕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거짓말로라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금으로 지붕을 만든 모스크, 그것이 사실일까 진짜 금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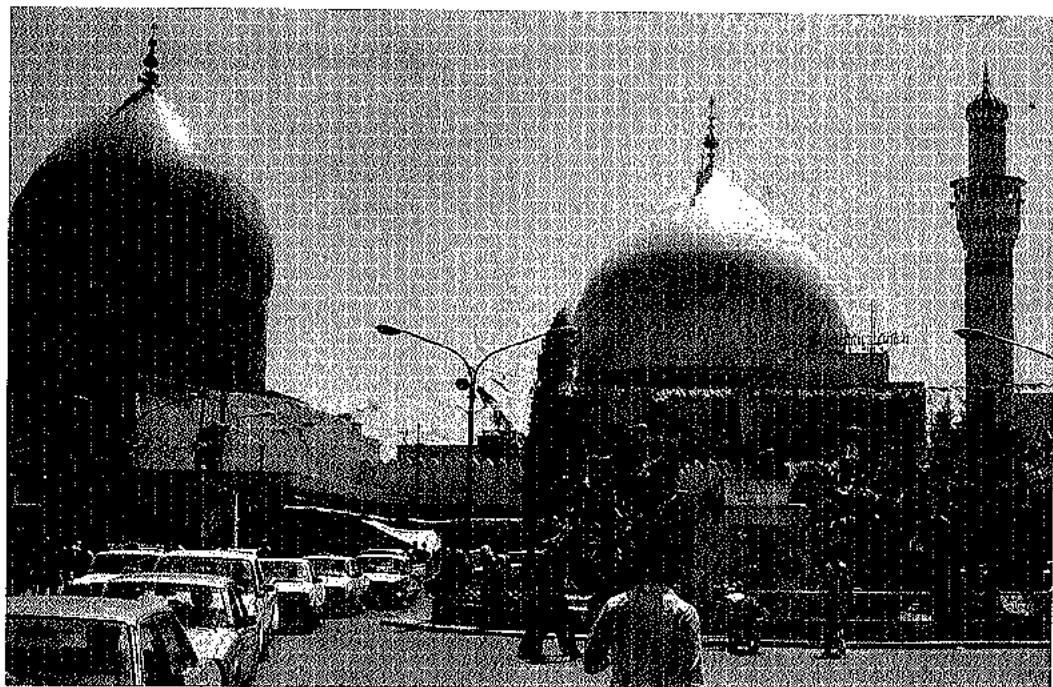
「Golden Mosque」라고 하지만 이름이 Golden Mosque인지 금박으로 금도금한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라가서 만져 볼 수도 없는 일이며, 모스크 주위를 돌며 유심히 살펴 봤다. 쳐다만 보아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강렬한 햇빛에 유난히 반짝이는 금으로 씌운 Golden Mosque의 Dome, 지붕이 금이 아니면 오랜 세월의 비바람과 햇빛에 녹이 슬텐데(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지붕의 돔처럼 녹이 슬고 우중충하게), 강렬한 태양과 비바람의 오랜 세월 약 4백~5백년 동안 전혀 녹슨 흔적도 없으며, 금방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방 어디서 보나 황금빛으로 반짝 반짝거린다. 이 모스크의 지붕은 진짜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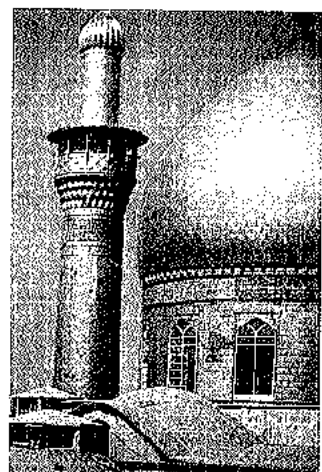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Golden Mosque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색 변함이 없는 건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가장 변질이 되지 않는 재료가 금이니까.

이 Golden Mosque가 금이 어느정도 함유되어 사용됐는지, 금인지 금으로 도금 정도된 것인지 확실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해를 걸쳐 그 후 영국의 귀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따져본 결과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으로 씌워진 지붕은 여러개 조각의 타일과 같은 사각모양의 타일들로 붙여져 있다. 그 타일 한장의 크기는 16×10인치(40.6cm×25.4cm)의 크기로 만들어져 있으며, 한장은 금관(금으로 만든 왕관)10개의 값어치가 되는 것으로서, 전부 약 3천개가 소요되었다. 금으로 표면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Golden Mosque는 현재의 Ira의 4곳, 즉



2



3

Wajaf Karbala Baghdad의 Al kadhmain, 그리고 Samarra에 현존하고 있다.

2. Karbala-Golden Mosque

이 Karbala의 모스크는 「이라크 사람들의 천제적인 건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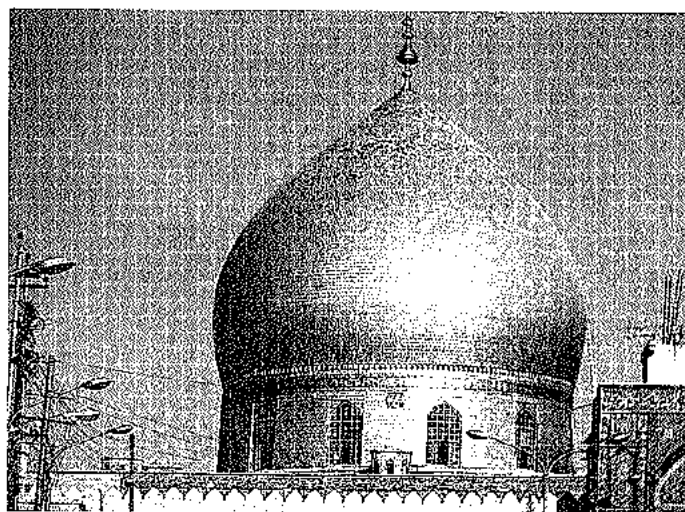
카르바라는 바그다드로부터 102km 나사프로부터 78km, 힐라로부터 43km 떨어져 있는데 타르를 바른 길을 따라 카르바라에 다다를 수 있다.

카르바라는 종교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왜냐하면 서기 680년에 창시자 모하메드의 손자인 이맘 알 후세인이 카르바라에서 그의 동생인 알아바스와 함께 순교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무덤은 금으로 입혀진 돌을 가진 두개의 중요한 사원안에 있는데 그 사원의 내부는 다양한 색상으로 된 타일과 유일로 세공되어 있고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들의 무덤은 이라크 건축의 진수를 보여 주며 금을 입힌 돌과 침탑을 가진 사원의 예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이슬람 건축의 신비스런 것들 중의 하나이다.



1

저층 스카이라인에서 모스크의 둠반이 우뚝 솟아 황금빛 둠이 강렬한 태양빛에 유난히 반짝이는 것이 이 도시를 찾는 사람의 첫인상이다.

Golden Mome의 크기는 둘레가 68m, 두개의 Golden미나렛의 높이가 36m이다. 미나렛의 높이가 36m이면 최근의 구조물과 비교한다면 공장의 높은 굴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여도 여간 잘 시공하지 않고서는 금(Crack)이 가고 견고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전혀 쓰지 않고 순 흙벽돌 조적조로서 이러한 높은 36m나 되는 굴뚝과 같은 침탑을 그것도 현대가 아니고 그 옛날 축조되어 견재하고 있다는 데에 관심이 간다. 몇백년 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견디어 오고 있는 것이 놀랍다.

- ① Najaf에 있는 Golden Mosque 전경
- ② 사마라市에 있는 Golden Mosque 전경
- ③ 측면 상세
- ④ Golden Mosque의 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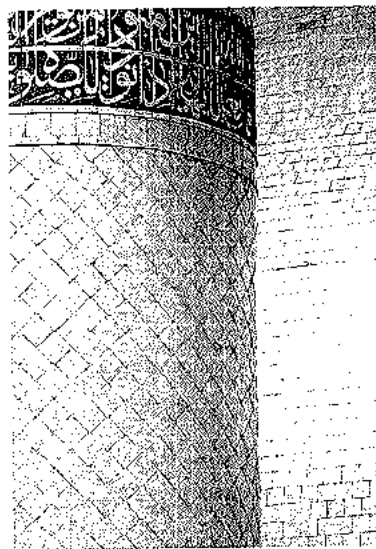
3. Samarra-Golden Mosque (The Askai Shrine)

이 사마라의 Golden Mosque는 사마라의 대모스크가 있는 사마라市의 한 가운데 있는 모스크이다.

이 도시에 진입하려면 몇십리 밖에서도 도시의



5



6

- ⑤ Kelabela 거리
멀리 Golden Mosque가 보인다.
- ⑥ 황금 타일로 된 Golden Mosque의
천장과 지붕 Dom의 외부상세
- ⑦ 견고하고 웅장한 무역센터의 지붕구조
각 Vaults들 사이에는 환기와 채광이
되는 Sky Light의 창이 설치되어 있다.



8

2.14세기의 무역센터「Khan Murjan」

중동 최대의 古代도시 바그다드의 전통적인 중심가에는 그 옛날 바그다드의 추억을 말해주는 듯 대상숙 하나가 남아있다.

그것은 「칸 마르잔」(Khan Mujan)이라고 불리우는 건물로 현재는 전통적인 고급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이것은 14세기의 대표적인 「엑셀런트」한 건축물이라고 한다.

건설연대는 14기인 AD.1358년 Govenor인 Anninal Din Mirjan에 의해 건립되었다.

이것은 2층으로 된 벽돌조적조 건물로서 중앙에는 거대한 조적조 Vaults들이 바닥에서 14m의 높이로 축조된 높고 큰 공간으로 이라크의 엑셀런트한 조적건축의 특징이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630여년전에 지은 조적 건물로서 당시의 웅장하고 견고함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불멸의 건축이라 생각된다.

이 건물은 건설 당시인 14세기에는 Tyading Center와 상인들의 숙박소 역할을 했던 대상들의 상업센터였었다. 오늘날의 무역센터와 같은 그 전신으로서 14세기의 「무역센터」였던 것이다.

지붕의 견고하고 웅장한 구조는 벽돌조적조의 Vaults로 축조되었는데 그 각 Vaults들 사이에는 양쪽 방향으로 환기와 채광이 되도록 Sky light와 창들이 설치되어 있다.

2층에는 발코니가 있고 중앙의 큰 홀의 양쪽 Side에는 작은 방들이 연속되어 있어 작은 아치의 개구부가 그 작은 방의 출입구이다.

큰 홀의 주위 사방의 Side(회랑)에는 작은 방들이 수 없이 연속되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방들의 출입구가 Arch로 되어있다. 그런데 코너에 배치된 방의 출입구의 개구부 형태가 아주 특이하다.

Arch가 연속되어 가다가 코너 개구부에 가서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진에서와 같이 그 처리를 Arch면도 그대로 벽면과 같이 꺾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악조건의 건축 Design 상황이 오히려 더욱 이뻐 보이는 Arch가 되었다.

이러한 큰 Han Side의 작은 방들의 내부에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도시 특유의 분위기가 가득한 카펫트와 장식물들이 놓여 있어 마치 그 옛날의 천일야화를 듣는 듯한 분위기이다.

이 건물이 약 630여년 동안 아라비아 대상들의 사랑을 받아온 건물이었듯이 필자가 6년전에 보았을 때나 1988년 9월 또다시 찾아갔을 때나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몇 백년 이상 서민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사용되고 있는 건물. 그것은 자연과 인간은 변하여도 건축은 불멸이라고나 할까.

이 「Khan Murjan」을 나오면 가까운 곳에 전통적인 시장이 끝없을 듯한 미로의 골목을 거느리고 자리잡고 있다.

이 시장의 조적조 Vault의 구조를 한번 자세히 살펴 보는 것이 흥미있었다.

사진에서 보듯이 주 구조체는 벽돌 조적조 vault들이다. 이 vault와 vault사이에는 즉 다시 말하면 주 아치와 아치 사이에 벽돌 Vault가 직각으로 설치되어 그 중앙에는 구멍을 설치하여 환기와 채광이 되도록 되어 있다.

순벽돌로서만 지붕을 형성하여 신기하게 보이지만 쳐다보면 벽돌 쌓은 자체가 한장 한장 그대로 노출되어 보이므로 보이는 Vault 모양대로 쌓기만 하면 되는 구조이다.

벽돌 각장의 쌓기 모양에 따라 이름나운 연속문양이 형성되기도 한다.

순 벽돌로서만 만든 튼튼하고 아름다운 오밀조밀한 전통적인 시장 건물이다.

구조체 자체가 건물의 전부를 이루고 구조체 자체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며 구조체 자체가 기능적인 공간을 이루고 있었다.

1. 벽돌 평 슬라브

벽돌로써 평평한 바닥의 슬라브를 구축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기이한 일로 생각될 것이다.

사진은 이라크의 아주 시골의 어느 촌락에 갔을 때 주택을 짓고 있는 도중의 슬라브를 쳐다보고 찍은 사진이다. 바닥을 이루는 것으로 벽돌로 짜여져 있다. 축조 방법은 철재 앵글이나 작은 I 법 같은 것을 일정 간격으로 걸치고 그 사이를 벽돌로 끼워 넣는데 그 벽돌은 약간 위가 배가 부르도록 끼우는 것이 노하우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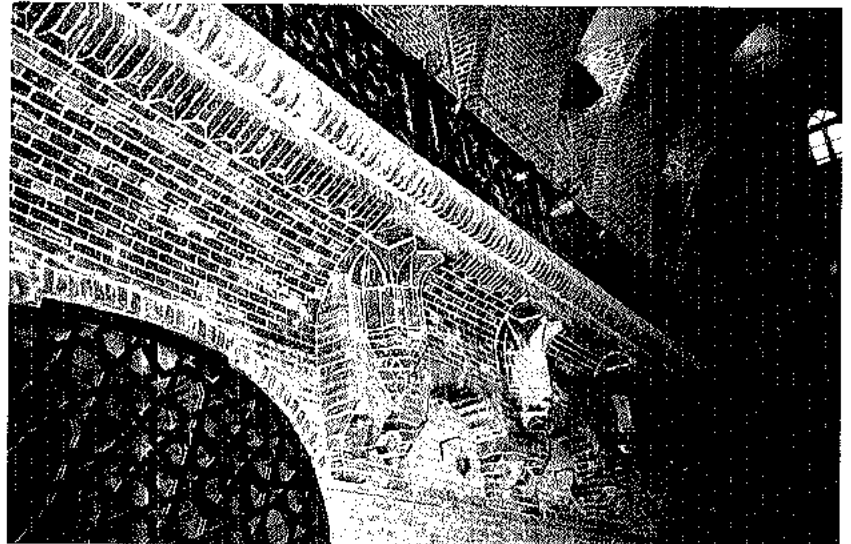
넓은 대륙 지방의 벽지 시골에도 누구나 손쉽게 이렇게 견고한 벽돌 조적조 평슬라브를 짓고 있는 것이었다.

다른 도 하나의 사진은 시가지의 주택으로서 벽돌 발코니 슬라브의 축조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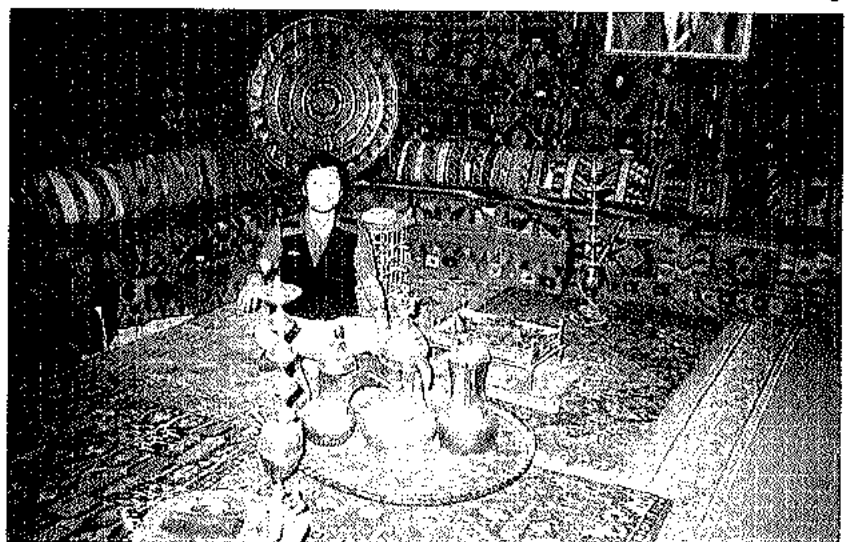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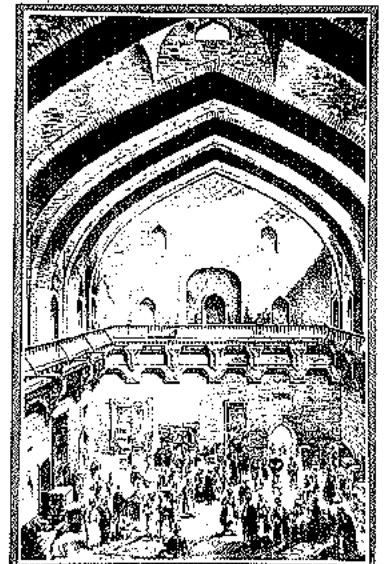
즉, 벽돌로써 켄터레바(Canti Slab) 슬라브를 만든 것이다.

이것 역시 철재 Angle이나 I 법을 걸쳐 대고 그 사이를 벽돌들로 끼워 중앙이 약간 배가 부르도록 빗대어 쌓은 것이다.

이곳의 조적조 집들이 대부분 이렇게 바닥 슬라브로 만들어지고 벽돌로 Canti Slab를 간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으로 보인다.



- ⑧ 내부 벽에 설치된 구조물
- ⑨ 카라반들의 상품 거래소의 속으로 쓰였던 14C 무역센터 내부
- ⑩ 무역센터에 있는 작은 방
아라비아인 나이트의 도시 특유의 카펫과 장식물들이 놓여 있어 마치 천일야화를 보는 듯한 분위기이다.



衣 · 食 · 住와 民度

朱命錄

(주)인원건축사사무소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인생살이라는 것은 「衣 · 食 · 住」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령 인생을 살아가는데 천재지변 등의 급박한 사태가 돌발하여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요행히 살아나오게 된다면 우선 물과 먹을 것은 찾게 될 것이며 허기가 가신 다음에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식처를 찾게 되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순서요 지혜일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학문이다 예술이다 하는 것은 생활이 최소한도라도 안정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에 비로소 찾게 되는 것이고 인생살이를 즐기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생활이 급박 극심하게 돌아가면 생명연장의 본능적 욕구 외에는 다른 여념이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인생살이를 하는데는 확실히 서양의 문물이 더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월등히 많다고 느껴진다.

지금으로부터 110여년전의 일본 明治시대 초기, 일본의 識者들이 눈을 크게 뜨고 전세계를 바라다 보니 모든 면에서 서양의 문물이 자기네 보다 월등히 발달되어 있으며 자기네가 너무나 뒤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맹렬하게 서양문물의 모방, 흡수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한다. 서양사람들은 이런 일본인들을 남의 흉내만 잘낸다고 해서 「몽키」라고 비웃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인철도 부설 14년전 일본에서 처음으로 동경과 요코하마간에 철도를 부설할 때 미국에다 설계부터 기자재 일체를 주문했는데 「바라스」라는 것이 견적서에 들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당시는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나 선진 미국에서 작성한 견적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몰랐다가 무식한 「촌놈」 취급 당할까봐 덮어두고 그대로 발주했었다고 한다. 주문한 물자가 도착되어 검수하다 보니 문제의 「바라스」라는 것이 철로 침목 밑에 끼는 자갈이었다는 것이 일본의 鐵道史에 실려 있다고 한다. 일본에도 무전장 있는 자갈을 귀중한 국고를 낭비하며 미국에서 수입해온 결과가 되어 몹시 난처한 입장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등으로 고찰해 볼 때 그 당시의 일본이 얼마나 시대사상에 휩싸여 있었단가를 짐작해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서양 것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어서 흡수 소화시켜서 자기네 피와 살로 삼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던 일본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오늘날 서양에 경제대국으로서 많은

공산품과 첨단기술까지 수출하게 됐으니 今昔之感이 무량하며 우리도 他山之石으로 하여 손해볼 것이 없다고 본다.

여기에서 우리의 「衣 · 食 · 住」를 생각해 본다.

우리의 衣생활은 별 저항 없이 남녀 다같이 급속도로 서양화 되어가고 있다. 평일에 젊은이가 한복을 입고 있으면 무슨 일이나 있는 사람처럼 오히려 기이하게 보일 정도이고 노년층이나 부녀자들만이 우리 한복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복에 비해서 양복은 간편하고 모양도 좋으나 보온면에서 본다면 한복 솜옷도 버릴 것이 못되며 밀이 축쳐진 남자들의 비지는 몸에 달라붙는 양복바지에 비해서 남자의 중요한 부위에 적잖은 공간이 생겨서 중요한 一物이 적당히 냉각되어 남성이 강해져서 우리네 부인들을 즐겁게 해 주었을 것이라고도 한다. 또한 여자들의 한복은 가히 천재적이라 할 수 있는 색상 및 선택 또는 치마저고리의 조화있는 맞춤과 부드럽고 아름다운 여체의 선은 천하의 일품이라 아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여자들도 하의는 네댓가지 종류를 겹쳐 입었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하의의 가짓수가 가장 많았던 민족은 불란서 여자들이었다고 하며 무려 9가지 종류를 겹쳐 입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숙명적이라 할 수 있는 여자들 특유의 악취가 빠져나가기 어렵게 돼서 코를 싸쥐게 되는 형편이 되니 사랑의 접촉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사랑은 해야만 살겠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 끝에 창출해 낸 것이 향수라고 한다. 이걸로 냄새를 상쇄시키고 또한 정감을 자극시켜서 농도 짙은 사랑을 즐기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향수 제조기술로는 불란서가 세계 제일이고 부녀자들이 파리의 고급향수에 사족을 못쓰는 것도 알만한 일로서 이해가 간다.

여름철의 모시옷은 우리 풍토가 창출해 낸 걸작품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며 생활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남자들의 옷을 일본옷과 비교해 보면 그네들의 벌렁벌렁한 옷에 비하면 한복은 두루마기만 벗어버리면 활동하기에 간편하고 보온적이며, 여름철에는 마포나 모시옷으로 그네들보다 더 시원하게 살아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원래의 옷이 벌렁벌렁하여 활동에 불편을 느껴서 연구해 놓은 것이 소위 몸빼라는 작업복이다. 2차대전시부터 우리나라에도 일본인들이 방공연습시 부인들에게 입기를 권장하면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여 종전시까지에는 성인 여자의 대다수가 입었다고 기억된다. 요새 모양의 몸뚱이는 변형된 것이며 원래의 몸뚱이는 두다리의 통이 대단히 크며 허벅지 부위에서부터 크게 터져 있어 펄렁펄렁한 허벅지 밑의 옷자락을 걷어 올려서 이 몸뚱이 속에 구겨서 집어넣게 되어 있었으며 윗쪽 끝에는 양쪽에 긴 허리띠가 붙어 있다.

「食」은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데 절대 필요하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 맛을 음미함이 하나의 「樂」에 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풍요롭지 못한 여건 때문에 오랜 세월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궁핍한 생활을 해 왔다. 그래서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食生活」에서 樂을 찾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食」이란 것은 사고 능력이나 성격, 인품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 고급음식을 맛있게 즐기는 민족들은 우연일지도 알 수는 없으나 위대한 발명가나 문호,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반해서 거칠고 자극성이 심한 음식을 상식하는 족속들에게서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오늘날 까지도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만 해도 선두 주자이기는 하나 개도국 대열에 속해 있던 일본이 그후 노벨상 수상자가 4,5명 배출됐는데 작년에 노벨상위원회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인의 수상자는 50년후에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불쾌하고 억울한 감이 들었으나 꼭 참고 열심히 노력하는 길 밖에는 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다.

자극성이 심한 음식을 상식하는 민족은 진취의 기상이 약하다는 설이 있고, 또 담백한 음식을 먹는 민족에게 정복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도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버마 등은 카레 등의 눈물이 흐를 정도로 매운 음식이 많았던 데다 타국에 의해서 정복당한 경력들이 있는 나라들이다. 또한 자극성이 심한 음식을 섭취하는 족속들이 생산한 공산품은 저질품이 많고 특히 마감상태가 좋지 않으며 색상도 세련되게 조화된 것이 별로 없고 저질 「데코레이션」을 좋아한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모델로 해서 볼 때 前述한 말들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게도 들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중의 한 나라이면서도 세계 각국이 우리를 보는 눈이나 현재의 우리 발전상이나 국력이 前記한 나라들과는 완전히 차이를 나기 때문이다.

8.15전에는 前記한 나라들과 우리나라도 사정이 대동소이했고 8.15후에도 독립 건국의 똑같은 순서를 밟아 왔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필목할 발전과 국력의 신장을 이룩하였으며, 그들 나라보다 자원면에서 열악한 실정이면서도 이 대업을 일구어낸 것은 필시 타민족에 비해서 특출한 점이 있는 까닭이 아닐까 생각된다.

8.15전에 일본의 세계적인 재벌 마쓰시타그룹의 경제연구소 연구원이었으며 한편 일본 육군참모본부의 독일패전날짜 연구책임자였고 현재 아오야마가꾸잉대학 교수를 거쳐서 일본 최고 수준의 시사평론가이기

과거에 군국주의 기치아래 죄를 저질러 놓은 국가가 그들 주변에 1,2개국 이 아닌데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레 오금이 저린 말을 하는 것은 엄살만이 아니고 장래를 예견한 일본 識者層의 심각한 우려의 표명이 아닌가 추측된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으로서는 남북한이 지금처럼 서로 다투고 비방하는 상태가 한없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며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통일되어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강국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도 한 「이노끼 마사미찌」란 학자가 모 월간지에서 남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통일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으나 통일이 실현된 날에는 무서운 반일국가가 일본의 바로 곁에 탄생하게 된다고 경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의 기사를 전에도 일본 유력 월간지에서 본 일이 있는데 이런 논지를 분석해 보면 일본주변 5, 6개국중 가장 경계해야 하는 나라는 통일된 한국이란 뜻이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능력과 어떤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된다. 우리 민족이 무능하고 별볼일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네들의 기질로 보아서 논급할 필요조차 없이 무시해버리고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다.

과거에 군국주의 기치아래 죄를 저질러 놓은 국가가 그들 주변에 1,2개국 이 아닌데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레 오금이 저린 말을 하는 것은 엄살만이 아니고 장래를 예견한 일본 識者層의 심각한 우려의 표명이 아닌가 추측된다.

88올림픽 유치 경쟁 때도 일본의 유력 월간지를 보면 일본의 나고야 와 서울의 다툼은 모든 면에서 서울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대라고 일본 나고야로 결정되거나 다름 없다는 투의 논조가 전부였다. 그러던 것이 막상 서울로 결정이 떨어지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유치단이 소비한 30억엔에 달한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며 누구 말이 옳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누구는 당장 인책해야 한다는 등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前述한 일본 識者層의 발언은 아마도 이런 일로서도 큰 축하 자극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으로서는 남북한이 지금처럼 서로 다투고 비방하는 상태가 한없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며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통일되어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강국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조속히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는 일본 정객이나 관료들의 말을 예면 그대로 받아들이 순진한 우리의 처도충이나 정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모두가 흑시라도 현혹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각설하고 자극성이 강한 고추나 마늘을 으깨어서 피부에 2,3차 반복해서 바르면 멸병하던 피부가 헐어서 진물이 흐르게 되며 궤양증세가 나타난다. 고추 보다는 마늘의 경우가 더 심한데, 내장이 피부보다 강해서 견디어낼지는 모르나 위암환자가 세계 최강이라고들 하니 자극이 심한 마늘, 고추, 소금과 섭취량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사계 권위자들이 왜 이 점에 대해서 자주 목청을 높여주지 않는지 고개가 갸우뚱해 질 때가 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過하면 不及한 법이다. 우리가 이 세가지 식품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서양사람 처럼 체구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세계 최강의 운동 선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또한 최장수국도 아니며 위대한 발명가나 노벨상을 받을만큼 두뇌가 명석해지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성격이 격하기 쉽고 참을성이 약하고 단결이 잘 안되는 것도 먹는 음식과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설도 있다.

모 외교잡지를 보니 김포공항에 내리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나 일부 개교 외국인들에게는 김치 냄새가

풍진다고 한다. 김치를 일부 외국인이 좋아한다고 하니 좋은 의미로 들릴지 모르나 마늘과 젓갈 및 고추가 섞여서 발효하는 냄새는 우리가 맡아봐도 발효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는 메시지를 때가 없지 않다.

우리의 자랑인 김치를 감점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흥분할지 모르나 그게 아니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여 그 돈으로 원유, 석탄, 가스, 철광석, 원면, 고무, 농산물등을 사들여 와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실정이지 않은가. 그러므로 외국인을 많이 사귀고 어울려서 마시고 먹고 같이 놀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 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며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아끼는 우리 편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본도 부존자원면에서는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데 동경의 골목음식점이나 빠 등에 외국인들이 일본인 신발인 쥘리를 맨발에 걸치고 일본인들과 얼큰히 취해 어울려서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깊이 느끼는 점이 있었다.

우리네 대중식당에 들어가면 시설이 완벽치 못한 일부 식당은 된장국이나 김치동의 뒤섞인 냄새가 풍긴다. 양식, 일식, 중국식 식당에서도 그 특유의 냄새들을 지니고 있기는 한데 우리측 식당이 유독 심한 편에 속한 것 같다. 거기다 우리 대중음식은 세계 각민족의 구미를 당길만큼 정성스럽게 연구 조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선진국 요리에 비해서 질이나 맛이 떨어지고 자극성이 심해서 대개의 외국인이 경원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들었다. 미국 LA에서 한식식당을 경영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니 같은 동양계의 중국식이나 일식식당에는 끼니때면 백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 자기 한식식당에는 유색인종 특히 동남아인이거나 남미인과 우리 겨레가 약간명씩 들리는 실정이나 인기 없는 것에 속도 상하고 돈벌이도 별로라는 것이다. 이런 실정일 때 각각 그 상대 나라와의 인간적인 친근도에 격차가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도 든다.

맛있는 음식은 생의 즐거움과 또한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도 하는 중요한 것이다.

6.25때 인민군에게 낙동강까지 밀리던 UN군측이 인천상륙을 계기로 한참 신나게 밀고 올라갈 때 당시의 총사령관인 리치웨이장군이 참모부에 지시하여 舊 일본군의 육군 軍食책임자를 찾아내어 舊일본군의 한국인 장병들에 대한 최고 특식의 식단을 물어보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신나게 밀고 올라가는 한국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질 좋고 맛있는 특식을 공급하려는데 식성을 잘 모르니 경험자인 당신의 자문을 받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 소장은 흔쾌히 승락을 했을뿐만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한국인이 즐겨 먹는 장조림, 명태무침 등 외에 찐맛, 매운맛, 단맛, 신맛이 풍부한 특식을 일본에서 만들어서 미8군에 납품했다고 하며 이것을 먹은 덕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후 더욱 사기 충천하여 일부 부대는 압록강변까지 진격한 것은 사실이다.

인생의 즐거움 중의 하나인 여행의 재미도 따지고 보면 구경하는 재미,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재미, 좋은 술에 취해보는 재미 등이 있었는 데 진짜 재미는

온들은 겨울철에는 따습고 여름철에는 적당히 찬 맛이 좋고 한지로 도배한 흙벽은 방한, 방서의 역할도 하고 습도도 자동으로 조절해 주며 건강유지에 필요한 자외선도 적당량을 투과시켜준다. 한지를 발라놓은 문은 좀 어둡기는 하나 자외선과 광선도 투과시켜주며 한서에 대해서는 유리 이상의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있을지도 모른다.

「衣」생활이나 「住」생활의 서양화에는 별 저항없이 오히려 적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食」생활에서만은 장구한 세월의, 혀에 뿌리 깊게 스며있는 습성때문인지 맵고 짭 우리 고유의 음식을 여전히 즐긴다. 나도 그중의 한 사람으로 대다수의 우리 겨레가 그렇지 않나 생각된다. 「衣」나 「住」의 생활처럼 食생활도 대개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그렇게 해도 득이 많지 손해볼 것은 없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말이 쉽지 내 자신부터가 여의치 않다. 마늘은 잘 모르겠으나 고추는 옛날부터 있는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라 약 400년전의 임진왜란때 도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간은 마약같은 요소가 있어서 맵게 먹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맵게 먹게 된다는 것이며, 이것을 오래 먹다보면 매운 맛에 혀가 굳어져서 맵지 않은 음식은 싱거워서 맛도 없고 구미도 당기지 않게 된다.

일본에서 도래했다는 고추가 일본에서는 거의 먹지 않는데 어떤 연유에서 우리 겨레가 극성스러울 정도로 상식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며, 문득 영국이 중국에 아편의 폐해를 가르쳐주고 침략을 한 일이 머리 속을 스쳐가기도 한다.

가난한 층이 더 짜고 더 맵게 먹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며 「맵잖은 놈이 맵게 먹고 짜잖은 놈이 짜게 먹는다」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 우스운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수년전에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의 모 유명일식집의 교양있어 보이는 주인점 주방장과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 술을 돌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음식은 낙후된 층에 속한다는 것이며 냄새와 짜고 매운 맛 때문에 국제적 식품이 되기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자기 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자신감을 갖고 외국인을 대접할 수 있어야 외국인을 어렵게 보는 습성이라든지 사대사상 같은 것도 희박해지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소개되는 한식요리나 향토요리 같은 것도 친편일률적으로 고추와 마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백년 담보 상태의 실정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한식이 발달 안된 주된 이유는 선진 외국에서는 식자층이 요리를 연구하고 조리도 하며 또 일류 요리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대접도 받는 풍토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식도 동 무식비천한 여자들에게만 일임하다시피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니 선진 외국에 비해서 격단의 차이가 생기게 됐다고도 했다.

우리의 의식생활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새로히 하고 열큰한 것, 매콤한 것이 맛있는 음식의 대명사가 되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걸 가지고 비국민적 언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 요리 발달을 저해하는 생각이며 또 너무나大海를 모르는 편협된 생각이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먹을 것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해두고 두 다리 쪽 뻗고 잠잘 수 있는 「住」이야기로 옮긴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적당한 온도로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 문제는 먹는 것 다음으로 인생살이에는 중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경작하게 되면서부터 일부 호족층 외의 일반 서민은 주로 초가집에서 살아왔다. 이 초가집은 그런대로 생명 유지에는 별 지장이 없었던 것 같다. 온들은 겨울철에는 따습고 여름철에는 적당히 찬 맛이 좋고 한지로 도배한 흙벽은 방한, 방서의 역할도 하고 습도도 자동으로 조절해 주며 건강유지에 필요한 자외선도 적당량을 투과시켜준다. 한지를 발라놓은 문은 좀 어둡기는 하나 자외선과 광선도 투과시켜주며 한서에 대해서는 유리 이상의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불과 물에 약한 결점도 있기는 하다. 지붕은 흙을 깔고 뗏집으로 이어 놓았기 때문에 방한방서에는 안성마춤인데 이것 역시 불에 약한 흙이 있다.

이런 집에서 자손대대로 살다 보니 생명 유지와 건강에는 별 지장이 없으나 규모가 작고 너무 단조로우며 좀 거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난 우리 겨레는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전 이태리 수상이던 무솔리니의 집무실은 웬만한 강당만큼이나 컸다고 하며, 기자들이 왜 이렇게 큰 방을 쓰느냐고 질문하니 일상 거처하는 방이 커야 구상하는 것도 클 것이 아니겠냐고 대답하더라는데 일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사람들이 어려서나 학생 때는 우리와 별다른 것이 없고 아이큐나 학생 때의 성적 같은 것은 오히려 우리측이 더 나은 때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우리 민족은 성적이 더 급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서 저네들은 더 느긋해지고 구상하는 것도 우리보다는 스케일이 크고 소신도 확실하고 강해지는 데 반해 우리측은 구상하는 것도 스케일이 작고 소신도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차이점은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좁은 국토와 환경과 「食」이나 「住」생활의 영향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食」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가 있으니 「住」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첫째, 옛날 서민의 초가집은 규모가 작고 깊이가 없는 평면이므로 느긋한 마음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깊숙한 방에서 심오한 사념에 몰두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깊이 연구하고 분석해 보는 훈련이 안돼 있으며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단순하고 민 장래의 일을 내다보고 신중하고 빈틈없이 계획하는 일이 서투르다.

그 좋은 예가 몇 년전에 북한의 상황이 이상하게 비치니까 신중 철저하게 조사분석해 보지도 않고 김일성이 죽었다고 일국의 장관이 경솔하게 발표해 버린 것을 보아도 짐작이 갈 것이다. 그때 미국정부는 확증이 없다고 신중한 발표를 하여 한국 정부의 자세가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둘째, 옛 초가집의 평면이 방문을 열면 곧바로 외부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항상 신경이 곤두서고 긴장되어 있으며 외부의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는 습성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

런 습성이 성격화되어 사소한 일로도 곧잘 다투고 과격해지며 자기 주변의 변화에 민감히 대처하다 손해를 자처하는 수도 있으며 신호등이 바뀌기도 전에 출발해 버리기도 한다.

셋째, 집의 규모가 작고 방들이 좁기 때문에 전가족이 한방에 수시로 모여서 서양의 「리빙룸」에서처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며 실내놀이 등으로 단란하게 지내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 있었다고 한다면 명절에 마당에다 명석을 깔아놓고 율놀이 등이 일년에 한 두번 있을 정도이니 단체생활의 훈련이 잘 안돼 있어서 단체보다는 자기 위주의 지탄받아야 할 행동을 잘 한다. 따라서 조화된 단체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몹시 서투르고 사소한 일로도 양보보다는 대립이 앞선다.

우리의 단합과 발전에 암적 존재인 이 집이 사정되자면 요원한 사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점양의 미덕을 실천에 옮길 어떤 동기가 있게 된다면 외의로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인보다 우수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단체가 되면 약해진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일 것이다.

정치능력으로는 동양 제일인자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이 5년인가 전에, 지정된 장소외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 발표하니까 공원이나 유원지는 물론 식당등의 개인 영업집에서까지도 모두 자발적으로 제털이를 치워버리고 그 이튿날부터 일사불란하게 실천이 되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雜多民族이 혼거하는 국가이면서도 이렇게 행정이 잘 되어가는 것은 영도력이 탁월한 점도 있거니와 2차대전시까지 선진 영국의 직접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높은 「民度」의 영향이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무튼 우리도 본받아서 손해볼 것은 없을 것이다. 끝으로 GNP 5000불이 넘어선 국가치고는 우리의 「民度」가 너무 낮지 않나 하는 감이 든다.

국제도시 「할빈」에서 歐羅巴쪽 몇개 민족의 중류층 정도되는 사람들의 생활 실상을 세밀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들의 GNP는 어렵잡아 평균 2000불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그 합리적인 생활상과 신사숙녀적인 행동 및 세련된 「民度」에 우리의 실정과 비교해 보며 自愧之心에 사로잡혀 몹시 측은해졌던 기억이 난다. 현재 우리나라 중류층의 생활정도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그네들보다는 물질적 면에서는 앞서 있다고 생각되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민족문화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民度」에 있어서는 그네들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타국에 비해서 크게 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고학력자도 세계 수준으로 볼 때 많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웬일인지 「民度」의 향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제성장률과 같이 단시일내에 「民度」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면 좋겠으나 이것만은 도저히 단시일내에는 따라잡기 힘든 일로 생각되며, 나라없는 설움과 낮은 「民度」때문에 천시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히 나라를 찾았으나 절반밖에 풀리지 않은 恨에 초조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중류층의 생활정도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그네들보다는 물질적 면에서는 앞서 있다고 생각되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민족문화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民度」에 있어서는 그네들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타국에 비해서 크게 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고학력자도 세계 수준으로 볼 때 많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웬일인지 「民度」의 향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1991년도 3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 3월분 1천3백65만9천2백87㎡보다 15.35%(2백9만7천3백26㎡) 감소한 1천1백56만㎡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3월분 합계 29,386,808㎡보다 26.62%(7,821,720㎡) 증가한 37,208,528㎡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 월 비	2월분 18,146,858㎡보다 36.29%(6,584,897㎡) 감소한 11,561,961㎡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 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0년도	1991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3,082,641	3,416,067	333,426	10.82%
	부산지부	1,105,994	1,146,590	40,596	3.67%
	대전지부	304,778	531,060	226,282	74.24%
	충북지부	464,724	803,127	338,403	72.82%
감소지역	대구지부	585,790	205,882	(379,908)	-64.85%
	인천지부	908,422	666,260	(314,162)	-32.04%
	광주지부	483,459	196,322	(287,137)	-59.39%
	경기지부	2,566,012	1,344,072	(1,221,940)	-47.62%
	강원지부	551,272	304,546	(246,726)	-44.76%
	충남지부	458,527	451,716	(6,811)	-1.49%
	전북지부	472,061	321,049	(151,012)	-31.99%
	전남지부	645,483	516,678	(128,805)	-19.95%
	경북지부	706,207	706,046	(161)	-0.02%
	경남지부	1,163,114	904,866	(258,258)	-22.20%
	제주지부	88,803	47,690	(41,113)	-46.30%
합	계	13,659,287	11,561,961	(2,097,326)	-15.35%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 狀態)

(연면적 기준)

(단위/㎡)

종 별	2월분	3월분	증 · 감	비율(%)
단 독 주 택	2,396,871	1,119,923	(1,276,948)	-53.28%
다 세 대 주 택	1,398,206	779,845	(618,361)	-44.23%
연 립 주 택	298,590	248,037	(50,553)	-16.93%
아 파 트	6,475,573	5,708,119	(767,454)	-11.85%
근린생활시설	3,569,391	1,551,442	(2,017,949)	-56.53%
종 교 시 설	129,414	63,876	(65,538)	-50.64%
의 료 시 설	72,224	14,110	(58,114)	-80.46%
교육연구시설	267,521	134,769	(132,752)	-49.62%
업 무 시 설	841,822	420,694	(421,128)	-50.03%
숙 박 시 설	152,113	144,689	(7,424)	-4.88%
공 장	1,716,879	918,181	(798,698)	-46.52%
기 타	828,254	458,276	(369,978)	-44.67%
계	18,146,858	11,561,961	(6,584,897)	-36.29%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3月分)

구분	신 축 · 개 축 · 제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지부	3,496	3,843	3,362,339	66	69	33,728	0	0	0	3,562	3,912	3,416,067
부산지부	1,387	1,836	1,043,196	205	276	40,296	34	40	63,108	1,626	2,152	1,146,590
대구지부	352	383	187,902	284	288	10,831	29	29	7,149	665	700	205,882
인천지부	523	638	646,645	32	34	15,214	10	11	4,401	565	683	666,260
광주지부	498	527	170,114	83	90	23,529	7	7	2,679	588	624	196,322
대전지부	571	668	498,125	37	53	24,421	62	64	8,514	670	785	531,060
경기지부	1,694	1,918	1,261,299	83	85	34,822	71	71	47,951	1,848	2,074	1,344,072
강원지부	550	613	252,052	113	138	47,893	16	16	4,601	679	767	304,546
충북지부	930	1,080	725,510	144	178	65,728	24	24	11,889	1,098	1,282	803,127
충남지부	498	533	416,297	97	97	27,443	18	18	7,976	613	648	451,716
전북지부	196	229	159,252	46	50	157,519	21	21	4,278	263	300	321,049
전남지부	438	576	486,787	92	103	25,425	21	22	4,466	551	701	516,678
경북지부	690	780	622,753	143	151	71,847	21	21	11,446	854	952	706,046
경남지부	867	1,144	829,551	184	210	70,104	21	21	5,201	1,072	1,375	904,866
제주지부	34	41	46,143	89	89	1,547	0	0	0	123	130	47,690
합 계	12,724	14,809	10,727,955	1,698	1,911	650,347	355	365	183,659	14,777	17,085	11,561,961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3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지부	13,014	13,576	7,686,191	203	218	139,785	0	0	0	13,217	13,794	7,837,976
부산지부	3,707	4,719	2,494,127	506	686	136,133	107	115	101,230	4,320	5,520	2,731,490
대구지부	3,058	3,478	2,346,014	866	911	182,978	78	80	28,459	4,002	4,469	2,537,451
인천지부	1,406	1,750	1,894,571	60	76	67,370	32	34	17,733	1,498	1,860	1,979,674
광주지부	1,312	1,387	618,970	211	233	96,179	21	21	4,792	1,544	1,641	719,941
대전지부	1,189	1,460	1,400,867	88	104	51,615	159	170	32,506	1,436	1,734	1,484,968
경기지부	8,078	9,114	6,603,559	376	409	175,962	199	199	234,366	8,653	9,722	7,013,887
강원지부	1,145	1,338	599,260	225	261	85,192	33	33	11,956	1,403	1,632	696,408
충북지부	1,825	2,166	1,376,815	268	352	146,878	73	73	22,233	2,166	2,591	1,545,926
충남지부	1,641	1,725	1,054,897	271	272	106,259	52	52	12,734	1,964	2,049	1,173,890
전북지부	1,073	1,300	1,114,189	219	240	277,153	69	71	15,118	1,361	1,611	1,406,460
전남지부	1,743	2,081	1,221,964	311	360	122,973	78	84	18,486	2,132	2,525	1,363,423
경북지부	2,445	2,959	2,013,200	496	598	380,708	51	51	40,195	2,992	3,608	2,434,103
경남지부	4,247	5,004	3,530,236	663	776	224,012	81	83	26,735	4,991	5,863	3,780,983
제주지부	959	1,149	470,877	268	269	31,051	0	0	0	1,227	1,418	501,926
합 계	46,842	53,206	34,437,737	5,031	5,765	2,204,248	1,033	1,066	566,543	52,906	60,037	37,208,528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3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6,444	6,711	1,051,791	838	887	63,673	38	39	4,459	7,320	7,637	1,119,923
다세대주택	1,544	1,670	776,538	30	30	2,905	5	7	402	1,579	1,707	779,845
연립주택	112	174	247,862	3	3	175	0	0	0	115	177	248,037
아파트	280	1,388	5,689,891	13	16	14,139	3	3	4,089	296	1,407	5,708,119
근린생활시설	3,305	3,458	1,427,110	364	382	69,489	203	206	54,843	3,872	4,046	1,551,442
종교시설	74	94	45,552	43	45	14,116	3	4	4,208	120	143	63,876
의료시설	6	6	8,606	5	7	4,797	1	1	707	12	14	14,110
교육연구시설	32	40	87,559	29	39	41,965	17	17	5,245	78	96	134,769
업무시설	83	94	332,868	40	44	33,225	9	9	54,601	132	147	420,694
숙박시설	20	25	134,114	5	6	8,219	6	6	2,356	31	37	144,689
공장	311	512	571,693	152	222	327,267	42	43	19,221	505	777	918,181
기타	513	637	354,371	176	230	70,377	28	30	33,528	717	897	458,276
합 계	12,724	14,809	10,727,955	1,698	1,911	650,347	355	365	183,659	14,777	17,085	11,561,961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3月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23,134	23,843	4,107,597	2,198	2,309	164,794	107	108	9,642	25,439	26,260	4,282,033
다세대주택	5,378	5,853	2,675,154	89	90	10,861	17	24	2,161	5,484	5,967	2,688,176
연립주택	343	498	694,216	8	8	1,499	2	2	836	353	508	696,551
아파트	750	3,425	14,005,430	32	41	91,377	10	14	7,855	792	3,480	14,104,662
근린생활시설	12,754	13,201	6,076,646	1,090	1,134	342,354	570	577	177,600	14,414	14,912	6,596,600
종교시설	275	329	199,946	115	138	44,208	9	12	4,997	399	479	249,151
의료시설	24	42	146,248	19	21	29,287	7	7	3,436	50	70	178,971
교육연구시설	100	144	326,313	93	132	139,982	53	53	18,938	246	329	485,243
업무시설	402	444	1,734,541	106	114	78,023	25	25	75,141	533	583	1,887,705
숙박시설	100	119	305,268	31	53	45,503	19	19	27,216	150	191	377,987
공장	1,628	2,722	2,574,849	663	1,004	967,049	114	121	70,161	2,405	3,847	3,612,059
기타	1,954	2,586	1,591,529	587	721	289,301	100	104	168,560	2,641	3,411	2,049,390
합 계	46,842	53,206	34,437,737	5,031	5,765	2,204,248	1,033	1,066	566,543	52,906	60,037	37,208,528

신 입 회 원



韓炳益(59年)
인천기계공고 건축
영·우진건축(종합)
인천 남구 주안 1543
424-2800



丁鍾奎(56年)
홍익대 건축
삼예건축(종합)
서울 강남 삼성 7-1
543-1031



沈祐夷(57年)
전남대 건축공
심우석건축
전남 광양 중동 1302-14
761-6940



鄭德世(58年)
부산대 건축공
(주)동방엔지니어링(종합)
부산 부산진 부전 168-451
817-3931~3



金鍾燕(60年)
인천기공 건축
메지노건축
서울 강동 성내 550-5
487-4686~7



玉仲根(61年)
동아대 건축공
도강건축(종합)
부산 중구 중앙 84-15
466-1161



李載熙(45年)
인하대 건축
성도·대화·부경 장원(종합)
부산 남구 남천 11-1
623-2277



吳淙銖(54年)
전남대 건축공
요람·조형·계명(종합)
광주 북구 중흥 806-1
523-5511



朴尙文(61年)
경북산업대 건축공
대림건축
대구 달서 성당 114-1
625-1558



沈在龍(56年)
동아대 건축공, 전북대학원
균정건축
전북 정주 연지 44-41
535-1215~6



魯炳基(56年)
영남대 건축공
삼간·공간·장원·우암(종합)
경남 울산 달동 875-19
72-9400, 74-9400



李相逸(53年)
경남공전 건축
한일건축
경남 양산 기장 92-5
362-0028~9



張洪國(59年)
부산공전 건축
인동건축
경남 울산 신정 507-2
69-6453



金大振(62年)
울산대 건축공
대영건축
경남 울산 아음 809-12
69-9200



金珍圭(52年)
울산공고 건축
동방·두산·정원건축(종합)
경남 울산 신정 661-6
69-5706~9



郭漢烈(52年)
울산공고 건축
동방·두산·정원건축(종합)
경남 울산 신정 661-6
69-9977



李相林(58年)
계명실전 건축
동방·두산·정원건축(종합)
경남 울산 신정 661-6
66-0880



金亨洙(55年)
성지공고 건축
성림건축(종합)
경남 울산 신정 176-5
71-0411



李豊基(57年)
살천포공고 건축
문화마당건축(종합)
경남 창원 중앙 70-9
81-8235



金正漢(55年)
경남대 건축
예원건축
경남 마산 중성 64-8
48-0825



柳烈圭(48年)
동아대 건축공
계원건축
경남 창원 중앙 98-4
61-8056



朴元洛(59年)
울산공고 건축
수영·원·환경건축(종합)
경남 울산 학성 13-3
96-7766



李炳煥(55年)
성지공고 건축
수영·원·환경건축(종합)
경남 울산 학성 13-3
96-9393



姜永福(57年)
동의공고 건축
동아건축
경남 김해 부원 671-8
35-4844~5



金鎬相(60年)
동아대 건축
부산·공간·목우·
전인(종합)
부산 서구 동대신 428-7
241-2271



柳基龍(56年)
부산대 건축공
아기안·효원(종합)
부산 동구 초량 1169-11
464-4115



鄭聖容(55年)
부산공전 건축
무진·기정건축
부산 동구 초량 1154-3
462-8956



玄秀鎬(52年)
인천공전 건축
홍익건축
전남 담양 담양 7
83-5321



李渥熙(55年)
성지공고 건축
기원건축
부산 동래 수안 220-2
557-2261~2



姜在文(58年)
동의공전 건축
남양건축
부산 동구 초량 1194-2
462-4500



朴鍾元(54年)
전남대 건축공
(주)창우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30-3
515-4057



金泳南(56年)
부산대 건축공, 同대학원
예인건축
부산 동래 수안 220-2
557-2262



姜賢求(55年)
조선대 건축, 同대학원
요람·조형·계명(종합)
광주 북구 중흥 806-1
522-5876



李德浩(58年)
수원대, 서울시립대학원
미래건축
서울 강서 화곡 986-3
696-5101~5



崔英權(55年)
한양대 건축공
삼부·천우건축(종합)
서울 도봉 수유 191-26
903-6433



朱鍾洛(52年)
울산대 건축
지산건축
부산 중구 중앙 18-1
465-6915



方美淑(55年)
울산대 건축
두누리건축
서울 성북 삼선 15
927-8484~5



申錫順(60年)
경희대 건축공
삼부·천우(종합)
서울 도봉 수유 191-26
903-6433



姜鎬康(58年)
원광대 건축공
한진건축
경남 진주 본성 15-2
41-8097



李昌浩(60年)
경희대 건축
이강건축
서울 강남 신사 540-21
546-2240



李聖達(58年)
원광대 건축공
대지, 아림건축
전주 완산 경원
83-3005



方大永(58年)
연세대 건축, 同대학원
장인건축
경기 고양 원당 602-1
965-0801~2



金孝式(56年)
한양대 건축공
예지건축
서울 강남 도곡 517-8
577-6368



李相潤(48年)
동국대 건축, 인하대학원
동인건축
경기 오산 오산 850-5
357-0777



權元亨(56年)
부산대 건축공
일신건축(종합)
부산 동구 초량 1153-14
462-4711~3



閔達弘(55年)
한양대 건축, 중앙대학원
예지건축
서울 강남 도곡 517-8
577-6368



宣杞澤(57年)
조선대 병설공전 건축
(요람) 조형 계명(종합)
광주 북구 중흥 806-1
523-5422



金春吉(51年)
부산공고 건축
(주)일건사(종합)
부산 동구 초량 1144-5
464-3371~3



曹洛鉉(59年)
태백건축
광주기공 건축
서울 영등포 당산 214
671-5382



金宗薰(62年)
연세대 건축공, 同대학원
(주)중원건축(종합)
서울 서초 양재 119-5
571-2721

'91 제1회 臨時總會 속개회의

'91년도 제1회 임시총회 속개회의가 지난 29일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속개총회에서는 지난 3월 임시총회에서 상정된후 미처리된 건축사연금 규정개정(안) 승인 등의 안전에 대하여 심의, 확정하였다.

이날 처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사연금규정 개정(안) 승인
- 연금회비 징수율을 현행 1%에서 0.75%로 하향조정
- '91회계년도 실적회비 전국징수율 조정 승인
- 현행 0.8%를 0.6%로 하향조정키로 함.
- '92회계년도 실적회비 전국징수율 승인
- 0.5%의 원안대로 의결 함.



大田 지역사회 발전기금 전달

大田지부(회장 宋昇鎬)는 지난달 4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大田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建築士의 위상정립을 위해 지역사회발전기금 3천만원(社) 대전개발위원회에 기탁하였다.

또한 지난 3월19일에는 시내「송정」에서 대전시장을 비롯한 시 건설국장, 건축행정계장등 건축관계공무원을 초치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제2회 영·호남 친선 낚시대회

慶南지부(회장 崔鳳亭)는 지난 19일 영·호남 회원의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2회 영·호남회원 친선 낚시대회를 개최하였다.

고성군 대가저수지에서 개최된 이날 낚시대회에는 영·호남의 회원 67명이 참석하여 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지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서로의 우의와 친선을 더욱 돈독히 하였다.



건축질서 건실화 決意大會



서울지부(회장 李文雨)는 지난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위법건축을 방지와 건축부조리 척결을 위한 건축질서 건실화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全會員이 신회받는 건축사상 구현과 건전사회 기풍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決意文

우리 建築士는 새 秩序 新生活 國民運動 實踐計劃을 위한 建築文化暢達 主體로서 建築士憲章을 바탕으로 하여 周邊의 非理를 剔決하고 遵法精神 昂揚은 勿論 意識構造 改善에 앞장서야 함을 깊이 認識하여 다음과 같이 決意한다.

1. 우리 建築士는 專門人으로서의 自矜心을 갖고 國民으로부터 信賴받는 建築士像을 定立한다.
2. 우리 建築士는 快適한 生活環境 造成을 위해 設計 監理業務에 充實하고 不法 建築行爲 防止와 工事場 周邊 整理等 環境 改善 運動을 積極 展開한다.
3. 우리 建築士는 投機를 부추기는 相談이나 過多 設計受注 競争을 하지 않고 良心과 誠實로서 맡은바 任務에 充實을 기한다.
4. 우리 建築士는 社會安定의 沮害가 되는 建築 不條理를 排擊하고 忍耐과 努力으로 健全社會氣風을 振作시켜 先進祖國을 創造하는 役軍이 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 建築士는 國民便益을 위한 建築法令 및 關係規定을 改正할 것을 促求한다.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支部 會員一同

서울市 설계용역 會員社 22개소 선정

서울시는 市 발주 건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건축사사무소 선정 방법을 기존의 현상설계방법에서 설계용역 대상업체중에서 추천에 의해 선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키로 하고 대상 건축사무소 22개소를 선정, 발표하였다.

서울시측은 지난 89년도부터 현상설계경기를 통해 실시설계자를 선정한 결과 건축사사무소의 응모기피로 인한 설계수준 미달, 공모에서 발주까지 장기간 소요(3~5개월), 설계내용 검토시간의 부족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자체 판단 아래 지난 1월24일 설계실적공모를 실시하여 2월 26일까지 10건을 접수, 시내 각 대학교수 19명을 참석

시켜 22개 대상업체를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구청사와 구민화관등 일반건축물의 경우 선정업체중 추천에 의해 용역자를 선정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및 시민관심사항 발주에는 일반 공개 현상설계경기를 통한 설계자 선정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규 용역발주방식에 따른 첫 시행대상으로 서울시립대 공대강의동을 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독점체육공원을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조에서 각각 발주되었다.

한편 발주대상 업체로 선정된 22개 회원사무소(예비업체 5개 사무소)는 다음과 같다.

• 선정업체 : 22개 사무소

번호	사무소	건축사
1	아도무 종합건축사사무소	장석웅, 정세병, 인천동
2	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	이각표, 조익수, 엄덕문
3	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	정구윤, 채두병, 홍흥기, 정종규
4	건축사사무소 그룹 가	강석원
5	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엄 용, 지승준, 윤문수
6	태양, 건일, 청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중섭, 이재관, 김용원, 김재승
7	화신 종합건축사사무소	구윤희, 채규남, 김철원
8	(주)김중업 종합건축사사무소	안병희, 윤용우, 박용만, 김동숙
9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진우, 시공	우사용, 이인세, 한현호, 김동휘
10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조	김기웅, 조현근, 전형근
11	천일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규봉, 안정일, 문수길, 안희성
12	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최병천, 이성관, 양진형
13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 스페이스 5	오기수, 이규재, 박창호
14	원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윤승중, 변 용, 장승재, 민현식
15	영 종합건축사사무소	임현언, 이영락, 김창대
16	상지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춘웅, 오원근, 정명옥
17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원건축	조성룡, 이종상, 전은배
18	동우종합건축사사무소	강철구, 김태인, 윤장철, 임근배
19	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승우, 유경철, 윤석우
20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텐, 인제	김석철, 김인철, 한영재
21	일전 종합건축사사무소	황일민, 이광호, 정동명, 김인석
22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장세양, 노원식, 정종영

• 예비선정업체 : 5개 사무소

예 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 토우, 예전종합건축사사무소, 향 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공업화 주택 국제 심포지엄

대한건축학회(회장 신현식)은 점증하는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 주택사업의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협회 후원으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건설회관에서 공업화주택 국제심포지엄 및 공업화주택 전시회를 개최한다.

총 6개분과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 및 전시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심포지엄

1991년 5월 23일(목)

- 개최식 및 기초 연설
기조연설 - 이광노 (서울대학교수)
제1분과 공업화주택 지원정책분과 10:00~12:30
제2분과 공업화주택 계획설계분과 13:30~16:50
제3분과 공업화주택 기술개발분과 13:30~16:50
• 종합토론 17:00~18:00

1991년 5월 24일(금)

제4분과 공업화주택 정책 및 기

술 특별분과 9:00~12:40
제5분과 국내외 공업화주택 생산업체 개발현황 소개
제6분과 국내외 공업화주택관련 자재업체 개발현황 소개

1991년 5월 25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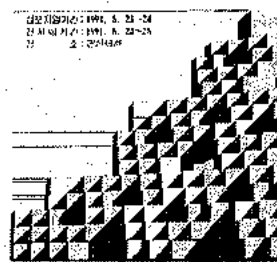
분당신도시 건설현장 견학
09:00~14:00

공업화주택 전시회

기간: 91년 5월 23일~25일
장소: 건설회관 2층 로비
전시참가업체: 국내외 35개사

공업화주택 국제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INDUSTRIALIZED HOUSING
심포지엄기간: 1991. 5. 23~24
전시회기간: 1991. 5. 23~25
장소: 건설회관



주최: (주)가나메빌
후원: 한국주택산업협회, 대한주택공사, 서울주택산업연구원, 건설교통부, 한국주택산업연구원, 한국주택산업협회, 한국주택산업연구원

佛 SFUIA 국제설계경기 개최

프랑스 건축가협회(SFUIA)에서는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국제설계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설계경기대회는 위크송드 함께 이루어지며, 주제는 「대학과 도시」이다. 프랑스 Conflans 건축학교와 U.I.A 프랑스 건축가협회가 주관하게

되며, 날짜는 9월 9일부터 20일까지이고 장소는 파리 Conflans 건축학교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이며 자격은 건축과를 졸업한(대학원)과 젊은 건축가들이 그 대상이 된다.

프로젝트 DMZ展

다리건축에서는 오는 7월27일 6.25종전 기념일에 美 Storefront 에서 기획된 비무장 지대에 관한 프로젝트 DMZ 전시 초청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8월 11일까지 서울 연희조형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프로젝트 DMZ展은 한국 정치와는 거리가 먼 건축가·화가·조각가등 일련의 작가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비무장지대의 앞날을 놓고 통일을 염원하는 개념적인 시도로 행해졌었던 전시회를 초청하여 한국에 소개함으로써 특히 화해의 무드가 고조되고 있

는 이 시점에 외국인들의 국제적인 시각을 통해 자각토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남북한 사이에 있는 DMZ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되는 시점을 향해 Cathleen Crabb을 Director로 백남준씨를 명예의장으로 하고 12명의 집행 위원회와 7명의 편집 위원회로 구성된 조직에 의해 실현되었으며 총 60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DMZ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이벤트, 아이디어 등을 겨냥하고 국제적인 포럼이자 전시회인 Project DMZ를 통해 이론적 제안을 한 것이다.



방화지구 5,6단지 조감도

방화지구 아파트 현상설계경기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한 서울시 강서구 방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영구임대, 임대근로복지및 분양아파트에 대한 현상설계경기의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76개 건축사무소에서 응모신청, 15개 작품이 접수된 이번

설계경기에서 최우수작에 범한건축사무소(대표:최광수)案이 선정되어 5,6단지 설계권이 주어졌으며 3,4단지 설계권이 부여되는 우수작에는 삼정종합건축사무소(대표:강기웅)案이 각각 선정되었다.

제4회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 대전

제4회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 대전(주최:월간 인테리어)의 대상에 문정욱, 이유경, 백강욱의 「도시의 협곡에서」가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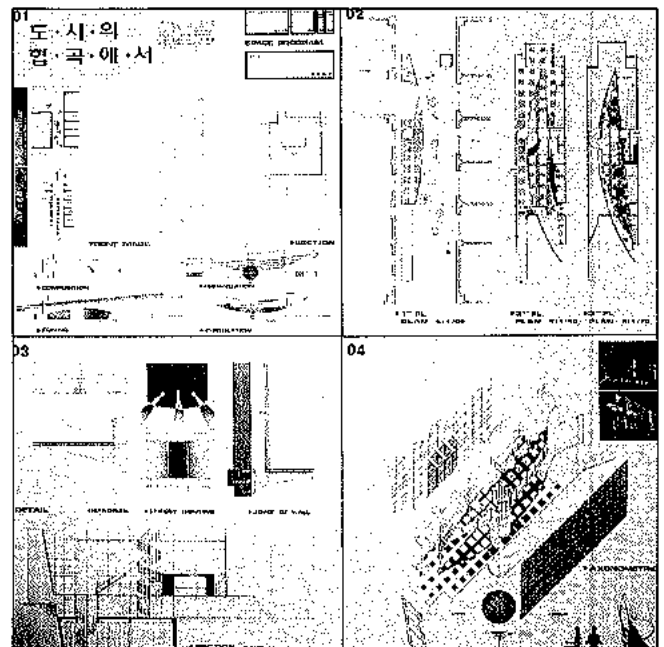
조성렬(큐빅디자인 대표)씨를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는 주제설정, 계획, 독창성, 실현성, 표현기법 등에 관심을 두고 실내디자인 치중의 작품, 사회성과 공공성 프로젝트, 작품완성까지의 정상적 프로세스 등에 착안하여 작가발굴을 위한 역량에 안배하여 심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진지하고 성실한 작업 결과로 주어진 규격 속에서 각기 개성적인 표현으로 대비전시의 효과가 잘 나타나므로서 예전에 볼 수 있었던 과대표현이나 전시테크닉 위주 작품이 없고 프로젝트 내용에 충실」 하였다고 한다.

특히 대상 수상작인 「도시의 협곡에서」는 「도심 유희공간이

슬림화 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건물과 건물사이를 개발한 프로젝트이며, 갤러리 기능과 카페기능을 같이 두어 도시민의 휴식과 정서공간으로 가치부여를 한 경우로서 공간의 효율, 거리의 표정, 빨려들게 한 파사드의 인상, 공간의 개방감, 공간이용의 플렉시빌리티 부여 등이 세련된 현대공간의 내용과 면모를 지니고 있음」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수상작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시상식은 지난 10일 본 협회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 대상: 도시의 협곡에서(문정욱, 이유경, 백강욱)
- 우수상: '녹색공간의 오브제'(이미경, 이지영)
- 특선: '표준소방서 실내계획안'(김은경, 강신재, 박운식) 외 4점
- 입선: 'STANZA'(이은경, 이종필, 조필래) 외 11점.



인테리어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도시의 협곡에서」